

Korea Maritime Institute

2012 수산전망대회

차세대 수산생명산업의 원년

날짜 : 2012년 2월 3일(금)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머 리 말

지난해는 대외적인 여건의 악화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글로벌화를 바탕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왔던 한 해였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협약을 통해 생명자원의 주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는 상기 법률이 시행되면서 수산생명산업의 원년이 됩니다. 우리원에서도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우리 수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수산생명산업화로 정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2012 수산전망대회」는 지난 2009년 이후 네 번째로 치르는 행사로서 수산생명자원의 주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인 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시점에 발맞춰 수산생명산업화를 통해 미래의 우리 수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찾는 데 큰 의미를 두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본 전망대회의 발표 자료와는 별도로 우리 연구원에서 분석한 2012년 수산부문의 여건 변화와 주요 수산지표, 어업부문별 동향과 전망, 주요 양식 품목별 수급동향과 전망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수산정책 담당자의 정책 수립은 물론 어업인들이 한 해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데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수산연구본부 및 수산업 관측센터, 글로벌수산연구실 연구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번 전망대회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과학원, 한국수산회, 수협중앙회,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마사회 등 관계기관의 담당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 학 소 원 장

집 필 진

제 목	집필책임자	참여 연구진
총 괄	김 정 봉 본 부 장	
제 1부 2012년 수산·어촌의 비전		
제 1 장 수산부문의 여건 변화와 이슈	최 성 애 연구위원	엄선희 전문연구원 임경희 전문연구원
제 2 장 2012년 수산부문 전망과 과제	홍 현 표 글로벌수산연구실장	이현동 전문연구원
제 3 장 어가경제의 동향과 전망	이 승 우 연구위원	윤상호 연구위원 최성애 연구위원 박상우 전문연구원 김봉태 전문연구원
제 2부 수산부문별 동향과 전망		
제 4 장 연근해어업의 동향과 전망	정 명 생 어업자원연구실장	김대영 부연구위원 이정삼 전문연구원
제 5 장 양식산업의 동향과 전망	신 영 태 수산업관측센터장	남종오 전문연구원 박은영 연구원
제 6 장 원양산업의 동향과 전망	장 홍 석 전문연구원	안재현 전문연구원 마창모 전문연구원
제 7 장 수산식품산업의 동향과 전망	주 문 배 연구위원	강종호 부연구위원 정명화 전문연구원
제 3부 주요 양식품목별 수급동향과 전망	신영태 수산업관측센터장	
	집필진	
제 8 장 해조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1. 김 수급동향과 전망 2. 미역 수급동향과 전망	백은영 부연구위원 이남수 연구원	
제 9 장 어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1. 광어 수급동향과 전망 2. 우럭 수급동향과 전망 3. 송어 수급동향과 전망	김수현 연구원 박태경 연구원 손인배 연구원	
제 10 장 패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1. 전복 수급동향과 전망 2. 굴 수급동향과 전망	성진우 연구원 노승국 연구원	

대회일정

시 간		내 용	
10:00~10:30	등 록		
제 1부 : 개회행사 사회 : 류정곤 수산정책연구실장			
10:30~10:40	개회사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10:40~11:00	축 사	서규용 농림수산물부 장관 이종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11:00~11:30	기조연설	“미래 생명산업으로서의 수산업의 대응과 전략” Rögnvaldur Hannesson / Norwegian School of Economics 교수	
11:30~12:00	기조강연	“차세대 한국 수산정책 방향” 임광수 / 농림수산물부 수산정책실장	
12:00~13:30	- 기념사진 촬영 및 장내 정리 - 중식		
제 2부 : 주제발표 사회 : 이승우 연구위원			
13:30~13:50	제1주제	“국내외 수산환경 변화와 전망” 김정봉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13:50~14:10	제2주제	“2012 연근해어업의 동향과 전망” 정명생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	
14:10~14:30	제3주제	“2012 원양어업의 동향과 전망” 장홍석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14:30~14:50	Coffee Break		
14:50~15:10	제4주제	“2012 수산식품산업의 동향과 전망” 주문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15:10~15:30	제5주제	“2012 양식어업의 동향과 전망” 신영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장	
15:30~15:50	휴식 및 장내 정리		
제 3부 : 종합토론(수산생명산업의 미래와 한국 수산업 전망)			
15:50~17:30	종합토론	좌 장 : 박재영 / 한국수산물단체장협의회 회장 · 한국수산물회 회장 토론자 : Nakai Yutaka(中居 裕) / 동경해양대학 교수 정영훈 / 농림수산물부 어업자원관 장영수 / 부경대학교 교수 조동길 / 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최영태 / 한국양식단체총연합회 회장 김덕술 / 삼해상사(주) 대표이사 이광세 / 신라교역 전문	

· 목 차

머 리 말 i

제1부 2012년 수산·어촌의 비전

제1장 수산부문의 여건 변화와 이슈 3

 1. 서론 3

 2. 2011년 대내외 여건 변화 5

 1)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내수 부진 5

 2) 지역경제협력의 확산 7

 3) 기상이변과 재난 8

 4) 식량위기와 물가 불안 9

 5) 2011년 주요 수산정책 변화 11

 3. 2012년 전망과 이슈 12

 1) 국내외 경기 침체 및 내수 부진 12

 2) FTA의 전환기 : 국내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한 해 13

 3)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부각 14

 4) 복지확대 논의 확산 14

 5) 남북수산협력의 새로운 전환기 15

 6) 2012년 주요 수산 정책 16

제2장 2012년 수산부문 전망과 과제 18

 1. 서론 18

 2. 전망을 위한 분석모형과 자료 19

 1) 분석모형 19

 2) 가정 20

3) 자료	20
4) 모형의 유효성	22
3. 2012년 수산부문 전망	22
1) 어업생산	22
2) 수산물 물가지수	27
3) 수산물 수출입	28
4) 수산물 소비	29
5) 수산업 부가가치	30
6) 어가경제	30
4. 정책적 시사점	33
제3장 어가경제의 동향과 전망	36
1. 서론	36
2. 어가경제 동향	37
1) 어가소득	37
2) 어가지출	40
3) 어가부채	41
4) 연령별·어업형태별 동향	41
3. 2010년 어업총조사 결과	43
1) 어가수 및 어가인구, 감소폭 확대	44
2) 어업경영주 노령화 빠르게 진행	44
3) 겸업어가 늘어	45
4) 어업경영형태, 어선비사용 어업 어가 늘어	46
5) 2톤 미만 소형어선 보유어가 감소폭 커	47
6) 대규모 양식어가 증가	47
7) 수산물 판매금액 증가 어가 늘어	48
8) 비계통 수산물 판매 늘어	49
9) 수산물 판매형태, 활어판매 가장 많아	49
10) 어업고용, 연인원 2만 명 넘어	50
11) 어업관련 사업, 수산물직거래 가장 많아	51

4. 귀어·귀촌 동향	52
1) 귀어·귀촌 동향	53
2) 업종별 귀어·귀촌	53
3) 지역별 귀어·귀촌	54
5. 2012년 전망과 이슈	54
1) 전망	54
2) 이슈	55

제2부 수산부문별 동향과 전망

제4장 연근해어업의 동향과 전망	61
1. 서론	61
2. 2011년 연근해어업 동향	62
1) 어업 자원	62
2) 어선	65
3) 어업 생산	67
4) 어업 생산액 및 생산자 가격	72
5) 주요 근해어업별 경영	76
3. 2012년 전망과 이슈	83
1) 전망	83
2) 이슈 및 대책	85
제5장 양식산업의 동향과 전망	88
1. 서론	88
2. 2011년 양식산업 동향	89
1) 양식어가 및 양식면적	89
2) 양식 생산 및 가격	91
3) 양식 수출입	98
4) 대내외 양식 환경	101

3. 2012년 전망과 이슈	102
1) 전망	102
2) 이슈	106
제6장 원양산업의 동향과 전망	112
1. 서론	112
2. 2011년의 원양산업 동향	113
1)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113
2) 생산 및 수출 동향	121
3) 해역별 조업 현황	125
4) 경영 및 고용 현황	129
5) 해외 원조 및 자본 진출	131
3. 2012년 전망과 이슈	133
1) 전망	133
2) 이슈 및 대책	134
제7장 수산식품산업의 동향과 전망	138
1. 서론	138
2. 2011년도 수산식품산업의 동향	140
1) 수산식품의 소비동향	140
2) 수산유통 부문	142
3) 수산가공 부문	149
4) 수산물 수출입 부문	153
5) 수산식품 위생안전 부문	158
3. 2012년도 전망과 이슈	162
1) 수산식품산업의 전망	162
2) 수산식품산업의 주요 이슈	167

제3부 주요 양식품목별 수급동향과 전망

제8장 해조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181
I. 김 수급동향과 전망	181
1. 서론	181
2. 2011년 김 수급동향	182
1) 생산	182
2) 가격	187
3) 재고	189
4) 수출입	190
3. 2012년 김 수급전망	194
1) 생산	194
2) 가격	194
3) 수출	195
4) 소비	195
II. 미역 수급동향과 전망	197
1. 서론	197
2. 2011년 미역 수급동향	198
1) 생산	198
2) 가격	203
3) 수출입	206
3. 2012년 미역 수급전망	211
1) 생산	211
2) 가격	211
3) 수출	212
4) 소비	212

제9장 어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214
I. 광어 수급동향과 전망	214
1. 서론	214
2. 2011년 수급동향	215
1) 생산	215
2) 가격	221
3) 수출	224
3. 2011년 전망	226
1) 생산	226
2) 가격	227
3) 수출입	227
4) 소비	228
II. 우럭 수급동향과 전망	229
1. 서론	229
2. 우럭 수급동향	230
1) 생산	230
2) 가격	236
3) 수입	239
3. 우럭 수급전망	240
1) 생산	240
2) 가격	241
3) 수출입	241
III. 송어 수급동향과 전망	242
1. 서론	242
2. 2011년 송어 수급동향	243
1) 생산	243
2) 가격	247
3) 수입	248

3. 2012년 전망	249
1) 생산	249
2) 가격	249
3) 수출입	250
4) 소비	250
제10장 패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251
I. 전복 수급동향과 전망	251
1. 서론	251
2. 전복 수급동향	252
1) 출하동향	252
2) 가격동향	255
3) 수출동향	258
3. 전복 수급전망	259
1) 출하전망	259
2) 가격전망	260
3) 수출전망	260
4) 소비전망	260
II. 굴 수급동향과 전망	262
1. 서론	262
2. 2011년 수급동향	263
1) 생산	263
2) 가격	268
3) 수출입	270
3. 2012년 수급전망	272
1) 생산	272
2) 가격	273
3) 수출입	273
4) 소비	274

제1부

2012년 수산·어촌의 비전

- ▶ 제1장 수산부문의 여건 변화와 이슈
 - ▶ 제2장 2012년 수산부문 전망과 과제
 - ▶ 제3장 어가경제의 동향과 전망
-

제1장 수산부문의 여건 변화와 이슈

최성애* · 엄선희** · 임경희**

목 차

- | | |
|-----------------------------|---------------------|
| 1. 서론 | 3. 2012년 전망과 이슈 |
| 2. 2011년 대내외 여건 변화 | 1) 국내외 경기 침체 및 내수부진 |
| 1)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내수 부진 | 2) FTA의 전환기 |
| 2) 지역경제협력의 확산 | 3)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부각 |
| 3) 기상이변과 재난 | 4) 복지확대 논의 확산 |
| 4) 식량위기와 물가불안 | 5) 남북수산협력의 새로운 전환기 |
| 5) 2011년 주요 수산정책 변화 | 6) 2012년 주요 수산정책 방향 |

1. 서론

- 2011년도의 세계 경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취했던 다양한 정책으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다 후반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재정 악화와 유럽발 재정위기의 불안감이 세계로 확산되면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수출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고물가와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민간소비심리와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연구위원, ** 전문연구위원

-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통상정책으로서 FTA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2011년에는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EU, 미국의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되거나 비준되었다.
- 기상이변으로 식량 생산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미국, EU, 브라질 등 주요 곡물 생산국을 중심으로 바이오에너지라는 곡물의 새로운 수요처 증가로 식량 수급의 불안정성과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2011년 상반기에는 세계적으로 식량 수급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식품류의 가격과 국제유가와 같은 원자재가격이 급등하였고, 그 결과 국내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2011년에는 다양한 수산정책이 실시되고 제도의 변화가 있었는데, 주요 수산정책과 제도 변화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요 수산정책은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① 농림수산식품분야 위험관리 강화, ② 성장동력 확충, ③ 농어촌 지역 활성화 등이 추진되었다.
 - 주요 어업관련 제도로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낙시관리 및 육성법’,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 우리나라 2012년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로 작년 보다 다소 낮은 3.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유로존의 재정위기,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긴축재정, 중동 불안 가시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계경제 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수출은 세계경기 둔화, 원화강세 기조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도 국내 경기 둔화와 유가·원자재가격 안정 등의 요인으로 증가세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내수 역시 수출둔화를 보완할 만큼 성장을 주도할 여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높은 물가와 자산 가치 회복 미흡,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소비부진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2년 새로운 이슈로는 FTA 발효 및 협상대비, 재해 및 피시플레이션 등의

위기관리, 수산복지 확대, 남북수산협력의 새로운 전환기 그리고 정부의 주요 수산정책 등을 들 수 있다.

- 올해 우리나라는 한·중FTA 협상 시작과 한·미 FTA 발효 등 FTA의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내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기후변화 및 자원 리스크가 일상화되면서 경제 전체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일본 지진의 여파로 수산부문의 리스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또한 최근 중국 등 신흥경제 대국의 수산물 소비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이른바 피시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다.
- 양극화의 심화를 우려하여 복지확대 논의가 양대 선거를 거치면서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FTA 국내 대책과 맞물려서 올 한해는 수산부문 복지정책 수요 급증의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남북협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어 남북수산협력 가능성에 전향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 주요 수산정책으로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의 농어업 시설현대화 추진’, ‘2012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총력 경주’, ‘수산양식 10대 전략 품목을 본격 육성, 수산물 수출 100억 달러 시대 준비’,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2. 2011년 대내외 여건 변화

1)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내수 부진

(1)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 2011년 세계 경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취했던 다양한 정책으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하반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재정 악화와 유럽

발 재정위기의 불안감이 세계로 확산되면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국가 재정 부실화로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재정감축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 또한 경기부양책의 한계와 민간부문의 회복 부진으로 G7 중 6개국의 경제성장률이 2% 미만에 머물러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확산되었다.
- 유럽의 경우 그리스가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하면서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재정위기가 유럽 전체로 확산되었다.
 - 유럽과 기타 국가, 국제기구 등이 이를 막기 위한 공조를 다각도로 진행하였으나,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한 채 2012년에도 이 같은 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신흥국의 경우 글로벌 유동성이 이들 국가로 유입되었고, 이에 따른 과잉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어 긴축금융정책이 도입되면서 내수가 둔화되었다.

(2) 국내 내수 부진

- 2011년 국내 경제는 1/4분기에 4.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3%대로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었다.
 - GDP 성장률은 선진국 경기둔화,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2/4분기 이후 둔화되었다.
- 2011년 연간무역액 1조 달러를 달성(2011. 12. 5.)하면서 수출이 한국경제의 성장에 기여하였으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선진국 경제의 둔화로 인해 수출증가세가 감소하였다.
 - 수출의존형 성장은 대외경제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문제점도 유발시켰다.
- 또한 고물가와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민간 소비심리와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2011년 상반기 원자재 가격 급등과 하반기 서비스 가격 상승은 소비자물

가 상승률이 하반기까지 4%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기여하였으며, 식료품비, 교통비, 연료비 등 필수 소비품목의 물가가 크게 상승하였다.

- 한편 2011년에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9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가계부채 부실화의 우려가 확산되기도 하였다.

2) 지역경제협력의 확산

- 세계적으로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협력의 확산은 양국간 협력은 물론, 새로운 지역경제협력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다국간 협력도 다각도로 추진되었다.
- 현재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은 314건¹⁾으로,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83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RTA는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 전체의 약 86%인 271건이 1995년 이후 체결되었다.

〈표 1-1〉 세계의 지역무역협정 발효 현황

구 분	1958~94	1995~2000	2001~2005	2006~2011.10	합 계
발효건수(건)	43	53	87	131	314
비중	13.7%	16.9%	27.7%	41.7%	100%

자료 : KITA FTA 포털(FTA 정보>전세계 RTA 체결 현황, WTO>Regional Trade Agreements>.List of all RTAs를 바탕으로 집계)

-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통상정책으로서 FTA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2011년에는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EU, 미국의 거대경제 권과의 FTA가 발효되거나 비준되었다.
- 우리나라의 FTA 체결 동향을 보면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등 7건의 FTA가 발효되었다.

1) WTO의 List of all RTAs 바탕(2011년 말 기준)

- 2011년에는 한·EU FTA(2011. 7. 1)와 한·페루 FTA(2011. 8. 1)가 발효되었으며, 한·미 FTA도 2011년 말(2011. 11. 22) 국회 비준이 이루어졌다.
- 또한 터키, 콜롬비아, GCC 등과도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중국, 베트남 등과의 협상준비·검토가 이루어졌다.

〈표 1-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구 분	국 가
발 효	칠레('04.4.), 싱가포르('06.3.), EFTA('06.9.), ASEAN('07.6. 상품), 인도('10.1), EU('11.7), 페루('11.8)
서명/협상타결	미국('11.11)
협상 중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공동연구/여건조성 중	일본, 중국, 중·일, MERCOSUR, 러시아, 이스라엘, SACU, 베트남, 몽골, 중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주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ASEAN(동남아국가연합) :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GCC(걸프협력이사회)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MERCOSUR(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자료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2011년 말 기준)

- 이외에도 2011년에는 세계적으로 WTO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다자 교역의 새로운 모델로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이나 한·중·일 FTA와 같은 다자간 경제협력에 대한 주요국의 관심이 이어져 새로운 지역 협력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3) 기상이변과 재난

- 2011년의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기상이변과 이로 인한 재난이 빈발하면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 2011년 여름에는 이상고온 현상, 서울 도심지 홍수 등 대형 자연재해가 빈발하여 큰 피해를 주었으며, 하반기에는 한파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전체 전

력수급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2011년 3월 11일에는 동일본을 중심으로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이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여 일본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누출사고는 일본 경제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국가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세계에서 수산자원이 풍부한 4대 어장으로 꼽히는 북서태평양어장으로 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²⁾
 -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공포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 기피로 이어졌으며, 실제 인근 해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 확산으로 한때 국내 수산물 소비가 침체되기도 하였다.

4) 식량위기와 물가 불안

- 기상이변으로 식량 생산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미국, EU, 브라질 등 주요 곡물 생산국을 중심으로 바이오에너지라는 곡물의 새로운 수요처 증가로 식량 수급의 불안정성과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제적으로 식량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 ‘애그플레이션’으로 일컫는 농산물 가격 상승을 유발하였고 이는 국내 물가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 2011년 상반기에는 세계적으로 식량 수급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식품류의 가격과 국제유가와 같은 원자재가격이 급등하였고, 그 결과 국내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 수입 물가와 생산자 물가의 상승을 초래하고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 2011 중반 이후에는 유가상승세가 둔화되고 기상여건이 개선되어 농산물

2) 일본 동북지역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수산부문의 피해는 6,646 억 엔(수산청 5월 12일 발표 결과)으로, 특히 수산업 기반시설인 어항시설을 중심으로 어선, 양식시설 및 양식물 등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발표되었음(일본 동북대지진 수산대책 TF, KMI 수산동향 5월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5. 참조)

수급이 안정되면서 공급측의 물가상승 요인은 완화되었으나, 근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수요측 물가압력이 지속되면서 높은 상승률이 지속되었다.

- 2011년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4분기 3.8%, 2/4분기 4.0%, 3/4분기 4.3%, 4/4분기 4.0%로 4% 이상으로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였다.³⁾

〈그림 1-1〉 2011년 물가 동향



자료 : 기획재정부, 2012년 경제전망, 2011. 12. 12. p.10.

3) 기획재정부, 2011년 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2011. 12. 30. 참조

5) 2011년 주요 수산정책 변화

- 2011년 수산정책은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① 농림수산식품분야 위험관리 강화, ② 성장동력 확충, ③ 농어촌 지역 활성화의 3가지를 설정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분야 위험관리와 관련해 수산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추진되었다.
 - 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수매비축 규모 확대 등을 통한 수산물 가격 불안 해소가 모색되는 한편, 식량위기에 대비하고 수산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목표로 수산물자급률 목표가 설정되었다.
 - 심화되는 이상기후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수산분야 재해 제도의 개선과 지원 강화, 어선 안전사고에 대한 구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위험관리를 강화하였다.
- 성장동력 확충의 경우 농식품 분야 R&D 개편,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해외 농림어업 개발과 국제협력 강화, 수산자원 개발 등의 과제가 추진되었다.
 - R&D 개편과 관련해 투자규모 확충, 조정·기획 기능을 강화하여 투자 효율성 제고를 모색하였다.
 - 식품산업의 육성 및 수출 확대를 위해 기존 인증제도 정비, 수출목표 설정과 농식품 수출 확대를 목표로 세부전략이 마련되었다.
 - 또한 해외 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 강화와 관련해 교류 협력 강화, 어업협상을 통한 불법어업 최소화 추진 등 수산자원외교를 강화하였고, 해외어장 개발 확대를 위해 아프리카, 남미 등 주요 연안국에 대한 조사 및 협력사업이 추진되었다.
 - 수산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연근해 어업에 있어 친환경적이고 새로운 자원 및 어업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이의 정착이 추진되었으며, 제도·인프라 정비, 참다랑어, 해삼, 참굴 등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계획이 마련·추진되었다.
-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어촌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정예인력의 육성과 어촌 지역의 복지지원이 확대·강화가 추진되었다.

- 한편 이 같은 수산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낙시관리 및 육성법’,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3. 2012년 전망과 이슈

1) 국내외 경기 침체 및 내수 부진

- 2012년 경제성장률은 작년 보다 다소 낮은 3.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는 유로존 재정위기의 영향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재정불안에 따른 긴축 재정, 중국 등 신흥국들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 둔화 전망에 따른 것이다.
 - 특히 유로권 재정위기가 파국으로 치닫거나 중동 불안이 가시화 될 경우 세계 경기 급락과 함께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이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012년 수출은 세계경기 둔화, 원화강세 기조 등으로 인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 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도 국내 경기 둔화와 유가·원자재가격 안정 등에 따라 작년보다 증가세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내수 역시 수출둔화를 보완할 만큼 성장을 주도할 여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높은 물가와 자산 가치 회복 미흡,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인해 소비부진도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더욱이 정부의 경기부양 여력도 약화되고 있어 가시적인 경기회복은 기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1-3〉 2012년 경제전망 요약

단위 :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6.2	4.2	3.4	3.5	3.4	3.6	3.7
민간소비	4.1	2.8	3.0	2.0	1.2	2.2	3.1
설비투자	25.0	11.7	7.5	1.0	△3.4	3.8	3.3
건설투자	△1.4	△11.9	△6.8	△4.6	△4.0	△6.5	2.9
취업자 증감(만명)	32	42	40	36	-	40	28
소비자물가	3.0	3.8	4.0	4.3	4.0	4.0	3.2
경상수지(억달러)	294	26	55	69	-	250	160
수출(통관,%)	28.3	29.6	18.7	21.4	11.0	19.6	7.4
수입(통관,%)	31.6	23.1	27.2	27.7	13.5	23.3	8.4

주 :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 기획재정부, 2012 경제전망 보도자료, 2011.12.12

기획재정부, 최근경제동향, 2012.1.5

한국은행, 2011년4/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 2012.1.26

2) FTA의 전환기 : 국내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한 해

- 올해 우리나라는 한·중 FTA 협상 시작과 한·미 FTA 발효 등 FTA의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내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12년 1월 한·중정상은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에 필요한 국내 사전절차를 시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이 조만간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과의 교역증대와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이 향후 우리와의 FTA 협상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그동안 추진되었던 한·중 FTA의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의 수산업과 농업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이에 대한 국내 대책마련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대책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부각

- 기후변화 및 자원 리스크가 일상화되면서 경제 전체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 이는 수산업 부문에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와 수산자원의 고갈 등으로 수산부문의 리스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촘촘히 연결된 상황에서 어느 한 지역의 위기가 발생하면 전 세계 경제에 곧바로 여파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위기관리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는 필수적인 수밖에 없다.
- 예를 들어 지난해 3월에 발생한 일본의 강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유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산물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쳤고, 이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중장기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또한 최근 중국 등 신흥경제 대국의 수산물 소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어획량은 한계를 보이고 있어 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이른바 피쉬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다. 이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15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000만 톤의 수산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4) 복지확대 논의 확산

- 2012년은 어느 해 못지않게 복지 확대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정국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은 복지정책을 적극 개발할 것이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도 활발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복지 논쟁’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등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분출된 데다 총선, 대선 등의 금년 양대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복지에 대한 논의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논쟁의 추세는 일단 복지 확대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는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복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만큼 ‘복지 예산 투입 → 시중 유동성 증대 →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달성한다는 긍정적 지지를 얻어낼 수도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FTA 대책과 맞물려서 올 한해는 수산부문에서도 다양한 복지정책 개발의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5) 남북수산협력의 새로운 전환기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김정은 체제로의 전환으로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이 노골적으로 체제에 항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특히 지난해 화폐 개혁 이후 주민들의 생계형 저항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발적인 불만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대규모 시위나 소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하지만 북한 내부 권력 균열이 심각한 경제난과 겹쳐 통제 불능 상황에 빠질 경우 대량 탈북 사태는 물론, 내부 급변 사태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 이에 북한은 당분간 김 위원장의 공백을 메우고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려면 내부 단속 및 관리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 무엇보다 경제의 재건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개혁·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런데 이러한 개혁·개방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활성화가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2012년에 남북협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수산부문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예측되므로 북한이 남한과의 수산협력에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6) 2012년 주요 수산 정책⁴⁾

-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는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을 목표로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는데 수산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 농림수산식품 정책 주요 내용

- ① 10년간 10조원 규모의 농어업 시설현대화 추진
- ② 2012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총력 경주
- ③ 수산양식 10대 전략 품목을 본격 육성, 수산물 수출 100억 달러 시대 준비
- ④ 귀농·귀촌 One-stop 서비스 강화 및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 종자산업육성을 위한 ‘Golden Seed Project’ 추진(2012~2021년, 4,911억 원)으로 20개 품목의 수출용 종자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민간육종연구단지(Seed Valley)조성, 방사선육종센터 설립·운영
- 발효·저탄소 가공 등 식품 핵심기술(18개), 코팅제 등 품질유지기술 개발 등 유통·식품분야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실용화를 위한 ‘농림수산식품 신기술 인증제’ 도입 및 산업화를 신규로 지원(1,000억원, 3%)할 계획이다.
- 2012년 농식품 수출 목표 100억불 달성을 위해 중국, 일본, 아세안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위한 국가별 수출전략을 추진하고, 25개 전략품목을 중점 육성할 계획인데 수산식품의 경우 넙치, 굴, 전복 등 10대 양식품목을 집중 지원·육성할 예정이다.
 - 해조류, 참치, 넙치, 전복, 갯벌참굴, 해삼, 뱀장어, 새우, 관상어, 능성어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품목별 맞춤형 정책과 관련하여 연구클러스터 운영, 양식면적 확대(4천ha) 및 갯벌 양식장 임대차 허용 등 신규 경영체의 진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수협경제사업 활성화와 연계하여 품목별 수급 및 물가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산지거점유통센터 2개소를 신규 지원하고, 노량진 수산시장 시설현대화(’12~’15, 2,024억원) 등 유통구조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수산물유통선진화 방안’ 마련, 9월)

4) 농림수산식품부 2012 업무보고에서 발췌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11년 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2011. 12. 30.
- 기획재정부, 2012년 경제정책 방향, 2011. 12. 12.
- 기획재정부 주요경제지표 월간경제지표 2012년 1월호
- 농림수산식품부, 2011 업무보고, 2010. 12. 26.
- 농림수산식품부, 2012 업무보고.
- KDI 경제전망, 2011 하반기, 2011. 11. 18.
- 삼성경제연구소, 2012년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 CEO Information, 2011. 12. 21(제835호)
- 삼성경제연구소,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 SERI Economic Outlook, 2011. 9. 21.
- 삼성경제연구소, 최근 물가불안의 원인과 대응책(애그플레이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Issue Paper, 2011. 1. 21.
-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식량위기시대의 新식량안보 전략, 연구보고서, 2011. 2. 14.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www.fta.go.kr)
- 한국무역협회 FTA 포털([//fta.kita.net](http://fta.kita.net))



2012년 수산부문 전망과 과제

홍현표* · 이헌동**

목 차

- | | |
|--------------------|-------------|
| 1. 서론 | 2) 수산물 물가지수 |
| 2. 전망을 위한 분석모형과 자료 | 3) 수산물 수출입 |
| 1) 분석 모형 | 4) 수산물 소비 |
| 2) 가정 | 5) 수산업 부가가치 |
| 3) 자료 | 6) 어가경제 |
| 3. 2012년 수산부문 전망 | 4. 정책적 시사점 |
| 1) 어업생산 | |

1. 서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는 2011년 초까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 왔으나 이후 중동 정세 불안, 유로지역 재정위기 등이 부각되면서 실물경기가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
- OECD, EU 등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11년 3% 후반에서, 2012년에는 3% 초·중반으로 소폭 하향 전망하고 있다(한국은행).
- 국내 경기도 선진국 경기 둔화,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2011년 1/4분기 이후 성장이 점차 둔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뚜렷하며, 농림어업 부문의 국내총생산 증가율도 전년 대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 연구위원, ** 전문연구원

- 2012년에는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및 금융·외환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로 한국 경제도 완만한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국제유가 및 환율에 대한 전망은 국내외 주요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종합해보면 국제유가는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달러 약세 등으로 하락 기조 전망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대내외 경제 전망에 따라 수산부문에서도 외생적 거시변수의 충격(shock)으로 인한 생산, 수출입, 물가(가격) 변동 등 수산부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특히 지난해 말 한·미 FTA 비준과 금년 시작될 한·중 FTA의 추진은 국내 농어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수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책, 중장기적인 수산업 선진화 계획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전망을 위한 분석모형과 자료

1) 분석모형

- 본 연구에서 이용된 ‘수산부문 총량모형(KMI-FSM04)’은 유가, 환율, 금리 등 거시지표의 충격이 어업생산, 수출입, 어업부가가치 및 어가소득 등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유용한 모형이다.
- 수산부문 총량모형¹⁾은 수산업 총량지표 모형, 어가경제 모형, 어류 수급모형, 패류 수급모형, 해조류 수급모형 등과 같이 5개의 하위모형이 일련의 시스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 본 모형에서 구축된 연립방정식 체계를 가지고 매년 수집되는 연간 자료를 토대로 각 방정식의 모수(parameters)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가지고 익년도의 전망치 산출에 활용하였다.

1) 상기 모형에 대한 세부 설명은 “수산부문 전망을 위한 총량모형의 구축”(KMI, 홍현표 외, 2004)의 연구보고서 참조 바람.

2) 가정

- 2012년의 수산부문 전망을 위해서 본 모형에서는 주로 외생적인 거시변수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사용하였다.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배럴)는 2010년 78달러에서 2011년 106달러로 전년 대비 35.7%가 상승하였다. 그리고 2012년 들어서는 이란 사태 등 긴장이 고조되면서 단기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다가 하반기에 다소 안정되어 연평균 전년 대비 3.8%가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원달러 환율은 2010년 1,156원에서 2011년 1,103원으로 전년 대비 4.6%가 하락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는 국내 주요 기관의 경제(환율) 전망을 참조하여 1,080원 수준을 가정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2.1% 하락한 것이다.

〈표 2-1〉 수산부문 전망을 위한 가정

단위 : 달러, 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증감률(연간, %)	
					11/10	12/11
원유가격 (달러/배럴)	59	78	106	110	35.7	3.8
원달러환율	1,276	1,156	1,103	1,080	-4.6	-2.1

- 수산부문 어가들의 자금조달 금리에 해당되는 회사채수익률(3년 만기)과 수산정책 금리는 2011년에 각각 4.4%, 3.0%로 적용하였으며, 2012년에는 4.3%, 3.0% 수준에서 각각 지속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3) 자료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총량모형의 시계열 변수는 총 192개이며, 분석자료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의 <표 2-2>와 같이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자료의 수집기간은 총량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1970년~2010년의 시계열 자료가 이용되었다.
 - 단, 생산 및 수출입 실적(물량 및 금액), 물가지수의 경우 2012년 1월 현재

2011년 11월까지의 통계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1~11월까지의 실적에 최근 3년(2008~2010년) 12월 실적 평균치를 합산하여 잠정치로 사용함으로써 모형의 예측력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 분석자료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거시경제자료 : 총산출, GDP(부가가치), 디플레이터(환가지수, deflator), 환율 및 금리 등 한국은행의 DB를 이용하였다.
- 어업생산자료 : 생산은 어류, 패류, 해조류로 구분하였으며, 어업은 일반해면, 천해양식, 원양, 내수면으로 구분하였다.
- 소비·물가지수자료 : 어류, 패류, 해조류의 연간 소비량 및 품목별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를 수집하였다.
- 수출입자료 : 수산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이용, 어류, 패류, 해조류의 수출입(물량, 금액) 자료를 수집하였다.
- 어가경제자료 : 어업조수입, 어업경영비, 어가부채, 어가자산 등에 대한 세부 항목별 자료를 수집하였다.
- 인구·가구자료 :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및 인구추계, 어업인구 및 어업가구통계를 이용하였다.
- 기타자료 : 기타 총량모형을 구성하는 하위모형 및 개별함수의 추정에 필요한 변수를 고려하여 약 30개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2-2〉 수산부문 총량모형에 이용된 시계열 자료

구분	자료수	주요 시계열 변수
거시경제 자료	29	명목 및 실질 총산출, 명목 및 실질 총생산 디플레이터(deflator), 환율, 1인당 GNI 등
어업생산 자료	62	어업별 생산량 및 생산액, 주요 업종별 어선세력(척수, 톤수, 마력수) 등
소비·물가지수 자료	19	수산물 소비량,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등
수출입 자료	16	수산물 수입량, 수입액, 수출량, 수출액
어가경제 자료	24	어가소득, 어업조수입 및 어업경영비 세부 항목 등
인구·가구자료	12	어업인구 및 어업가구 등
기타 자료	30	유류공급량, 출어일수, 류별 재고비율 및 감모비율 등

자료 : “수산부문 전망을 위한 총량모형의 구축”, 홍현표 외, 2004, p.48

4) 모형의 유효성

- 본 연립방정식 체계 모형을 가지고 실시된 역사적 모의실험(historical simulation)²⁾ 결과에 따르면, 어업인구수, 어가수, 어업종사자수, 어가소득, 어획노력량 등의 변수에 대한 RMSPE(Root Mean Squared Simulation Percentage Error, 평균평방근 백분율 의태오차)는 10% 이내에 포함되어 모형예측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류별 생산량, 가격지수 등에 대한 RMSPE는 10%를 넘어서서 종속 변수에 따라서 다소 구조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역사적 시뮬레이션은 1997년~2009년의 12년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2012년 수산부문 전망

- 본 연구는 앞서 제시된 「총량모형」을 이용하여 2012년 수산부문의 주요 총량 변수들의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 어업생산 및 수산물 수출입은 2011년 잠정 집계치를 기준으로 2012년을 전망하였으며, 나머지 모든 내생적 총량변수들은 2011년도 예측치를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시 2012년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업생산, 수산물 도소매가격, 수출입량, 수산물 소비량 등의 2012년 전망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어업부가가치와 어가소득 등의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1) 어업생산

(1) 어업 투입요소의 추이와 전망

- 우리나라 연근해어선 전체가 연간 출어한 조업일수는 누적 개념으로 2010년 960만 일, 2011년에는 930만 일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012년에는

2) 시뮬레이션(simulation) 값과 실제 관측된 값과의 편차를 백분율로 환산한 지표로서, 해당변수의 추정값과 실제값 간의 밀접도를 측정하는 지표임

900만일로 투입량이 전년 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 어획노력량 추이와 전망

단위 : 백만일, 일,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증감률(%)	
					11/10	12/11
어획노력량(백만일) ¹⁾	10.7	9.6	9.3	9.0	-4.0	-2.8
척당 평균 조업일수(일) ²⁾	198.0	190.0	189.3	189.0	-0.4	-0.2

주 : 1) 어선척수×출어당조업일수×출어횟수로 산출(즉 국내 모든 연근해 어선들의 연중 총누적 조업일수를 의미함)

2) 어선 1척의 연중 총조업일수(출어당 조업일수×연평균 출어횟수)

(2) 양식어업 면허면적 추이와 전망

- 2011년 양식어업 생산에 투입된 어류 및 해조류 어장의 면허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4.9%, 1.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012년에도 어류 및 해조류 양식어장의 면적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패류 어장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4〉 양식어업 면허면적 추이와 전망

단위 : ha,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증감률(%)	
						11/10	12/11
양식면허 면적	어류	1,965	1,789	1,702	1,615	-4.9	-5.1
	패류	56,306	57,207	57,707	58,209	0.9	0.9
	해조류	81,601	82,019	80,691	79,017	-1.6	-2.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3) 주요 투입재 가격 추이와 전망

- 2011년의 면세유 가격은 드럼당 183,128원으로 2010년 대비 31.8%가 상승하여 유류 소모가 많은 업종의 출어 포기 등 어업경영에 큰 타격을 주었다.
- 2008년 초고유가 사태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2011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 다만,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12년 국제유가 전망을 고려하여 총량모형을 분석한 결과, 2012년 면세유 가격은 드럼당 약 18만 7천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5〉 주요 투입재가격의 추이와 전망

단위 : 원/드럼, %, 천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증감률(%)	
					11/10	12/11
면세유(원/드럼) ¹⁾	118,239	138,930	183,128	187,250	31.8	2.3
회사채수익률(3년)	5.8	4.7	4.4	4.3	-6.4	-2.3
수산정책금리	3.0	3.0	3.0	3.0	0.0	0.0
어선원임금(실질) ²⁾	21,875	29,303	31,044	32,532	5.9	4.8

주 : 1) 어업인 공급가격 기준임.

2) 근해어업 어선원 연평균 실질임금 수준.

- 민간 자금조달 비용에 해당되는 회사채금리(3년만기, 장외, AA-등급)는 2009년 5.8%에서 계속 하락하여 2012년 4.3% 수준으로 전망된다.
- 수산부문 인건비 지표인 어선원 임금은 2011년 전년 대비 5.9%가 상승하였으며, 2012년에도 전년 대비 4.8%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수산물 종류별 생산성 추이와 전망

- 2011년 해면어업(어류)의 생산성, 즉 단위 노력당 생산성(어획량)은 전년 대비 6.2%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12년에는 해면어업(어류)의 생산성이 85.8톤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5.8%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해면어업(패류)의 생산성은 2011년에 15.9% 증가했고, 2012년에는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최근 양식어업의 단위 면적(ha)당 생산성을 살펴보면, 어류는 생산성이 향상된 반면, 패류, 해조류는 감소하였다.

- 2011년 어류의 ha당 생산성은 55.0톤에서 2012년 66.8톤으로 상당 폭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반면, 2012년 패류 및 해조류의 생산성은 2011년 대비 각각 1.9%, 0.3%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6〉 어업별 · 류별 생산성 추이와 전망

단위 : 톤,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증감률(%)	
						11/10	12/11
해면어업 ¹⁾ (1일1톤당)	어류	74.6	76.3	81.1	85.8	6.2	5.8
	패류	39.4	39.7	46.1	48.3	15.9	4.8
양식어업 ²⁾ (ha당)	어류	55.7	44.8	55.0	66.8	22.9	21.3
	패류	6.1	6.5	6.3	6.2	-3.0	-1.9
	해조류	10.5	11.0	10.5	10.5	-4.4	-0.3

주 : 1) 일반해면어업 생산성 = 연근해어업 총어획량(1일) ÷ 어선 총톤수.

2) 양식어업 생산성 = 양식 총생산량 ÷ 총양식 시설면적.

(5) 업종별 생산량 추이와 전망

- 우리나라 총어업생산량은 2011년 약 303만 톤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어업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양식어업 및 원양어업의 생산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양식어업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해조류 작황이 예년에 비해 좋지 않았으며, 원양어업도 자원 감소, 공해상 조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생산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 한편, 2012년의 총어업생산량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약 311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중 일반해면어업은 어류 어황의 견조한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2.4% 증가하는 121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양식어업은 어류, 패류생산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패류 등(갑각류, 기타 수산동물 포함)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2년 들어 원양어업은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노력이 뒤따를 경우, 2011년의 위축된 분위기에서 다소 벗어나 전년 대비 5.2% 증가하는 53만 톤의 어획량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7〉 어업별 생산량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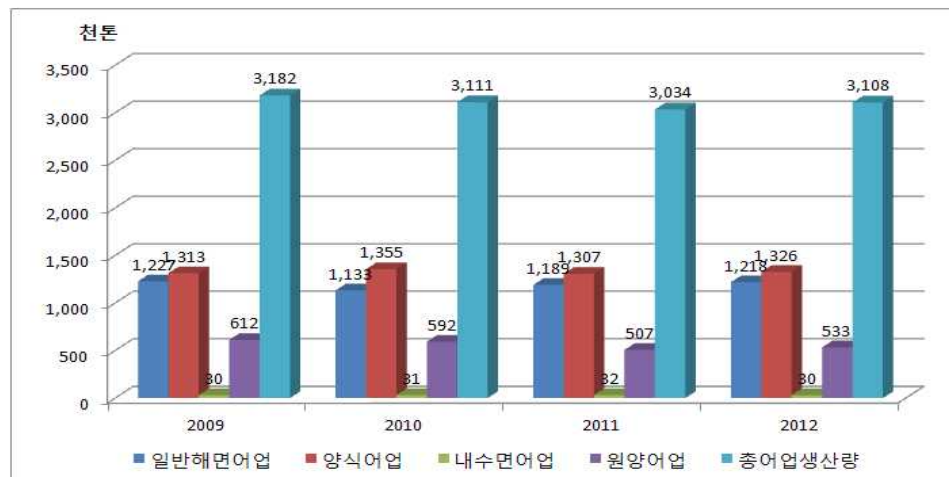
단위 : 톤,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증감률(%)	
						11/10	12/11
일반 해면	어류	795,502	736,198	750,335	771,762	1.9	2.9
	패류 등	420,621	383,295	426,271	434,293	11.2	1.9
	해조류	10,843	13,043	12,611	12,204	-3.3	-3.2
	소계	1,226,966	1,132,536	1,189,217	1,218,258	5.0	2.4
양식	어류	109,516	80,110	93,667	92,730	16.9	-1.0
	패류 등	345,180	373,218	365,326	390,899	-2.1	7.0
	해조류	858,659	901,672	847,686	842,600	-6.0	-0.6
	소계	1,313,355	1,355,000	1,306,679	1,326,229	-3.6	1.5
원양	어류	493,857	488,155	408,810	421,050	-16.3	3.0
	갑각류, 연체동물	118,093	103,961	97,913	112,180	-5.8	14.6
	소계	611,950	592,116	506,724	533,230	-14.4	5.2
내수면어업		30,071	30,982	31,789	29,897	2.6	-6.0
합계		3,182,342	3,110,634	3,034,408	3,107,614	-2.5	2.4

주 : 2011년 자료는 2011년 1월~11월의 어업생산통계에 최근 3년(2008~2010년) 12월의 평균 생산량을 합산한 잠정치임. 패류 등에는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산동물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시스템(<http://fs.fips.go.kr/>)

〈그림 2-1〉 어업생산량 추이와 전망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시스템(<http://fs.fips.go.kr/>)

2) 수산물 물가지수

- 우리나라 수산물의 종류별 생산자물가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어류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패류와 해조류 지수는 하락하였다.
- 2008년 어류 생산자물가지수는 107.1에서 2009년 145.4, 2011년 156.9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2년에는 전년도 비축된 산지 공급물량의 증대로 출하가격이 하락하여 어류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반적으로 약간 하락하여 전년 대비 1.0% 감소하는 155.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패류 생산자물가지수는 2009년 117.7을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하였다가, 2011년 95.4로 다소 반등한 후 2012년에도 전년 대비 1.3% 하락하여 9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해조류 생산자물가지수는 2011년 작황 부진의 여파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 118.0을 기록한 후, 2012년에는 120.7로 전년 대비 2.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8〉 수산물 종류별 생산자물가지수 추이와 전망

단위 : 2005년=100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증감률(%)	
						11/10	12/11
어류	107.1	145.4	151.7	156.9	155.4	3.4	-1.0
패류	107.3	117.7	89.0	95.4	94.2	7.2	-1.3
해조류	122.0	112.5	116.6	118.0	120.7	1.2	2.3

자료 : 통계청, 생산자물가지조사(2005년=100).

- 한편, 2012년 들어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위축이 수산물 내수시장의 둔화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다소 약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 즉, 2012년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어류 159.1, 패류 129.1, 그리고 해조류 141.3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약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9〉 수산물 종류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와 전망

단위 : 2005년=100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증감률(%)	
						11/10	12/11
어류	112.9	131.0	143.1	159.4	159.1	11.4	-0.2
패류	103.3	117.8	127.9	132.2	129.1	3.4	-2.3
해조류	120.3	129.1	132.3	142.2	141.3	7.5	-0.7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2005년=100).

3) 수산물 수출입

- 2011년 수산물 수출량은 약 84만 톤으로 잠정 추정되며, 이는 전년 대비 6.0%가 증가한 것이다. 해조류의 수출이 전년 대비 15.1% 증가하여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어류 및 패류 등의 수출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2011년 수산물 수입은 약 488만 톤으로 잠정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수산물 수입량의 약 70%가 천일염과 식염으로 이를 제외한 수산물 수입량은 약 145만 톤 수준이다.

〈표 2-10〉 수산물 종류별 수출입 추이¹⁾ 및 전망

단위 : 천 톤, %

구분		2009	2010	2011	2012	증감률(%)	
						11/10	12/11
수출량	어류	386	465	488	528	5.1	8.1
	패류	170	201	207	211	3.0	2.1
	해조류	91	120	139	156	15.1	12.3
	천일염, 식염	4	7	7	7	-8.0	7.5
	소계	652	793	840	902	6.0	7.3
수입량	어류	731	767	832	881	8.4	5.9
	패류	531	560	610	637	8.9	4.4
	해조류	10	10	10	11	5.4	6.0
	천일염, 식염	2,809	3,378	3,432	3,500	1.6	2.0
	소계	4,080	4,716	4,884	5,029	3.6	3.0

주 : 2011년 수출입실적은 현재 공표된 1월~11월 실적 합계에 최근 3년(2008~2010년) 12월 실적 평균을 합산한 잠정치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수산물 수출입 통계.

- 한편, 2012년 들어 수산물 수출량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약 9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산물 수입량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약 503만 톤(천일염·식염 제외 시 약 153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종류별로는 어류 수출량이 전년 대비 8.1%, 패류 2.1%, 해조류 12.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입에서는 어류가 전년 대비 5.9%, 패류 4.4%, 해조류 6.0%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수산물 소비

- 2011년의 수산물 1인당 총소비량은 당해연도 총어업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소득효과에 힘입어 전년 대비 0.3% 증가한 51.3kg으로 추정된다.
- 종류별로는 어류 및 패류의 1인당 소비량이 증가한 반면, 해조류는 감소하였다.
- 2012년에도 어패류 소비를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져 수산물 1인당 소비량은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 약 51.8kg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종류별로는 어류 및 패류가 각각 3.5%, 3.8% 증가하고, 해조류는 6.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2-11〉 수산물 종류별 소비량 추이 및 전망

단위 : kg, %

구분		2009	2010	2011	2012	증감률(%)	
						11/10	12/11
국민1인당 연간 소비량	어류	21.0	20.9	21.5	22.2	2.7	3.5
	패류	13.9	15.4	16.3	17.0	5.9	3.8
	해조류	14.3	14.8	13.5	12.6	-9.1	-6.6
	계	49.2	51.2	51.3	51.8	0.3	1.0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연도.

5) 수산업 부가가치

- 수산업(어업 기준, 가공 제외) 부가가치는 2011년 현재 약 2조 3,163억 원(명목)으로 추정되며, 2012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2〉 수산업 부가가치 추이 및 전망

단위 : 백만 원, 원/kg, %

구분	2009	2010	2011	2012	증감률(%)	
					11/10	12/11
어업부가가치(명목)	3,279,539	2,602,516	2,316,397	2,315,548	-11.0	0.0
어업부가가치(실질) ¹⁾	2,739,477	2,568,057	2,014,231	1,954,847	-21.6	-2.9
어업총산출액(명목)	6,939,303	7,417,398	7,163,479	7,159,596	-3.5	-0.1
어업생산자가격 (명목, 원/Kg)	2,176	2,491	2,268	2,179	-9.0	-3.9
어업부가가치율	47.3%	35.1%	32.3%	32.3%	-7.7	0.0

주 : 1) 2005년 기준 수산물 디플레이터로 산출한 실질치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 어업 총산출액은 2011년 7조 1,635억 원(명목)에서 2012년 7조 1,595억 원(명목)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어업 생산량이 2012년에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산물 생산자가격이 소폭 하락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른 어업 부가가치율(부가가치/총산출)은 2009년 47.3%에서 2011년 32.3%, 2012년 32.9%로 전망되어 어업부문의 부가가치 창출능력 및 채산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어가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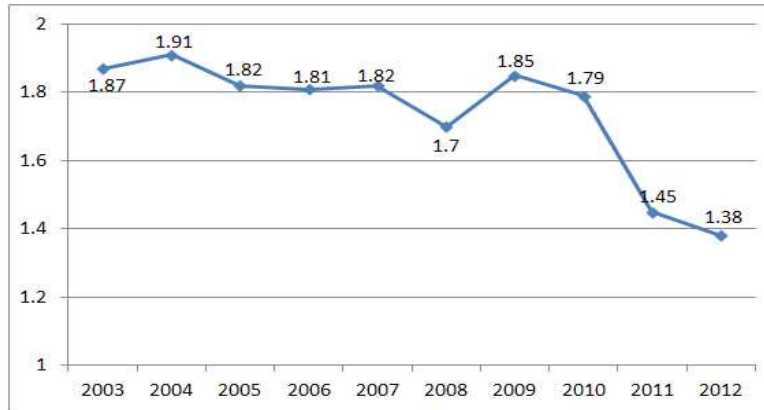
(1) 어업 경영수지

- 어가의 경영수지를 나타내는 어업 경영수지 비율³⁾은 2003년 1.87에서 2010년 1.79로 소폭 악화되었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3) 어업경영수지 = 어업수입 ÷ 어업경영비.

- 그러나 2011년 어가 경영수지는 1.45, 2012년에는 1.38로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 어가 경영수지 비율 추이와 전망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2) 어가수

- 우리나라 총어가수는 2011년 현재 65,500가구이며, 이중 어로어가 48,569가구, 양식어가 16,931가구로 추정된다.
- 한편, 2012년 총어가수는 2011년과 비슷한 65,075가구로 전망되며, 어로어가는 48,529가구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양식어가는 16,547가구로 전년 대비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3〉 어가수 추이 및 전망

단위 : 호,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증감률(%)	
					11/10	12/11
총어가	69,379	65,775	65,500	65,075	-0.4	-0.6
어로어가	46,787	48,389	48,569	48,529	0.4	-0.1
양식어가	22,592	17,386	16,931	16,547	-2.6	-2.3

자료 : 통계청, 어업조사 및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3) 어가소득

- 2011년의 어가소득은 명목가치 기준으로 3,676만 원 수준으로서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2년에는 전년과 비슷한 3,684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1년의 어가소득이 증가한 것은 주로 어업소득 중 양식분야 및 기타 어업분야, 그리고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 전체 어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어업소득의 비중은 어업의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의 증가로 이를 보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4〉 어가소득 추이와 전망

단위 : 천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증감률(%)	
						11/10	12/11
명목	어가소득	33,945	35,696	36,764	36,843	3.0	0.2
	어업소득	16,220	16,607	16,823	16,885	1.3	0.4
	- 양식 분야	5,392	6,020	6,110	6,199	1.5	1.5
	- 어로 분야	10,268	10,068	10,033	10,014	-0.3	-0.2
	- 기타어업 분야	560	519	679	672	30.9	-1.1
	기타 어업외소득	17,725	19,089	19,942	19,958	4.5%	0.1%
실질	어가소득	28,355	35,223	36,243	36,296	2.9	0.1
	어업소득	13,549	16,387	16,584	16,635	1.2	0.3
	- 양식 분야	4,504	5,940	6,023	6,107	1.4	1.4
	- 어로 분야	8,577	9,935	9,891	9,866	-0.4	-0.3
	- 기타어업 분야	468	512	670	662	30.8	-1.2
	기타 어업외소득	14,806	18,836	19,659	19,662	4.4%	0.0%

주 : 2011년 자료는 추정치임.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4.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는 2012년 수산부문 전망에 초점을 두어 추진되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개발한 수산총량모형(KMI-FSM04)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 주요 외생변수로서 국제유가 및 환율이 분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데, 이들 변수에 대한 전망은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의 전망자료를 참조하였다.
 - 특히 국제유가 전망은 각 기관마다 낙관적 및 비관적 전망이 혼재하는데, 본 분석에서는 2012년 국제유가가 2011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이란사태 등 국제사회 정세가 불안하여 국제유가가 대폭 상승하는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다소 변동폭이 확대되는 전망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 국제적으로 수산업의 글로벌화가 급격히 진전되는 가운데 시장경쟁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여건 변화 속에서 국내 수산업의 ‘생존과 발전,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 선진 수산국의 글로벌 수산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업종과 품목에 자원배분을 집중함으로써 세계 수산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세 소규모, 고령 어업인 위주의 국내 수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 따라서 미래 수산업 생존을 위한 차세대 수산업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어업생산 분야의 진입규제 완화 및 경쟁 유도, 자원 및 환경의 효율적 관리, 수산부문 R&D 투자 등을 통해 전략품목을 발굴하고, 이를 수출과 연계하는 등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 한편, 유럽발 재정위기 및 세계 경기 둔화로 국내 전 산업부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산부문에서도 FTA 등 시장개방 확대, 기후변화 및 수산자원 변동 등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 특히, 미국, EU와의 FTA 발효로 농어업 분야 피해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중국, 일본과도 FTA 추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산부문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피해 보전, 어업인 소득기반 확충과 더불어 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 및 세제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12년 경제전망”, 2011.12.
-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수산물정책”, 2012.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년 세계경제전망 : 국제거시금융환경”, 2010.12.
- 박우규·오상훈·이진면, “거시모형을 이용한 중장기 정책효과 분석,”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제17권 제4호, 1995.
- 산업연구원, “2012년 경제·산업전망”, 2011.11.
- 삼성경제연구소,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 2011.9.
- 수협중앙회, 수협 수산통계, 각 연도.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각 연도.
-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2011.1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연도.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각 연도.
- 한국은행, “2012년 경제전망”, 2011.12.
- 한국은행, 『계간 국민계정』, 각 분기.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 월.
- 홍현표 외, 『수산부문 전망을 위한 총량모형의 구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 Hertel, T. W., Applied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Research Consortium, December 12-14, 1991, New Orleans, Louisiana, 1991.
- Intriligator, M. D., Econometric Models, Techniques, & Applications, 1978.
- Maddala, G. S., Introduction to Econometrics, John Wiley & Son, 2001.

제3장 어가경제의 동향과 전망

이승우* · 최성애* · 김봉태** · 박상우**

목 차

- | | |
|-------------------|-------------------|
| 1. 서론 | 3. 2010년 어업총조사 결과 |
| 2. 어가경제 동향 | 4. 귀어 · 귀촌 동향 |
| 1) 어가소득 | 5. 2012년 전망과 이슈 |
| 2) 어가지출 | 1) 전망 |
| 3) 어가부채 | 2) 이슈 |
| 4) 연령별 · 어업형태별 동향 | |

1. 서론

- 연안의 자원과 공간은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국토의 중요한 부분이다. 연안의 자원과 공간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연안은 국가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연안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는 물론이고 국민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 어촌, 어항, 어장은 연안을 구성하는 중요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이들 공간에 있는 자연자원과 인문자원, 그리고 인프라 등은 사회·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어장에서 수산물 생산하는 어업은 어촌경제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연안의 다양한 자원과 공간을 어업과 연계함으로써 어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야 한다.
- 수산물의 생산공간인 어장뿐만 아니라 생산기반시설인 어항은 연안의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어촌주민의 생

* 연구위원, ** 전문연구원

활공간인 어촌은 생산공간인 어장의 생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적자원의 공급공간이며, 어촌을 구성하는 어가는 수산업의 유지·성장에 필요한 노동력의 공급주체다. 그러나 어가의 구성원인 어촌주민의 생활공간으로서 어촌은 도시에 비하여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낮은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으로 청장년층이 어촌을 떠나면서 어촌인구가 감소함과 동시에 어촌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따라서 정부는 어촌의 인적자원 유입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귀어·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업 특성과 법·제도적 여건으로 인하여 귀어·귀촌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귀어·귀촌자가 1차 산업인 어업은 물론이고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수산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연안 자원과 공간을 융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수산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 이러한 수산정책의 추진에 따라 어촌이 복합산업의 공간으로 변화할 경우에 어촌으로 인적자원의 유입이 촉진될 것이며, 어촌주민의 어업 외 소득도 증가하여 어촌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장에서 어촌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어가경제의 변화를 통계청의 어업조사와 어가경제조사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어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어업총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귀어·귀촌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하여 어촌의 노령화, 경영의 규모화, 소득원의 다양화 등을 중심으로 어가경제에 대한 2012년의 전망과 이슈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어가경제 동향

1) 어가소득

- 2010년 어가소득은 전년 대비 5.2% 증가하였다. 세부내역별로는 어업소득이 2.4%, 어업외 소득이 7.1% 이전소득이 11.7% 증가하였고 비경상소득도 6.3%

늘어났다.

- 어가소득에서 가장 비중이 큰 어업소득이 정채되어 있는 반면 어업외 소득과 이전소득의 상승률이 높았다.
 - 어업소득이 정채된 것은 같은 기간에 어업총수입은 6.6% 늘어난 반면 어업경영비가 10.2%로 더 많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
- 그러나 5년 전과 비교하면 어가소득에서 어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4%p 높아진 반면 어업외소득은 33%로 2%p 낮아져서 어업소득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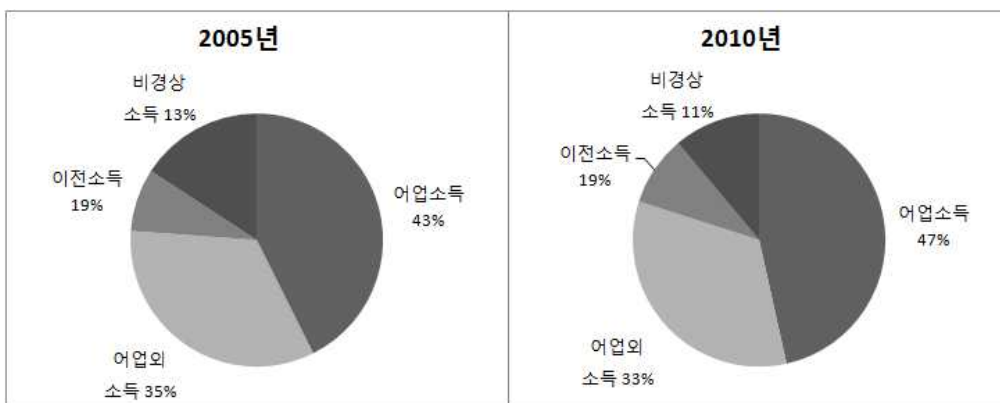
〈표 3-1〉 어가소득 동향

단위 : 천원, %

구 분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증가율 ('10/'09)
어가소득(A=B+C)	28,028	30,668	33,945	35,696	5.2
경상소득(B)	23,594	25,868	30,213	31,729	5.0
어업소득(D)	11,950	11,975	16,220	16,607	2.4
(어업총수입)	(26,576)	(26,535)	(35,350)	(37,682)	(6.6)
(어업경영비)	(14,626)	(14,560)	(19,129)	(21,076)	(10.2)
어업외소득	9,399	10,981	11,136	11,931	7.1
이전소득	2,245	2,913	2,857	3,191	11.7
비경상소득(C)	4,434	4,799	3,732	3,968	6.3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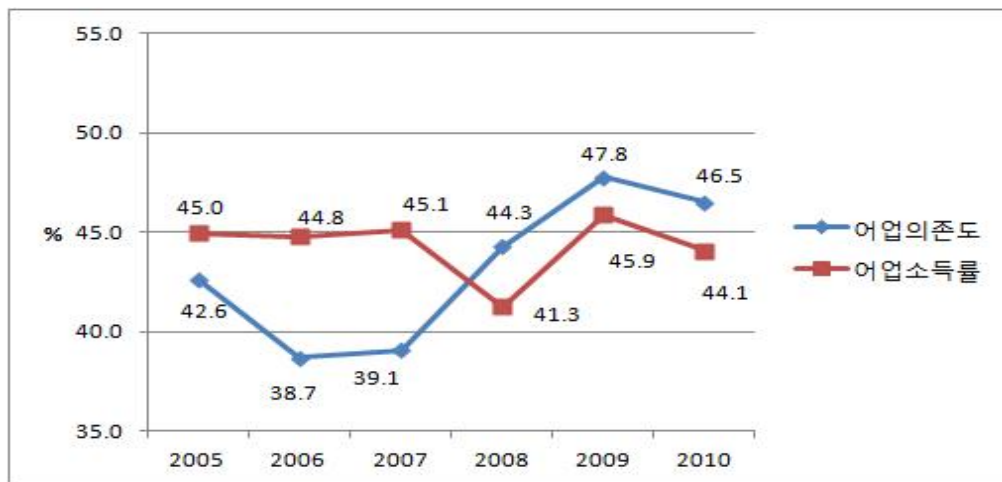
〈그림 3-1〉 어가소득 세부내역의 비중 변화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 어가의 어업경영 성과가 전년에 비해 부진한 것은 어업소득률(어업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어업소득의 비중)에서도 확인되는데 2009년 45.9%로 최근 5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44.1%로 소폭 하락하였다.
- 어업의존도(어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어업소득의 비중)는 2007~2009년에 상승하였다가 2010년에 역시 소폭 하락하여 46.5%를 기록하였다.
- 2010년 전국 근로자가구 대비 어가소득의 비율은 75.0%로 2008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어가경제 여건이 근로자가구보다 개선되고 있는 추세가 이어졌지만 그 정도는 둔화되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어업소득의 정체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 한편 2011년의 어가소득은 어업소득 이외 소득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0% 증가한 3,676만 원으로 추정된다.
 - 2011년 어업소득은 어업경영비의 상승으로 증가율이 더욱 둔화되어 1.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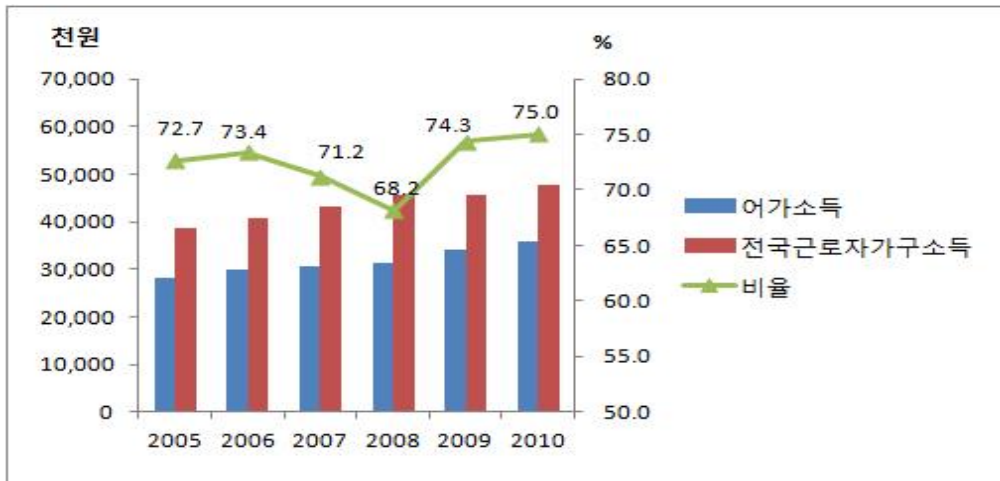
〈그림 3-2〉 어업소득률 · 어업의존도 추이



주 : 어업소득률=어업소득÷어업총수입×100(%); 어업의존도=어업소득÷어가소득×100(%)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그림 3-3〉 어가소득 · 전국가구소득의 비교



주 : 전국 근로자가구는 2인 이상 가구임.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 어가지출

- 2010년 어가지출은 2,8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하였다. 이는 어가소득 증가율(5.2%)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 어가지출이 어가소득보다 많이 늘어나면서 어가경제잉여는 1.7%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어가의 저축률이라 할 수 있는 어가경제잉여율은 2010년 24.1%로 전년 대비 0.9%p 낮아졌다.

〈표 3-2〉 어가지출 및 어가경제잉여 동향

단위 : 천원, %

구 분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증가율('10/'09)
가계지출(A+B)	22,896	22,963	27,065	28,700	6.0
소비지출(A)	17,682	18,263	20,656	21,982	6.4
비소비지출(B)	5,214	4,700	6,409	6,719	4.8
처분가능소득(C)	22,815	25,968	27,537	28,978	5.2
어가경제잉여(D=C-A)	5,133	7,704	6,881	6,996	1.7
어가경제잉여율(D/C)	22.5	29.7	25.0	24.1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3) 어가부채

- 2010년 어가부채는 3,5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어업용 부채는 4.0% 줄어든 반면 어업용 이외 부채는 3.2% 증가하여 소비성 부채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 부채가 줄어들면서 2010년 어가의 단기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당좌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6으로 향상되어 어가의 부채상환 능력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어가부채 동향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증가율 (‘10/’09)
어가부채(A)	34,531	34,407	35,864	35,640	-0.6
어업용 부채 (구성비)	18,560 (53.7)	16,690 (48.5)	19,038 (53.1)	18,277 (51.3)	-4.0
어업용 이외 부채 (구성비)	15,971 (46.3)	17,717 (51.5)	16,826 (46.9)	17,363 (48.7)	3.2
당좌자산(B)	47,608	64,341	63,648	73,560	15.6
단기상환능력(B/A)	1.38	1.87	1.77	2.06	

주 : 연말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4) 연령별 · 어업형태별 동향

- 2010년 경영주 연령별 어가소득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30대 이하 연령층의 소득이 가장 많고, 40대, 50대, 60대 등의 순으로 연령대에 반비례하였다.
- 소득 증가율도 30대와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높았다.
- 가계지출은 40대가 가장 많았고, 50대, 30대 이하, 60대, 70대 이상의 순이다.
- 40대, 60대, 70대 이상의 가계지출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증가했으나 30대 이하와 50대는 소폭 늘어나거나 정체되었다.

- 자산은 소득 수준과 마찬가지로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의 순으로 많았고 부채의 경우도 연령대에 반비례하였다.
- 그러나 30대 이하의 부채와 40대의 부채가 각각 전년 대비 32.4%, 9.5% 감소하여 전체 어가부채의 감소를 이끌었다.

〈표 3-4〉 경영주 연령별 어가경제 현황(2010년)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어가소득	35,696 (5.2)	57,079 (27.3)	48,867 (24.7)	42,943 (6.2)	30,607 (0.1)	22,176 (6.8)
가계지출	28,700 (6.0)	33,558 (4.9)	37,227 (16.3)	34,055 (0.1)	26,226 (15.2)	17,853 (12.0)
자 산	258,872 (0.7)	300,492 (9.8)	235,723 (8.0)	260,015 (-6.1)	280,784 (5.6)	226,931 (-2.3)
부 채	35,640 (-0.6)	62,905 (-32.4)	49,771 (-9.5)	46,885 (12.2)	30,404 (9.2)	14,188 (-3.7)
부채/자산	0.14	0.21	0.21	0.18	0.11	0.06

주 : 괄호안의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 2010년 어업형태별 어가소득은 어선사용 어로어가 3,77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양식어가가 이와 비슷한 수준인 3,741만 원이었다.
- 어가소득 증가율은 양식어가 6.1%, 어선비사용 어로어가 5.7%, 어선사용 어로어가 4.7%이지만 증가율은 어업형태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 가계지출 현황도 어가소득과 비슷하게 어선사용 어로어가, 양식어가가 3,050만 원으로 비슷한 수준이고 어선비사용 어로어가는 2,280만 원이었다.
- 가계지출 증가율은 양식어가가 9.0%로 어로어가보다 높아 전체 지출 증가를 이끌었다.
- 자산은 양식어가와 어선비사용 어로어가, 어선사용 어로어의 순으로 많았으며 양식어가의 자산 증가율이 7.0%로 어로어가와 달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어로어가는 1.8% 감소하였다.

- 부채는 양식어가가 가장 많았고 증가율도 4.8%로 높았다. 이와 달리 어로어가의 부채는 2.3% 감소하였다.
- 소득과 자산·부채 현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식어가가 어로어가에 비해 생산적인 부채와 자산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어가소득도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 실제로 어업소득 면에서 보면 양식어가는 11.4% 증가한 반면 어로어가는 1.3% 감소하였다.

〈표 3-5〉 어업형태별 어가경제 현황(2010년)

단위 : 천원, %

구 분	전체평균	어 로 어 가			양식어가
		평 균	어선비사용	어선사용	
어가소득	35,696 (5.2)	35,006 (4.9)	29,383 (5.7)	37,717 (4.7)	37,405 (6.1)
가계지출	28,700 (6.0)	28,013 (5.0)	22,801 (2.4)	30,525 (5.9)	30,403 (9.0)
자 산	258,872 (0.7)	252,556 (-1.8)	266,410 (-3.7)	245,877 (-0.9)	274,509 (7.0)
부 채	35,640 (-0.6)	30,180 (-2.3)	18,358 (0.2)	35,879 (-2.9)	49,156 (4.8)
부채/자산	0.14	0.12	0.07	0.15	0.18

주 : 괄호안의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3. 2010년 어업총조사 결과

- 1970년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어가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온 어업총조사는 국가 지정통계로 수산정책 수립 및 관련 학술연구에 중요한 지표 및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어업총조사는 10년마다 실시되다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1990년부터는 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 최근 통계청은 2010년 12월에 실시한 어업총조사 결과의 일부에 대하여 공표하였다. 통계청에서 공표한 2010년 어업총조사 결과 집계 중에서 해면어업을 중심으로 과거 2000년, 2005년의 어업총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1) 어가수 및 어가인구, 감소폭 확대

- 2010년 우리나라 총 어가는 65,775가구로 2005년 대비 17.8%, 14,167가구가 감소하였다.
 - 최근 어가의 감소폭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2000-2005년의 5년 동안 1,629가구가 감소하였으나, 2005-2010년의 5년 동안 감소한 어가는 14,167가구로, 더 많은 수의 어가가 감소하였다.
- 그리고 총 어가인구는 171,191명으로 2005년보다 22.6% 감소하였다.
 - 2000-2005년의 5년 동안 30,217명 감소하였으나, 2005-2010년의 5년 동안 감소한 어가인구는 49,941명으로 최근 어가인구의 감소 또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6〉 어가수 및 어가인구 변화추이

단위: 가구, 명, %

구 분		2000년	2005년(a)	2010년(b)	b/a
어가수		81,571	79,942	65,775	82.2
어가인구		251,349	221,132	171,191	77.4
성별	남	126,775	110,658 (50.1)	85,590 (49.9)	77.3
	여	124,574	110,474 (49.9)	85,601 (50.1)	77.4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

2) 어업경영주 노령화 빠르게 진행

- 어가의 65세 이상의 어가 고령화율은 23.1%로 농가의 31.8%보다는 낮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1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3-7〉 65세 이상 인구비중(고령화율) 변화추이

단위: %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전국	5.0	5.9	7.3	9.3	11.2
동	3.6	4.3	5.5	7.2	9.1
읍·면	9.0	11.8	14.7	18.6	20.6
농가	11.5	16.1	21.7	29.1	31.8
어가	7.2	11.0	12.2	18.8	23.1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

- 65세 이상 어업경영주 고령화율은 32%로 어가인구 고령화율 23%보다 높아 어업경영주의 노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0대 이하 어업경영주는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나, 70대 이상 경영주는 반대로 크게 늘고 있어 젊은 어업경영주의 어업이탈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표 3-8〉 연령별 어업경영주 변화 추이

단위: 명, %

연 령		2000년	2005년(a)	2010년(b)	b/a
계		81,571	79,942 (100)	65,775 (100)	82.2
성별	남	66,586 (81.6)	62,988 (78.8)	50,707 (77.0)	80.5
	여	14,985 (18.4)	16,954 (21.2)	15,068 (23.0)	88.8
~ 39		8,797	4,147 (5.1)	2,483 (3.7)	59.8
40 ~ 49		21,803	16,987 (21.2)	9,890 (15.0)	58.2
50 ~ 59		25,527	25,273 (31.6)	20,881 (31.7)	82.6
60 ~ 69		20,395	23,664 (29.6)	20,601 (31.3)	87.0
70 ~		5,049	9,871 (12.3)	11,920 (18.1)	120.7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

3) 겸업어가 늘어

- 전업어가는 19,323가구로 2005년 대비 23.8%, 6,019가구가 감소하였다.
- 전업어가의 비중은 3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겸업어가의 비중이 늘었는데 특히 어업소득이 많은 제1종 겸업어가의 비중이 늘었다.

〈표 3-9〉 전·겸업별 어가변화 추이

단위: 가구, %

구 분		2000년	2005년(a)	2010년(b)	b/a
총 계		81,571	79,942 (100)	65,775 (100)	82.2
전 업		29,699	25,342 (31.7)	19,323 (29.4)	76.2
겸 업	소 계	51,872	54,600 (68.2)	46,452 (70.6)	85.0
	제1종 겸업	29,233	28,410 (35.5)	24,430 (37.1)	85.9
	제2종 겸업	22,639	26,190 (32.7)	22,022 (33.5)	84.0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

4) 어업경영형태, 어선비사용 어업 어가 늘어

- 2000년 이후 어선비사용어업의 어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반대로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경영어가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 65,775 어가 중 어선어업 경영어가는 44.1%, 29,062 가구, 양식어업 경영어가는 26.4%, 17,386가구 그리고 어선비사용어업 경영어가는 29.3%, 19,327가구로 집계되었다.

〈표 3-10〉 어업경영형태별 종사어가 변화추이

단위: 가구, %

어업 경영 형태	2000년	2005년(a)	2010년(b)	b/a
합 계	81,571	79,942	65,775	82.2
어선어업	41,527	39,218 (49.0)	29,062 (44.1)	74.1
양식어업	22,225	21,606 (27.0)	17,386 (26.4)	80.4
어선비사용어업	17,819	19,118 (23.9)	19,327 (29.3)	101.0
-나잠, 맨손어업	6,054	18,798	-	
- 기타	11,765	320	-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

5) 2톤 미만 소형어선 보유어가 감소폭 커

- 2010년 현재 어선을 보유한 어가는 36,433가구로 2005년 대비 19.6%, 8,844가구가 감소하였다.
- 특히 2톤 미만어선보유 어가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그 다음이 50톤 이상의 어선을 보유한 어가의 감소폭이 컸다. 반면 20-50톤 규모의 어선을 보유한 어가의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어선톤수별 어선보유 어가변화 추이

단위: 가구, %

톤 수	2000년	2005년(a)	2010년(b)	b/a
계	47,184	45,266 (100)	36,422 (100)	80.4
2톤 미만	25,032	23,576 (52.0)	18,086 (49.6)	76.6
2 - 5톤 미만	14,916	13,965 (30.8)	11,479 (31.5)	82.1
5 - 10톤 미만	4,845	5,535 (12.2)	4,896 (13.4)	88.4
10 - 20톤 미만	1,045	943 (2.0)	840 (2.3)	89.0
20 - 50톤 미만	746	744 (1.6)	720 (1.9)	96.7
50톤 이상	600	503 (1.1)	401 (1.1)	79.7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

6) 대규모 양식어가 증가

- 양식어장을 이용하는 어가는 22,046가구로 2005년 대비 21.8%, 6,138가구가 감소하였다.
- 반면, 어장규모가 클수록 어가구성비가 높아지는 경향으로 특히 10-20ha, 20ha 이상의 어가가 2005년 대비 각 1.3배, 2.3배로 늘어 양식어장 경영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2〉 양식어장 면적규모별 어가변화 추이

단위: 가구, %

면적 규모	2000년	2005년(a)	2010년(b)	b/a
총 계	28,704	28,184	22,046	78.2
1ha 미만	14,805	14,388 (51.0)	10,506 (47.6)	73.0
1.0 ~ 3.0ha 미만	7,417	7,691 (27.2)	5,250 (23.8)	68.2
3.0 ~ 6.0ha 미만	3,601	3,220 (11.4)	2,810 (12.7)	87.2
6.0 ~ 10.0ha 미만	1,373	1,444 (5.1)	1,279 (5.8)	88.5
10.0 ~ 20.0ha 미만	1,219	1,100 (3.9)	1,391 (6.3)	126.4
20.0ha 이상	289	341 (1.2)	810 (3.6)	237.5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

7) 수산물 판매금액 증가 어가 늘어

- 수산물 판매금액 3000만 원 이상의 어가가 전체의 26%로 2005년의 15.4%보다 증가하였다. 특히 3000-5000만원 미만, 5000만 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어가는 2005년 대비 각 1.2배, 1.6배 정도 증가하여 수산물 판매금액이 높은 어가가 늘었다.

〈표 3-13〉 수산물 판매금액별 어가변화 추이

단위: 가구, %

판매 금액	2000년	2005년(a)	2010년(b)	b/a
총 계	81,571 (100)	79,942 (100)	65,775 (100)	82.2
50만원 미만	2,143 (2.6)	4,100 (5.1)	-	
50 ~ 100만원미만	7,261 (8.9)	7,095 (8.9)	5,143 (7.8)	45.9
100 ~ 1,000만원미만	38,008 (46.6)	35,474 (44.4)	27,583 (41.9)	77.7
1,000 ~ 3,000만원미만	23,552 (28.9)	20,932 (26.2)	15,844 (24.1)	75.6
3,000 ~ 5,000만원미만	4,732 (5.8)	5,463 (6.8)	6,362 (9.6)	116.4
5,000만 원 이상	5,610 (6.9)	6,878 (8.6)	10,843 (16.4)	157.6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

8) 비계통 수산물 판매 늘어

- 수협을 통한 수산물 계통 판매는 줄고, 비계통 판매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비계통판매의 경우 도매시장, 수집상, 가공공장 등의 수산물판매 감소가 두드러졌고, 양식장 판매는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음식점 판매는 약간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4〉 수산물판매처별 어가변화 추이

단위: 가구, %

판 매 처		2000년	2005년(a)	2010년(b)	b/a
총 계		81,306 (100)	79,942 (100)	65,775 (100)	82.2
계통	수 협	38,118 (46.9)	34,061 (42.6)	25,914 (39.3)	76.0
비 계 통	소계	43,188 (53.1)	45,881 (57.4)	39,861 (60.7)	86.8
	도매시장	6,875	4,722	2,885	61.0
	수집상	23,459	21,158	15,765	74.5
	음식점	2,055	2,216	2,159	97.4
	가공공장	2,447	2,468	1,636	66.2
	양식장	852	396	407	102.7
	소비자직접판매	1,485	13,946	12,025	86.2
	수산물소매상	-	-	3,599	
	기타	6,015	975	1,385	142.0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

9) 수산물 판매형태, 활어판매 가장 많아

- 활어형태의 수산물 판매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선어(신선포함)형태가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전히 선호하는 수산물 판매 형태는 활어형태로 선도 유지 및 높은 가격 등이 선호 이유라 할 수 있다.

〈표 3-15〉 수산물 판매형태 현황(2010년)

단위 : 가구

구 분		집계결과(%)
수산물 판매형태 (가구)	활어	79,153(69.7)
	선어(신선)	26,146((23.0)
	건제품	5,997(5.2)
	기타가공	1,643(1.4)
	종 목	571(0.5)
	합 계	113,510(100.0)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

10) 어업고용, 연인원 2만 명 넘어

- 가족이외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어가는 17,675가구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체 어가의 26.8%의 비중을 차지한다. 즉 대략 3가구 중 1가구는 외부 인력을 고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어업고용 현황을 보면 내국인 고용어가 17,038가구, 96.3%, 외국인 고용어가 637가구 3.7%로 대부분 내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16>을 근거로 2010년 어업고용인수를 대략 산정해 보면 내국인 고용인은 최소 18,560명 이상, 외국인 고용인은 3,747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략적 전체 어업 고용인수는 최소 연인원 22,307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3-16〉 어업고용 현황(2010년)

단위 : 가구

구 분			집계결과
어업고용 (가구)	1개월 미만		3,980
	1-2개월	내국인	1인
			714
			2인
			570
			3인
			276
			4인 이상
			600
			소 계
			2,160

		외국인	1인	35
			2인	32
			3인	11
			4인 이상	13
			소계	91
	2-6개월	내국인	1인	1,151
			2인	909
			3인	469
			4인 이상	930
			소계	3,459
		외국인	1인	116
			2인	99
			3인	28
			4인 이상	32
			소계	275
	6개월 이상	내국인	1인	2,176
			2인	1,320
			3인	834
			4인 이상	2,024
			소계	6,354
		외국인	1인	434
			2인	434
			3인	217
			4인 이상	271
			소계	1,356
	합 계			17,675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

11) 어업관련 사업, 수산물직거래 가장 많아

- 최근 어가 및 어업경영체는 어업소득뿐 만 아니라 어업이외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어업관련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이번 어업총조사에서는 이들 사업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어업관련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어가는 32,050가구로 전체 어가의 48.7%로 어가의 절반은 이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산물직거래가 16,088가구 약 50%로 가장 많고, 수산물 가공업 22.5%, 수산물직판장 11.2%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 세 가지 사업 즉 수산물직거래, 수산물가공업 그리고 수산물직판장 사업이 전체의 약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식당경영, 어촌관광 그리고 낚시안내업이 16%를 차지하여 다양한 어업관련 사업이 경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7〉 어업관련 사업 현황(2010년)

단위 : 가구

구 분		집계결과(%)
어업관련 사업 (가구)	수산물직판장	3,606(11.2)
	수산물직거래	16,088(50.1)
	식당경영	2,123(6.6)
	수산물가공업	7,226(22.5)
	어촌관광사업	1,322(4.1)
	낚시안내업	1,685(5.2)
	합 계	32,050(100)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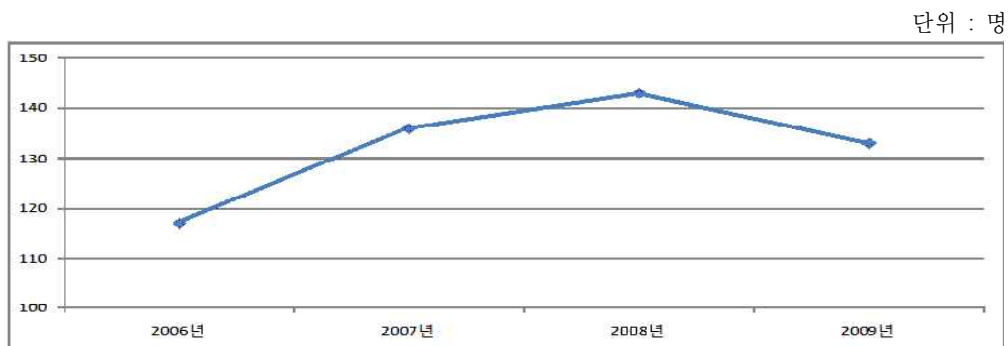
4. 귀어·귀촌 동향

- 우리의 어촌은 어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귀농·귀촌과 더불어 2010년부터 귀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이 전개되고 있다.
- 고령화와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어촌사회에 젊고 능력 있는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새로운 활력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 하지만 귀어는 농업의 귀농과는 달리 인·허가(면허/허가어업), 어업기반(어선, 양식장 등) 없이는 어촌진입에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 이러한 진입장벽을 완화·해소함으로써 새로운 인구를 어촌사회로 유입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1) 귀어·귀촌 동향

- 어촌의 귀어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평균 383가구로 이는 IMF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귀어·귀촌이 나타났으며, 이후 2006년 117명에서 2008년 143명에 달하였으며, 2009년에는 133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귀어 정책지원사업 대상자 이외에 이전의 귀어·귀촌 동향을 파악하는 데 기초자료의 한계가 있었다.

〈그림 3-4〉 귀어 인구 추이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내부자료

주 : 2010년, 2011년의 귀어가수는 귀어 정책지원사업 대상자만 파악되어 제외하였음.

2) 업종별 귀어·귀촌

- 귀어·귀촌의 보다 세부적인 동향은 귀어 정책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해 살펴보았다.
- 전체 귀어가의 60% 가량이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선어업, 종묘생산, 가공, 어촌비즈니스 순으로 나타났다.
- 양식어업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전문 기술을 요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높은 어업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3-18〉 업종별 귀어 동향

단위 : 가구, %

구 분	양식어업	어선어업	종묘생산	가공	어촌비즈니스 (펜션포함)	계
2010년 (비율)	32 (59.3)	14 (25.9)	4 (7.4)	2 (3.7)	2 (3.7)	54 (100.0)
2011년 (비율)	18 (62.1)	10 (34.5)	1 (3.4)	-	-	29 (10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내부자료

3) 지역별 귀어·귀촌

- 전체 귀어가의 절반 이상이 전남지역으로 귀어·귀촌하였으며, 전북, 경남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남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양식어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특히 2011년의 경우 전체 귀어가의 76%가 전남지역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19〉 지역별 귀어 동향

단위 : 가구, %

구 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계
2010년 (비율)	2 (3.7)	4 (7.4)	2 (3.7)	9 (16.7)	29 (51.9)	8 (16.7)	54 (100.0)
2011년 (비율)	1 (3.4)	1 (3.4)	3 (10.3)	-	22 (75.9)	2 (6.9)	29 (10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내부자료

5. 2012년 전망과 이슈

1) 전망

- 2012년 총 어가 수는 2011년도 대비 1.1% 감소한 65,075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어로어가는 48,529가구로 0.1% 감소하지만 양식어가는 16,547가구로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65세 이상 어업경영주 고령화율이 어가인구 고령화율보다 높아져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50세 미만 인구의 감소율이 50세 이상 인구 감소율보다 크기 때문에 어가 노령화 지수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 2012 어가소득은 2010년보다 3.2% 증가한 36,840천원으로 전망된다. 어가소득에서 어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45.8%, 어업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2.5%일 것으로 전망된다.
- 2012년 어업소득은 전년도에 비하여 1.7% 증가하고 어업외 소득은 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어로어가의 어업소득은 0.5% 감소하지만, 양식어가의 어업소득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어로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수의 감소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어업의 경영 규모화는 계속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양식어가 수는 감소하지만, 양식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2톤미만의 어선의 감소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귀어·귀촌자는 귀농·귀촌자보다 적지만, 100여명 이상이 매년 귀어·귀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어·귀촌자에 대한 지원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아 어업인구의 감소폭을 완화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 이슈

- 연령과 반비례하여 어가소득과 어가자산이 많아지는 현상은 어촌인구를 감소시키고, 노령화율을 줄이는 정책추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청장년층이 30대와 40대가 어촌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업어가보다 겸업어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어업외 소득을 어촌에서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는 귀어·귀촌 정책을 수립할 때 어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어

촌의 복합산업과 연계한 귀어·귀촌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귀어·귀촌 실태 및 정책 검토와 귀어·귀촌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 현행 통계자료는 생계형 어업과 기업형 어업을 영위하는 어가경제를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정책 수립의 자료로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생계형 어가와 기업형 경영체로 분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수산정책과 경제적 차원에서 수산정책을 분리하여 수립할 때 수산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모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경영규모가 변화하고 있다. 자율적인 어업경영의 규모화는 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수산정책도 어업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산정책의 수립과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별.
_____, 어가경제조사, 각 연도별.
_____, 어업조사, 각 연도별.
_____, 어업총조사, 각 연도별.

제2부

수산부문별 동향과 전망

- ▶ 제4장 연근해어업의 동향과 전망
- ▶ 제5장 양식산업의 동향과 전망
- ▶ 제6장 원양산업의 동향과 전망
- ▶ 제7장 수산식품산업의 동향과 전망

제4장 연근해어업의 동향과 전망

정명생* · 김대영** · 이정삼***

목 차

- | | |
|-------------------|-------------------|
| 1. 서론 | 4) 어업 생산액 및 생산자가격 |
| 2. 2011년 연근해어업 동향 | 5) 주요 근해어업별 경영 |
| 1) 어업 자원 | 3. 2012년 전망과 이슈 |
| 2) 어선 | 1) 전망 |
| 3) 어업 생산 | 2) 이슈 및 대책 |

1. 서론

- 2011년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전년도에 비해 전체 생산량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중어종 중 갈치와 오징어는 평년에 미치지 못하는 어획량을 보였으나 멸치와 고등어가 평년 이상의 어획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참조기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영측면에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년과 비슷하거나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전년에 비해 어획량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일본의 원전사태의 영향으로 3-5월 어가가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어가가 약간 상승했기 때문이다.
- 본장에서는 2011년 연근해어업의 전반적인 동향 파악을 통해 2012년을 전망하고 주요 이슈를 발굴함으로써 업계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과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어업자원연구실장, ** 부연구위원, *** 전문연구원

- 이를 위하여 자원동향, 어선 및 생산 통계자료, 업계의 의견 및 국내외 동향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어업자원의 동향은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월간 어황정보를 기초로 분석하였는데, 분석 대상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주요 생산어종이면서 대중적인 소비어종인 고등어, 갈치, 오징어, 멸치를 중심으로 동향을 파악하였다.
- 연근해어업 생산은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으로 구분하였고 연안어업은 먼해어업(정치망어업, 마을어업), 구획어업 및 연안허가어업으로 하였다.
- 어업경영 동향과 전망은 근해어업 중 대형선망어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트롤어업 및 기선권현망어업 등 주요 4개 업종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을 실시하였다.¹⁾

2. 2011년 연근해어업 동향

1) 어업 자원

- 연근해어업 자원은 해황과 어황에 의하여 예측할 수 있다. 본 동향은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월간 어황정보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 2011년 주요 어종의 월별 어황을 보면 갈치와 오징어는 평년 대비 저조했던 반면에 멸치와 고등어의 어황은 평년수준 및 평년 대비 순조로운 수준을²⁾ 보였다(<표 4-1> 참조).
- 갈치는 5월 이후 어군밀도가 낮게 형성되어 평년 대비 저조했으며, 오징어는 연근해 수역의 저수온 현상과 함께 중국의 마구잡이식 조업으로 인해 평년 대비 저조하게 나타난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 고등어는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조업이 중단되면서 일시적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었으나 하반기부터 어황이 순조로운 수준을 보였다.
- 멸치는 2009년에는 해파리 떼가 기승을 부리면서 어획량이 크게 저하되었으나 2010년부터 점차 호조를 보이면서 2011년에도 평년수준 이상으로 나

1) 연안어업의 경우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5년마다 연안어업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연도별 분석이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곤란하여 분석에서 제외함.

2) 평년수준은 평년 대비 80~120% 수준을 의미함.

타났다.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어획량 상위 4개 어종(연근해어업 생산량의 51.5% 점유)을 통해서 평년 대비 2011년 한 해의 자원동향을 보면 갈치와 오징어는 저조한 수준을 보였으며, 고등어와 멸치는 평년수준 내지 평년수준 이상을 보였다.

〈표 4-1〉 2011년 연근해 주요 어종의 어황

구 분	고등어	갈치	오징어	멸치
1월	▽	▽	▲	▽
2월	○	○	▽	○
3월	▲	▲	▲	▲
4월	○	▲	▽	▽
5월	▽	▽	▽	○
6월	▽	▽	○	▲
7월	▽	▽	▽	▲
8월	▲	▽	▽	○
9월	▲	▽	▽	▲
10월	▲	▽	▽	○
11월	○	▽	○	▲
12월	▲	▽	○	▲
종합	○	▽	▽	▲

주 : 1) ▲ 평년 대비 순조, ○ 평년수준, ▽ 평년 대비 저조.

2) 본 자료는 국립수산물학원의 월간 어황정보를 기초로 작성하였음.

- 본고에서는 불과 4개 어종을 대상으로 동향을 설명하고 있으나, 상기 어종들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점하고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연근해 어종이다.
- 전술한 주요 어종을 어획하는 어업을 중심으로 어업별 월별 자원동향을 보면 <표 4-2>와 같이 고등어, 전갱이 등을 주로 어획하는 대형선망은 하반기부터 양호한 추세를 보이면서 평년수준 내지 평년 대비 순조로운 어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갈치 등을 어획하는 대형기저는 갈치 어획의 저조에도 불구하고 참조기 등의 호조로 인해 전체 어황은 평년수준으로 나타났다.

-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채낚기는 3월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평년대비 저조한 상태를 보였다. 오징어의 경우 어법별로 어획 편차가 심한데, 대형트롤과 대형선망은 전년 대비 어획량의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오징어 채낚기는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
- 멸치를 주로 어획하는 기선권현망의 경우, 평년수준 내지 순조로운 어황과 함께 어획량 또한 평년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표 4-2〉 2011년 주요 근해어업의 어황

구 분	대형선망	대형기저	채낚기	기선권현망
1월	▽	▽	▽	▽
2월	○	○	○	○
3월	○	○	▲	▲
4월	○	▽	▽	▽
5월	▽	○	▽	○
6월	▽	○	▽	▲
7월	▽	○	▽	○
8월	○	▽	▽	○
9월	○	○	▽	▲
10월	○	○	○	○
11월	○	▲	▽	○
12월	▲	○	○	▽
종합	○	○	▽	○

주 : ▲ 평년 대비 순조, ○ 평년수준, ▽ 평년 대비 저조.

-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어종별 자원동향과 어업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보면 고등어를 주로 어획하는 대형선망, 멸치를 주로 어획하는 기선권현망과 갈치와 참조기 등을 어획하는 대형기저는 평년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채낚기는 평년 대비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자원동향과 어업동향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특히 부어류는 자연적 요인에 민감하다.
- 자연적인 요인으로는 태풍, 장마, 홍수 등을 들 수 있는데, 2011년 한반도엔

100년 만의 집중호우와 이상기온 등 기상이변이 잇따랐다. 연초에는 39일 동안 역대 최장의 한파(12월 24일부터 1월 31일)가 지속되었으며 7월 말부터는 중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한파로 인해 출어일수가 줄어들면서 연초 어획량 감소로 이어졌다. 기선권현망과 자망의 경우 단위노력당 어획량은 높았지만 기상악화로 인해서 조업여건이 나빠 출어일수가 감소하면서 연초 멸치 어획량 감소로 이어졌다. 태풍과 관련하여 2011년 8월에는 무이파가 북상하면서 전국에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 수산업에도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고등어 선망조업이 중단되면서 고등어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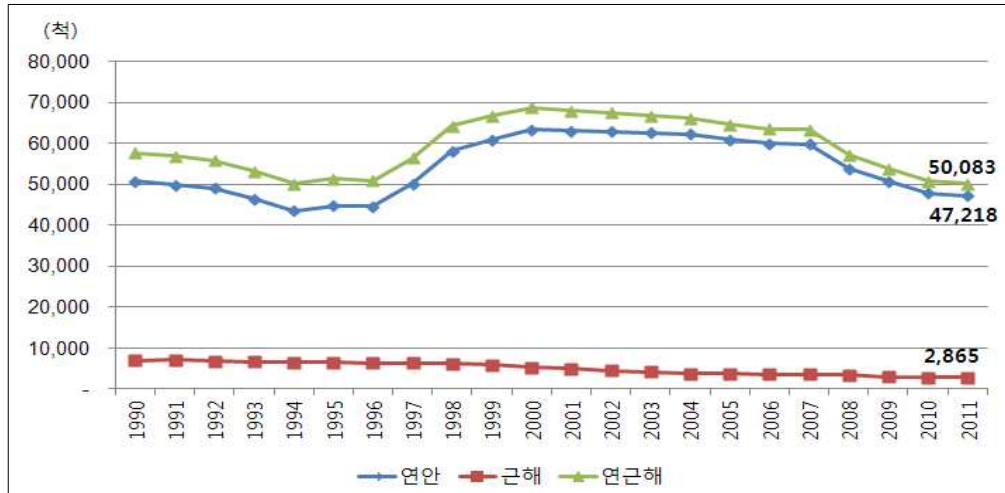
- 자연재해 이외에 해양환경 요인 중 수산자원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수온이다. 연초부터 39일 동안 지속된 한파와 라니냐로 인해서 2011년 상반기에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저수온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서 고등어, 멸치, 오징어 등의 어군형성이 늦춰지게 되었다.
- 기상청에 따르면 2012년에는 1~3월까지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기상악화로 인한 출어일수 감소 및 저수온 현상으로 인한 어군형성 지체가 올해에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어선

- 어선은 어업생산의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은 어선의 규모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8톤 이상은 근해어업이고 그 미만은 연안어업에 속한다.
- <그림 4-1>에서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연근해어업의 어선추이를 보면, 근해어선은 1990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연안어선은 1997년까지 감소하다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11년 말 공식 어선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1년도 연근해어선 감척계획에 따라 연안어선 664척과 근해어선 10척이 감척되었다고 가정하면 현재 약 50,083척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연근해 전체 어선세력은 2004년 66,063척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1년 말에는 약 50,083척으로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4-3> 참조).

〈그림 4-1〉 연근해어선 추이(1990~2011년)



주 : 2011년 어선척수는 당해연도 연근해어선 감척 계획을 감안한 추정치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표 4-3〉 연근해 어선 현황

단위 : 척, 톤, 천 마력

구분	연근해어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척수	톤수	마력수	척수	톤수	마력수	척수	톤수	마력수
2004	66,063	330,203	13,942	3,773	169,724	2,221	62,290	160,479	11,721
2005	64,579	322,811	10,089	3,687	164,037	1,763	60,892	158,774	8,326
2006	63,518	312,580	11,699	3,629	162,831	1,880	59,889	149,749	9,819
2007	63,363	309,003	11,154	3,573	162,264	1,975	59,790	146,739	9,179
2008	57,177	280,708	10,189	3,385	148,032	1,908	53,792	132,676	8,281
2009	53,799	257,292	10,304	3,047	132,436	2,121	50,752	124,856	8,183
2010	50,757	249,695	10,094	2,875	127,382	1,700	47,882	122,313	8,394
2011	50,083			2,865			47,218		

주 : 2011년 어선척수는 당해연도 연근해어선 감척 계획을 감안한 추정치임.

자료 : 상계자료.

3) 어업 생산

(1) 연근해어업

-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근해어업 전체 생산량 추이를 보면, 2010년에 7.7% 가량 감소한 이후 2011년에는 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4> 참조).
- 연안어업 또한 이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2010년에 5.9% 가량 감소한 이후 다시 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근해어업은 2010년의 감소폭이 다소 크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의 회복세는 4.8%로서 연안어업에 비해 회복 속도가 느리게 나타났다.

〈표 4-4〉 연근해어업 월별 생산량(2009~2011년)

단위 : M/T

구분 연도 월	연근해어업			연안어업			근해어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1,226,966	1,132,536	1,189,217	369,791	348,120	366,770	857,175	784,416	822,447
1	109,856	113,626	104,717	26,634	18,381	21,587	83,222	95,245	83,130
2	85,279	64,212	61,765	22,520	15,795	12,762	62,759	48,417	49,003
3	79,636	48,503	73,096	21,086	13,809	15,380	58,550	34,694	57,716
4	52,100	48,854	50,896	22,884	22,949	21,243	29,216	25,905	29,653
5	69,449	61,696	63,326	29,128	33,561	33,227	40,321	28,135	30,099
6	66,640	69,750	68,473	32,177	35,228	34,730	34,463	34,522	33,743
7	56,902	83,781	61,865	25,531	32,273	25,540	31,371	51,508	36,325
8	84,913	73,818	85,299	27,547	25,761	26,228	57,366	48,057	59,071
9	154,098	116,399	127,321	45,360	41,294	38,240	108,738	75,105	89,081
10	168,791	193,084	186,354	47,753	45,899	50,842	121,038	147,185	135,512
11	142,208	134,966	156,088	35,469	36,391	53,612	106,739	98,575	102,476
12	157,094	123,847	150,017	33,702	26,779	33,379	123,392	97,068	116,638

주 : 2011년 12월 생산량은 2008~2010년 동기간의 생산량을 평균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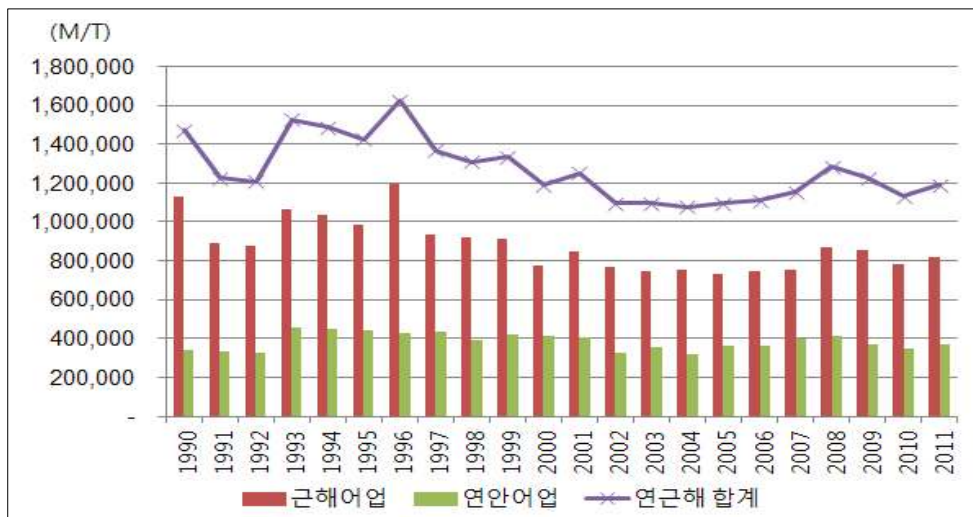
자료 : 상계자료.

- 1990년 대 중반 160만 톤가량이었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계속 감소하여 2000년 대 초반 110만 톤으로 격감하였다. 그러나 수온상승 등과 같은 해양환경 변화

와 정부 및 어업인의 자원관리 노력으로 인해서 2006년부터 어획생산량이 회복추세를 보이는 듯 했다.

- 하지만 2009년부터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재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2009년도의 해파리 대량출현으로 인한 멸치 어획량 급감과 2010년도 연안 수온 불안정으로 인한 회유성 어종(고등어, 오징어 등)의 회유량 감소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2011년 또한 초반에는 저수온 등으로 어획이 저조하였으나 이후 고등어, 참조기 등의 어황 호조로 전년 보다는 어획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2> 참조).
- 2011년 월별 생산동향을 보면 1월, 2월, 6월, 7월, 10월은 전년 대비 어획량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나머지는 모두 전년 대비 증가로 나타났다.
- 올해 1월과 2월에는 장기간 지속된 한파와 라니냐로 인해서 저수온이 지속되면서 어황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4-2〉 연근해어업 생산량(1990~2011년)



주 : 2011년 11월까지의 자료는 확정치이며 그 이후 자료는 잠정치임. 2011년 12월 생산량은 2008~2010년 동기간의 생산량을 평균한 값임.

자료 : 상계자료.

- 반면, 어획량이 많은 11월과 12월에는 전년 대비 어획량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2010년 말에는 고등어의 어획량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2011년에는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 연근해 어획량 증가에 기여하였다.

(2) 주요 어종별 어업생산

-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은 약 200여 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식 어업생산통계에 어종명이 등재돼 있는 수산물은 총 112종으로 2010년에 비하여 16종이 축소되었다. 이중 어류는 61종, 갑각류는 13종, 패류 19종, 연체동물 8종, 기타수산동물 5종 그리고 해조류가 6종이다(<표 4-5> 참조).

〈표 4-5〉 연근해어업 어획 어종 수

구 분	합 계	어 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 타 수산동물	해조류
2010년	128	66	13	22	8	6	13
2011년	112	61	13	19	8	5	6

자료 : 상계자료.

-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어종 중 2011년 기준 10대 어종으로는 멸치류, 고등어류, 오징어류, 참조기, 갈치, 붉은대게, 꽃게, 삼치류, 전갱이류, 청어로 2010년과 비교하여 가자미류가 전갱이류로 대체되었다.
- 2011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멸치류, 고등어류, 참조기, 붉은대게, 전갱이류가 증가했고, 나머지 어종의 어획량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참조기와 작년에 부진했던 고등어류 어획량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오징어류와 갈치 어획량은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것은 연안어장의 수온 불안정으로 인해 해당 어종의 회유시기 및 어장위치 변화, 어군밀도 저하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4-6〉 연근해 주요 어종별 생산량 순위(2009~2011년)

단위 : M/T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1~11월)		전년 동기
순위	어종명	어획량	어종명	어획량	어종명	어획량	어획량
1	멸치류	203,728	멸치류	249,636	멸치류	269,986	230,712
2	오징어류	189,160	오징어류	159,130	고등어류	124,648	92,175
3	고등어류	175,329	고등어류	99,534	오징어류	109,176	126,136
4	갈치	85,450	갈치	59,242	참조기	50,193	26,426
5	청어	37,514	삼치류	35,778	갈치	30,795	54,879
6	삼치류	36,793	꽃게	33,193	붉은대게	28,896	26,916
7	참조기	34,033	참조기	31,931	꽃게	26,026	32,696
8	꽃게	31,302	붉은대게	30,749	삼치류	25,967	31,429
9	붉은대게	29,993	청어	25,005	전갱이류	22,703	18,315
10	전갱이류	22,087	가자미류	20,107	청어	21,815	22,899

주 : 고등어류는 망치고등어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 상계자료.

- 10대 어종의 연근해어업 생산량 비중을 보면 <표 4-7>과 같이 약 68%에 달하고, 5대 어종은 약 56%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사실상 상업적으로 가치가 높은 어종은 약 20개 어종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7〉 연근해 10대 어종의 생산비중(2011년 1~11월)

단위 : M/T

구 분		생산량	누적생산량	구성비(%)	
어업 전체		1,039,200		생산량	누적생산량
1	멸치류	269,986	269,986	26.0	26.0
2	고등어류	124,648	394,634	12.0	38.0
3	오징어류	109,176	503,810	10.5	48.5
4	참조기	50,193	554,003	4.8	53.3
5	갈치	30,795	584,798	3.0	56.3
6	붉은대게	28,896	613,694	2.8	59.1
7	꽃게	26,026	639,720	2.5	61.6
8	삼치류	25,967	665,687	2.5	64.1
9	전갱이류	22,703	688,390	2.2	66.2
10	청어	21,815	710,205	2.1	68.3

주 : 2011년 1~11월까지의 생산량 통계임.

자료 : 상계자료.

- 연근해에서 가장 많이 어획되는 4대 어종의 생산액을 보면 <표 4-8>과 같이 2,600억 원에서 약 4,7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 대량생산 어종의 어구어법도 대부분 20개가 넘고 있어 우리나라 연근해 전역에 분포하며, 이들을 어획하는 어구나 어법 또한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표 4-8〉 연근해 4대 어종의 생산량·생산금액과 주요 어구어법(2011년 1~11월 기준)

단위 : M/T, 천원

구 분		생산량	생산금액	어구어법 수		
				합계	연안	근해
1	멸치	269,986	405,006,385	24	13	11
2	고등어	124,684	260,438,589	28	13	15
3	오징어	109,176	471,166,956	25	10	15
4	참조기	50,193	265,403,599	22	10	12

자료 : 상계자료.

(3) 주요 근해어업별 생산량

- 어업별 생산량 동향은 후술하는 경영 동향 및 전망과 연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근해어업 중 주요 어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 대상어업으로는 대형선망어업, 근해트롤어업(대형트롤과 동해구트롤), 대형기선저인망어업(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과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그리고 기선권현망어업 등 4개 업종이다.
- 이들 4개 업종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월별 생산 추세를 <표 4-9>를 통해 보기로 한다.
 - 대형선망어업은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가 주 어기인데, 동 기간 동안의 어획량은 전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 근해트롤어업은 봄과 여름을 제외한 기간이 주어기이고, 1월과 11월을 제외하면 대부분 전년에 비해 어황이 좋지 못하였다.
 -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경우, 4월은 전년에 비해 어황이 약간 좋지 않았고, 10월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나머지는 전년에 비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 기선권현망어업은 1월, 7월, 9월을 제외하면 대체로 전년보다 어황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월의 어획량이 전년에 비해 급감하여 연간 어획량 또한 전년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근해어업 주요 어업별 월별 생산량(2009~2011년)

단위 : M/T

구분	대형선망			근해트롤			대형기선저인망			기선권현망		
연도 월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241,052	160,409	202,655	119,578	99,620	87,952	63,737	64,327	73,149	116,464	157,720	152,820
1	23,043	21,492	19,170	13,938	10,090	15,617	7,274	7,671	9,094	16,097	32,418	14,232
2	18,694	11,153	10,451	4,522	3,390	2,784	4,808	5,768	6,554	15,234	11,813	12,667
3	12,336	3,388	9,503	2,054	1,784	480	4,143	4,999	6,737	17,602	8,088	21,870
4	2,816	1,901	4,979	1,446	407	235	3,569	3,787	3,057	1,206	1,135	1,670
5	11,881	360	2,191	390	227	112	2,568	2,362	2,636	158	234	1,580
6	11,854	4,697	5,459	126	100	42	930	999	1,187	137	520	540
7	6,611	6,282	5,087	592	741	178	1,232	1,920	1,470	9,814	22,369	17,151
8	21,842	6,415	11,956	3,675	2,283	2,050	4,741	4,304	5,209	10,711	20,075	20,561
9	33,418	18,021	30,041	12,466	9,573	5,678	7,131	4,684	7,391	15,145	15,504	14,761
10	25,501	44,857	44,625	35,180	35,761	22,004	8,241	9,710	9,667	10,487	14,981	16,667
11	30,034	22,091	24,064	21,070	12,373	15,579	9,965	8,670	10,436	9,749	17,529	17,822
12	43,022	19,752	35,129	24,119	22,891	23,193	9,135	9,453	9,711	10,124	13,054	13,299

주 : 2011년 12월 생산량은 2008~2010년 동기간의 생산량을 평균한 값임.

자료 : 상계자료.

4) 어업 생산액 및 생산자 가격

(1) 생산액

- 생산액 기준 연근해어업의 주요 10대 어종은 생산량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오징어류, 멸치류, 갈치, 참조기, 꽃게, 고등어류, 가자미류, 문어, 낙지, 붕장어가 10대 어종이다.
- 지난 3년간 생산액 기준 10대 어종은 거의 동일하였고, 순위만 다소 변경이 있었다. 2011년의 경우는 12월 통계가 나오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 월별 생산액을 보면 2011년은 2010년에 비하여 연근해어업 전체는 2월, 4월, 5월, 7월을 제외하고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중 연안어업은 2~4월, 6~7월

을 빼고는 전년에 비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근해어업은 5월과 7월을 제외하고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4-11> 참조).

〈표 4-10〉 연근해 주요 어종별 생산액 순위(2009~2011년)

단위 : 천원

연도 순위	2009년		2010년		2011년	
	어종명	생산액	어종명	생산액	어종명	생산액
1	오징어류	390,506,136	오징어류	567,827,691	오징어류	471,166,956
2	갈치	296,454,193	멸치류	390,404,552	멸치류	405,006,385
3	멸치류	286,418,706	갈치	300,903,156	갈치	274,611,031
4	고등어류	280,377,937	꽃게	278,915,339	참조기	265,403,599
5	꽃게	279,763,548	고등어류	167,876,152	꽃게	259,438,486
6	참조기	155,054,356	참조기	160,686,094	고등어류	246,979,504
7	문어	138,323,715	가자미류	145,640,756	가자미류	140,761,222
8	가자미류	135,930,183	문어	130,006,120	문어	130,823,624
9	낙지	125,583,658	낙지	129,313,049	낙지	126,438,491
10	붕장어	107,161,281	삼치류	114,071,337	붕장어	125,247,190

주 : 2011년은 1~11월까지의 생산량 통계임.

자료 : 상계자료.

〈표 4-11〉 연근해어업 월별 생산액(2009~2011년)

단위 : 백만 원

구분 연도 월	연근해어업			연안어업			근해어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3,640,437	3,911,681	4,250,469	1,640,722	1,707,199	1,773,459	1,999,715	2,204,482	2,477,010
1	265,561	287,916	378,255	100,098	94,133	100,945	165,463	193,784	277,310
2	194,267	208,836	206,379	74,609	77,632	61,396	119,658	131,204	144,983
3	239,789	213,733	262,246	103,818	96,358	94,138	135,971	117,375	168,107
4	235,450	255,035	250,304	129,911	137,816	128,951	105,539	117,219	121,353
5	269,593	302,254	298,595	157,376	184,620	184,293	112,217	117,634	114,302
6	252,553	267,369	284,090	155,683	177,249	175,208	96,870	90,120	108,882
7	197,085	296,761	245,874	112,425	147,932	137,200	84,661	148,828	108,673
8	271,845	256,506	308,161	131,211	126,671	142,659	140,634	129,835	165,503
9	454,516	379,484	434,194	204,047	176,648	179,093	250,470	202,836	255,101
10	456,059	557,256	638,724	188,975	194,994	226,020	267,084	362,263	412,703
11	402,167	466,342	553,841	147,355	169,301	214,521	254,811	297,041	339,320
12	401,552	420,188	389,806	135,213	123,845	129,036	266,339	296,343	260,771

주 : 2011년 12월 생산액은 2008~2010년 동기간의 생산액을 평균한 값임.

자료 : 상계자료.

- 근해어업 주요 어업별 생산액을 보면 대형선망의 경우 전년 대비 고등어 가격 급등으로 인해 7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 전년 대비 생산액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생산액은 2010년 약 2,962억 원에서 2011년에는 약 4,03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 근해트롤은 전년 대비 3~5월, 7월, 9~10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서 생산액이 증가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생산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대형기선저인망은 전년 대비 2월과 7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생산액은 2010년 약 1,786억 원에서 2011년에는 1,99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 기선권현망은 전년에 비하여 2월, 4월, 6월, 7월, 9월, 11월에 생산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달에서는 생산액이 증가하여 연간 생산액은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표 4-12> 참조).

〈표 4-12〉 근해어업 주요 어업별 생산액(2009~2011년)

단위 : 백만 원

구분	대형선망			트롤어업			대형기선저인망			기선권현망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356,105	296,153	402,990	202,742	303,068	303,884	165,805	178,613	198,996	164,143	234,435	233,997
1	30,950	31,456	49,545	18,754	22,344	61,497	19,093	19,424	21,309	13,880	30,547	23,830
2	21,487	20,510	25,521	8,424	5,792	10,694	13,109	13,757	11,686	12,874	21,462	24,765
3	21,669	10,990	21,896	5,462	3,672	2,649	12,708	12,204	14,079	11,721	18,198	35,705
4	6,253	5,744	10,322	3,219	1,456	1,178	10,869	10,794	13,476	976	2,772	2,616
5	14,405	1,659	5,333	1,203	745	514	7,137	7,776	9,695	205	539	1,868
6	20,631	11,641	14,483	561	412	248	2,999	3,585	4,694	331	1,526	1,323
7	16,169	17,797	16,303	1,410	1,376	526	4,435	7,380	5,294	10,091	32,215	22,716
8	36,721	21,297	22,844	7,052	5,049	5,115	10,642	10,503	12,413	18,062	22,686	31,234
9	42,072	28,755	58,471	18,976	20,166	17,995	15,422	14,043	18,773	31,691	34,112	22,188
10	37,010	53,362	72,100	55,011	107,781	86,523	19,132	23,467	28,403	25,842	26,489	27,452
11	52,490	48,208	59,131	38,342	41,911	62,462	23,281	30,594	33,478	21,301	28,036	23,944
12	56,248	44,734	47,040	44,328	92,364	54,484	26,978	25,086	25,696	17,169	15,854	16,357

주 : 2011년 12월 생산액은 2008~2010년 동기기간의 생산액을 평균한 값임.

자료 : 상계자료.

(2) 생산자 가격

- 2011년 생산자 가격은 연근해어업 전체를 볼 때는 3~5월에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달에서는 전년 보다 높았다(<표 4-13> 참조). 이것은 일본 원전 사태 및 방사능 누출로 인해 우리나라 근해 어획물을 중심으로 수산물 가격이 동반 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 하지만 6월부터 다시 가격이 회복되어 연간 평균 가격은 전년에 비해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일본 원전사고의 영향이 미미한 연안어업은 1~3월까지 가격이 다소 하락한 후 4월부터 전년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연근해어업 월별 생산자 가격(2009~2011년)

단위 : 원/kg

구분 연도 월	연근해어업전체			연안어업			근해어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2,967	3,454	3,574	4,437	4,904	4,835	2,333	2,810	3,012
1	2,417	2,534	3,612	3,758	5,121	4,676	1,988	2,035	3,336
2	2,278	3,252	3,341	3,313	4,915	4,811	1,907	2,710	2,959
3	3,011	4,407	3,588	4,924	6,978	6,121	2,322	3,383	2,913
4	4,519	5,220	4,918	5,677	6,005	6,070	3,612	4,525	4,092
5	3,882	4,899	4,715	5,403	5,501	5,546	2,783	4,181	3,798
6	3,790	3,833	4,149	4,838	5,031	5,045	2,811	2,610	3,227
7	3,464	3,542	3,974	4,403	4,584	5,372	2,699	2,889	2,992
8	3,201	3,475	3,613	4,763	4,917	5,439	2,452	2,702	2,802
9	2,950	3,260	3,410	4,498	4,278	4,683	2,303	2,701	2,864
10	2,702	2,886	3,427	3,957	4,248	4,446	2,207	2,461	3,046
11	2,828	3,455	3,548	4,154	4,652	4,001	2,387	3,013	3,311
12	2,556	3,393	2,598	4,012	4,625	3,866	2,158	3,053	2,236

주 : 2011년 12월 단가는 2008~2010년 동기간의 단가를 평균한 값임.

자료 : 상계자료.

〈표 4-14〉 근해어업 주요 어업별 월별 생산자 가격(2009~2011년)

단위 : 원/kg

구분	대형선망			트롤어업			대형기선저인망			기선권현망		
연도 월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1,477	1,846	1,989	1,695	3,042	3,455	2,601	2,777	2,720	1,409	1,486	1,531
1	1,343	1,464	2,585	1,346	2,214	3,938	2,625	2,532	2,343	862	942	1,674
2	1,149	1,839	2,442	1,863	1,708	3,841	2,726	2,385	1,783	845	1,817	1,955
3	1,757	3,244	2,304	2,659	2,058	5,518	3,067	2,441	2,090	666	2,250	1,633
4	2,220	3,022	2,073	2,226	3,579	5,011	3,045	2,850	4,408	809	2,442	1,566
5	1,212	4,609	2,434	3,085	3,281	4,587	2,779	3,292	3,678	1,297	2,303	1,182
6	1,740	2,478	2,653	4,452	4,120	5,911	3,225	3,589	3,955	2,416	2,934	2,450
7	2,446	2,833	3,205	2,382	1,856	2,955	3,600	3,844	3,601	1,028	1,440	1,324
8	1,681	3,320	1,911	1,919	2,211	2,495	2,245	2,440	2,383	1,686	1,130	1,519
9	1,259	1,596	1,946	1,522	2,107	3,169	2,163	2,998	2,540	2,093	2,200	1,503
10	1,451	1,190	1,616	1,564	3,014	3,932	2,322	2,417	2,938	2,464	1,768	1,647
11	1,748	2,182	2,457	1,820	3,387	4,009	2,336	3,529	3,208	2,185	1,599	1,344
12	1,307	2,265	1,339	1,838	4,035	2,349	2,953	2,654	2,646	1,696	1,214	1,230

주 : 2011년 12월 단가는 2008~2010년 동기간의 단가를 평균한 값임.

자료 : 상계자료.

5) 주요 근해어업별 경영

(1) 생산 동향

- 대형선망어업 2011년 현재 허가정수는 29건이고 2011년의 실제조업 통수는 24통이다.
 - 2011년 대상어종별 동향을 보면 전년 대비 고등어와 정어리의 어획량이 크게 증가한 반면, 참다랑어 어획량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고등어류의 어획량은 지난해 보다 40%라는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정어리의 경우 2010년에 49톤이 어획되었으나 2011년에는 2,600톤이 어획되어 어획량에서의 큰 변화를 보였다.
 - 한편, 오징어의 경우는 2010년과 대동소이한 어획량 수준을 보였다.
- 대형트롤어업의 허가정수는 37건이고 실제조업 척수는 부산 44척, 경남 8척으로 모두 52척이 조업하였다.

- 생산동향을 보면 주 어종인 오징어의 생산이 전년에 비해 상반기에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점차 회복되어 전체 어획량은 전년 대비 약간 감소하였다. 하지만 어가 상승으로 어획금액은 전년 대비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쌍끌이대형기저어업의 허가정수는 38건이고 2011년의 실제 조업통수는 약 30통이다. 생산동향은 참조기를 중심으로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갈치 어획량은 예년에 비하여 저조하였다.
- 외끌이대형기저어업의 허가정수는 34건이고 2011년 기준으로 부산 20척, 경남 10척, 전남 17척이 조업하였다. 생산동향은 전반적으로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선권현망어업의 허가정수 68건이고 실제 조업통수는 약 78통이다. 2010년에는 단가가 높은 세멸의 어획량 증가로 인해서 어획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2011년에는 세멸의 어획량 비중 감소로 생산금액 또한 지난해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다.

(2) 어업별 수익성

가) 대형선망어업

- 2010년 어획금액은 2,962억 원이었으나 고등어 등의 어획 호조 및 어가 상승으로 인해서 2011년 어획금액은 4,250억 원으로 통당 수입은 53.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011년 12월 말 기준).
- 반면 2011년에는 유가가 크게 상승하였는데, 2010년 드림당 평균 13만 8천 원 하던 것이 2011년에는 18만 3천 원으로 뛰어 올라 약 32.6%의 급등세를 보였다.
- 따라서 통당 13억 원의 유류비 증가가 발생하였다.
- 이상을 종합하면 유류비 급등 및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형선망어업의 경영상황은 2010년 대비 크게 호전되었다.

〈표 4-15〉 대형선망어업 수익성

단위 : 천 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08년	2009년	2010년
어 업 수 입			1,148,713	15,183,344	14,235,209	어업비용 구성비		
어업비용	출어비	어 구 비	307,809	623,854	684,403	3.0%	5.0%	5.5%
		연 료 비	2,739,385	2,357,807	2,472,542	27.1%	18.8%	20.0%
		용 기 대	329,912	364,473	361,984	3.3%	2.9%	2.9%
		저장대	389,130	477,175	464,115	3.8%	3.8%	3.8%
		소 모 품 비	449,049	754,420	732,106	4.4%	6.0%	5.9%
		주 부 식 비	201,363	146,682	151,237	2.0%	1.2%	1.2%
		후 생 비	283,026	200,752	201,845	2.8%	1.6%	1.6%
		수 리 비	801,713	1,033,921	880,771	7.9%	8.2%	7.1%
		소 계	5,501,387	5,959,084	5,949,003	54.3%	47.5%	48.1%
	임금 및 관리비	임 금	2,489,935	3,382,658	3,376,183	24.6%	27.0%	27.3%
		사 무 비	334,080	940,952	987,999	3.3%	7.5%	8.0%
		공제 및 보험료	377,442	456,898	470,604	3.7%	3.6%	3.8%
		판 매 비	746,354	1,174,856	949,997	7.4%	9.4%	7.7%
		조 세 공 과	72,359	50,736	47,184	0.7%	0.4%	0.4%
		기 타	257,029	220,467	213,852	2.5%	1.8%	1.7%
		소 계	4,277,199	6,226,567	6,045,819	42.2%	49.6%	48.9%
	감 가 상 각 비		346,182	363,606	381,030	3.4%	2.9%	3.1%
어 업 비 용 계		10,124,768	12,549,257	12,375,852	100.0%	100.0%	100.0%	
어 업 이 익		1,362,345	2,634,087	1,859,357				
어 업 외 비 용		339,399	184,627	173,549				
총 비 용		10,464,167	12,733,884	12,549,401				
당 기 순 이 익		1,022,946	2,449,460	1,685,808				
어업이익률		11.9%	17.3%	13.1%				

자료 : 수협중앙회, 2010년 어업경영조사보고, 2011.

나) 대형트롤어업

- 2011년 대형트롤어업의 경영상황을 청취 조사한 결과,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약간 감소했지만 어가상승으로 생산금액은 2010년 약 1,800억 원에서 2011년 2,2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오징어의 경우 어획량은 전년 대비 90% 수준에 그쳤으나 어획금액은 약 28%가량 증가하였다. 반면 유류비가 크게 증가해 전체 경영상황은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대형트롤어업 수익성

단위 : 천 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08년	2009년	2010년
어 업 수 입			1,458,884	2,492,038	3,155,078	어업비용 구성비		
어업 비용	출어비	어 구 비	82,759	90,128	88,742	4.9%	4.3%	3.2%
		연 료 비	394,132	583,861	744,350	23.1%	27.9%	26.7%
		용 기 대	47,794	51,125	48,742	2.8%	2.4%	1.8%
		저장대	52,473	57,161	53,053	3.1%	2.7%	1.9%
		소 모 품 비	122,367	128,053	132,017	7.2%	6.1%	4.7%
		주 부 식 비	69,690	75,125	76,708	4.1%	3.6%	2.8%
		후 생 비	50,726	54,600	78,300	3.0%	2.6%	2.8%
		수 리 비	103,728	96,800	106,266	6.1%	4.6%	3.8%
		소 계	923,669	1,136,853	1,328,178	54.2%	54.4%	47.7%
	임금 및 관리비	임 금	465,034	604,028	981,514	27.3%	28.9%	35.3%
		사 무 비	46,736	47,037	62,518	2.7%	2.2%	2.2%
		공제 및 보험료	46,636	51,189	66,564	2.7%	2.4%	2.4%
		판 매 비	88,474	126,256	207,418	5.2%	6.0%	7.5%
		조 세 공 과	14,992	14,525	28,175	0.9%	0.7%	1.0%
		기 타	48,830	51,647	50,238	2.9%	2.5%	1.8%
		소 계	710,702	894,682	1,396,427	41.7%	42.8%	50.2%
	감 가 상 각 비		70,358	59,153	59,153	4.1%	2.8%	2.1%
어 업 비 용 계			1,704,729	2,090,688	2,783,758	100.0%	100.0%	100.0%
어 업 이 익			-245,845	401,350	371,320			
어 업 외 비 용			27,560	17,667	22,613			
총 비 용			1,732,289	2,108,355	2,806,371			
당 기 순 이 익			-273,405	383,683	348,707			
어업이익률			-16.9%	16.1%	11.8%			

자료 : 상계서.

다)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 2010년 대비 2011년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어획상황을 보면 주요 대상 어종인 갈치의 어획량은 감소하였지만 참조기의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여 어획 금액은 전년 대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삼치의 경우, 어획량은 전년 대비 70% 수준에 머물렀고, 오징어류의 어획량은 약간 감소했으나 어획금액은 크게 증가하였다.

- 따라서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전체 어획금액은 2010년 1,130억 원에서 1,170억 원으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유류비 급등을 감안한다면 전체 경영상황은 2010년에 비해 다소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4-17〉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수익성

단위 : 천 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08년	2009년	2010년
어 업 수 입			3,278,849	4,407,751	4,727,071	어업비용 구성비		
어업 비용	출어비	어 구 비	122,976	135,104	160,071	3.8%	3.2%	3.5%
		연 료 비	1,277,199	1,392,873	1,747,920	39.0%	33.2%	38.4%
		용 기 대	72,640	205,548	144,885	2.2%	4.9%	3.2%
		저장대	29,730	127,759	146,666	0.9%	3.0%	3.2%
		소 모 품 비	197,310	235,267	229,577	6.0%	5.6%	5.0%
		주 부 식 비	86,873	90,876	69,569	2.7%	2.2%	1.5%
		후 생 비	70,481	87,276	109,447	2.2%	2.1%	2.4%
		수 리 비	153,876	230,082	269,489	4.7%	5.5%	5.9%
		소 계	2,011,085	2,504,785	2,877,624	61.5%	59.75%	63.2%
	임금 및 관리비	임 금	731,996	1,013,395	977,713	22.4%	24.1%	21.5%
		사 무 비	72,797	81,647	100,837	2.2%	1.9%	2.2%
		공제 및 보험료	65,157	103,674	114,434	2.0%	2.5%	2.5%
		판 매 비	232,412	303,262	282,358	7.1%	7.2%	6.2%
		조 세 공 과	24,989	44,118	52,000	0.8%	1.1%	1.1%
		기 타	34,480	44,948	40,453	1.1%	1.1%	0.9%
		소 계	1,161,831	1,591,044	1,567,795	35.5%	37.9%	34.5%
	감 가 상 각 비		98,974	101,708	104,442	3.0%	2.4%	2.3%
어 업 비 용 계		3,271,890	4,197,537	4,549,861	100.0%	100.0%	100.0%	
어 업 이 익		6,959	210,214	177,210				
어 업 외 비 용		34,967	43,120	39,043				
총 비 용		3,306,857	4,240,657	4,588,904				
당 기 순 이 익		-28,008	167,094	138,167				
어업이익률		0.2%	4.8%	3.7%				

자료 : 상계서.

라)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 2011년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경영상황을 2010년과 대비해 볼 때 생산량은 약간 감소했지만 생산금액은 190억 원에서 240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 2011년에는 참조기의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가자미와 눈볼대의 어획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유가 급등에 따

라 전체 경영상황은 전년과 비교하여 비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표 4-18〉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수익성

단위 : 천 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08년	2009년	2010년
어 업 수 입			636,319	833,628	851,083	어업비용 구성비		
어업 비용	출어비	어 구 비	23,425	39,359	35,269	4.0%	4.9%	4.3%
		연 료 비	101,842	99,737	101,825	17.2%	12.3%	12.3%
		용 기 대	8,976	17,519	19,403	1.5%	2.2%	2.3%
		저장대	11,492	35,875	29,242	1.9%	4.4%	3.5%
		소 모 품 비	32,312	59,049	62,885	5.5%	7.3%	7.6%
		주 부 식 비	42,134	43,655	35,316	7.1%	5.4%	4.3%
		후 생 비	21,379	35,933	27,032	3.6%	4.4%	3.3%
		수 리 비	67,972	80,093	83,915	11.5%	9.9%	10.2%
		소 계	309,532	411,220	394,887	52.3%	50.7%	47.8%
	임금 및 관리비	임 금	185,750	202,613	274,925	31.4%	25.0%	33.3%
		사 무 비	12,892	28,334	22,379	2.2%	3.5%	2.7%
		공제 및 보험료	16,114	21,372	26,937	2.7%	2.6%	3.3%
		판 매 비	37,240	47,481	50,315	6.3%	5.9%	6.1%
		조 세 공 과	6,590	27,550	33,407	1.1%	3.4%	4.0%
		기 타	16,382	66,502	16,382	2.8%	8.2%	2.0%
		소 계	274,968	393,852	424,345	46.5%	48.5%	51.4%
	감 가 상 각 비		6,785	6,255	6,520	1.2%	0.8%	0.8%
어 업 비 용 계			591,285	811,327	825,752	100.00%	100.00%	100.0%
어 업 이 익			45,034	22,301	25,331			
어 업 외 비 용			8,579	5,912	2,745			
총 비 용			599,864	817,239	832,997			
당 기 순 이 익			36,455	16,389	18,086			
어업이익률			7.1%	2.7%	3.0%			

자료 : 상계서.

마) 기선권현망어업

- 기선권현망어업은 지난해에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어획금액을 달성하였다. 이것은 단가가 높은 세멸의 어획비중이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의 어획금액을 달성하였기 때문이다.

- 하지만 2011년에는 어획량 감소와 세멸 어획비중 감소 등으로 전체 어획 금액은 전년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 업종의 1통당 손익분기점은 약 2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어업경비 구조를 보면 인건비, 유류비가 생산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 2011년 또한 어황이 순조로웠기 때문에 흑자경영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동 업종은 유류 사용이 많은 업종으로써 최근의 유가 상승에 대비해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표 4-19〉 기선권현망어업 수익성

단위 : 천 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08년	2009년	2010년
어 업 수 입			2,484,586	2,519,392	2,900,661	어업비용구성비		
어업 비용	출어비	어 구 비	79,809	87,379	96,931	3.6%	3.8%	3.7%
		연 료 비	594,435	474,782	590,436	26.8%	20.9%	22.6%
		용 기 대	107,134	101,286	128,757	4.8%	4.5%	4.9%
		저장대	21,027	24,748	27,208	1.0%	1.1%	1.0%
		소 모 품 비	61,412	72,076	71,875	2.8%	3.2%	2.8%
		주 부 식 비	86,553	77,911	110,787	3.9%	3.4%	4.2%
		후 생 비	44,053	40,339	47,319	2.0%	1.8%	1.8%
		수 리 비	112,729	198,249	166,127	5.1%	8.7%	6.4%
		소 계	1,107,152	1,076,770	1,239,440	49.8%	47.4%	47.5%
	임금 및 관리비	임 금	831,788	826,691	962,841	37.4%	36.4%	36.9%
		사 무 비	40,608	50,927	51,751	1.8%	2.2%	2.0%
		공제 및 보험료	36,008	45,251	52,456	1.6%	2.0%	2.0%
		판 매 비	115,916	121,373	144,584	5.2%	5.3%	5.5%
		조 세 공 과	23,652	32,196	36,148	1.1%	1.4%	1.4%
		기 타	20,780	79,735	81,492	0.9%	3.5%	3.1%
		소 계	1,068,752	1,156,173	1,329,542	48.1%	50.9%	50.9%
	감 가 상 각 비		46,224	36,656	41,440	2.1%	1.6%	1.6%
어 업 비 용 계		2,222,128	2,269,599	2,610,422	100.0%	100.0%	100.0%	
어 업 이 익		262,458	249,793	290,239				
어 업 외 비 용		28,668	51,591	52,058				
총 비 용		2,250,796	2,321,190	2,662,480				
당 기 순 이 익		233,790	198,202	238,181				
어업이익률		10.6%	9.9%	10.0%				

자료 : 상계서.

3. 2012년 전망과 이슈

1) 전망

어업자원 및 어업생산량 증가 추세

- 2011년의 어업자원 및 어업생산은 상반기에 한파로 인한 저수온 현상, 중반기에 태풍 등으로 어군형성이 늦어져 오징어를 어획하는 채낚기어업은 생산량이 줄었으나, 그 외의 대형선망어업과 기선권망어업, 그리고 대형기저(쌍끌이, 외끌이, 트롤)어업에서는 전반적으로 평년수준을 유지하였다.
- 2012년의 기상상황은 상반기까지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연재해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어업자원과 어업생산량의 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 전반적으로 2012년의 자원상황은 전년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TAC 대상어종인 11개 어종의 2012년도 자원량 추정치(ABC)는 2011년도 추정치에 비해 고등어, 전갱이, 대게, 개조개 등을 제외하고는 소폭 증가하였고, 2012년도 전체 TAC 어종별 물량도 2011년 대비 12,510톤이 증가할 것으로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 그리고 2012년의 어획상황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수산자원관리 등의 시책이 정착되고, 중국 불법어업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국내 어업의 조업여선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울러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의 착실한 이행과 ‘어선·어선원 기반 어업선진화 방안’ 등이 추진되면서 어업생산기반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근해어업 경영상황 보합유지 전망

- 2012년의 어업생산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건강식 식품소비 증가 추세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산물 가격은 지

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업수입도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하지만 어업비용은 유류비, 인건비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어업경영의 상황은 2011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연근해어선어업은 유류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경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 2012년의 국제유가는 중동의 민주화 및 이란 경제 봉쇄 등으로 산유국의 정세불안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³⁾ 따라서 2012년의 어업경영 역시 전년도와 비슷한 상황으로 국제유가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근해어업 업종별 경영성과 안정

- 대형선망어업의 생산은 고등어 자원상태의 중위수준, 친어량의 저수준, 소형어 증가 등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어업경영은 지속적인 어가 상승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 등의 비용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보합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생산은 주요 어획대상 어종인 갈치, 참조기, 삼치 등의 어획 부진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업경영은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수출 증가가 예견되지만 유가상승 등으로 악화 또는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생산은 일본 EEZ 안정적 입어 등으로 현상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 어업은 유류비 사용이 타 업종에 비해 낮으므로 어업경영은 전년대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대형트롤어업의 생산은 오징어 자원상태가 고수준으로 예상되므로 어획 증가가 예상되지만 수온 변화에 의해 흥풍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어업경영은 어가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가상승 등 비용 증가로 인해 전반적

3) 기획재정부, “2012년 물가여건 점검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방안”, 2012. 1, p. 3.

인 보험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 기선권현망어업의 생산은 주 어획어종인 멸치 자원상태가 안정되어 현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업경영은 생산 증가로 인한 재고 증가로 인해 어가 안정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지만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과 유사한 보험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2) 이슈 및 대책

자연재해 심화에 따른 대응 필요

- 연근해어업과 관련 2012년의 가장 큰 이슈는 기상이변, 태풍발생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1년 상반기에는 저수온 현상에 따른 어군형성이 늦어졌고, 여름철의 집중호우와 태풍발생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어업생산에 지장을 많이 받았다. 금년 역시 수온상승에 의한 어업자원 변동,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연재해의 발생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또한 연근해어업은 수산식량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수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고유가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응책 수립

- 어선어업에서 유류는 생산 수단인 어선을 운항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인데 현재 어선어업은 고마력화에 따른 과도한 연료소비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일반 산업에 비해 어업에서 유류의 투입 비중은 도로운송, 택배, 항공운송, 비식용작물에 이어 5위를 점하고 있다.⁴⁾ 이러한 연료과소비형 어업구조에는 고마력화 이외에도 수산자원의 선취를 둘러싼 경쟁체제하에서 업종별 어선의 고속

4) 김정봉 외, 「고유가시대 수산업·어촌의 환경변화와 정책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 16~31, 2009.

운행, 어구규모 확대, 집어등 과다 사용 등 연료의 낭비요인이 많은 것도 문제이다.

- 최근 우리나라의 원유수입 의존도가 큰 중동에서는 민주화 운동, 이란 경제제재 등으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2012년에 2000년대 하반기와 유사한 고유가의 파고가 불어 달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것이 현실화될 경우 유가의존형 산업인 연근해어선의 어업경영은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고유가를 대비하여 연근해어업은 연료비 절감 및 연료효율 극대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과도한 조업경쟁 완화 및 적정 어업생산체제 구축, 면세유 가격 안정화 등의 다양한 대응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의 착실한 이행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12월 ‘어선·어선원 기반 어업선진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동 시책은 어선 노후화 및 어선원 고령화로 인한 어업기반의 위축에 따라 어업인프라(어선·어선원)의 기반을 다지고 관리를 체계화하고자 한 것이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선 현대화, 조업 안전성 강화, 어선원 복지 확충을 정책방향으로 첫째, 어선정책 선진화 방안, 둘째, 어선원 정책 선진화 방안, 셋째, 어선·어선원 정책 지원시스템 확충의 과제를 담고 있다.
- 현재 연근해어업의 경우 어선 노후화 및 어선원 고령화로 인해 고비용 저효율 어업구조가 만연해 있다. 따라서 노후어선의 현대화 및 자동화 그리고 어선원 복지시설의 확충 등의 선진형 어선의 개발·보급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어선·어선원 기반 어업선진화 방안은 어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어업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업계에서의 적극적인 동참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어황정보, 2011, 각 월.
- 기획재정부, “2012년 물가여건 점검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방안”, 2012. 1.
- 김정봉 외, 「한국 수산업의 선진 산업화 전략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12.
- 김대영, “대형선망어업, 경영 개선을 서둘러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수산동향, 2009. 8.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
-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어선원 기반 어업선진화 방안”, 2011. 12.
-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도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2011. 12.
- 수협중앙회, 2010년 어업경영조사보고, 2011.



제5장

양식산업의 동향과 전망

신영태*·남종오**·박은영***

목 차

- | | |
|------------------|-----------------|
| 1. 서론 | 4) 대내외 양식 환경 |
| 2. 2011년 양식산업 동향 | 3. 2012년 전망과 이슈 |
| 1) 양식어가 및 양식면적 | 1) 전망 |
| 2) 양식 생산 및 가격 | 2) 이슈 |
| 3) 양식 수출입 | |

1. 서론

- 2011년은 양식산업에 있어 호재와 악재가 서로 맞물린 격동의 한해였다. 2011년 봄, 일본의 원전사태로 활어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가두리 양식어가의 경영을 어렵게 한 반면,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소비는 방사능 해독에 좋은 요오드 성분 함유로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 또한 중국의 수산물 소비 증가 및 일본의 원전사태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양식 수산물의 수출은 호재를 맞았으나, 국내 소비는 경기 부진 및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 특히, 이러한 경기 부진은 2012년에도 계속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제시한 3.7%의 경제성장률을 고려할 때 국내 양식산업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 이에 최근의 양식산업 동향과 양식환경 변화 그리고 수급 및 가격 흐름 등을 반영하여 2012년의 양식산업을 전망하고 주요 이슈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 수산업관측센터장, ** 전문연구원, *** 위촉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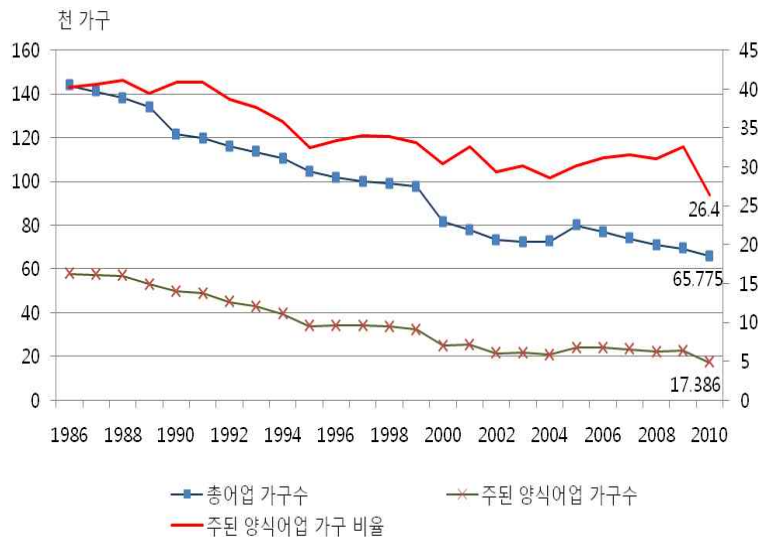
2. 2011년 양식산업 동향

1) 양식어가 및 양식면적

(1) 양식어업 가구변화

- 2010년 기준 총어업 가구수와 주된 양식어업 가구수는 각각 65,775가구와 17,386가구로 2009년에 비해 각각 3,604가구와 5,206가구가 줄어들었다.
- 또한 양식어업 가구의 장기 변화를 살펴볼 때, 1986년 이후 총어업 가구수와 주된 양식어업 가구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전복 양식업 가구수의 증가에 힘입어 그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던 주된 양식어업 가구수도 2010년에 들어 뚜렷한 감소를 보였다.
- 그 결과 총 어업 가구수의 감소로 2004년부터 조금씩 높아지던 주된 양식어업 가구수의 점유 비중도 2010년 들어 26.4%로 크게 감소했다.

〈그림 5-1〉 주된 양식업 가구수 및 가구수 점유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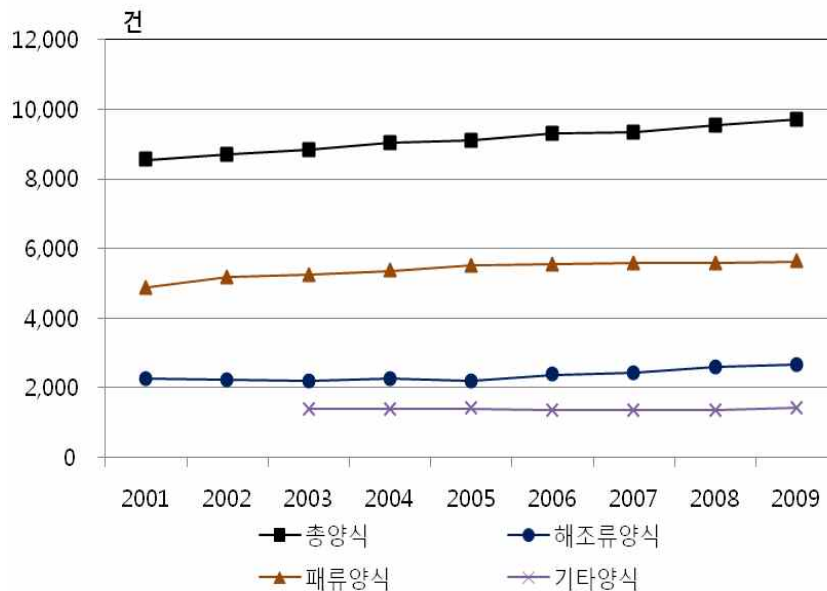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 양식 면허건수 및 면적 변화

- 양식 총 면허 건수 및 면허 면적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냈다. 2009년 기준 양식 총 면허 건수는 2001년 (9,352건) 보다 13.5% 많은 9,709건이었다. 동 기간 패류양식과 해조류양식, 기타양식 모든 부류의 양식 면허건수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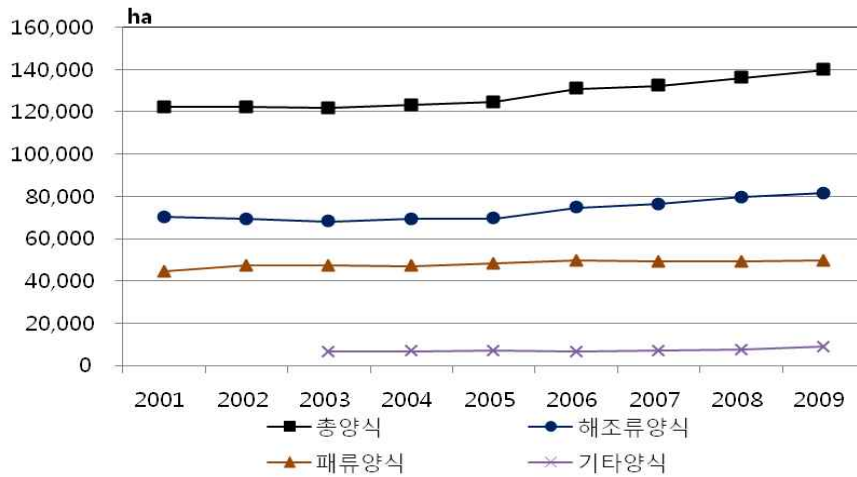
〈그림 5-2〉 양식 면허건수 추이



자료 : 통계청

- 그리고 2009년 기준 양식 총면적은 139,871ha로 2001년의 122,218ha 비해 14.4%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동 기간 해조류의 양식과 패류 양식 면적이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다.
- 2011년에는 정부의 양식어장 개발 제한 제도의 개선에 힘입어 양식업의 신규 면허건수와 면허면적은 증가하였고, 2012년에도 정부의 양식 전략 품목 육성에 힘입어 갯벌참굴, 해삼, 참치, 전복 등의 신규어장 및 신규면허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3〉 양식 면적 추이



자료 : 통계청

2) 양식 생산 및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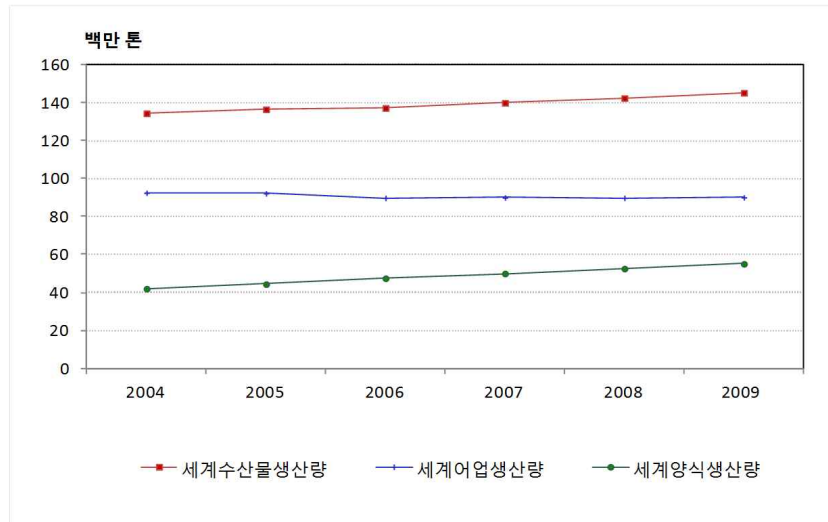
(1) 세계 양식 생산 동향

- 세계 수산물 생산 추이를 통해 양식산업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살펴볼 때, 양식 생산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이후 어선어업을 통한 수산물 생산량이 소폭 감소하거나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는 양식을 통한 수산물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해 왔기 때문이다.
-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FAO)의 보고서¹⁾에 따르면, 2009년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은 1억 45백만 톤이었다. 이 중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55백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38%를 점유하였다. <그림 5-5>에 나타난 것처럼 세계 양식 수산물의 점유 비중을 살펴보면 2004년 31%에서 해마다 1%포인트 이상 꾸준히 상승해 왔다.

1) FAO,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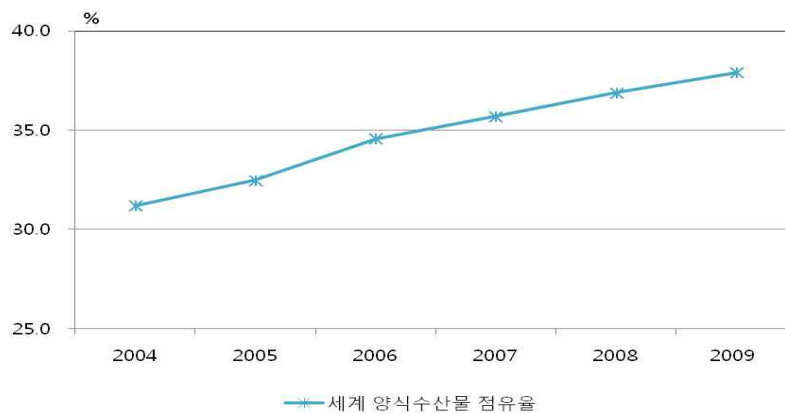
- 이러한 추세는 2011년에도 유사하였으며 향후에도 세계 각국의 양식산업의 육성 정책에 힘입어 그 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4〉 세계 양식수산물 생산량 추이



자료 : FAO

〈그림 5-5〉 세계 양식수산물 생산량 점유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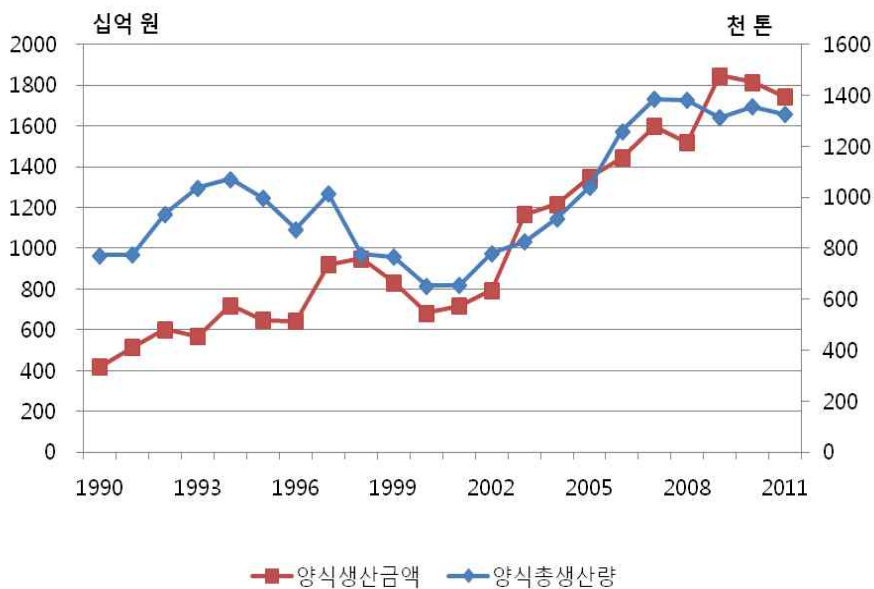
자료 : FAO

(2) 국내 양식 생산 및 가격 동향

가) 국내 양식 생산량 및 생산액 변화

- 우리나라의 양식 수산물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기준, 국내 양식 수산물 생산량의 잠정치는 약 132만 7천 톤으로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약 44%에 달하고 있다.
- 그리고 국내 양식 수산물의 생산금액 또한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1년 기준, 국내 양식 수산물 생산금액 잠정치는 1조 7천 438억 원으로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금액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2011년 양식수산물 생산량은 2010년에 비해 3.2% 감소했고, 양식 생산금액은 전년 보다 1.7%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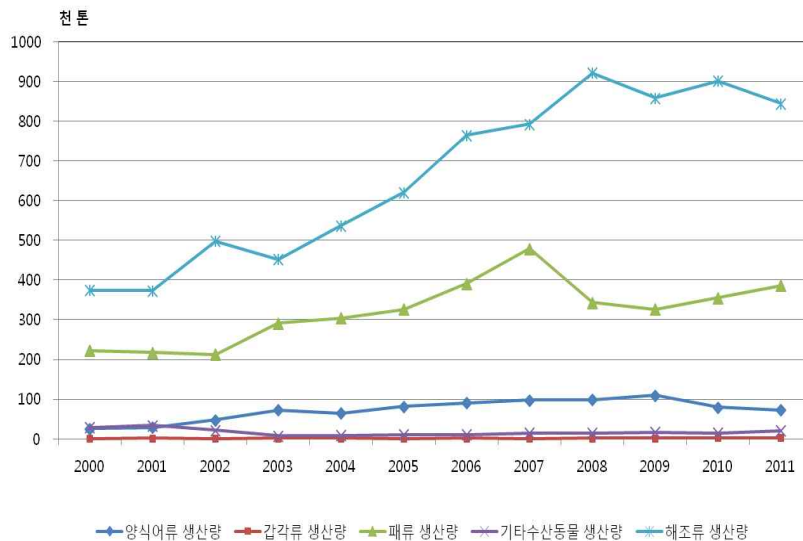
〈그림 5-6〉 양식수산물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 추이



주 : 2011년은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 2011년 부류별 양식수산물 생산량 변화를 살펴보면, 어류는 전년에 비해 9.4%, 해조류는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수산동물은 전년대비 41.1%나 증가했으며, 패류는 8.5%, 갑각류는 4.5% 늘어났다.
- 2011년 양식수산물 부류별 생산 점유율을 살펴보면, 해조류(63.7%), 패류(29.1%), 어류(5.5%), 기타수산동물(1.6%), 갑각류(0.2%) 순으로 나타났다. 패류, 갑각류, 기타수산동물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해조류와 어류의 생산량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그림 5-7〉 부류별 양식수산물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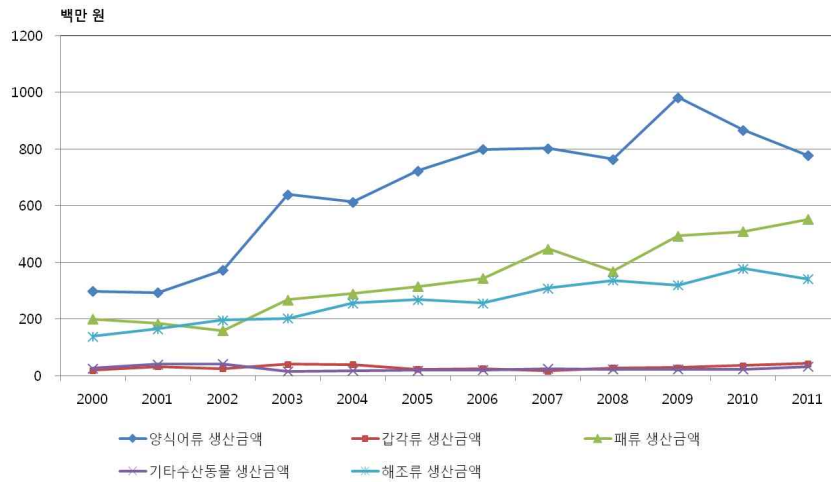
주 : 2011년은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 2011년 부류별 양식수산물 생산금액 변화를 살펴보면, 어류는 전년에 비해 10.5%, 해조류는 1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수산동물은 전년대비 37.8% 많았으며, 갑각류는 16.9%, 패류는 8.3% 늘어났다.
- 2011년 양식수산물 부류별 생산금액 점유율을 살펴보면, 어류(44.6%), 패류(31.6%), 해조류(19.5%), 갑각류(2.4%) 기타수산동물(1.8%) 순으로 나타났다.

패류, 갑각류, 기타수산물 등의 생산금액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해조류와 어류의 생산금액은 감소했다.

〈그림 5-8〉 부류별 양식수산물 생산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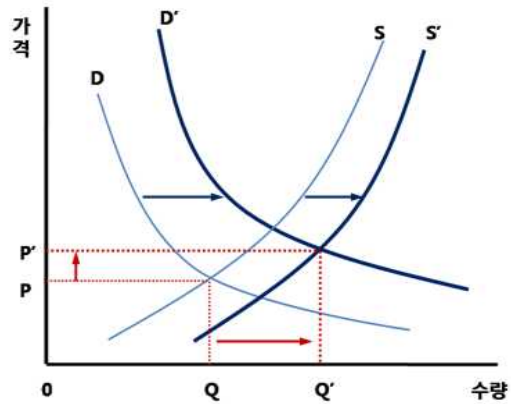
주 : 2011년은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나) 국내 양식수산물 생산가격 변화

- 2011년 국내 양식 수산물 생산가격은 kg당 1,315원으로 국내 해면어업 생산가격(kg당 3,715원)의 35.3% 수준에 불과하였다. 양식 수산물의 생산가격은 전년대비 25원 하락했으며, 해면어업 생산가격은 49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양식 수산물 중 생산비중이 높은 해조류의 생산가격이 낮고, 생산가격이 높은 어류의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 국내 양식수산물의 생산가격은 일반적으로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공급’은 국내 생산과 수입, ‘수요’는 국내 소비와 해외 수출, 그리고 재고에 의해 결정되나 여기서는 재고를 고려하지 않았다.
- 분석 결과, 국내 양식 수산물은 2000년 이후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계속 상회해 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생산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여 왔다.

〈그림 5-9〉 양식수산물의 생산가격 상승 요인



○ 그러나 국내 양식수산물의 생산가격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199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던 수산물 생산가격이 최근 몇 년간 소폭으로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 결과 2001~2010년간의 평균 양식수산물 생산가격 변동률이 3.5% 수준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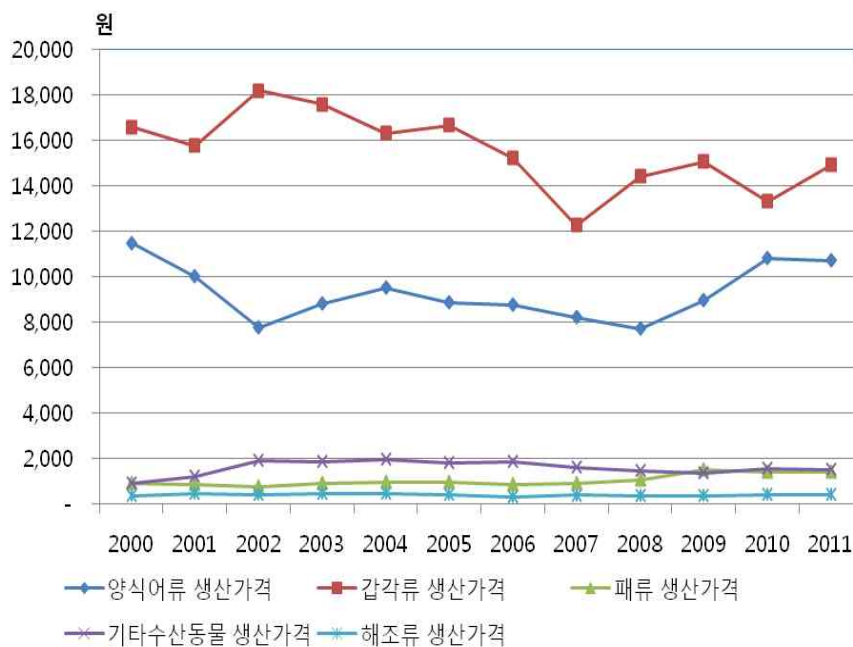
〈그림 5-10〉 양식 수산물의 생산가격 추이



주 : 2011년은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 또한 2011년 부류별 양식수산물 생산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전년에 비해 11.8% 상승한 갑각류를 제외하고 대부분 부류의 생산가격이 하락했다. 2010년 대비 해조류는 4.0%, 기타수산동물은 2.3%, 어류는 1.1%, 패류는 0.2%씩 각각 낮아졌다.
- 특히, 대부분의 부류별 생산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일본 원전 사태로 인한 소비 위축 및 세계 경기 불황으로 인한 수요 부진이 가격 하락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11〉 부류별 양식수산물 생산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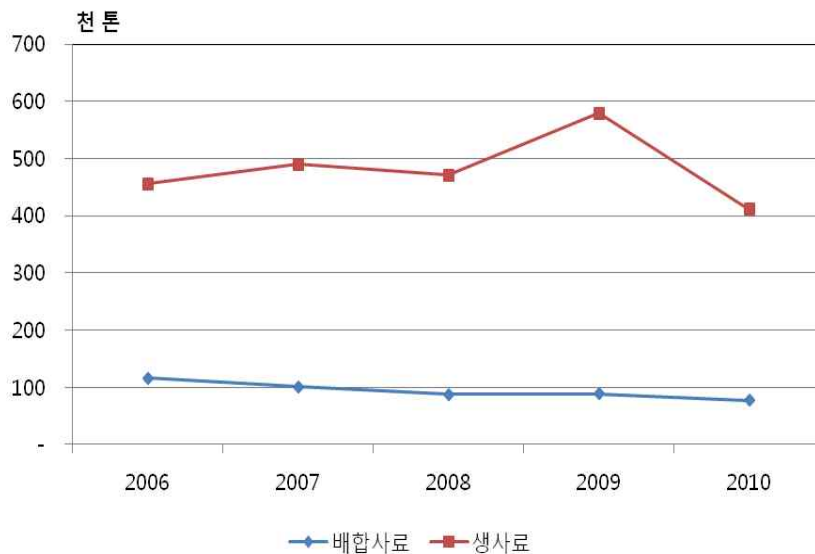
주 : 2011년은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3) 양식 어류 배합사료 및 생사료 판매량 변화

- 2010년 어류양식 배합사료 판매량은 정부의 배합사료 이용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어류 생산량 감소에 따라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2010년 어류양식 배합사료 판매량은 7만 8천 톤으로, 전년의 8만 9천 톤에 비해 12.6%, 2006년의 11만 7천 톤에 비해 33.5%나 감소하였다.
- 또한 어류양식 생사료 판매량도 2010년 들어 크게 감소하였다. 2010년 생사료 판매량은 41만 2천 톤으로, 2009년에 비해 29.0% 감소했으며, 2006년의 45만 7천 톤보다도 9.9% 적은 수준이었다.

〈그림 5-12〉 어류양식 생사료 및 배합사료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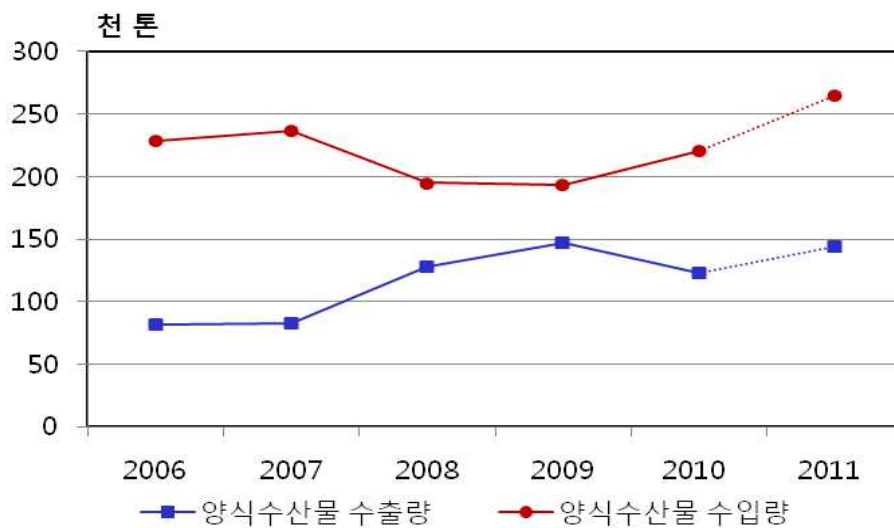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어류양식동향조사

3) 양식 수출입

- 우리나라 양식수산물 수출 추세를 살펴볼 때, 수산양식 품목의 수출량이 대체로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11년에는 전년의 12만 3,259톤에 비해 16.6% 증가한 14만 4,101톤을 수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또한 2011년 양식수산물 수입량은 26만 4,674톤으로 전년의 22만 962톤에 비해 19.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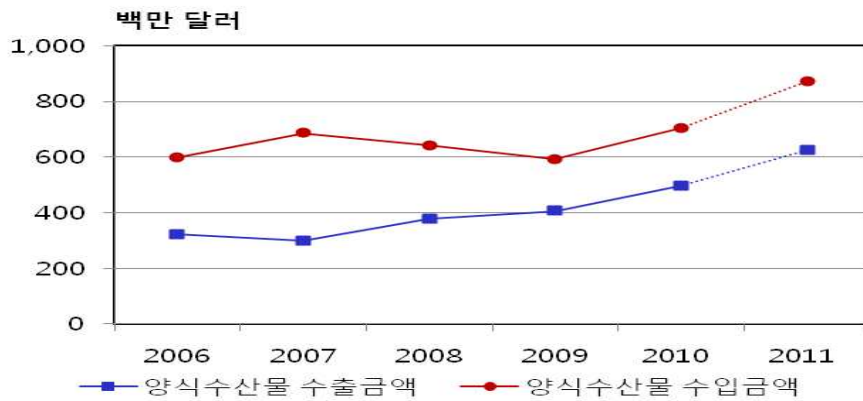
〈그림 5-13〉 수산양식 품목의 수출입량 추이



주 : 2011년은 잠정치임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 2007년 이후 국내 수산양식 품목의 수출금액도 수출량과 마찬가지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1년 기준, 양식수산물 수출 금액은 2010년 대비 25.7% 증가한 6억 2,505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 또한, 양식수산물 수입 금액은 2010년 대비 약 24.1%로 증가한 8억 7,368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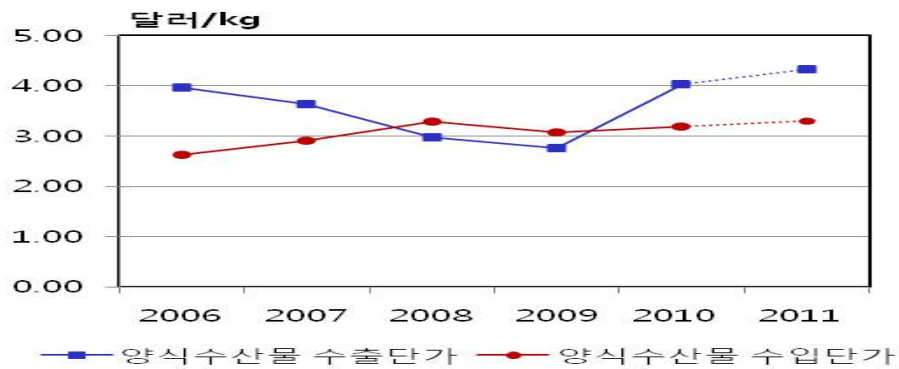
〈그림 5-14〉 수산양식 품목의 수출입금액 추이



주 : 2011년은 잠정치임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 한편 양식 수산물의 평균 수출입 단가를 비교해 볼 때, 수출단가는 kg당 4.3달러로 수입단가의 kg당 3.3달러보다 1달러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1년 양식수산물의 수출입단가 변화를 살펴보면, 수출단가는 7.5%, 수입단가는 3.6%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5-15〉 양식 수산 품목의 수출입 단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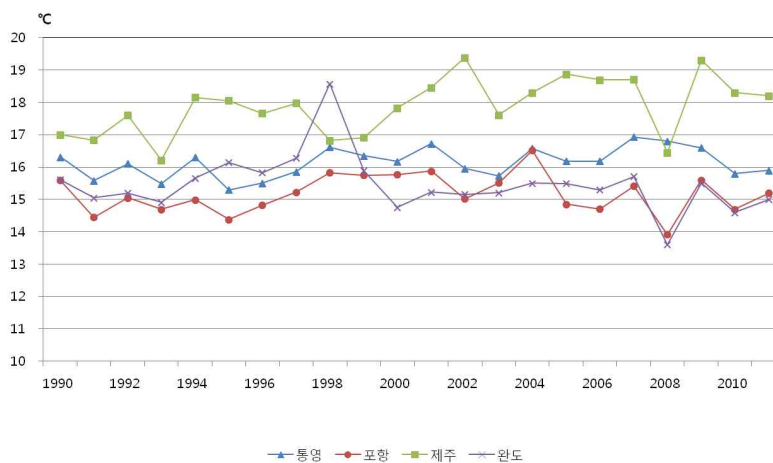
주 : 2011년은 잠정치임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4) 대내외 양식 환경

(1) 해수온의 변화

- 해수온의 변화는 양식 수산물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 채묘, 입식, 양성 등 주요 양식 기간에 냉수대가 양식장에 유입되거나, 수온이 적정 생육 온도보다 높게 형성될 경우 양식 수산물의 생장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게 된다.
- 1990년 이후 주요 양식 지역의 수온 변화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나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 중 2009년 통영지역 수온은 1990년에 비해 0.3℃가량 상승했고, 제주지역의 경우 2.3℃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주요 양식 지역별 수온 변화를 살펴보면, 포항은 전년에 비해 0.5℃, 완도는 0.4℃, 통영은 0.1℃ 상승한 반면, 제주지역은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11년에는 평년 대비 고수온과 태풍 등으로 인해 패류, 해조류와 같은 양식 수산물의 작황이 좋지 못했다.

〈그림 5-16〉 주요 양식 지역의 수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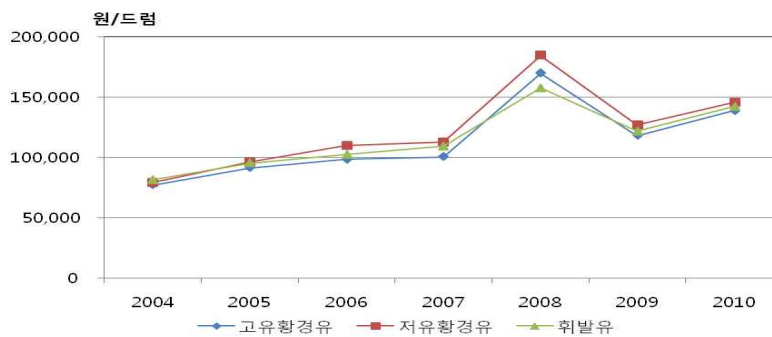
주 : 2011년은 잠정치임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 연안수온통계

(2) 면세유 가격 변화

- 우리나라 면세유 가격은 2007년까지 서서히 증가해 오다 2008년 들어 급증한 후, 2009년에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고유황경유, 저유황경유, 휘발유 면세가격은 각각 드림당 138,905원, 145,910원, 142,250원이었다.
- 한편 2012년 면세유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아 2011년에 이어 상승세가 예상된다. 이러한 면세유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의 2012년 수산 양식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7〉 면세유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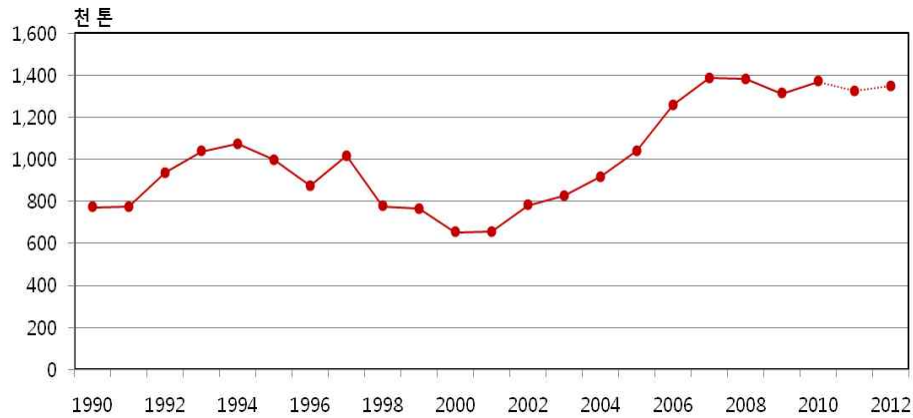
자료 : 수협중앙회

3. 2012년 전망과 이슈

1) 전망

- 2012년 천해양식 생산량은 2011년에 비해 2~3% 증가한 약 133~13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김과 광어 등의 생산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송어, 전복, 굴, 갯벌참굴 등의 생산이 늘 것으로 예상됨과 아울러 신규면허 및 신규어장도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림 5-18〉 2012년 천해양식 생산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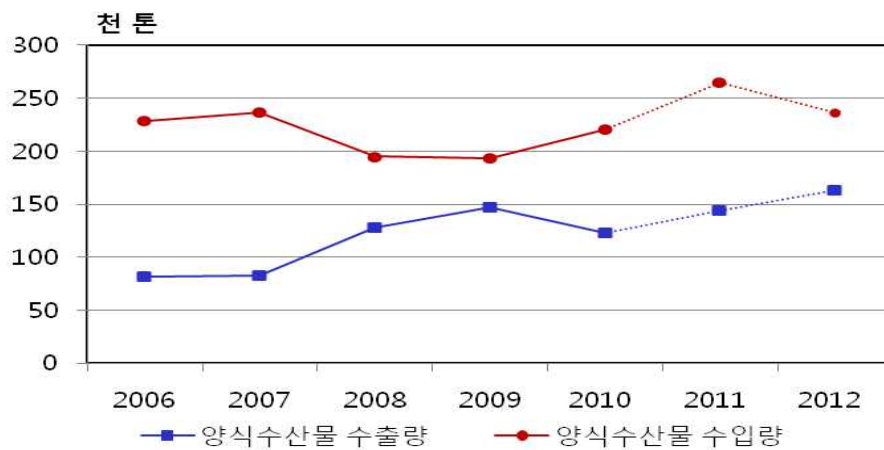


주 : 2011년은 잠정치이고, 2012년은 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 2012년 국내 천해양식 수산물목 수출입량은 각각 15~17만 톤, 24~25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출은 김과 전복 등에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은 경기불황으로 인해 다수 품목에서 감소세가 예상된다.

〈그림 5-19〉 2012년 천해양식 수출입 전망



주 : 2011년은 잠정치이고, 2012년은 전망치임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 2012년 주요 양식 수산물의 생산 및 가격, 그리고 수출입량을 전망해 보면 <표 5-1>과 같다.
- 우선, 2012년산 김 생산량은 갯병으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2001년산보다 10~15% 감소한 1억 5백만 속~1억 1천만 속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물김 산지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인해 2011년보다 다소 상승한 kg당 1,000원 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김 수출량은 일본과 중국의 김 작황 부진과 조미김 수출국 다변화로 인해 2011년보다 다소 늘어난 2,600만 속~2,800만 속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둘째, 2012년산 미역 생산량은 이상 고온과 해적생물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2001년산보다 5~7% 감소한 47만 톤~48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역 산지가격은 나물용 물미역과 가공용 미역 모두 작황 부진에 따른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2011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미역 수출량은 일본의 원전 사태의 진전과 미역 재고 확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2011년보다 20~25% 감소한 9만 9,000톤~10만 6,0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셋째, 2012년 광어 생산량은 하반기 양성물량 부족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2001년보다 3~10% 감소한 3만 6,000톤~3만 9,0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어 위판가격은 상반기 대형어 양성물량의 출하 의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진으로 2011년보다 소폭 하락한 kg당 10,000원~10,500원 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광어 수출량은 일본과 미국의 경제상황이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2011년보다 소폭 감소한 3,200톤~3,3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넷째, 2012년 우럭 생산량은 2010년 입식량 부족과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 위축이 예상되나 적체된 출하 물량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2001년과 비슷한 2만 7,000톤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럭 산지가격은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적체된 물량에 대한 양식어가들의 적극적 출하 의향을 고려할 때 2011년보다 하락세가 예상된다. 우럭 수입량은 국내산 우럭의 물량 적체와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11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다섯째, 2012년 송어 생산량은 양성물량 및 축제 수요 등을 고려할 때 2011년

보다 7~10% 증가한 3,100톤~3,200톤 수준이 예상된다. 또한 송어 산지가격은 송어 축제의 확산과 바다 송어의 입식 의향이 강해 2011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어 수입량은 칠레의 수급 사정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최근 3년간 수입 증감률을 고려할 때 2011년과 비슷한 91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여섯째, 2012년 전복 출하량은 시설량과 입식량 증가와 더불어 폐사로 인한 작은 크기 출하 증가로 2011년보다 5% 정도 증가한 9,7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복 산지가격은 상반기 봄철 출하 증가로 하락이 예상되나 수출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폐사 등을 고려할 때 2011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 2012년 전복 수출량은 일본의 활전복 수요 증가로 2011년보다 증가한 1,4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끝으로, 2012년산 굴 생산량은 잔여시설량, 수하연당 평균 알굴 생산량, 예상 월하량 등을 종합해 볼 때, 2011년산 보다 2~7%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굴 산지가격은 생산량 증가와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다소 낮게 형성될 전망이다. 2012년 굴 수출량은 가공수출업체들이 경기 불황을 고려하여 감산을 계획한 데다 일본의 굴 양식 시설 복구가 예상보다 빨라짐에 따라 2011년보다 적은 1만 5,000톤 ~ 1만 5,2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1〉 2012년 주요 양식 수산물의 생산, 가격, 수출입 전망 (2011년 대비)

품목명	생산	(산지)가격	수출(입)량
김	감소세	상승세	증가세
미역	감소세	상승세	감소세
광어	감소세	하락세	감소세
우럭	보합세	하락세	감소세 (수입량)
송어	증가세	보합세	보합세 (수입량)
전복	증가세	상승세	증가세
굴	증가세	하락세	감소세

2) 이슈

(1) 10대 전략 품목의 양식 품목에 집중

가) 10대 전략 품목 선정

- 최근 정부는 세계 수산물 시장을 공략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10개의 품목을 선정하여 2020년까지 이들 품목의 생산량을 146만 톤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에 2012년에는 10대 전략 품목 중 양식 품목(관상어 제외)인 갯벌참굴, 해삼, 전복, 광어, 참치, 해조류(김, 미역), 새우, 뱀장어, 능성어에 양식 정책이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략 품목별 육성 계획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갯벌참굴은 갯벌을 친환경 양식 생산 기지로 조성하여 2020년까지 2,500ha에 125,000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둘째, 해삼은 7,500ha의 해삼 전문 생산거점 지구를 조성하여 2020년까지 45,900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셋째, 전복은 양식 어장의 재배치 및 외해 중층 가두리 설치, 그리고 참전복 육종 개발을 통해 2020년까지 35,000톤을 생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광어는 국내외 양식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성장이 빠르고 질병에 강한 내병성 품종을 개발하여 2012년까지 88,000톤을 생산하여 세계시장을 석권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다섯째, 참치는 연안국 협력 강화를 통한 원양 참치 자원 확보와 더불어 20,480ha에 이르는 외해 양식장 확보를 통해 2020년까지 325,100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여섯째, 해조류(김, 미역)는 신제품 개발 및 양식어장 확대를 통해 2020년까지 805,600톤을 생산 할 계획이며, 아울러 가공식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해조류의 부가가치를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일곱째, 새우는 동남아, 아프리카 등 해외 양식기지를 선점하여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을 확대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고밀도 유기 양식기법 및 순환여과 양식기법을 이용하여 활새우 생산에 주력하여, 2020년까지 국내외를 포함하여 약 48,600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여덟째, 뱀장어는 뱀장어 완전양식을 위한 R&D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실뱀장어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시장에 실뱀장어를 수출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순환여과식 양식시설을 확대하여 2020년까지 국내 생산량을 10,700톤까지 올릴

계획이다. 아홉째, 능성어는 3.1조원 수준인 중국시장을 겨냥한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2020년까지 12,300톤의 능성어를 생산할 계획이다.

나) 10대 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신규어장 확대 및 효율적 어장이용 제고

- 최근 정부는 양식 전략 품목의 생산 확대를 위해 친환경 양식어장을 확보하고자 신규 어장 개발을 허용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 특히, 정부는 현재 내만 양식 적지의 70% 이상이 이미 개발된 상황에서 양식 전략 품목의 생산 증대를 위해 새로운 어장 확보와 기존 어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력 중이다.
- 그 결과, 새로운 어장으로 약 14,700ha를 확보하고, 기존 어장도 7,300ha를 이용하여 양식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규어장으로는 외해 참치양식을 위해 480ha, 연안의 김 양식을 위해 1,300ha, 그리고 육상의 넙치 양식을 위해 60ha를 신규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어장을 이용하여 갯벌참굴 양식을 위해 2,500ha, 해삼 양식을 위해 4,800ha를 이용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다) 양식어장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전략 품목의 생산기반 확대

- 최근 정부는 전략 품목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품목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양식면허의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자본 및 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제도적 장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자의 면허 획득 및 생산 규모화, 그리고 자원 유동화의 한계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 이에 정부는 어장 진입제한 완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양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을 어장의 임대차 범위를 확대하고, 신규어장에 대한 기술 및 자본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할 계획이다.
- 특히, 갯벌 양식의 경우, 「갯벌 양식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이와 관련된 부분의 「수산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품종 위주로 세분화된 양식면허 규제를 품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합양식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

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넙치 등 육상양식은 순환여과식 양식장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신규 자본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며, 신규어장 확대 및 기존어장 고도이용에 따른 환경수용력 및 환경기준 마련도 제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2) 양식어장 개발 제한 제도 운영 개선

- 최근 정부는 일본의 원전사태, 중국의 수산물 소비 증대 등 국내외 수요 증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개발 제한 8개 양식 품종에 대한 규제 해제 및 어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2012년 현재 농림수산부는 개발 제한 8개 품종을 해제하여 어장확대에 의한 국내외 수요 증가 및 소득 창출에 부응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 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시 세부지침에서 개발 제한 품종을 선정·운영토록 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어장개발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요 양식수산물의 수급상황 정보와 양식시설에 대한 항공촬영 결과 등을 각 지자체에 제공하고, 각 지자체의 시장 및 도지사는 양식 수산물의 국내 수급을 고려하여 필요시 어장개발의 제한 수역 및 제한 품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군에 세부지침을 시달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그러나 주요 양식수산물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개별 지자체는 우선,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시, 개발 수면에 대한 기본조사를 사전에 실시하고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의견 반영 및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또한 신규어장개발 시 어업피해 상승발생 예상 수면, 조류 소통 저해 수면, 현저한 생산성 저하가 예상되는 수면, 어장 분쟁 수면, 불법시설이 시군 전 어장의 10%이상 차지하는 수면 및 품종, 과도한 어장개발 또는 양식품종이 밀집된 수면 등은 피해야 하며, 재개발 어장의 경우도 최근 5년간 50%이상 피해가 2회 이상 있었던 상습적 재해발생 어장, 어장관리 부실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어장, 어장청소 의무 미이행 수면, 불법양식 시설 수면 등은 어장 재개발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 그리고 김, 수하식 굴, 홍합, 미더덕 등 수급 안정이 필요한 품목의 과도한 개발 방지를 위해 이들 품목을 전체 어장의 10% 이상 개발 시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및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3) 친환경 갯벌 양식의 육성 확대

- 최근 정부는 생태적 보전가치가 낮은 유향 갯벌과 기존의 생산성이 저하된 갯벌 등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할 뿐만 아니라, 갯벌 자체를 명품 수산물 양식단지로 조성하여 친환경적 양식 수산물을 생산·출하·수출하려는 녹색성장 산업을 추진 중이다.
- 특히, 갯벌에서 수평망식 갯벌참굴, 갯벌축제식 해삼, 백합, 바지락, 명품 소금, 고막 등 부가가치가 높은 국민의 기호 품종들이 생산됨에 따라, 정부는 갯벌 어장을 이용한 양식 품종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정부는 갯벌참굴을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여 2020년까지 세계 수요의 약 13%에 해당하는 125,000톤을 생산하여 갯벌참굴을 세계적 양식명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갯벌참굴 양식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어장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2019년까지 1,60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2020년 이후부터 연간 약 4조 원의 소득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정부는 갯벌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프리미엄급 제품화하기 위해, 민간투자 유치 환경 조성 및 농식품 모태펀드 등을 이용하여 민간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고부가가치 천일염 브랜드 제품 육성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 및 생산단계 이력추적제 실시 등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소금의 품질 고급화 및 차별화를 위한 소금 품질검사제를 조기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4) 국제식품신품종보호동맹(UPOV) 발효

- 국제식품신품종 보호동맹인 UPOV는 식물 신품종에 대한 국제기구로 2011년 4월 현재 69개국이 회원국이며, 우리나라는 2002년에 UPOV의 회원국이 되었다.

- 1991년 UPOV의 협약에 의하면, UPOV에 가입한 국가는 가입 후 10년 이내 자국에서 생산되는 전 작물에 대해 상기 협약을 적용해야 한다.
-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2011년 현재 농업의 5개 품목과 해조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하였고, 김과 같은 해조류는 올 1월부터 품종보호 대상이 되었다.
- 따라서 2012년 올해부터 우리나라 정부는 해조류 품종보호에 관한 UPOV 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신품종 보급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농림수산물식품부, 갯벌어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2011. 188p.
-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 해조류분야 품종보호제도 정착 및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08. 74p.
-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 UPOV 대비 해조류 신품종 개발 방안 연구, 2008. 198p.
- UN comtrade 자료 ([www.http//comtrade.un.org](http://comtrade.un.org))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각년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양식어업 동향」, 각호 2005~2011
- 한국은행, 통계자료
- 수협중앙회, 통계자료
- WTI, Brent, Dubai 자료



제6장

원양산업의 동향과 전망

장흥석* · 안재현* · 마창모* · 한덕훈**

목 차

- | | |
|-------------------|--------------------|
| 1. 서론 | 4) 경영 및 고용 현황 |
| 2. 2011년의 원양산업 동향 | 5) 해외수산 투자-공공 및 민간 |
| 1)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 3. 2012년 전망과 이슈 |
| 2) 생산 및 수출 동향 | 1) 전망 |
| 3) 해역별 조업 현황 | 2) 이슈 및 대책 |

1. 서론

- 지난 10년간 국제 수산물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원양산업의 생산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량 기준으로는 2007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 원양어업의 생산량 감소 원인은 크게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외적인 요인은 국제적인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생산 투입(Input)의 약화와 투입된 생산재 혹은 자본의 생산성 저하 요인(노후화)에서 기인하고 있다.
-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원양산업의 규모는 생산금액 기준으로 늘고 있는데, 이는 국제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 즉, 단기적으로 국제 수산물 가격 상승에 의해 산업 규모가 최근 3~4년 동안 크게 확대되어 있지만, 원양어업의 생산량 감소는 장기적으로 산업 축소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원양업계를 둘러싼 산·관·학·연에서는 장기적인 원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전문연구원, ** 위촉전문연구원

- 민간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주요 수산자원국 등을 대상으로 하여 해외 사업 진출을 서두르고 있으며, 사업분야 역시 원양어업에서 가공사업 등으로 다양한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 정부에서는 주요 연안자원국과의 어업협정(한·중, 한·일, 한·러 등)을 통해 주요 자원의 쿼터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수산물기구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 이와 동시에 KOICA,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는 해외무상원조에서 어업분야에 대한 원조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 현재 원양산업의 최대 숙제는 장기적인 성장 원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산자원 확보와 사업 다양화를 양대 축으로 들 수 있다.
- 이러한 기준에서 여기서는 원양산업의 최근(2010년 혹은 2011년) 동향, 국제수산물기구의 이슈,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2012년 원양산업의 이슈를 전망한다.

2. 2011년의 원양산업 동향

1)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1) 유엔총회 수산결의안

- 2011년에 개최된 제 66차 UN 총회에서 체결된 수산결의안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UN 총회에서는 기후변화와 세계금융위기가 세계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및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천연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촉구하였다.
 - 이 중 주목할 내용은 지역수산관리기구(RFMO)가 저층어업규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UN이 요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저층어업 분야에 대한 지역수산관리기구들의 관리 강화가 예상된다.
 - 이번 UN 총회의 수산결의안에서 해양생태계 보존 및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하여는¹⁾ 채택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조업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은 기존의 방침에서 크게 강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랑어 관련 지역수산물관리기구

- 세계적으로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다랑어는 다수의 이해관계국이 포함된 지역 수산기구의 결정에 따라서 어획량 쿼터가 정해지므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어종이다.²⁾
- 또한 다랑어는 우리나라 전체 원양어업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력 품종이며, 농림수산부문 수출품 중에서 단일 품종으로는 수출액이 가장 많아서 국내적으로도 중요성이 매우 큰 품종이기도 하다.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우리나라 다랑어 생산량의 90% 이상이 생산되는 남태평양 수역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지역수산기구로서,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다랑어 자원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제7차 과학위원회회의의 결과에 따르면, 눈다랑어의 자원상태가 예상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연례 총회에서는 더 강화된 보존조치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 눈다랑어는 주로 연승어업에서 횡감용으로 성어를 어획하고 있지만 선망어업에 의한 가다랑어 조업에서 혼획되는 치어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연승어업 쿼터의 감축과 함께, 선망어업의 치어 어획률 감소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 중서부태평양은 우리나라 참치선단의 주 어장으로 선망선 28척과 연승선 150척이 연중 조업을 하여 통조림용 가다랑어 약 25만 톤과 횡감용 참치 약 4만 톤을 생산하고 있어 생산 감소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다.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에서는 우리나라 눈다랑어 쿼터 및 어선척수 설정, 가나 합작선사의 해상전재 문제, 북방황새치, 남방날개다랑어 등 주요 어종의

1) 브라질의 제안

2) 전 세계 다랑어자원을 관리하는 5대 다랑어 관련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등의 2011년 논의 동향은 2012년 다랑어 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2년 전망을 위해서 2011년 다랑어 관련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논의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쿼터 설정, 우리나라 이행관련 보고 등에 대한 사안이 논의되었다.

- 올해 제22차 연례회의에서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에 대한 관리계획(2012 ~ 2015) 권고(안)이 채택됨에 따라 눈다랑어에 대한 TAC를 금년도 수준인 85천 톤으로 책정하였고, 우리나라에 대한 쿼터는 변동이 없이 1,983톤으로 설정하였다.
 - 그간 관리대상종이 아닌 황다랑어에 대한 TAC는 11,000톤이 설정되었고, 이러한 황다랑어 TAC설정은 향후 국별 쿼터 설정에 대비하여 최근 줄어 들고 있는 황다랑어 어획실적을 만회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현재 적당 눈다랑어 쿼터 물량은 EU 84톤, 일본 96톤, 중국 124톤, 한국 141톤, 필리핀 180톤, 대만 208톤이다.
 - 또한 연승선 조업척수가 우리나라 현재 전업 연승선 조업수준인 16척에서 14척으로 결정되었다. 일본은 눈다랑어 보존조치 안에 가나의 해상전재 문제 및 쿼터 감축 등과 관련 연안 개도국 지지 차원에서 눈다랑어 쿼터 이전을 제안하였다. 한국을 제외한 3개국은 각각 70톤, 우리 측은 상징적 의미로 눈다랑어 쿼터 20톤을 이전기로 하였다.
- 인도양참치위원회(IOTC)는 올해 개최된 제15차 연례회의에서는 지역옵서버프로그램, 데이터 부표 인근 조업금지, 어선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 기록 조치, IUU 어선목록 수립, 해상전재 프로그램 개정 등의 사항들이 채택되었다.
- 구체적으로는 IUU 어선목록 수립과 관련하여 IUU 협의어선 정보제공을 기존 연례회의 120일에서 70일로 개정하며, 회기간에도 IUU 어선정보 제공시 회원국의 과반수가 정족수가 되어야 하고, 2/3 회원국이 동의할 시 IUU 어선목록으로 등록되도록 하였다.
 - 그러나 현재 국내 원양업체의 인도양 수역 생산 비중은 1% 미만으로 낮아, 규제강화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 더욱이 회원국들이 개발도상국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어획쿼터 설정 등 강력한 보존관리조치 채택이 어렵고, 보존조치 이행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자원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³⁾
-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는 2011년 제6차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남방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였고, 제18차 연례회의에서는

3) IOTC 27개 회원국 중 10개국이 1인당 GNI가 \$906 이하인 저소득국임.

2012~2014 TAC(총허용어획량) 및 국별 쿼터를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2012년 남방참다랑어 TAC는 10,449톤으로 전년도보다 1천 톤 증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리나라 기준쿼터는 전년도 859톤에서 911톤 수준으로 높아졌다.
-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는 동부태평양의 다랑어자원을 관리하는 기구로, 지난 해 개최된 제82차 총회에서 선망선 어획능력(어창용적) 및 금어기간, 연승선 어획쿼터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에 따라 다랑어 보존프로그램, 바닷새 보존, 데이터부이 근처 조업금지, 24미터 이상 연승선 목록, 장완홍상어 보존, 대형어선 전채프로그램개정, 개도국지원 개발펀드 등 10개 부문에 대해 결의 또는 확정하였다.
- 다년간 다랑어보존프로그램은 2011~2013년에 선급 4~6인 선망선과 전장 24미터 이상인 연승선에 적요되는 조치로, 채낚기, 스포츠 피싱, 1~3급 소형 선망선은 예외로 하며, 선망선 금어기는 62일로 매년 두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금어기로 한다.
- 눈다랑어 주 조업구역인 엘코랄리토 수역인 96°W-110°W, 4°N-3°S에 대해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1달 간 조업을 금지하며, 4급 선망선은 AIDCP 옵서버 승선 조건으로 금어기 동안 30일간의 1회 항차를 허용하고, 아시아 조업국의 연승 쿼터는 일본이 중국에게 3천 톤을 이전하였다.
- 2011년에는 눈다랑어 어획쿼터가 전년도와 같은 11,947톤이며, 2011년과 2012년에 실시되는 효과성 평가에 따라 선망선 금어기가 달라지면 연승선 쿼터도 이와 연동하여 변경될 수 있다.

(3) 한·러시아 어업위원회

- 2011년 11월 15~22일까지 개최된 제21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2012년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쿼터 규모가 6만 1,966톤으로 확정되어 약 2천 톤 정도 감소하였다.
- 어업위원회 결과, 오징어는 8천 톤으로 약 2천 톤이 줄어들었으며, 명태는 4만 1톤, 대구 4,450톤, 청어 600톤, 가자미 500톤, 꽁치 7,500톤, 복어 115톤 규모로 작년규모로 유지되었다.

- 오징어 쿼터를 2천 톤 감소한 것은 금년도 러시아수역에서 오징어를 조업한 어선들이 조업쿼터 중 54%만 어획함에 따라 업계가 실제 잡을 수 있는 양을 고려하여 쿼터량 1만 톤에서 2천 톤을 줄여 8천 톤으로 하고, 대신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기를 희망하는 어업인의 숫자를 반영하여 조업수를 90척에서 104척으로 늘렸다.
- 입어료는 2012년 모든 어종의 입어료를 201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2012년 우리나라 조업 어선은 명태트를 7척, 대구저연승 2척, 꽁치붕수망 15척, 오징어채낚기 90척으로 4개 업종 114척이다.

〈표 6-1〉 2011년도 한·러 어업협상 결과

어종별	입어료(\$/톤) 합의		조업 쿼터(톤) 합의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합 계			63,966	61,966
명 태	325(360)	336(360)	40,001	40,001
대 구	365	385	4,450	4,450
청 어	100	100	600	600
가오리	134	134	800	800
가자미	269	269	500	500
꽁 치	101	101	7,500	7,500
오징어	93.5	96	10,000	8,000
복 어	81.5	81.5	115	115

주 : 1) ()는 추가 쿼터임.

자료 : 농림수산물부 및 한국원양산업협회, 내부자료, 각 연도.

- 이외에도 러시아 극동지역에 한국의 투자자가 냉동창고 및 가공공장 건설 등에 진출하는 등의 투자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측은 러시아산 계류의 불법교역을 차단하는 문제와 조업쿼터 배정을 연계하려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산 계류의 불법교역 차단을 위하여 2012년 4월부터 원산지 증명 제도를 시행하는 IUU 어업 방지협정 이행을 전제 조건으로 쿼터를 배정하도록 결정하였다.

(4)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 한국과 중국은 2011년 10월 20일 중국 황산시에서 제11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도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상호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이행방안 마련,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 방안 마련 등에 협의하였다.
- 한국 어선의 중국 EEZ 입어척수는 1,600척으로 2011년과 동일하였으며, 쿼터는 2011년 64천 톤에서 62천 톤으로 2천 톤이 줄었다.
 - 저인망류는 7,165톤에서 6,165톤으로 줄었으며, 선망은 11,000톤에서 10,500톤으로 줄어서 2011년에 비해 총 2천 톤이 줄었다.
 - 저인망류와 통발류를 각각 18척과 17척을 감소하는 대신 제주남부 부역의 입어규모를 250척에서 285척으로 35척 확대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낚시류 어업인들의 조업조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표 6-2〉 우리 어선의 입어척수 및 어획할당량

단위 : 척, 톤

업 종	2011		2012		입어규모 변화	
	척 수	할당량	척 수	할당량	척수증감	할당량증감
계	1,600	64,000	1,600	62,000	-	△2,000
저인망류	187(18)	7,165	187(-)	6,165	-(△18)	△1,000
선 망	173	11,000	173	10,500	-	△500
자망류	167	4,742	167	4,742	-	-
안강망	87	2,180	87	2,180	-	-
낚시류	881(250)	33,624	881(285)	33,624	-(35)	-
통발류	105(17)	5,289	105(-)	4,789	-(△17)	△500
운반선	13	-	13	-	-	-

주 : ()는 한국어선은 북위 27도 이남의 입어 척수이고, 일반어획물운반선은 '합계' 척수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각 연도.

- 이번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는 중국 어선의 입어규모를 2011년 보다 입어척수 50척, 어획할당량 2,500톤을 각각 감축하였으며, 특히 어획강도가 강한 저인망(타망) 28척과 유망(자망) 22척을 각각 감축하였다.

〈표 6-3〉 중국 어선의 입어척수 및 어획할당량

단위 : 척/톤

업 종	2011		2012		입어규모 변화	
	척 수	할당량	척 수	할당량	척수증감	할당량증감
계	1,700	65,000	1,650	62,500	△50	△2,500
타 망	840	41,862	812	40,479	△28	△1,383
- 쌍타망	824	41,196	798	39,896	△26	△1,300
- 단타망	16	666	14	583	△ 2	△83
위 망	92	10,869	92	10,003	-	△866
유 망	713	8,128	691	7,877	△22	△251
우 조	55	4,141	55	4,141		-
운반선	62	-	60	-	△ 2	

주 : ()는 북위 33도 45분이남의 대형트롤금지구역 내측 조업 척수이고, 일반어획물운반선은 '합계' 척수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각 연도.

- 이외에도 이번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최근 제주 남부수역의 어장 형성을 고려하여 한국 낚시류의 조업시기 중 상반기 조업시기를 1개월 연장하여 2012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하반기는 10월16부터 12월31일까지로 조정하였다.
- 아울러 양국은 2012년 9월부터 중국 자망어업에 대한 어구실명제를 실시하고, 2011년 12월부터 무허가·영해침범조업 및 공무집행방해 등 3대 업종위반행위어선은 3년간 입어자격 취소, 단속이나 정선명령에 저항하고 도주한 어선은 30일간 조업 정지, 조업위반어선 명부 및 처리조치사항을 통보키로 하는 등 양국어선의 상호 EEZ내 위반조업단속을 강화시키기로 하였다.

(5) PNA 수산장관급 회의

- 2011년 4월에 개최된 PNA 수산장관급 회의는 나우루 협약 당사국들이 종전보다 더욱 강력한 자원관리 및 보존조치와 어업관리 방안을 도입하기로 하여 우리나라 다랑어 어업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PNA 수산장관급 회담의 합의 결과에는 해당국가의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고, 자원관리·보존 및 어업관리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어 우리나라 다랑어 어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어류군집장치(FAD) 사용 금지기간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내용과 최소망목 규정 도입 등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대만, 미국 등 원양어선의 조업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 아울러 선망어선 VDS에 대한 거래제 도입은 이미 지난 2008년부터 예견되었던 것으로, 어선별 조업일수의 매매를 허용함으로써 제한된 조업일수 자체의 가치를 높여 자신들의 경제적 혜택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6) 기타 지역기구 동향

-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는 남동대서양공해수역에서의 전갱이, 돔류, 이빨고기 등 비참치류를 관리하는 기구로 2011년 10월에 제8차 연례회의를 개최하였다.
- 동 회의에서는 총괄적인 보존이행조치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으며, 신규어종에 대한 TAC 설정 문제도 논의하였다. 동 회의는 2012년 10월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는 2011년 9월 제33차 연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도 어종별 쿼터 TAC를 설정하여 한국의 쿼터는 새우 133톤, 오징어 453톤, 적어 169톤으로 결정되었다.
-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는 남태평양공해수역에서의 전갱이, 오랜지리피 등과 같은 비참치류를 관리하는 기구로 2011년 1월에 제2차 설립 준비회의를 개최하였다.
- 제2차 설립준비회의에서는 주요 관리어종인 전갱이 자원의 급감으로 2010년 기준 각국 어획량의 40% 수준을 감축하는 어획량 감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어업관리를 위한 어획실적 및 VMS 자료제출, 옵서버 승선 등이 강화되었다.
- 한국은 2011년 1월 협약문에 서명하였으며, 2012년 중에 비준을 위해 준비중에 있다.
- 남빙양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는 남빙양의 공해어족자원인 이빨고기, 크릴, 빙어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 제33차 연례회의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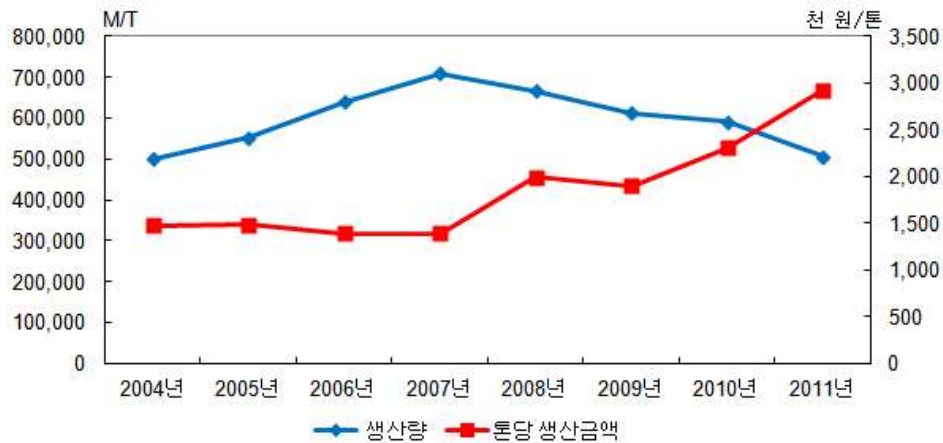
- 2010/2011 어기 한국의 이빨고기조업 저연승 어선 1척의 TAC 초과어획에 따른 보존조치 위반으로 인한 IUU 목록 등재건과 관련하여 협상하였으나 등재를 부결하였으며, 관련회사에서는 소속 선박(저연승) 모두 동 관리수역에서 2011/2012어기의 조업을 철회하였다.
-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는 북태평양공해수역의 돔류, 꽁치 등 비참치류 관리를 목적으로 2011년 8월 제1차 설립 준비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에 사무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생산 및 수출 동향

(1) 생산

- 우리나라 원양어업 생산량은 2004년 50만 톤까지 하락했다가, 2007년에 70만 톤까지 회복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2011년에는 작년 대비 약 15% 수준 하락한 50만 톤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생산량 감소는 중서부태평양 조업어장의 어황부진 등으로 원양수산물 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원양선망어업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공식통계가 집계된 11월 말 현재 원양선망어업은 작년 동기 대비 약 22% 감소했다.
- 원양트롤어업 생산량도 약 12% 줄었는데, 이는 올해 일부 북양트롤 어선의 조업개시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원양채낚기어업은 대서양 포클랜드 수역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태평양 수역에서의 어황부진으로 전체 생산량은 작년 동기 대비 약 3% 감소한 상태이다.
- 톤당 생산금액은 2003년 약 2백만원 수준을 기록한 이래, 계속해서 15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2008년을 전후로 톤당 생산금액이 다시 2백만 원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2011년에는 290만 원 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같은 톤당 생산금액의 상승은 수출시장 확대와 원/달러 환율 상승 및 엔화 강세에 따른 원양수산물의 해외수출 물량 증가, 그리고 일본 대지진 발생으로 대일본 수출의존도가 높은 다량어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림 6-1〉 원양수산물 생산량 추이



주 : 2011년 생산 실적의 경우, 11월까지의 공식 월별 생산량 통계를 이용하고, 미집계된 12월 생산 실적은 2010년 동월 생산량을 준용하여 산출함.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1.

통계청, 어업생산통계(<http://fs.fips.go.kr/>).

(2) 주요 어종의 생산 실태

- 주요 어종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명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9.4%씩 증가했으나, 그 외 주요 어종들은 생산량이 대부분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 중 오징어의 연평균 감소율이 25.1%로 감소폭이 가장 높았고, 다랑어류와 꽁치의 연평균 감소율은 각각 4.4%, 1.3%로 나타났다.
- 다랑어류는 2010년까지 어획량이 계속 증가추세였으나,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011년 들어 연안국들의 어획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생산량이 작년 대비 약 20% 감소했다.
- 명태의 경우, 한·러 입어협상에서 확정된 2011년 쿼터는 50,001톤(추가 쿼터 10,000톤 포함)으로 2010년 쿼터 46,800톤보다 증가했으나, 생산량은 오히려 작년보다 12.8% 줄었다. 오징어는 태평양 해역 작황 부진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생산량이 감소했고, 이에 국내산 오징어 가격은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 주요 어종의 척당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다랑어류는 최근 5년간 어선척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척당 생산량은 2010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1년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척당 생산량도 2.6%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태의 경우에도 출어척수는 감소추세이나 최근 2년간 쿼터가 확대되면서 척당 생산량이 연평균 19.4%씩 증가했다.

〈표 6-4〉 주요 어종별 생산량 및 척당 생산량 추이

단위 : 톤, 척,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성장률
다랑어류	생산량	300,283	286,889	327,181	319,712	251,374	-4.4
	출어척수	193	187	182	179	179	-1.9
	척당 생산량	1,556	1,534	1,798	1,786	1,404	-2.6
명태	생산량	20,109	27,980	38,996	46,794	40,822	19.4
	출어척수	6	6	5	5	5	-3.0
	척당 생산량	3,352	4,663	7,799	9,359	8,164	25.0
오징어	생산량	223,338	181,780	84,652	65,416	70,137	-25.1
	출어척수	30	30	31	30	30	0.0
	척당 생산량	7,445	6,059	2,731	2,181	2,338	-25.2
꽂치	생산량	16,976	29,591	22,001	21,360	17,878	1.3
	출어척수	20	20	17	17	17	-4.0
	척당 생산량	849	1,480	1,294	1,256	1,052	5.5

주 : 2011년 생산량은 잠정치이며, 2011년 어선척수는 확정치가 발표되지 않아 2010년 말 어선척수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단, 꽂치의 척수는 꽂치붕수망과 오징어채낚기 겸업 척수이고, 명태척수는 합작선이 제외된 숫자임.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1.
한국원양산업협회 내부자료-월별 생산통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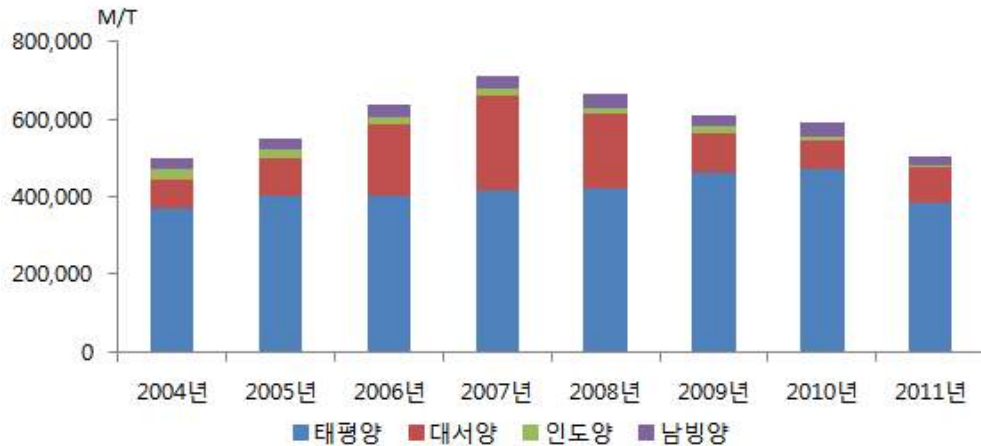
(3) 해역별 생산 실적

- 최근 몇 년간 주요 해역별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태평양 어장의 생산량은 2004년부터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2011년에 크게 감소했다. 대서양 어장의 생산량은 2007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 소폭 증가했다.
- 다만, 2011년 다랑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주 조업어장인 태평양 해역의 생산 비중이 전체 원양 생산량 대비 76.3%로 작년 대비 3.0%p 감소

한 반면, 대서양 어장은 거의 모든 품종에서 작년보다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2011년 생산 비중도 17.9%로 작년 대비 5.2%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도양과 남빙양의 생산량은 작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2〉 해역별 생산 추이



주 : 2011년 생산 실적의 경우, 11월까지의 공식 월별 생산량 통계를 이용하고, 미집계된 12월 생산 실적은 2010년 동월 생산량을 준용하여 산출함.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1.
통계청, 어업생산통계(<http://fs.fips.go.kr/>).

〈표 6-5〉 해역별 생산량 및 생산어종

단위 : 천 톤, %

구 분	2010년		2011년		주요 생산어종
	생산량	비중	생산량	비중	
합 계	592	(100.0)	505	(100.0)	다랑어류, 오징어류, 명태, 크릴새우 순
태평양	470	(79.3)	386	(76.3)	다랑어류, 명태, 오징어류, 꽁치 순
대서양	74	(12.6)	90	(18.0)	오징어류, 민어류, 다랑어류 순
인도양	11	(1.8)	5	(1.0)	다랑어류, 오징어류, 돔류 순
남빙양	37	(6.3)	24	(4.7)	크릴새우

주 : 2011년 생산 실적의 경우, 11월까지의 공식 월별 생산량 통계를 이용하고, 미집계된 12월 생산 실적은 2010년 동월 생산량을 준용하여 산출함.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1.
통계청, 어업생산통계(<http://fs.fips.go.kr/>).

(4) 주요 어종의 수출 실태

- 원양어획물의 수출은 새우류를 비롯한 주요 어종의 수출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2004년 이후 해마다 7.9%씩 증가해왔으며, 새우류의 수출 증가추세가 두드러진다.

〈표 6-6〉 원양어업 어종별 수출추이

단위 : 천 달러, %

구 분	합 계	다랑어류	새우류	오징어	저서어류	기 타
2004년	395,534	260,744	2,143	54,230	67,945	10,472
2005년	380,162	232,072	7,727	59,164	72,185	9,014
2006년	410,424	282,007	13,018	23,422	88,006	3,971
2007년	471,044	276,491	10,500	66,371	112,873	4,809
2008년	505,689	332,080	6,245	51,556	109,219	6,589
2009년	539,688	355,428	13,693	44,574	124,540	1,453
2010년	658,297	477,655	12,118	53,161	111,705	3,658
2011년	674,682	431,578	21,950	62,853	155,533	2,768
연평균성장률	7.9	7.5	39.4	2.1	12.6	-17.3

주 : 2011년 수출실적은 잠정치임.

자료 :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1.

한국원양산업협회 내부자료, 2011.

- 2011년 잠정치 기준 원양수산물 수출은 비중이 가장 높은 다랑어류 수출량 감소로 전체 수출 물량은 줄었다. 그러나 저서어류, 오징어, 새우류 등의 수출 금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11년에는 새우류 수출이 원양수산물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금액 기준으로 작년 대비 81.1%라는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저서어류와 오징어류도 각각 작년 대비 39.2%, 1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2011년도 다랑어류의 수출실적은 생산량 저조로 수출물량과 금액 모두 작년보다 각각 22.6%, 9.6% 감소했다.

3) 해역별 조업 현황

- 2011년 우리나라의 원양어선은 3대양(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22개국(기지는 21개)에 총 353척이 진출해 있다.
- 태평양은 전체 출어척수의 58.4%에 해당하는 206척이 조업을 하고 있어

비중이 가장 높다.

- 대서양은 전체 출어척수의 36.8%에 해당하는 130척이 조업을 하고 있어 3대양 중 2번째로 비중이 높으며, 기지수로는 42.9%(9개)로 태평양 수역과 비슷한 수준이다.
- 인도양은 전체 출어척수의 4.8%에 해당하는 17척이 조업을 하고 있다.
- 해역별 주요 업종의 진출 현황을 보면, 대서양과 태평양이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태평양은 다랑어 연승 및 선망, 북양트롤, 쾡치 봉수망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대서양은 오징어채낚기와 기지트롤의 비중이 높다.

〈표 6-7〉 대양별 해역의 원양어선 진출 현황(2010년)

단위 : 척, %

해역	국가 수	기지 수	업종별 어선척수							
			계	다랑어 연승	다랑어 선망	오징어 채낚기	북양 트롤	기지 트롤	쾡치 봉수망	기타
합계	22	21	353	149	30	30	5	97	17	25
태평양	12	10	206	120	28	-	5	32	17	4
대서양	8	9	130	16	2	30	-	61	-	21
인도양	2	2	17	13	-	-	-	4	-	-
비중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태평양	54.5	47.6	58.4	80.5	93.3	-	100.0	33.0	100.0	16.0
대서양	36.4	42.9	36.8	10.7	6.7	100.0	-	62.9	-	84.0
인도양	9.1	9.5	4.8	8.7	-	-	-	4.1	-	-

자료 : 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1.

(1) 태평양 해역

- 태평양 해역은 12개 국가의 10개 기지에서 총 206척이 조업하고 있는데, 어선척수는 2010년에 비해 3.0% 늘었다.
- 태평양 해역은 어선의 증감추세가 국가에 따라 다른데,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크게 나타난 해역(평균 증가율 3.0% 보다 더 늘어난 해역)은 피지와 인도네시아(Ambon 기지), PNA(나우루 협약당사국) 등이며, 감소한 지역은 인도네시아(Bitung 기지), 타히티, 솔로몬, 마이크로네시아 등으로 나타났다.
- 이 외에 뉴질랜드, 베트남은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6-8〉 태평양 해역의 원양어선 진출 현황

단위 : 척, %

국가	기지	업종	척수		
			2010년	2011년	증감률
인도네시아	AMBON	기지트롤	8	9	12.5
	BITUNG	기지트롤	13	9	-30.8
한국(러시아)	BUSAN	북양트롤	5	5	0.0
		꽁치붕수망	17	17	0.0
		기타	2	2	0.0
뉴질랜드	CHRISTCHURCH	기지트롤	5	5	0.0
	TIMARU	기지트롤	7	7	0.0
		기타	1	1	0.0
캄보디아	KAMPONG	기타	0	1	-
피지	-	다랑어연승	67	80	19.4
키리바티	-	다랑어선망	0	5	-
파푸아뉴기니	-	다랑어선망	0	8	-
타히티	-	다랑어연승	46	40	-13.0
솔로몬	HONIARA	다랑어선망	13	7	-46.2
베트남	HAIPHONG	기지트롤	1	1	0.0
페루	CALLAO	기지트롤	0	1	-
마이크로네시아	PONAPE	다랑어선망	15	8	-46.7
합 계(총 353척 중 58.4%)			200	206	3.0

자료 : 상계서

(2) 대서양 해역

- 대서양 해역은 아프리카 대륙의 연안국을 중심으로 8개국(9개 기지)에서 총 130척이 조업하고 있는데, 어선 척수는 2010년에 비해 약 1.6% 늘었다.
- 대서양 해역에서의 주요 조업 대상국은 앙골라, 포클랜드, 기니,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등이며, 대서양 해역은 태평양 해역에 비해 우리 어선 척수 증가율이 적었다.
- 우리의 조업 어선 척수가 상대적으로(평균 증가율 1.6%보다) 더 많이 늘어

난 국가는 포클랜드, 기니비사우이며, 주로 기지 트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든 국가는 감비아, 기니, 공해(몬테비데오 기지) 등이다.

〈표 6-9〉 대서양 해역의 원양어선 진출 현황

단위 : 척, %

국가	기지	업종	척수		
			2010년	2011년	증감률
앙골라	LUANDA	기지트롤	6	6	0.0
가봉	DAKAR	기타	3	3	0.0
감비아	BANJUL	기지트롤	1	0	-100.0
포클랜드	STANLY	오징어채낚기	31	30	-3.2
		기지트롤	10	12	20.0
기니	CONAKRY	기지트롤	17	14	-17.6
		기타	4	3	-25.0
기니비사우	BISSAU	기지트롤	7	12	71.4
		기타	3	2	-33.3
라이베리아	MONROVIA	기지트롤	1	3	200.0
시에라리온	FREETOWN	기지트롤	11	10	-9.1
		기타	2	3	50.0
수리남	PARAMARIBO	기지트롤	1	1	0.0
공해	MONTEVIDEO	기지트롤	3	3	0.0
		기타	11	10	-9.1
기타		다랑어연승	16	16	0.0
		다랑어선망	1	2	100.0
합 계(총 353척 중 36.8%)			128	130	1.6

자료 : 상계서.

(3) 인도양 해역

- 인도양 해역은 오만과 소말리아에서 기지 트롤과 기타 업종으로 조업을 하고 있으며, 2010년에 비해 조업 어선 척 수가 50.0% 줄었다.
 - 오만의 기지트롤 어선은 2010년 4척에서 2011년 1척으로 75.0%, 소말리아의 기타 업종의 어선은 6척에서 3척으로 5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타 해역의 다랑어연승 어선도 45.8% 감소했다.

〈표 6-10〉 인도양 해역의 원양어선 진출 현황

단위 : 척, %

국가	기지	업종	척수		
			2010년	2011년	증감률
오만	MUSCAT	기지트롤	4	1	-75.0
소말리아	SALALAH	기타	6	3	-50.0
	기타	다랑어연승	24	13	-45.8
합 계(총 353척 중 4.8%)			34	17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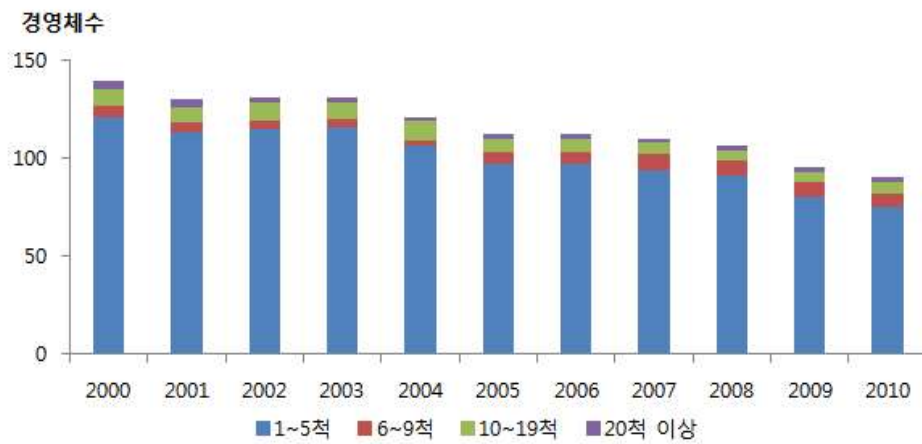
자료 : 상계서.

4) 경영 및 고용 현황

(1) 어선 보유 척수별 경영체 현황

- 원양어업 경영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2009년에는 95개에서 2010년에는 90개로 5개(5.3%)가 줄었다.
- 특히, 경영체 수의 감소가 현저한 그룹은 어선을 1~5척 보유한 소규모 경영체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동 그룹은 동기간에 80개에서 75개로 5개(6.3%)가 줄었다.

〈그림 6-3〉 어선보유 척수별 경영체수



자료 : 상계서

(2) 어선 척수 현황

- 2010년 말 현재 원양어업 어선척수가 줄고 있는 가운데 어선 노후화도 진척되고 있어 원양어업의 생산량 및 생산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2010년말 현재 원양어선은 총 353척으로 2009년말 대비 2.5%(9척) 감소함
- 상대적으로 노후화된(21년 이상) 어선 척수는 323척으로 전체의 93.2%로 나타나 2009년말의 310척(85.6%)에 비해 13척(7.6%) 늘어났다.
- 원양어선 노후화는 세계의 주요 어장에서 일본, 대만,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생산성을 위한 경쟁력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11〉 업종별 어선 척수 및 선령 현황(2010년 말)

단위 : 척

업종별	합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1년이상
합계	353	5	4	6	9	156	43	130
다랑어연승	149	-	2	2	4	121	10	10
다랑어선망	30	5	1	-	1	4	13	6
북양트롤	5	-	-	-	-	1	-	4
기지트롤	97	-	1	4	-	11	15	66
새우트롤	-	-	-	-	-	-	-	-
오징어채낚기	30	-	-	-	2	9	2	17
꽁치붕수망 (꽁치·오징어겸업)	17 (16)	-	-	-	-	6 (6)	-	11 (10)
모선식외줄	11	-	-	-	1	-	-	10
통발·저연승겸업	11	-	-	-	1	2	3	5
저연승	3	-	-	-	-	2	-	1
비율	100.0	1.4	1.1	1.7	2.6	44.2	12.2	36.8

자료 : 상계서

(3) 어선원 현황

- 원양어업 어선원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5,483명에서 2009년 현재 5,363명으로 연간 8.7%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어선원의 연평균 감소율은 6.5%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인어선원도 연

평균 2.2%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전체 원양어업 어선원 중 국내어선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4.6%였으나 2009년에는 36.0%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2〉 연도별 원양어업 어선원 고용 현황

단위 : 명, %

업 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국내어선원	2,339(38.6)	2,145(36.7)	1,897(34.6)	1,928(36.0)	1,892(32.0)	-5.2
외국인어선원	3,719(61.4)	3,696(63.3)	3,586(65.4)	3,435(64.0)	4,006(68.0)	1.9
합 계	6,058	5,841	5,483	5,363	5,898	-0.7

자료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내부자료, 2010.

5) 해외 원조 및 자본 진출

(1) 민간 분야의 해외 투자

- 솔로몬 어항개발사업 확정 및 솔로몬 프로젝트 민간투자 추진 계속
 - 2010년 10월에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솔로몬 어항개발사업 추진을 확정된 이후, 2011년에는 솔로몬의 차관 도입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었다.
 - 투자 내용은 EDCF 자금을 활용한 어항과 민간이 투자하는 배후민간복합단지(참치통조림가공공장, 냉동냉장창고, 공용시설 등)가 포함되어 있다.
- 국내 수산대기업의 글로벌투자 확대
 - A사는 2011년에 약 1,6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세네갈의 다랑어통조림기업인 SNCDS의 자산을 인수하였다. 이로서 2008년 인수한 스타키스트와 더불어 유럽 및 아프리카 시장 공략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B사는 아프리카 가나의 지사인 파노피(PANOFI CO.,LTD)는 가나 테마항 배후부지의 다랑어통조림가공공장 인수를 추진 중에 있다. 이 공장은 가나의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가다랑어를 원료를 하여 다랑어통조림을 생산하여 유럽에 수출할 계획이다.

(2) 공공 부문의 유무상 지원

- 우리나라의 어업분야 해외원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원조 대상 지역 역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 KOICA의 일반사업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원조 금액 총액은 약 541만 달러였으며, 이 중 83.1%에 달하는 450만 달러가 2008년부터 원조되었다.
- 한편,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었던 무상원조(일반 사업 프로젝트)는 2008년부터는 아프리카 지역에도 투입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08년~2010년 기간 동안 409만 달러에 달해 2000년~2010년 원조규모의 75.6%에 이른다.
-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원조사업은 ‘알제리 보리새우양식센터 건립 및 양식기술 이전’, ‘튀니지 패류양식 기술이전 사업’과 같이 양식 기술이전과 시설 건립에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6-13〉 우리나라의 어업분야 해외무상원조- KOICA 프로젝트 일반사업 기준

단위 : 달러, 건

	합계		아시아		아프리카	
	원조금액	사업건	원조금액	사업건	원조금액	사업건
2000	5,522	1	5,522	1	-	-
2001	405,489	1	405,489	1	-	-
2002	474,882	1	474,882	1	-	-
2003	-	-	-	-	-	-
2004	972	1	972	1	-	-
2005	29,506	1	29,506	1	-	-
2006	-	-	-	-	-	-
2007	-	-	-	-	-	-
2008	1,380,134	3	129,007	1	1,251,127	2
2009	1,474,463	3	255,484	1	1,218,979	2
2010	1,643,667	2	19,783	1	1,623,884	1
누적합계	5,414,635	4	1,320,645	2	4,093,990	2

자료 : KOICA 홈페이지(<http://stat.koica.go.kr/>)

- 최근 들어 ‘앙골라 전갱이 종묘방류 사업’을 비롯하여 탄자니아, 스리랑카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어업분야 무상원조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어업분야에 대한 무상원조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3. 2012년 전망과 이슈

1) 전망

2012년 원양어업 생산, 소폭 증가 예상

- 2012년 원양어업의 생산량은 약간의 증가세 내지는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원양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랑어 자원을 멸종 위기종으로 간주하고 이를 적극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수산관련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다랑어 자원에 대한 조업 쿼터 제한, 조업 방식 제한, 금어기, 금어구역 등 보호 조치들이 더욱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수산 자원 보유국을 대상으로 인프라 시설 투자 등 수산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들을⁴⁾ 추진하였다. 그 결과 일부 연안국들과의 협력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어 향후 조업권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러어업협상 결과, 명태는 작년과 동일하나, 오징어의 경우 작년 대비 쿼터량이 20%(2,000톤)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체 원양어업생산량 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단, 최근 포클랜드 섬을 두고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국제적인 마찰이 표면화되고 있어 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 북양의 명태는 생산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1년 북양트롤 1척이 화재전소로 조업선이 감소되었으나 적기에 조업선을 대체 투입한다면 명태는 전년과 같은 수준의 쿼터량 5만여 톤(4만 톤과 추가쿼터 1만 톤)을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꽁치 업종의 일본수역 조업불가에 따른 업계 손실 예상

- 2011년 여기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하여 일본 EEZ 내 방사능 오염 우려로 꽁치 봉수망 업계는 14개사 15척이 한·일 상호교환 어종인 꽁치 7천

4) 솔로몬 어항개발 사업 등

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조업을 자제한 바, 2012년에도 일본수역 조업이 미확정됨에 따라 일본수역 조업불가로 인한 업계의 손실이 예상된다.

- 단, 꽁치와 관련해서는 2011년에 선도선박의 고장으로 어장에서 조기 철수하는 바람에 쿼터의 53%만 소진하였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일본수역 EEZ 내 방사능 오염 우려로 조업선사가 자율적으로 조업을 자제키로 함에 따라 생산량이 평년보다 약 30%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2년에는 러시아 수역 선도선박도입에 문제가 없을 경우, 합의된 쿼터 7,500톤 중 90% 이상 소진이 예상되며, 전년과 같이 일본수역 조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11년과 유사한 생산수준으로 전망된다.

원양 어획물의 수출단가 소폭 상승 예상

- 2012년에는 중국 등 일부 수산물 소비국의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이 있지만, 유럽 재정위기 확산과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 등으로 경제 침체가 계속된다면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2011~2012년에는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들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가시화됨에 따라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여 소비심리는 위축될 전망이다.
- 그러나 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들과 대지진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있는 일본의 수산물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이슈 및 대책

다각적인 양자 협력 및 새로운 어장 개발 필요

- 전 세계적으로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이 점차 구체화됨에 따라 원양어업은 기로에 놓여 있다. 연안국과 지역수산기구의 조업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진출기회가 줄면서 원양어업 생산량도 감소추세이다.
- 자원 고갈과 조업 규제 등 원양어업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순한 조업 쿼터 확보보다는 수산자원 보유국과의 양자 수산협력 및 경제협

력, ODA를 통한 원조사업 등으로 당사국과의 협력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인 수산협력관계를 도모해야 하고, 진출 해역과 협력 대상 국가들도 새롭게 모색함으로써 원양어업의 사업 채널 다각화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PNA 국가들의 선망어선 VDS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PNA 수산장관급 회의에서 강력한 자원관리 및 보존조치와 어업관리 방안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선망어선의 다랑어 생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예상되었지만 선망어선 VDS(Vessel Day Scheme, 선박 조업일수 입어 방식)에⁵⁾ 대한 거래제 도입의 현실화는 어선별 조업일수의 매매를 허용하여 조업일수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PNA 국가들의 전략에 대응하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PNA 국가들에 대한 양자협력 사업계획을 조기에 앞당기고 다양한 협력사업 수요를 개발하여 PNA 국가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이들 국가들의 조업방침에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원양어선의 효율성 제고 필요

- 국제적으로 수산연안국들의 자국 수산자원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한편으로 중국, 대만, 일본 등과의 조업 경쟁은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원양어선의 노후화가 진척되고 있어 생산성 제고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어선 물량 공세를 통해 외국어선을 어장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를 보이고 있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신조 사업에 대한 저리융자정책 등을 해외식량자원 확보라는 명목으로 도입 혹은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어업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의 하나로 어선의 총조업일수를 규제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쿼터관리 방식을 대체하는 제안이다

외국인 선원 고용 증가에 따른 산·관·학 대응 필요

- 작년에 비해 원양어선원의 외국인 수는 크게 늘고 있는 반면에 국내 어선원 수는 줄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혜택을 비롯하여 선원 수 규제 등에 국내외적인 대응이 필요함
- 현재, 원양어선원 중에서 약 70% 정도가 외국인 선원으로 주로 일반 선원이며, 국내 선원은 30% 정도로 주로 간부선원을 맡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 게다가 원양어선의 국내 간부선원 공급은 늘고 있지 않아 현재 원양어업 규모를 유지한다는 가정에서는 중기적으로 원양어선의 국내 간부선원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외국인 일반 선원을 비롯한 간부선원의 수급 균형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양산업에 대한 통계 확보 필요

- 원양산업발전법을 기본으로 하여 원양산업의 성장 원동력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게 된 반면에 원양어업을 포함한 전체 원양산업의 규모 등과 관련한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 이와 관련해서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양산업 총조사’를 정부승인 통계로 만들기 위해 연구 및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이 통계 작업의 결과에 따라서 원양산업의 새로운 통계 확보와 이를 기초로 한 연구를 통해 원양산업의 성장 전략이 구체적으로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 농림수산식품부 웹사이트 (<http://www.mifaff.go.kr/>).
 원양산업협회 웹사이트 (<http://www.kosfa.org/>).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웹사이트 (<http://fs.fips.go.kr/>).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원통계, 2011.
 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1.
 , 「한국원양어업 50년 1957~2006」, 200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수산전망대회 - 한국 수산업의 글로벌화 방향」, 2011.2.
 KOICA 홈페이지(<http://stat.koica.go.kr/>)



수산물산업의 동향과 전망

주문배* · 강종호* · 정명화**

목 차

- | | |
|---------------------|------------------|
| 1. 서론 | 4) 수산물 수출입 부문 |
| 2. 2011년도 수산물산업의 동향 | 5) 수산물 위생안전 부문 |
| 1) 수산물 소비부문 | 3. 2012년도 전망과 이슈 |
| 2) 수산유통 부문 | 1) 전망 |
| 3) 수산가공 부문 | 2) 부문별 주요 이슈 |

1. 서론

- 2012년도 수산물산업부문은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환율 불안정’에 이어 2011년 유럽 발 ‘재정위기’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위기로 매우 불안정한 경제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유로지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
 - 이러한 유로지역의 마이너스 성장 전망에 따라 IMF(세계통화기금)은 2012년 세계 경제성장도 작년 9월에 전망한 것에 비해 0.7% 포인트 낮아진 3.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수정 발표하였다.
 - 2012년 경제성장은 유로지역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그리고 신흥개도국의 성장률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 유로지역의 마이너스 성장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및 신흥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하향 조정은 우리나라의 수산물산업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왜

* 연구위원, ** 전문연구원

1) IMF는 2012년 1월 24일 유로 존 경제가 - 0.5%, 이탈리아 - 2.2%, 스페인 - 1.7%로 마이너스 성장하며,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2%, 0.3%로 제자리걸음할 것으로 전망함(자료 : IMF).

나하면,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와 수산식품의 주요한 교역관계에 있는 국가들로 경제 성장의 정도에 따라 수산식품의 교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 그 뿐만 아니라 작년 말 부터 표면화되고 있는 이란 핵문제에 따른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문제’는 국내유가 급등으로 이어져 수산식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금년에 치러질 4월 총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는 소비자 물가를 불안하게 하여 전반적으로 수산식품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그런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산식품수출은 정부의 공격적인 농수산식품 산업화 정책과 수산식품 수출진흥정책(2010년 18억 달러→2011년 23.1억 달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식품산업의 미래 신 성장동력화를 위해 2008년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온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해 나갈 식품산업육성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여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²⁾
 -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이 요청되는 시점이며, 차세대 신수산정책과 연계시켜 「해양」, 「생명」, 「산업」이 공존하는 ‘해양생명식품산업’으로 발돋움하는 원년이 되도록 산학연관이 노력하는 해이어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이 2012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서로 경쟁하는 매우 불확실한 해로 전망된다. 다만, 세계 인구의 완만한 증가 추세로 식량으로서의 수산식품 수요증가와 고령화 및 소득증대에 따른 브랜드화, 친환경, 건강기능식, 편의성 등의 수산식품 차별화가 2011년에 이어 2012년 세계 수산식품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맥락에서 2011년도 수산식품산업부문의 동향과 2012년도 수산식품산업부문의 전망과 주요 이슈를 살펴봄으로써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식품산업 육성정책 중장기 로드맵으로서 식품산업 인프라·농어업 연계강화·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 23개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주요 추진 내용은 ①식품산업 인프라를 대폭 확충 ②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③글로벌 경쟁력 강화 ④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 강화임.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2011).

- 그런데 수산식품산업부문은 타 분야에 비해 시계열 통계 자료가 미비하여 정량적으로 동향과 전망을 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이다.
- 따라서 여기서는 활용 가능한 2011년 이전 자료의 추이를 바탕으로 2011년도 동향을 기술하고, 2012년도 전망과 이슈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수산식품의 소비부문, 유통부문, 가공부문, 수출입부문, 위생안전부문의 5가지로 한정하여 그 동향과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각 부문의 정책 및 업계 담당자의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2. 2011년도 수산식품산업의 동향

1) 수산식품의 소비동향

- 우리나라의 수산물 총 공급량은 2000년 450만 톤에서 2009년 525만 톤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1.7%씩 증가하였다.
- 공급의 경우 생산과 수입 모두 2000년 이후 연평균 2%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으로 3,184천 톤을 생산, 1,709천 톤을 수입하였다.
- 수요의 경우 국내소비는 2000년 2,705천 톤에서 2009년 3,834천 톤으로 연평균 4.0% 증가한 반면, 수출은 1,292천 톤에서 1,083천 톤으로 연평균 1.9% 감소하였다.

〈표 7-1〉 수산물 수급 동향

단위 : 천 톤, %

구 분	공 급			합 계	수 요		
	생산	수입	재고		국내소비	수출	이월
2000년	2,503	1,419	586	4,508	2,705	1,292	510
2005년	2,714	2,062	531	5,307	3,947	847	512
2007년	3,275	2,604	575	6,454	4,625	1,211	618
2008년	3,361	1,784	395	5,540	4,166	1,019	355
2009년	3,184	1,709	355	5,247	3,834	1,083	330
연평균증감률 (00-09년)	2.7	2.1	△5.4	1.7	4.0	△1.9	△4.7

자료 : 식품수급표, 각 년도.

- 한편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량(1인 1년간)은 1990년 36.2kg에서 2009년 49.8kg으로 연평균 3.4% 증가하였다.

〈그림 7-1〉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추이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09.

-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응하여 2008년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친환경 인증제품의 소비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품목은 현재 김, 미역, 톳 등 10개에 불과 하였으나, 지난해 11월에 5개 품목(뱀장어, 전복, 다시마, 흰다리새우, 조미김)이 추가되었다.
 - 친환경수산물 출하량의 대부분은 미역(14,623톤)과 김(4,030톤)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일본 원전사고 발생이후 환경친화적 수산물에 대한 구매 욕구 증대 등으로 미역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2010년 친환경 인증제품 출하량은 3,530톤이었으나 2011년 9월 현재 18,668톤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2) 수산유통 부문

- 2011년의 수산물 유통 동향은 산지 위판장의 양극화 심화, 소비지 도매시장의 지속적 약체화, 대형소매업의 출점 증가로 인한 수산물 취급 비중의 지속적 증가와 시장지배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 산지 위판장의 경우에는 대규모 위판장이 수와 거래량, 거래금액에서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영세 및 중규모 위판장의 수와 거래량이 감소하는 양극화 추세를 보였다.
 - 소비지 도매시장은 2010년에 수산물 가격의 상대적인 상승으로 거래규모가 늘어났고, 거래물량도 소폭 증가 했지만 이는 수산물 총소비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 수산물 소매업은 대형마트의 점포수 소폭 증가에 비해 대기업슈퍼마켓(SSM : Super Supermarket)의 출점수가 더 늘어나면서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 따라서 산지위판장이 분발하고는 있지만 추세가 크지 않고, 도매시장 약체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매시장의 성장세는 더 강해져 전년에 이어 수요자주도시장이 더 심화되고 있다.

(1) 수산물 산지 유통의 동향

- 수산물 산지 유통³⁾은 계통출하 비중이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 2011년의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 대비 계통출하 비중은 전년 대비 1.4%p 증가한 48.2%였으며, 일반해면어업의 계통출하 비중은 고등어 등 대중어종의 생산량 감소로 4.1%p 감소하였다.
 - 반면 천해양식어업의 계통 출하 비중은 해조류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1.3%p 증가하였다.
 - 그러나 수산물 생산량은 2011년에 302만 톤으로 2008년 이후 10.1%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통출하량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3) 수산물 산지 유통은 출하 기구에 따라 계통(수협 위판장) 출하(이를 제도권 시장이라 함)와 비계통(수협 위판장 이외의 산지 수집상 등) 출하(이를 비제도권 시장이라 함)로 구분된다.

〈표 7-2〉 우리나라 어업별 계통 출하 비중의 추이(생산량 기준)

단위: %

구분	합계	일반해면	천해양식	원양	내수면
2007	38.9	80.5	25.0	0.0	0.0
2008	41.1	82.6	23.1	0.0	0.0
2009	41.6	81.9	24.3	0.0	0.0
2010	46.8	87.4	34.5	0.0	0.0
2011	48.2	83.3	35.8	0.0	0.0

주 : 2011년은 1월~11월까지의 통계를 이용하였고, 2011년 9월~11월은 잠정치, 12월은 추정치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년도.

- 위판장의 규모를 임의적으로 영세(2만 톤 미만), 중규모(2만 톤 이상~7만 톤 미만), 대규모(7만 톤 이상)로 구분하여 규모별 연도별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2011년 산지 수협의 수는 88개이며, 이중 위판이 없었던 수협은 10개로 전년에 비해 1개가 늘어났다.
- 위판이 있었던 78개 수협 중에서 영세 규모 위판장은 61개로 전년 대비 1개가 감소하였고, 중규모 위판장은 2011년에 11개로 전년에 비해서 1개가 감소하였다.
- 대규모 위판장은 8개로 전년 대비 1개가 늘어나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였는데, 특히 8만 톤 이상의 위판장이 7개로 전년에 비해 2개가 늘어났다.

〈표 7-3〉 위판물량 규모별 산지수협 수의 추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¹⁾	
						조합수	비중	평균	비중
위판 없음		5	4	5	9	10	11.4	6.3	7.4
영세	1만 톤 미만	48	47	47	50	48	54.5	48.5	56.8
	1만-2만	19	18	17	10	13	14.8	15.5	18.2
중규모	2만-3만	3	6	8	4	1	1.1	4.3	5.1
	3만-4만	3	2	0	4	2	2.3	2.2	2.5
	4만-5만	1	1	1	1	2	2.3	1.2	1.4
	5만-6만	0	1	1	3	2	2.3	1.2	1.4
	6만-7만	1	0	1	0	2	2.3	0.7	0.8
대규모	7만-8만	1	0	1	2	1	1.1	1.0	1.2
	8만 톤 이상	3	5	3	5	7	8.0	4.5	5.3
합계		84	84	84	88	88	100.0	85.3	100.0

주 : 1) 수산물계통판매고통계연보의 산지 수협을 대상으로 함(공판장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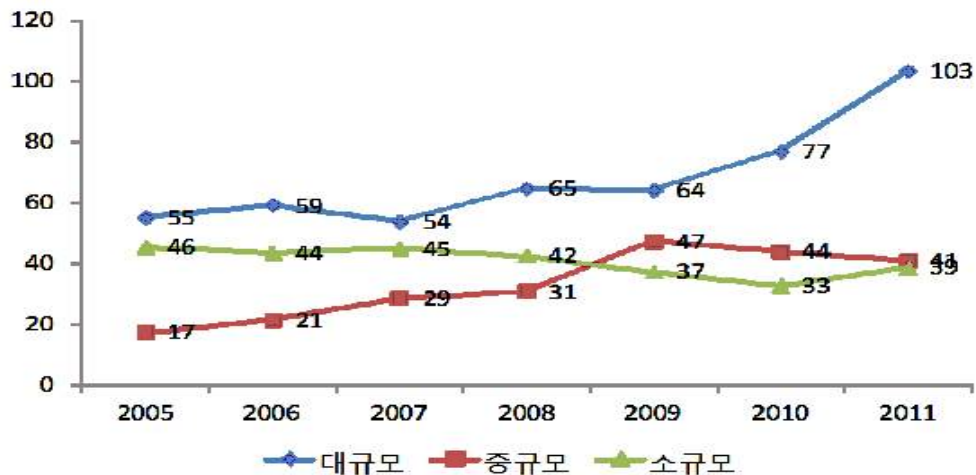
2) 평균의 수치는 총 대상 수협 위판장의 2007~2011년간의 평균 양륙량으로 계산한 것임

3) 2011년은 12월의 위판량을 최근 5년간의 평균 위판량 비율로 추정한 것임

자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물계통판매고통계연보, 각 년도.

- 이를 규모별 취급량으로 보면, 보다 뚜렷한 변화를 볼 수 있다(<그림 7-2> 참조).
 - 대규모 위판장의 거래량은 2007년까지 소폭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는 전년 대비 34.4%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총 위판량이 전년 대비 19.1% 증가하였고, 공동어시장의 위판량이 9.5%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증가세이다. 이는 중규모 위판장의 거래량 감소가 소규모와 대규모 위판장에 분산된 것이며, 특히 대규모 위판장으로의 물량 집중이 뚜렷하였다.
 - 중규모 위판장의 거래규모는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2011년에는 전년 대비 6.7% 감소하였다.
 - 반면, 영세규모 위판장은 2011년에 전년 대비 19.1% 증가하였는데, 전년보다 1개소가 감소한 것에 비하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 결국 규모별 취급량 추이에서 대규모 위판장이 약진하는 가운데, 중규모 위판장은 감소세로 전환되어 중위그룹에서 하위그룹으로 약체화되어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7-2〉 산지위판장의 규모별 거래량의 추이



주 : 대규모는 거래량 7만 톤 이상, 중규모는 2만 톤 이상 7만 톤 미만, 소규모는 2만 톤 미만임
 자료 : 수협중앙회, 계통판매고통계연보, 각년도.

- 70개의 중·소규모의 위판장이 차지하는 거래량 점유율은 2010년에 50.0%에서 2011년에 43.6%로 개수에 비해 취급량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8개에 불과한 대규모 위판장의 점유율이 50%에서 56.4%로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이상의 결과를 규모별 금액별로 보면, 양극화의 정도는 더 강하게 나타난다.
 - 위판금액 1천억 원 이상인 수협은 2007년에 13개에서 2011년에는 15개로 전년 대비 2개가 증가하였다.
 - 그러나 3백억 원 이상 1천억 원 미만의 수협은 2011년에 21개로 전년에 비해 3개가 줄어들었고, 3백억 원 미만의 수협은 42개로 전년 대비 1개가 감소하였다.
- 한편 규모별 거래금액의 추이를 보면, 15개인 대규모 수협은 2008년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소규모는 소폭이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이는 2010년 이후 산지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대규모 수협에 거래금액이 집중되는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표 7-4〉 위판금액 규모별 산지수협 수의 추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¹⁾	
						조합수	비중	평균	비중
위판없음		5	4	5	9	10	11.4	6.3	7.4
영세	1백억원미만	27	25	18	15	20	22.7	22.0	25.8
	1백-2백억	18	17	18	17	11	12.5	16.5	19.3
	2백-3백억	14	13	13	11	11	12.5	12.5	14.6
중규모	3백-5백억	8	8	8	11	12	13.6	9.3	10.9
	5백-1천억원	9	13	14	13	9	10.2	11.0	12.9
대규모	1천-2천억원	2	2	7	9	10	11.4	5.5	6.4
	2천억원이상	1	1	1	4	5	5.7	2.2	2.5
합계		84	84	84	89	88	100.0	85.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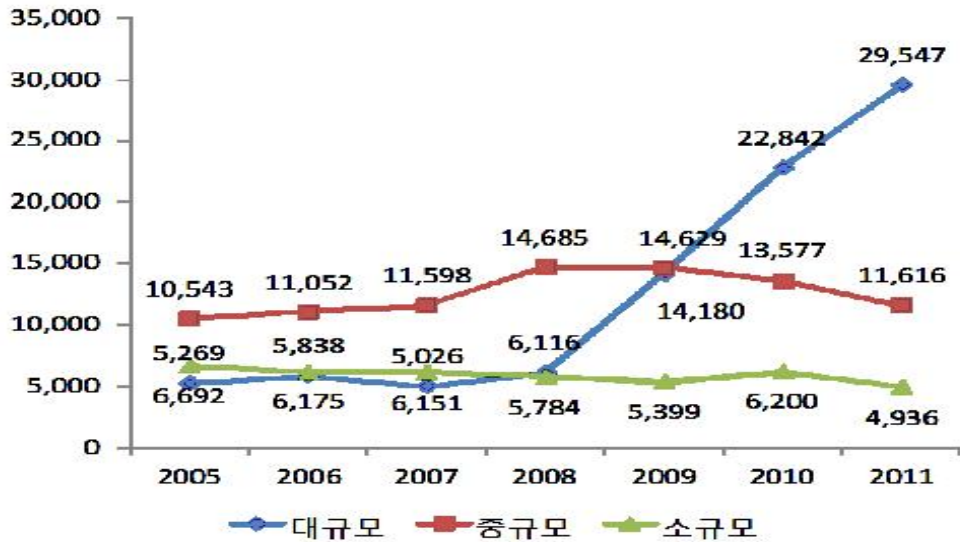
주 : 1) 수산물계통판매통계연보의 산지 수협을 대상으로 함(공판장 포함).

2) 평균의 수치는 총 대상 수협 위판장의 2007~2011년간의 평균 양륙금액으로 계산한 것임

3) 2011년은 12월의 위판금액을 최근 5년간의 평균 위판금액 비율로 추정함

자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물계통판매통계연보, 각 년도.

〈그림 7-3〉 산지위판장의 규모별 거래금액의 추이



- 결국 중·소규모의 위판장이 차지하는 거래금액 점유율은 2010년에 45.4%에서 2011년에 35.9%로 개수에 비해 취급금액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대규모 위판장의 점유율은 53.6%에서 64.1%로 크게 증가하여 거래금액 규모에서 양극화 현상은 더 심각하다.

(2) 수산물 소비지 도매유통의 동향

- 소비지의 수산물 집하와 분산 기능을 수행하는 수산물 도매시장(공영+법정)은 2010년에 전년 대비 거래물량이 2.9%, 거래금액은 10.7%로 증가하였다.
 - 거래량에 비해 거래금액의 증가율이 큰 것은 수산물의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추이는 공영도매시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거래량에서는 전년 대비 3.2%, 거래금액에서는 13.1% 증가하여 도매시장 거래 증가를 견인하였다.
 - 일반 법정도매시장은 2010년에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공영도매시장만큼의 결과를 보이지는 못했다.

〈표 7-5〉 우리나라 공영 및 법정 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 동향

단위: 천 톤, 억 원

구분	합계		공영도매시장		법정도매시장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5	357	10,187	254	6,978	103	3,209
2006	354	10,168	251	6,890	103	3,278
2007	355	10,176	249	6,859	106	3,317
2008	345	10,741	241	7,329	104	3,412
2009	384	12,341	278	8,910	106	3,431
2010	395	13,657	287	10,075	108	3,582
08년 대비 09년	2.9	10.7	3.2	13.1	1.9	4.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도매시장통계연보, 각년도

- 2009년의 수산물 도매시장의 시장점유율은 국내소비량 대비 9.4%로 전년 대비 1.3%p 증가하였다.
- 이는 국내 수산물 소비량이 다소 감소하였고, 도매시장 취급량이 소폭 증가한 결과이다.

〈표 7-6〉 국내 수산물 소비량 대비 수산물 도매시장 시장점유율

단위 : 천 톤,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내소비량(A)	3,343	3,578	3,922	4,169	4,568	4,625	4,280	4,071	-
도매 시장	공영	247	242	252	254	251	249	241	278
	일반법정	113	110	107	103	103	106	104	106
	소계(B)	360	352	360	357	354	355	345	384
B/A	10.8	9.8	9.2	8.6	7.7	7.7	8.1	9.4	

자료 : 1. 농림수산식품부, 도매시장통계연보, 각 년도

2.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연차보고서, 각 년도

(3) 수산물 소매유통의 동향

- 소매 유통은 대형마트가 2010년에 전년 대비 8.1%의 높은 성장을 보였고, 체인스토어슈퍼마켓도 6.2%의 성장을 보여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 업체 수에서 대형마트는 2010년에 전년 대비 6.8%가 늘어난 데 비해, 체인스토어슈퍼마켓은 37.1%의 큰 증가를 보였다.
- 수산물 매출액에서는 대형마트가 2010년에 전년 대비 24.4%의 높은 성장을 보였고, 체인스토어슈퍼마켓도 8.2%의 성장을 보여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 업체 당 수산물 매출액을 보면, 대형마트가 16.4%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체인스토어슈퍼마켓은 업체수의 큰 증가에도 불구하고 21.0%의 감소를 보였다.

〈표 7-7〉 대형마트의 수산물 취급규모

구 분		대형마트	체인스토어 슈퍼마켓
사업체수 (개)	2009	409	677
	2010	437	928
	전년 대비(%)	6.8	37.1
매출액 (백만 원)	2009	31,212,768	22,423,152
	2010	33,733,030	23,821,497
	전년 대비(%)	8.1	6.2
수산물 취급비중 ¹⁾ (%)	2009	3.6	4.7
	2010	4.1	4.8
	전년 대비(%)	15.1	1.9
수산물 매출액 (백만 원)	2009	1,123,660	1,048,580
	2010	1,397,541	1,134,957
	전년 대비(%)	24.4	8.2
업체당 수산물 매출액 (백만 원/개)	2009	2,747	1,549
	2010	3,198	1,223
	전년 대비(%)	16.4	-21.0

주 : 1) 수산물 취급 비중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유통업체연감에서 전국 대형마트 6개 업체의 동향을 분석한 부문별 매출액 구성비를 활용함

2) 대형마트 매출액은 통계청 자료임

자료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유통업체연감, 2011, 통계청, 소매판매액 통계, 각년도.

- 대형마트에서 수산물의 취급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실제 수산물 취급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수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 2009년과 2010년의 대형마트 6개 업체의 식품분야 부문별 매출액 구성을 보면, 수산물뿐만이 아니라 농산물, 축산물의 점유율이 소폭 증가하였다.
- 하지만, 즉석조리식품과 가공식품은 오히려 소폭 감소하였는데, 전년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7-8〉 대형마트의 부문별 매출액 구성비의 추이

(단위 : %)

구분	2009(A)	2010(B)	B-A
농산물	20.6	27.3	0.3
축산물	11.2	12.6	0.1
수산물	6.9	9.8	0.4
가공식품	41.0	36.2	-0.1
즉석조리식품	20.4	14.1	-0.3
합계	100.0	100.0	

자료 : 한국제인스토아협회, 유통업체연감, 2011.

3) 수산가공 부문

- 2010년의 수산가공품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지만, 생산금액은 152% 증가하고, 생산단가는 207% 상승하면서 수산가공품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 이를 제품별로 보면, 염장품의 생산량은 51% 감소한 반면 생산금액은 1,476% 증가하였고 생산단가는 3,085% 상승하여 가장 큰 변화를 나타냈다.
 - 또한 냉동품, 소건품, 자건품, 한천이 모두 생산량은 감소한 가운데, 생산단가에서 100%를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 수산가공품 중에서 생산량이 증가한 제품은 어유분과 해조제품으로 각각 34%, 4% 증가하였으며, 해조제품은 타품목과 달리 생산금액과 단가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 염건품은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97%가 감소하였으며, 생산단가도 27% 하락하였다.

〈표 7-9〉 수산가공품의 생산량, 매출액, 판매단가의 동향

단위 :톤, 백만 원, 원/kg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단가		
	2009	2010	증감률	2009	2010	증감률	2009	2010	증감률
합계	1,898,135	1,560,209	-18%	6,046,188	15,252,165	152%	3,185	9,776	207%
냉동품	1,259,438	1,112,600	-12%	3,228,142	12,400,319	284%	2,563	11,145	335%
소건품	6,146	3,594	-42%	64,018	77,308	21%	10,416	21,510	107%
수산피혁품	1,736	422	-76%	6,235	2,702	-57%	3,592	6,403	78%
어유분	10,037	13,357	33%	9,645	15,729	63%	961	1,178	23%
연제품	142,591	91,011	-36%	356,073	366,296	3%	2,497	4,025	61%
염건품	20,192	568	-97%	274,839	5,625	-98%	13,611	9,903	-27%
염신품	41,134	33,120	-19%	289,626	233,153	-19%	7,041	7,040	0%
염장품	12,948	6,405	-51%	47,934	755,268	1,476%	3,702	117,919	3,085%
자건품	54,218	17,802	-67%	207,160	162,576	-22%	3,821	9,132	139%
조미가공품	33,714	33,867	0%	311,024	295,089	-5%	9,225	8,713	-6%
통조림품	61,287	54,055	-12%	320,200	195,555	-39%	5,225	3,618	-31%
한천	334	206	-38%	4,178	6,392	53%	12,509	31,029	148%
해조제품	156,803	163,305	4%	519,813	518,197	0%	3,315	3,173	-4%
기타	97,557	29,897	-69%	407,301	217,956	-46%	4,175	7,290	7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 2011

- 생산금액이 크게 증가한 제품을 중심으로 세부품목의 생산 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⁴⁾
- 먼저 냉동품은 굴, 가자미, 전갱이, 콩치, 대구의 5개 품목이 1,000%를 넘는 단가 상승을 보였으며, 특히 냉동 굴의 단가 상승이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오징어, 고등어, 꽃게, 명태, 조기, 갈치, 홍합 등도 100%가 넘는 가격 상승을 보여 전체적으로 냉동품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 그러나 대부분의 품목이 크고 작은 가격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삼치, 병어, 정어리, 새조개, 복어, 바지락, 부세, 새우 등의 품목은 가격 하락을 보였다.

4) 동 품목군에서 기타제품은 제외하였다.

〈표 7-10〉 냉동품의 세부 품목별 생산량, 매출액, 판매단가의 동향

단위 :톤, 백만 원, 원/kg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단가		
	2009	2010	전년 대비	2009	2010	전년 대비	2009	2010	전년 대비
소 계	1,259,438	1,112,600	-12%	3,228,142	12,400,319	284%	2,563	11,145	335%
굴	3,698	4,098	11%	19,249	4,938,262	25,555%	5,205	1,205,042	23,051%
가자미	9,718	10,755	11%	7,626	457,474	5,899%	785	42,536	5,321%
전갱이	13,771	5,972	-57%	13,318	176,767	1,227%	967	29,599	2,961%
꽂치	32,420	29,637	-9%	40,024	514,682	1,186%	1,235	17,366	1,307%
대구	761	5,688	647%	2,384	211,808	8,785%	3,133	37,238	1,089%
오징어	183,589	157,030	-15%	239,835	1,225,430	411%	1,306	7,804	497%
고등어	107,594	54,106	-50%	340,826	1,004,560	195%	3,168	18,567	486%
꽃게	8,225	8,042	-2%	75,060	389,788	419%	9,126	48,469	431%
명태	56,458	59,959	6%	102,366	553,571	441%	1,813	9,232	409%
조기	17,558	15,155	-14%	73,376	286,775	291%	4,179	18,923	353%
갈치	16,185	11,043	-32%	86,736	233,882	170%	5,359	21,179	295%
홍합	544	2,424	346%	1,880	20,490	990%	3,456	8,453	145%
낙지	2,359	1,595	-32%	13,839	17,303	25%	5,866	10,848	85%
갑오징어	777	3,554	357%	2,610	15,955	511%	3,359	4,489	34%
붕장어	634	1,274	101%	5,061	13,208	161%	7,983	10,367	30%
기타	450,452	318,728	-29%	1,390,075	1,266,211	-9%	3,086	3,973	29%
참치류	301,007	319,717	6%	633,237	838,418	32%	2,104	2,622	25%
연육	4,967	2,071	-58%	13,009	5,781	-56%	2,619	2,791	7%
적어	0	364	0%	0	437	0%	0	1,201	0%
삼치	5,636	9,776	74%	21,698	32,893	52%	3,850	3,365	-13%
병어	437	1,723	294%	2,352	7,114	203%	5,382	4,129	-23%
정어리	19,160	14,166	-26%	22,318	12,233	-45%	1,165	864	-26%
새조개	189	282	49%	5,598	5,138	-8%	29,619	18,220	-39%
복어	14,403	28,732	100%	7,498	7,217	-4%	521	251	-52%
바지락	328	369	13%	3,980	1,604	-60%	12,134	4,347	-64%
부세	206	2,378	1054%	794	3,033	282%	3,854	1,275	-67%
새우	8,362	43,962	426%	103,393	160,285	55%	12,365	3,646	-7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 2011

○ 소건품⁵⁾은 2010년에 전년 대비 41.5%의 생산이 감소한 반면, 생산금액은 20.8% 증가, 생산단가는 106.5%의 상승을 보였다.

5) 소건품(素乾品) : dried sea foods, 건어물의 한 형태, 수산물을 그대로 또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씻은 뒤에 말린 것이다. 염(鹽)건품은 소금에 절여 말린 것, 자(煮)건품은 한 번 데쳐서 말린 것, 조미(調味)건품은 조미료를 발라서 말린 것, 배(焙)건품은 한 번 구워서 말린 것이다.

- 이는 오징어, 명태, 기타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며, 기타의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다.
- 반면, 조개류는 100%의 가격하락을 보였으며, 새우는 9.8%의 가격하락을 보였다.

〈표 7-11〉 소건품의 세부 품목별 생산량, 매출액, 판매단가의 동향

단위 :톤, 백만 원, 원/kg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단가		
	2009	2010	전년 대비	2009	2010	전년 대비	2009	2010	전년 대비
합계	6,146	3,594	-41.5%	64,018	77,308	20.8%	10,416	21,510	106.5%
오징어	3,770	1,191	-68.4%	30,191	17,932	-40.6%	8,008	15,056	88.0%
명태	1,841	1,998	8.5%	27,175	47,144	73.5%	14,761	23,596	59.9%
새우	81	34	-58.0%	948	359	-62.1%	11,704	10,559	-9.8%
실치	0	0	0	1	0	-100.0%	0	0	0
조개류	33	18	-45.5%	135	0	-100.0%	4,091	0	-100.0%
기타	421	353	-16.2%	5,568	11,873	113.2%	13,226	33,635	154.3%

주 : 기타에는 실치, 조개류 등이 포함됨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 2011

- 자건품은 2010년에 전년 대비 67.2%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생산금액도 21.5% 감소하였지만, 생산단가는 139.0%의 상승을 보였다.
- 이는 굴, 멸치, 홍합, 기타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며, 특히 기타의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다.
- 반면, 새우는 13.9%의 가격하락을 보였다.

〈표 7-12〉 자건품의 세부 품목별 생산량, 매출액, 판매단가의 동향

단위 :톤, 백만 원, 원/kg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단가		
	2009	2010	전년 대비	2009	2010	전년 대비	2009	2010	전년 대비
합계	54,218	17,802	-67.2%	207,160	162,576	-21.5%	3,821	9,132	139.0%
굴	164	450	174.4%	1,129	4,002	254.5%	6,884	8,893	29.2%
멸치	53,451	16,983	-68.2%	194,927	110,140	-43.5%	3,647	6,485	77.8%
새우	163	165	1.2%	1,787	1,558	-12.8%	10,963	9,442	-13.9%
홍합	132	80	-39.4%	330	320	-3.0%	2,500	4,000	60.0%
기타	308	124	-59.7%	8,987	46,556	418.0%	29,179	375,452	1,186.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 2011

- 염장품은 전년 대비 50.5%의 생산이 감소하였지만, 생산금액은 1,475.65% 증가하였으며, 생산단가는 3,085.2%의 상승을 보였다.
- 이는 특히 고등어의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대형크기를 주로 가공하는 간고등어의 가격상승이 컸었기 때문이다.

4) 수산물 수출입 부문

(1) 종류별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2011년 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23억 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42억 달러로 2011년 11월 현재 수산물 무역수지는 2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도 무역수지 적자 16억 6천만 달러보다 약 14% 늘어난 셈이다.

〈표 7-13〉 2011년 수산물 교역 무역수지

단위 : 천 달러, 톤

구 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수 출	1,798,162	793,044	2,308,154	696,929	28.4%	-12.1%
수 입	3,458,400	4,715,725	4,191,943	4,845,662	21.2%	2.8%
무역수지	-1,660,238		-1,883,789		13.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

- 2011년 10대 수출수산물에는 기타어류의 피렛트가 1위 품목으로 나타났고, 그 외 오징어, 가다랑어(냉동), 눈다랑어(냉동), 황다랑어(냉동), 대구(냉동), 삼치(냉동) 등 어류의 냉동제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류 이외 전복과 붉은대게살이 각각 8위와 10위 품목으로 나타났다.
- 특히 금액 기준 대구(냉동)의 수출이 전년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오징어, 전복, 붉은 대게살도 각각 60%, 42%,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대 수출품목의 국가를 살펴보면, 1위 수출품목인 기타어류의 피렛트는 일본으로 약 1억 7,300만 달러가 수출되었고, 그 외 미국, 중국, 프랑스 등 미주 대

육과 서유럽으로 수출되었다.

- 특히 기타어류 피렛트 수출의 경우 전년도에 독일과 이탈리아 수출 실적이 전무하였으나, 2011년에는 각 각 26만 달러, 24만 달러 수출되는 기록을 세웠다.
 - 한편 전복은 전체 수출액의 99%가 일본으로 수출되었으며, 그 외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등지로 수출되었으며, 붉은 대게살로 전체 수출의 89%가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어류 중심의 수출이 이뤄졌고, 수출 대상국가도 중국과 일본 등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였으나, 미국, 서유럽 등지로의 수출시장 다변화 움직임도 보인 한해라고 볼 수 있겠다.

〈표 7-14〉 2011년 10대 수출 수산물(금액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톤

구 분	HS코드	품 목 명	2010		2011	
			금액	중량(톤)	금액	중량(톤)
10대 수출 수산물 소계			809.4	468,049.1	997.3	299,427.0
1	0304299000	기타	189.9	14,649	207.0	13,714
2	0307491020	오징어	107.4	59,437	171.8	64,404
3	0303430000	가다랑어	111.7	106,104	129.1	90,923
4	0303440000	눈다랑어	102.8	121,405	110.2	9,781
5	0303420000	황다랑어	107.4	95,894	99.3	33,254
6	0303799099	기타	61.9	45,516	78.7	51,009
7	0303520000	대구	25.5	8,578	52.8	16,476
8	0307911200	전복	35.9	1,001	51.0	1,229
9	0303799010	삼치	33.3	11,629	49.0	14,049
10	1605101091	붉은대게살	33.7	3,836	48.4	4,589

- 2011년 수산물 총 수입액은 42억 달러이며, 10대 수입 수산물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기준 약 37%, 물량기준 78%이다.
- 10대 수입 품목은 명태(냉동), 천일엽, 조기(냉동), 냉동연육, 낙지, 새우살, 고등어(냉동), 주꾸미 등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최대 수입품목인 명태는 2011년 약 2억 5천만 달러어치가 수입되었

으나 전년대비 약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를 기록한 천일염 수입은 전년 대비 약 4% 감소한 약 2억 달러로 나타났다.

- 주요 수입 품목을 살펴보면 어류 가운데 고등어의 수입이 전년대비 77% 증가한 1억 2천만 달러 수입되었으며, 새우살과 주꾸미도 각 각 33%, 46%의 수입이 늘어났다.
- 지난 한해 가격 폭등세가 이어졌던 고등어의 경우 최대 수입국은 노르웨이로 전년대비 75% 증가한 5,795만 달러가 수입되었으며, 그 외에도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서유럽 지역에서의 수입이 두드러졌다.

〈표 7-15〉 2011년 10대 수입 수산물(금액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톤

구분	HS코드	품목명	2010		2011	
			금액	중량	금액	중량
10대 수입수산물 소계			1,311	3,708,603	1,545	3,768,605
1	0303791000	명태	261.7	214,401	249.2	217,090
2	2501001020	천일염	201.3	3,179,647	193.9	3,220,135
3	0303796000	조기	150.9	44,242	162.6	36,427
4	0304999010	냉동연육	137.2	102,797	156.4	100,045
5	0306139000	기타	128.3	22,875	150.7	23,235
6	0307591020	낙지	111.6	35,800	147.2	33,932
7	0306131000	새우살	106.0	17,435	141.2	19,918
8	0303740000	고등어	70.1	41,021	124.0	60,606
9	1605909090	기타	71.6	23,847	113.8	29,680
10	0307591030	주꾸미	72.7	26,537	106.4	27,536

(2) 국가별 수출입 동향

-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은 일본, 중국, 태국, 미국 등 상위 10개국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96%(금액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대상국의 집중도가 높다.
- 특히 최대 수출대상국인 일본에 7억 3천만 달러의 수산물을 수출해 전년도 대비 수출액이 28% 증가하였으나 물량 기준으로는 19% 감소하였다.
- 지난해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 여파 등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일본 시장 수출 집중도는 금액기준 9% 증가하였으나, 중량은 전년

대비 64%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품목별로는 전복, 붉은대게살, 황다랑어(냉동)의 대일본 수출이 각 각 42%, 59%, 13% 증가하였으며, 건조 김은 전년대비 136% 증가한 1,59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대중국시장으로의 수출은 4억 1,4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12%의 수출 성장세를 보였다. 대중국 수출 수산물은 0303류의 냉동수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대구, 삼치, 넙치 등이 수출되었다.
- 한편 2010년 대중국 수출에서 967만 달러의 수출고를 기록한 냉동넙치의 올해 수출액은 6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외 수출국가를 살펴보면 태국으로의 수출이 전년대비 112% 증가한 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전년에 수출실적이 전무하였던 나이지리아에 대한 수산물 수출도 1,5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 전년의 수출 시장 집중도와 비교해 볼 때 2011년은 대일본 수출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에 대중국 수출은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더불어 뉴질랜드와 스페인,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금액은 보합세 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중량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6〉 우리나라 수산물의 국가별 수출 현황(상위 10개국)

단위: 백만 달러, 톤

순위	국가명	2010		2011	
		금액	중량	금액	중량
	총계	1,395.7	646,463	1,781.8	523,477
1	일본	666.5	251,728	728.9	91,010
2	중국	195.2	93,725	414.2	138,177
3	태국	106.0	95,872	150.6	97,901
4	미국	74.9	12,673	95.6	13,981
5	뉴질랜드	70.8	36,216	91.3	37,625
6	스페인	53.0	24,229	51.9	23,047
7	베트남	20.9	15,684	51.9	25,162
8	홍콩	22.6	918	22.4	984
9	나이지리아	0.0	43	15.8	13,978
10	싱가포르	7.3	663	14.0	1,029

주 : HS 코드 03류에 한정된 수출국 현황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 한편 우리나라의 수산물 주요 수입국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일본, 미국 등이며, 중국이 전체 수입시장의 34%를 차지하여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나타났다.
- 특히 대중국 수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0억 6,000만 달러가 수입되었으며, 러시아산 수산물은 전년 대비 33.7%가 증가한 6억 6천만 달러가 수입되어 2011년 두 번째로 큰 수입대상국이 되었다.
- 지난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된 수산물은 조기(냉동)(약 1억 6천만 달러)이며, 그 외 낙지, 아귀, 갈치, 새우살, 고등어, 천일염 등이 많이 수입되었다.
- 러시아에서 주로 수입되는 제품은 명태 및 명태 가공제품으로 명태(냉동), 명란(냉동), 명태(북어), 명태 필렛의 수입이 약 4억 달러를 차지하였다.
- 2011년 수산물 수입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중국 시장으로의 수입집중도는 감소하였고, 러시아연방으로의 수입은 약 2%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 수산물 수입집중도는 2010년 7.6%에서 2011년 4.5%로 하락하였다.
- 더불어 전체 수입 시장에서 6위를 기록한 노르웨이의 수입집중도는 전년 대비 약 0.5% 포인트 증가한 3.9% 기록하였는데, 이는 고등어(냉동) 수입 증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수입이 금액 기준 79%(5,700만 달러), 중량 기준 64%(20,235톤) 증가하였다.

〈표 7-17〉 우리나라 수산물의 국가별 수입 현황(상위 10개국)

단위: 백만 달러, 톤

순위	국가명	2010		2011	
		금액	중량	금액	중량
	총계	2,775.2	1,081,800	3,413.7	1,197,957
1	중국	944.1	356,745	1,060.4	397,734
2	러시아 연방	493.0	273,852	659.4	312,818
3	베트남	301.6	99,157	387.3	103,113
4	일본	212.2	81,847	153.9	50,954
5	미국	110.7	44,807	138.8	50,598
6	노르웨이	95.2	20,464	134.4	30,132
7	대만	91.5	50,449	123.5	61,872
8	칠레	34.1	12,096	101.4	37,527
9	태국	77.1	18,741	92.4	18,491
10	홍콩	54.3	211	78.3	176

주: HS 코드 03류에 한정된 수출국 현황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5) 수산식품 위생안전 부문

- ① 일본 대지진 발생으로 해양으로의 방사능 유출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 확산
 - 지난 해 3월 11일 진도 9.0이라는 대지진이 일본의 동북부 태평양 연안을 강타하여 그 후유증이 우리나라의 수산물 시장에도 한동안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수산물에 대한 불안 심리를 가중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 오염수를 사고 원전에서 바다로 그대로 방출한 일본 정부의 사고 수습 방법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 우리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지역으로부터 식품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내역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매매일 공개하였다. 또한 지난 3월 29일부터는 일본상 모든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해양유출에 따른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 심리 해소 및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그 동안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수매 비축했던 정부비축 수산물을 수입산으로 확대하고 대상어종도 고등어, 오징어, 명태, 갈치 외에 대체품목으로 조기, 삼치, 꽁치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다하였다.
- ② 방사능 유출, 양젖물 수산물 사건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
 - 지난해에 이어 2011년도 수산식품 위생안전부문에는 대형 식품안전사고가 없었던 해이지만, 상반기 가성소다(양젖물)를 이용한 건 해산물을 부풀려 판매하는 사건과 모든 식품에 첨가되는 천일염 염전 주변에서 농약살포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10년부터 계속된 2011년 상반기 구제역 발생으로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 웰빙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수산식품의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산식품 수입을 계속해서 늘려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998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75만 톤으로 감소하였으나 2006년에는 265만 톤까지 늘어났으며, 2008년에는 214만 톤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다시 234만 톤으로 늘어났다.

- 그리하여 수산물 국내 총 소비에서 차지하는 최근 5년간(2006~2010) 수산물 소비량의 비중은 평균 56.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국내 소비시장에서 수입수산물 연차별 의존도는 1998년 31.4%에서 2009년 53.7%, 2010년 64.3%로 크게 상승했다.

〈표 7-18〉 국내 수산물 소비시장에서 수입수산물 의존도

단위: 천톤, %

구분	1998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내생산	2,835	2,519	2,714	3,032	3,271	3,362	3,182	3,126
국내소비(A)	2,395	3,922	4,169	4,568	4,621	4,282	4,071	3,639
수입(B)	753	2,477	2,557	2,646	2,604	2,135	2,186	2,339
비중(B/A) %	31.4	63.2	61.3	57.9	56.4	49.9	53.7	64.3

자료 : 수산물안전부, 「수입수산물검사 및 부적합 현황 자료」, 각 연도.

- 수입수산물 검역 시 유해물질 검출 등 부적합률이 2003년에 0.42%에서 2007년 0.53%로 최고치를 나타내었으나, 2009년 0.35%, 2010년 0.32%로 감소 추세이다.
- 수입수산물의 부적합률은 최근 5년(2006~2010)간 평균 0.40%에 비해 2010년에는 0.32%까지 감소한 것은 주요 수입국과의 양자간 위생안전협정 등의 영향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7-19〉 수입수산물 부적합 건수

단위: 건, %

구분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부적합건수 (A)	335	292	376	536	373	284	255
총검사건수(B)	80,039	96,112	101,442	100,357	82,016	80,792	78,910
부적합률 (A/B)	0.42	0.30	0.37	0.53	0.45	0.35	0.32

자료 : 농림수산물부, 「2011 농림수산물 주요통계」, 2011. 12.

- ③ 씨푸드 레스토랑 및 횡집용 식재료 수요 급증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일식집, 간이 횡집, 씨푸드 뷔페 등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식재료용의 국내산 수산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유통과정에서 수입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비위생적 관리 등이 주요한 문제로 노출되었다.
 - 2009년 연간 1인당 어패류의 공급은 35.4Kg으로 2006년 43.5Kg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러한 추세는 씨푸드 레스토랑이나 대중 횡집, 그리고 고급 일식집의 증가 추세와 상충되는 현상이다.

〈표 7-20〉 연간 1인당 육류 대비 어패류 공급량 비중

단위: kg, %

구 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합 계(B)	66.1	68.2	76.5	81.9	83.0	79.7	78.7
어패류(A)	33.4	30.7	39.9	43.5	42.1	39.0	35.4
해조류	11.7	6.1	9.6	13.0	14.4	15.8	14.4
육류	32.7	37.5	36.6	38.4	40.9	40.7	43.3
어패류 비중(A/B)	50.52%	45.01%	52.16%	53.11%	50.72%	48.93%	44.98%

주 : 어패류에는 해조류를 포함하지 않음. 육류에는 계란, 유지류를 포함하지 않음.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2009)」.

- ④ 구매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11년 12월에 조사한 「2011년 수산물이력제 사업 인식도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수산물 구매시 우선 고려 요인에 대해 ‘안전성’ 61.1%, 그 다음으로 ‘원산지’ 18.5%, ‘맛(식감)’ 8.9%, ‘가격’ 6.6%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11년 7월 25일에서 8월 19일 사이에 조사하고 12월 발표한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 2011」에 의하면, 시중 판매되고 있는 농수축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걱정된다’ 65.8%, ‘매우 걱정된다’ 13.4%로 합계 79.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년 수산물이력제 사업 기반구축 및 확산사업 성과보고서」(2011.12).

농림수산식품부가 2009년에 11월에 발표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수축산물 구매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 ‘맛과 품질’이라는 응답이 37.1%로 가장 높았으며, 그

- 농촌정보문화센터가 2010년 6월에 발표한 「2010년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는 국내산의 경우 74.4%로 농산물(83.5%)과 축산물(77.1%)에 비해 약간 낮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가공식품은 59.0%로 크게 낮았다. 수입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농산물 18.4%, 축산물 15.1%, 수산물 16.4%, 가공식품 21.9%로 매우 낮았다.

⑤ 생산단계 수산물 위생관리를 강화 및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체계 강화

-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해역 및 양식장 HACCP를 확대를 연차별로 추진하였다.
 - 수출용 지정해역은 2011년 7개소를 지정하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양식장 HACCP는 2005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나 등록 부진으로 참여 확대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양식장의 세균 등 위해요인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해역별 등급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어장에서 식탁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2008년 8월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이력제는 2011년 말 기준, 넙치, 김, 멸치, 오징어 등 18개 품목에 전국 규모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대형유통점, 백화점을 포함한 1,321개 업체(생산, 가공, 유통, 판매)가 수산물이력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www.fishtrace.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그리고 수산식품 주요수출입국가와의 위생협력 강화를 통하여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이중 검사체계 마련을 위해 5개국 6개 약정(중국 2, 베트남, 태국, 인니, 러시아)을 체결하였으며, 수출증가에 따른 수출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요구 증대로 패류 양식장 지정해역 확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신선도’ 28.8%, ‘안전성’ 24.4%, ‘가격’ 6.1%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정보문화센터가 2010년 6월에 발표한 「2010년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농축수산물 구매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인 대해 ‘안전성’ 40.5%, ‘신선도’ 35.2%로 응답하였으며, 그리고 농축산물을 실제 구매할 때, 고려하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원산지’ 54.5%, ‘인증표시’ 26.1%, ‘브랜드’ 7.3% 순으로 나타났다.

3. 2012년도 전망과 이슈

1) 수산식품산업의 전망

① 수산식품 소비부문

수산물 가격과 안전성, 수산물 소비의 핵심 키워드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011년 유럽의 재정위기까지 겹치면서 세계 경제는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의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한 채 성장률이 3%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 국가의 소득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 소비에 부분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2012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수출둔화의 영향과 내수 확대 폭의 축소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3.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수산식품 소비 전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웰빙 추구에 따라 수산물 소비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올초부터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 물가 상승 및 향후 예상되는 금리 인상 조치 등에 따라 가계 가처분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여 수산물 소비도 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식품 소비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보편화된 가운데 고품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기존 제품과 차별화시킨 프리미엄 식품이 등장하고 있는데, 수산물 소비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될 것으로 보인다.
 -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부각시킨 프리미엄 수산식품의 소비는 보다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수산유통·가공부문

산지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FPC 도입 원년, 위판장 활성화 기대

-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수협경제사업개선 TF, 동년 12월 27일에 있었던 부처 2011년 다기능 위판장 도입 및 시설 개선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 사업이 광특 회계사업으로 도입되었다.
 - 시범사업으로 부산시수협, 속초시수협의 2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72억 원이 지원되는 등 사업은 지역별·품목별 거점 시설(예: 위판장)을 중심으로 물량을 집적, 세척·선별·포장 등 전처리가공 및 도매물류 등을 통해 상품성을 강화하고, 위생관리형(HACCP 등) 시설로 구축될 예정이다.
 - 2012년에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는 등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1년에 FPC TF가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운영중이다.
- 현재 위판장의 개념은 낡은 시설로 인해 품질위생의 한계를 안고 있으며,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어획후처리와 저온유통시스템 등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또한 위판장의 취급규모별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단지 위판물량이 상위그룹에 집중되는 현상일 뿐 실질적인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 그리고 국내 공급량 대비 위판량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에 45%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수산물시장에서의 수급조절과 가격교섭력이 하락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시장점유율의 하락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는 기존의 위판시설과 운영구조로는 한계에 도달해 있음을 의미하며, 새로운 전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새로이 도입한 FPC사업은 약화된 산지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신계통판매시스템으로서 기대되고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확산될 전망이다.
 - FPC의 확산은 물량적인 확대보다는 내실을 기해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함

으로써 부가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의 조기 확산을 통해 산지유통의 활성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산물의 지속적 가격상승, 수산식품 소비 저해요인

- 통계청의 시장경기동향조사에서 농축수산물의 지수는 2010년 11월에 94.8이었던 것이 2011년 11월에는 67.0으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 시장경기동향조사는 매월 전국 1,517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경기 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는 것으로 장바구니 물가 동향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 이러한 시장경기지수의 급격한 하락은 소비자들의 수산물 구매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러한 시장경기의 위축은 수산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있는데, 2010년 12월의 수산물소비자물가지수가 105.3이었던 것이 2012년 12월에는 110.1로 4.6%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기(1~12월) 대비 8.5% 상승하였다.
 - 결국 이러한 수산물의 가격상승이 소비와 시장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소비자들의 저가 상품 소비선호이다. 신세계유통연구소의 2012년 유통업전망을 보면 이러한 경향을 몇 가지 키워드로 압축할 수 있는데, 개인 소비 양극화 심화(Rocketing⁷⁾ 소비), 창고형 매장의 등장, 대형마트의 방문횟수감소와 주거지 주변 슈퍼마켓의 매출 증가이다.
 - 창고형 매장은 초기 대형할인점의 형태이며 월마트로 대변되는데, 월마트가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동 형태의 매장 경쟁력이 한국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었지만, 경기침체와 소비자의 저가격 지향이 결국 이러한 형태를 되살린 것이다.
- 또한 수산물의 가격상승과 더불어 1~2인 가구 증가, 맞벌이,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수산물 소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2011년에는 2인 가구 비중이 24.3%로 4인 가구를 추월하였으며, 대형마트

7) Rocketing : (신조어) 몇 가지 중요한 물건에만 엄청난 돈을 지출하고 나머지 것에는 평균 이하의 지출만 하는 것을 말한다.

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가격차가 크게 나지 않아 기업형 슈퍼마켓으로의 쇼핑 전환이 발생하고, 근거리 쇼핑이 증가하고 있다.

- 결국 수산물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소비패턴은 저가지향, 슈퍼마켓 등의 근거리 쇼핑으로 전환되면서 소량소비, 간편소비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 하지만 수산물의 공급방식은 여전히 원물소비 중심이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중심의 공급구조를 가지고 있다.
- 따라서 소비자가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슈퍼마켓에 대응하기에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비 위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③ 수산물 수출입 부문

중국 등 신흥경제국의 소비여력 증대, 수산물 수출 기회 확대 기대

- 2012년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의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한 채 성장률이 3%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로존 국가들의 부도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각국의 가계 소비 심리 위축 및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유로존 국가 및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는 달리, 아시아 신흥국 특히 중국 경제는 외부 환경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9%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어 2012년에도 중국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⁸⁾
 - 2011년 기준 국내 수산물 수출에서 중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전년에 비해 약 10% 포인트 증가하였고, 올해도 중국경제 성장률이 지속될 경우 대중 수출은 희망적이다
 - 그러나 소득 향상 속도가 빠르고, 수산물 소비가 점차 증가하는 태국 등 신흥국의 수산물 수출이 성장세인 점은 향후 국내 수산물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8) 포스코경제연구소, 2012년 중국경제의 향방

- 2011년 수산물 수입은 2010년에 비해 약 21% 증가한 약 42억 달러(잠정 집계)이다. 국내 수산물 수입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의 경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 국가들은 모두 신흥경제국으로 수산물 소비가 확대되고 있어 국내 수산물 수입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중국의 수산물 소비 급증에 따른 중국발 피쉬플레이션으로 인해 2012년 국내 수산물 소비는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④ 수산식품 위생안전 부문

수산식품의 안전·안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크게 상승

- 2012년에는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수산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는 어느 나라,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전년에 이어 지속될 것이다.
- 그러므로 소비자의 안전 및 안심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브랜드 수산식품 및 정부 또는 공공기관 인증 수산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소비자 인지도가 높고 품질·위생·안전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산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2012년 7월부터 통합 운영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 안전관리와 수산물 안전관리가 효율적인 연계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산 수산식품의 방사능 오염 등으로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어장에서 식탁까지 단계별로 2012년 수산식품 위생안전관리 전망은 전년도 주요 이슈였던 일본 대지진의 영향에 의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의 해양유출 문제와 부적합 수입수산물의 철저한 차단, 그리고 고품질의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강하게 요청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우선, 수산물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양식장 HACCP은 물론 어선 및 위판장에서도 위생관리형 안전관리체계를 위한 기반구축이 강하게 요청될 것이다.
- 양식수산물의 질병 발생 및 폐사량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방역체계 구축 및 주요 질병 발생 시기에 질병 예찰을 통해 부적합 수산물이 출하되지 않도록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식어업인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활동 강화가 요청될 것으로 보인다.
- 생산단계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정해역 확대 및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안심할 수 있는 양식수산물 만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위생안전관리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청될 것이다.
- 수산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위해수산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의 조기 회수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08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는 수산물 이력제의 활성화가 강하게 요청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수산식품 주요 수출입국간 수산물 위생약정 확대 및 위생협력 강화가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요청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수산식품산업의 주요 이슈

① 수산식품 소비부문의 주요 이슈

피쉬플레이션, 수산물 소비에 영향 미칠 듯

- 2012년 수산물 소비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피쉬플레이션으로 인해 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11~2020년 세계 수산물 가격은 자원고갈, 사료값 상승, 양식지 부족 등으로 2001~2010년 대비 명목 가격이 35% 상승하는 '피쉬플레이션'을 경고하였다.
- 특히 지난해는 일본 대지진(3월),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5월), 태국 홍수(7월), 베트남 태풍 및 질병에 따른 수산물 대량폐사(9월) 등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 가격이 요동을 치는 등 수산물 수급 측면에서 불확실한 세계 수산물 시장의 변동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수산물 소비의 안전성을 인증한 다양한 인증제도와 개별 표시가 통합, 단순화되고 2013년부터는 모든 농식품 인증표지가 통합표지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 농식품 공통표지는 카테고리별 상징컬러를 통해 구분하게 되는데, 친환경 인증은 초록색, 안전관리인증은 붉은색, 품질인증은 파란색으로 구분하게 된다.
 - 이에 따라 수산물의 경우 HACCP 인증 수산물, 나아가 친환경, 또는 무항생제 사용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2년에는 안전성 확대와 더불어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전통시장과 음식점에도 확대·정착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2010년 8월에 시행되었고, 올해 2월부터는 소금 원산지 표시제 시행,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이 집중 논의될 예정으로 있어 수산물 소비와 관련해 원산지 표시는 중요한 이슈로 재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② 수산유통부문의 주요 이슈

농안법 개정, 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로 이어져야

- 2011년 연말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도매시장에 대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 거래원칙이 경매와 정가·수의매매로 확대되었으며, 도매시장 개설 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고, 도매시장법인 지정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또한 시장도매인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안이 정비됐다.
- 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정가·수의매매가 조건부에서 거래원칙으로 바뀌었다.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가격 불안정·물량 확보 불안정 등 경매제의 단점으로 인해 도매시장

- 을 떠났던 대형거래처들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둘째,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중앙도매시장 개설이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로 가능하게 되어 시장의 개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셋째, 그동안 시장 개설자가 가지고 있던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토록 규정이 신설됐다.
 - 넷째, 공판장도 도매시장 개설자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 다섯째,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의무설치 조항이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해서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중앙도매시장에 도매시장법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 시장도매인제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이번에 바뀐 농안법의 개정내용은 수산물 거래에서 경매원칙에 묶여 있던 것을 완화함으로써 거래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시장개설권을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도매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기존의 거래방법과 시장개설 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공동어시장과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조속한 통합 필요

- 현재의 부산공동어시장은 물량은 감소, 가격은 증가, 수출도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내 처리시스템은 전근대적 수작업처리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 따라서 시장 양륙시스템, 저온유통시스템 등 어획후처리 부진으로 품질위생관리체제가 취약하고, 전처리, 냉동보관처리 등 시설 및 장소적 제약으로 부가가치 실현에 한계가 있다.
 - 결국 다기능, 부가가치 처리시스템으로 현대화가 필요하나, 기능·시설 낙후로 고객서비스, 부가가치 제고에 한계가 있다.
- 이에 따라 2010년 5월에 부산시와 공동어시장을 구성하는 5개 수협은 부산공동어시장과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통합추진 MOU를 체결하였다.
- 부산공동어시장은 1963년 설립 이후, 국내 최대 산지 어시장, 국내 유일 근해 업종 전문 양륙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2008년 개장으로 수입수산물, 원양수산물의 One-Stop양륙시장 구조를

구축하였다.

- 부산공동어시장은 그간 현대화와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개선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지만, 부산시와의 MOU 체결을 통해 물꼬를 트게 되었다.
- 최근 몇 년 동안 대형선망, 대형트롤 등 부산공동어시장에 양륙하던 일부 업종이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양륙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선망의 제주도 현지 양륙 추진 등 부산공동어시장의 기능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 부산공동어시장 양륙 물량 한계를 타 시장 활용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2개 대형시장의 고유 기능이 섞이고 있다.
- 이에 따라 근해 VS 수입·원양수산물의 고유영역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어, 시장기능의 통합 필요성 대두되고 있으며, 부산공동어시장은 시설현대화 혹은 리모델링 시에 자체 부지만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하여 대체시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 감천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2011년 근해 수산물 양륙실적(수산물 공판장)은 2009년 대비 물량 50.1%, 금액 36.6%가 증가하였다.
- 이것은 감천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총 거래실적 대비 물량 36.0%, 금액 50.1%의 비중을 차지하며, 또한 부산공동어시장의 거래실적 대비 물량 18.1%, 금액 27.1%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 부산은 국내 최대 수산물 양륙지 시장 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기능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므로 이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 대안이 양 시장의 통합이다.
- 따라서 양 시장의 조속한 통합을 통한 지배구조의 개선과 현대화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산지시장 경쟁력 약화, 어획후처리 통한 위생·품질관리로 극복 필요

- 어획후처리는 수산물의 어획 이후 전 과정에서 선도 유지, 부패 방지를 통해 품질 제고, 손실 저감, 유통판매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양륙, 선별, 포장, 저장, 수송 등 각종 조치의 총칭이다. 간단히 말해 어장에서 수산물을 어획

한 이후의 모든 과정에서 행하는 품질 및 위생관리활동을 통칭하는 것이다.

- 수산물도 최근 국민 식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절단 고등어, 손질 생선과 같은 전처리 수산물이 마트에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전처리 농수산물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농산물에 비해 수산물의 어획 후처리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 지난 2010년에 실시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이러한 사실들이 잘 드러난다.
 - 생산자와 수협관계자,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위판장의 실제 품질 관리 수준은 5점 만점에 3.37점, 위생관리수준은 3.57점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 또한 소비자가 얼마나 만족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품질관리 수준은 3.57점, 위생관리수준은 3.37점이었다. 그리고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위판장의 품질관리 수준은 5점 만점에 3.39점, 위생관리수준은 3.23점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 이정도 점수면 만족과 불만족의 사이, 즉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의 수준이며, 산지 관계자와 소비자가 모두 사실상 불만족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어획후처리의 개선을 위해서 산지시장은 거래보다는 거래되는 상품 그 자체의 품질과 위생관리에 더 매진할 필요가 있다.
 - 즉 전근대적인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품질 및 위생관리를 통합하는 어획 후처리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여 양육시스템의 개선, 저온유통체계의 재구축, 산지시장의 품질위생관리 시설 도입, 전처리가공의 강화 등을 통해 거듭날 필요가 있다.

③ 수산가공부문의 주요 이슈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수산식품산업의 발전 기대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9월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으며, 2017년 까지 식품시장규모를 245조 원, 수출 200억 불을 달성하고, 식품산업 고용을 200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은 2008년에 제정된 식품산업진흥법을 기반으로 동년 발표된 식품산업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동 법에서 정해진 기본계획의 수립을 반영한 것이다.
- 기본계획은 4개 분야 23개 과제의 추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데, 주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에서는 식품 R&D 확대와 2015년 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식품모태펀드 확대, 농수산식품기업 One-Stop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2017년까지 식품산업 인력 10만 명 교육 실시, 식품관련 통계정보지도 구축이다.
 -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서는 2017년까지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지역전략식품사업단 100개소 육성, 도단위 식품산업클러스터 육성, 매출액 50억 수준의 농공상 융합형 기업 300개소 육성, 수산물 등 6대 분야 가공산업 활성화, 사이버거래소를 활성화와 외식산업 육성, 농어업인의 1인 기업 창업 지원이다.
 -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서는 2017년까지 농식품 수출 200억 달러 달성 및 식품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 한식당 2만여 개 육성,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및 기능성 식품 4조원 시장 육성이다.
 -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서는 소비자 정보소통 체계 구축, 올바른 식생활 교육 강화, ‘어장에서 식탁까지’ 사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확대이다.
- 기본계획에서 수산업에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수산물가공산업 지원으로 산지 위판장(206개소)의 기능을 수산물 가공·유통시설로 확대·개편하기 위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권역별로 6개소 육성한다.
 - 둘째, 수산식품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로 식품모태펀드 확대, 농수산식품기업 One-Stop 서비스 지원체계, 식품기업 해외진출 지원, 농어업인의 1인 기업 창업 지원으로 취약했던 수산식품가공업의 규모화 및 해외진출과 동시에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지역 수산특산물 육성으로, 지역전략식품사업단 육성과 도단위 식품산업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어촌의 소득원으로서 특산물을 상품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이번에 수립된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수산업에서 그 동안 취약했던 수산식품분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지역산업과 연계한 수산식품의 발전전략수입이 필요할 것이다.

수산물 수출 10대전략품목 선정, 수산가공품 수출의 새로운 전기

- 2011년 12월에 농림수산식품부는 2020년까지 전체 수산물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수산분야 10대 전략품목 육성계획’을 수립하였다.
 - 선정된 품목은 갯벌참굴, 해삼, 전복, 광어, 참치, 김·미역, 새우, 뱀장어, 능성어, 관상어 등 수산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10개이며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또한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에서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천명하고 있다.
 - 이번에 선정된 품목은 기존에 수출 효자품목도 있지만, 새로이 전력품목으로 지정된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부분이 가공품의 형태로 수출된다는 점이며, 기존 품목은 가공품이 개발되어 있지만, 신규 품목들은 개발의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 따라서 10대 수출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가공산업 발전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 ④ 수산물 수출입 부문의 주요 이슈

수산물 수출 10대전략품목 선정, 수산물 수출 진흥 기대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수산업 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전복, 광어, 참다랑어, 갯벌참굴, 해삼 등 10대 수출 전략을 마련, 집중 육성하여 2020년까지 100억 달러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 10대 전략품목 R&D에 2020년까지 1,184억 원을 투자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70억 원을 투입하고, 시설 현대화에 768억 원의 신규 자금을 투자하여 양식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중 FTA 철저 대비 필요

- 한편 한-중 FTA에 대비한 대중국 수출확대 여건조성, 아세안 등 신흥 수출국 개척은 수산물 수출의 주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⑤ 수산식품 위생안전부문의 주요 이슈(대책)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위생안전정책 비중 강화 필요

- 세계의 식품시장 규모는 2007년 4조 6천억 달러이던 것이 2010년에는 5조 1천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2012년에는 5조 4천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Datamonitor Interactiver Consumer Database 2011, 식품, 알콜, 비알콜, 담배 포함). 이러한 전망에 근거하면 2012년은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주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수산식품산업 기반구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위생안전부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문이기 때문이다.

국제적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시설 및 관리 기준 확립 시급

- 따라서 2012년 위생안전부문의 주요 이슈로서는 첫째, 국제적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하드웨어로의 개선을 들 수 있다. 소비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산식품은 과학적인 위생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비에 따라 생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어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위생안전관리시스템 기반구축 절실

- 둘째, 수산물위생안전관리의 주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어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위생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수산물을 매개로 하는 식중독 사고 등 식품안전사고는 대부분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취급 부주의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단계인 해역, 어선이나 양식장에서부터 산지위판장, 가공공장, 운반차량, 판매장(대형유통점, 재래시장 등) 등 전 과정을 일관되게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단계적 완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친환경수산물 인증품목 생산 중대를 통한 소비확대 기대

- 셋째, 식품의 안전성과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부인증제도인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의 확대가 강하게 요청될 것이다. 이 이슈는 현재,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대상품목(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26호)에 의거하여 어류 2종(넙치, 무지개송어), 패류 2종(굴, 홍합), 해조류 3종(김, 미역, 톳), 해조류가공품 3종(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총 10종의 「양식수산물」로 한정되어 있는 규정에 대한 개정의 문제이다.

국내산 전수산물의 안전성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시급

- 넷째, 수산식품 안전에 대한 포지티브리스트제도에 대한 검토가 예상된다. 현재, 제한된 품목 및 물질만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는 기준치를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식품(식재료 포함) 및 물질에 대한 국가 기준 마련이 급년에도 요구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에게 안전성 기준 및 정보 제공은 국가의 책무로 전 품목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출하기준을 통과한 완전하고 건전한 식품만 출하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산물이력제, HACCP, 품질인증제도 등 조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다섯째,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이력제의 품목 및 참여업체의 빠른

확산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전안전관리 수단중 하나로서 양식장 HACCP의 기반구축 뿐만 아니라 어선 및 위판장 HACCP의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주요 이슈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수산식품 안전안심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행정으로 개선 필요

- 마지막으로 농식품부로 정부조직개편 이후 여러 조직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수산식품 위생안전부문의 독립된 부서 설치 및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상향 조정을 위한 노력도 차세대 신수산 성장기반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핵심적인 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검사검역통계정보시스템(2011.1.7 기준)
 국무총리실(관계부처합동), 식품안전 종합대책, 2008.7.11.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2011
 농림수산식품부, 2010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10. 8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 2009, 2010
 농림수산식품부,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년도
 농림수산식품부, 도매시장통계연보, 각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2009.10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 분야별 현황조사, 2009
 농촌정보문화센터, 2010년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2010. 6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 2008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2011
 삼성경제연구원, 2012년 상반기 세계와 한국경제 전망, 201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물계통판매고통계연보., 각년도
 주문배 외, 천일염이력추적제 기반구축 및 시범사업,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주문배 외, 2012년도 수산물이력제 기반구축 및 확산사업 성과 보고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주문배 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식품 정부인증제도 개선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주문배 외,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주문배 외, 천일염의 고부가가치 식품산업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주문배 외,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0
 포스코경영연구소, 2012년 중국경제의 향방, 2012
 통계청, 도소매업동향조사, 각년도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각년도
 통계청, 시장경기동향조사, 각년도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년도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국 무역의 향후 10년: A-SIA, 세계시장의 변화에 주목하라!,

한국체인스토아협회, 유통업체연감, 2011

제3부

주요 양식품목별 수급동향과 전망

- ▶ 제 8 장 해조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 ▶ 제 9 장 어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 ▶ 제 10장 패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해조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I. 김 수급동향과 전망

백은영*

목 차

- | | |
|-----------------|-------------|
| 1. 서론 | 3. 2012년 전망 |
| 2. 2011년 김 수급동향 | 1) 생산 |
| 1) 생산 | 2) 가격 |
| 2) 가격 | 3) 수출 |
| 3) 재고 | 4) 소비 |
| 4) 수출입 | |

1. 서론

- 2011년산 김 총 생산량은 1억 2,971만 속으로 2010년산보다 50% 이상 많았다. 2011년산이 생산된 2010년 하반기에는 채묘상태가 양호했던 데다, 어기 내내 적정 수온이 지속되면서 작황이 양호했기 때문이다. 특히 동아채묘 부착률이 좋았고, 발아 상태 또한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했다.
- 반면 생산량 증가로 물김 산지가격은 2010년산보다 16% 하락한 kg당 663원이었다. 한편 도매가격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0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었는데, 이는 2009년부터 부족한 재고량을 확보하기 위해 매수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수출량은 2010년에 이어 고환율과 지속적인 수출시장 다변화로 50% 증가했다

* 위촉부연구위원

- 2011년 12월 재고량은 생산량 감소로 3개년 평균에 비해 10% 이상 적은 3,000여만 속이었다.
- 2012년산 김 생산량은 2011년산보다 10~15% 감소한 10,500~11,000만 속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산 김은 채묘는 양호했으나, 채묘기 이후 높은 수온으로 갯병이 발생했던 데다 업체 탈락 등 성장이 부진했다. 이에 따라 어기초 생산되는 전남의 잇바디돌김 생산량은 대폭 줄었으며, 일반김과 모무늬돌김 작황도 전반적으로 좋지 못해 생산이 줄어들 것이다.
- 2012년 수출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고, 최근 중국과 일본의 김 작황이 부진한데다 지속적인 수출대상국의 다변화로 현지인의 김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 2011년 김 수급동향

1) 생산

(1) 시설동향

- 수산업관측센터에서는 2004년부터 위성판독사업을 통해 지역별 김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2010년에는 위성판독에서 항공사진으로 전환해 보다 정밀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양식어가에서는 출하조절사업을 통해 적정한 수급조절과 품질향상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어장정비 사업에 양식어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 김 시설 책수는 정부와 지자체의 어장정비 강화에 따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들어 다시 증가했는데, 이는 주요 산지인 전남 일부지역에서 면허지 증가와 타 품목 면허를 김 어장으로 변경한 데 기인하고 있다.
- 양식어가 설문조사 결과, 2012년산 김 시설 책수는 약 77만 책으로, 작년 산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지역은 전국 시설 책수의 73.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산 대비 3.3% 증가했다. 이는 파래어장을 김 어장으로 변경한

고흥지역과 면허지 분쟁이 해결되면서 진도지역에서 면허지 일부가 늘었기 때문이다.

- 반면 부산지역은 어장 간격을 조정하면서 2011년산 대비 13.6% 감소했으며, 전북과 충남지역은 황백화 피해로 김 양식을 기피하면서 각각 4.4%, 2.9% 감소했다.

〈표 8-1〉 연산별 지역별 김 양식시설 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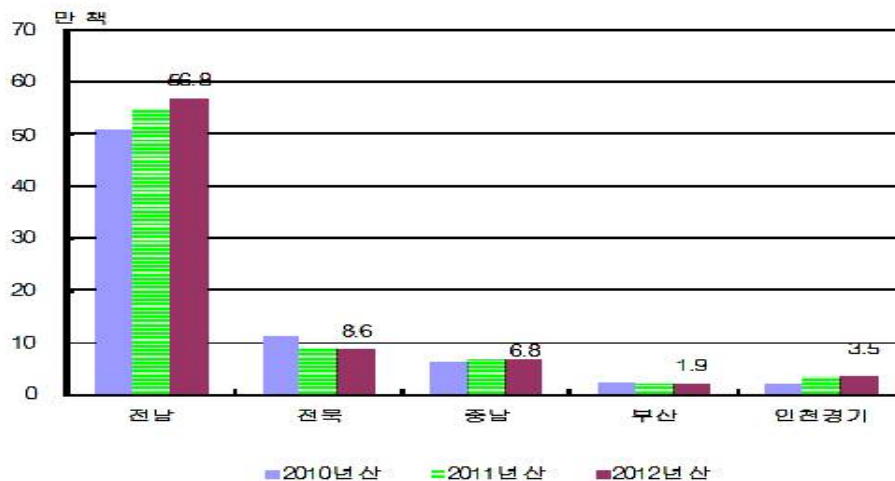
단위 : 만 책, %

구 분	전국	전남	전북	충남	부산	경기
2005년산	67.7	49.2	8.1	4.9	3.9	1.6
2006년산	68.5	48.4	9.7	6.5	2.5	1.5
2007년산	64.4	41.7	11.4	7.5	2.1	1.7
2008년산	61.8	40.9	11.5	5.5	2.2	1.7
2009년산	67.6	45.1	12.0	6.0	2.4	2.0
2010년산	72.9	51.0	11.2	6.3	2.3	2.1
2011년산(A)	76.8	55.0	9.0	7.0	2.2	3.5
(점유율)	(100.0)	(71.7)	(11.7)	(9.1)	(2.9)	(4.6)
2012년산(B)	77.5	56.8	8.6	6.8	1.9	3.5
(점유율)	(100.0)	(73.2)	(11.1)	(8.8)	(2.4)	(4.5)
증감률(B/A)	1.0	3.3	-4.4	-2.9	-13.6	0.0

주 : 책이란 양식용 김발의 단위 규격으로 1책 = 2.2m×40m(정부 공인 김발 규격)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조류 수산관측 각 월호, 2004~2007년산 및 2009~2010년산은 위성영상 판독 결과, 2008년산은 표본어가 시설조사 및 서천, 군산 지역의 위성영상 판독 결과, 2011년산은 항공영상 판독 결과, 2012년산은 표본어가 시설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

〈그림 8-1〉 연산별 지역별 김 양식시설 책수



- 품종별 김 양식시설 비율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일반김보다 돌김의 양식시설 비율이 높았으나, 2006년 이후 반전되어 일반김의 양식시설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돌김 선호도가 과거와 달리 낮아지고 있어 일반김의 양식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12년산의 경우 돌김 시설비율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았는데, 이는 어기초의 높은 수온이 지속되면서 잇바디돌김의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표 8-2〉 품종별 김 양식시설 비율

단위 : %

품종별 점유율	합계	일반김	돌김
2005년산	100.0	43.6	56.4
2006년산	100.0	53.1	46.9
2007년산	100.0	53.0	47.0
2008년산	100.0	60.7	39.3
2009년산	100.0	59.9	40.1
2010년산	100.0	62.3	37.7
2011년산	100.0	61.8	38.2
2012년산	100.0	67.9	32.1

(2) 생산현황

- 김의 양식생산 시기는 전년 10월에서 당년 5월까지로 약 7~8개월에 이른다. 주요 김 시기는 전년 11월에서 당년 4월까지 6개월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시기의 생산량은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 월별 김 생산량을 살펴보면 김이 생산되기 시작한 10월부터 점차 증가세를 보여 3월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특히 1월부터 3월까지 생산량이 전체의 60%가량 차지한다.
- 이러한 월별 추세는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 연산별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경우 이러한 형태의 생산주기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 2011년산 김 생산량은 2010년산보다 51.7% 크게 증가했다. 이는 어기 동안 적정 수온이 유지된 데다 갯병 징후 없이 전반적으로 작황이 좋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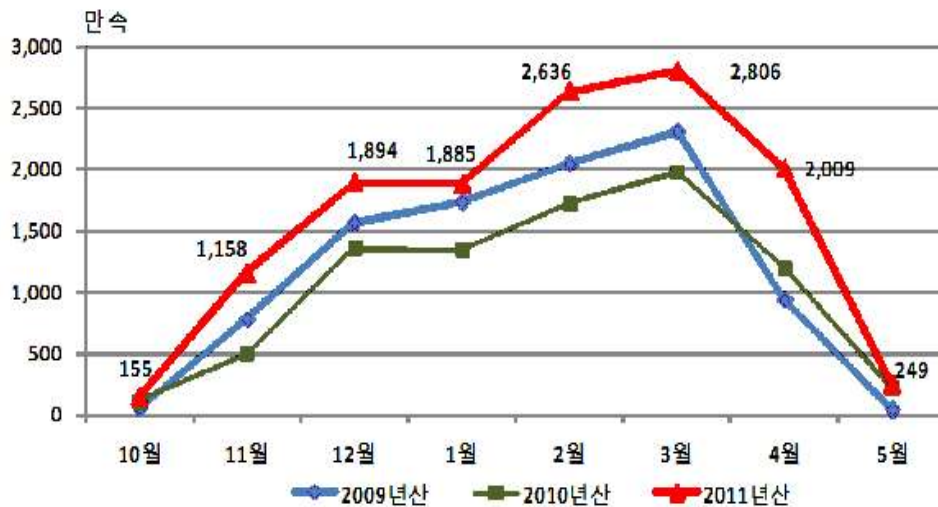
〈표 8-3〉 연산별 월별 김 생산량 동향

단위 : 만 속, %

구분	합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2005년산	10,513	48	511	1,125	1,793	2,446	2,801	1,734	55
2006년산	11,082	59	489	1,386	1,763	2,597	2,892	1,722	174
2007년산	8,434	0	607	1,563	1,681	2,206	1,748	607	22
2008년산	10,416	19	974	1,854	1,881	1,981	2,658	1,002	48
2009년산	9,494	60	783	1,568	1,736	2,048	2,313	941	45
2010년산(A)	8,433	112	502	1,359	1,345	1,716	1,988	1,195	219
2011년산(B)	12,791	155	1,158	1,894	1,885	2,636	2,806	2,009	249
점유율	(100.0)	(1.2)	(9.1)	(14.8)	(14.7)	(20.6)	(21.9)	(15.7)	(1.9)
증감률(B/A)	51.7	39.2	130.7	39.4	40.2	53.7	41.2	68.1	13.7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조류 수산관측 각 월호

〈그림 8-2〉 연산별 월별 김 생산량 추이



- 지역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2011년산 기준 전남이 68.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북 12.5%, 부산 7.1%, 충남 6.9%, 경기 5.3% 순이었다.
- 시·군별 주산지로는 전남의 경우 신안·해남·완도·진도·고흥이 해당되며, 전북은 군산, 충남은 서천, 부산은 강서구 등이다.
- 전남의 경우 시설이 다소 증가하면서 생산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북과 충남은 황백화 현상에 따른 양식 기피와 잦은 강풍 피해로 작황이

저조하면서 생산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전북과 충남지역의 연산별 김 생산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5년산은 18.6%를 차지했으나, 이후 점차 증가해 2009년산은 36.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갯병 피해가 확산되면서 2011년산은 19.4%로 2005년산 수준까지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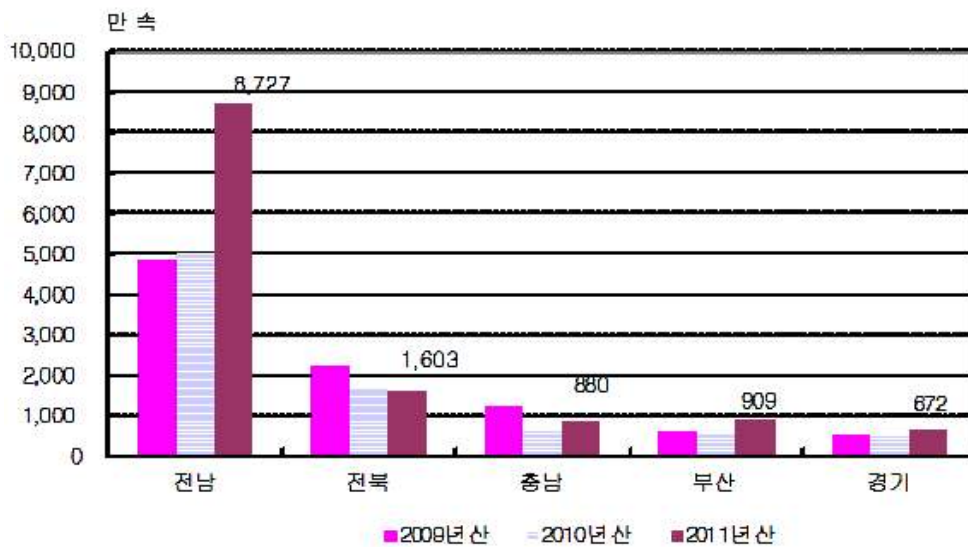
〈표 8-4〉 연산별 지역별 김 생산량 동향

단위 : 만 속, %

구분	전국	전남	전북	충남	부산	경기
2005년산	10,513	7,225	1,279	676	965	368
2006년산	11,082	7,775	1,215	1,061	709	322
2007년산	8,434	4,769	1,565	1,095	461	544
2008년산	10,416	5,514	2,445	1,353	738	366
2009년산	9,494	4,858	2,245	1,251	607	533
2010년산(A)	8,433	5,015	1,688	636	585	509
2011년산(B)	12,791	8,727	1,603	880	909	672
점유율	(100.0)	(68.2)	(12.5)	(6.9)	(7.1)	(5.3)
증감률(B/A)	51.7	74.0	-5.0	38.4	55.5	32.0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조류 수산관측 각 월호

〈그림 8-3〉 연산별 지역별 김 생산량 추이



2) 가격

(1) 산지가격

- 연평균 평균 가격은 kg당 800원 수준이며, 2000년 대 초반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07년 이후 다시 하락했다.
- 산지가격 추이를 조사한 결과, 물가상승을 반영한 김 실질 산지가격은 2000년대 들어 1990년대보다 27.1% 하락했다. 이는 동 기간 명목가격 하락률 15.4%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표 8-5〉 연대별 김 산지가격 동향

단위: 톤, 원/kg, %

구분	평균 생산량	명목 평균가격	실질 평균가격
1992~2001(A)	186,348	968	1,242
2002~2011(B)	219,858	819	906
증감률(B/A)	18.0	-15.4	-27.1

주 : 실질 평균가격은 산지가격을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를 이용하여 환산한 가격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 2011년산 산지가격은 2010년산(790원/kg)보다 16.1% 하락한 kg당 663원이었다. 이는 2011년산 대비 생산량이 크게 늘었으며, 일부지역에서 황백화 현상까지 겹쳐 물김 품질이 나빴기 때문이다.
- 월별 산지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10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달에서 2010년산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1월 이후에는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가격대를 형성했다.
- 이는 1월 이후 동아채묘의 김 생산량은 크게 늘어난 데다, 갯병 등으로 물김 품질 또한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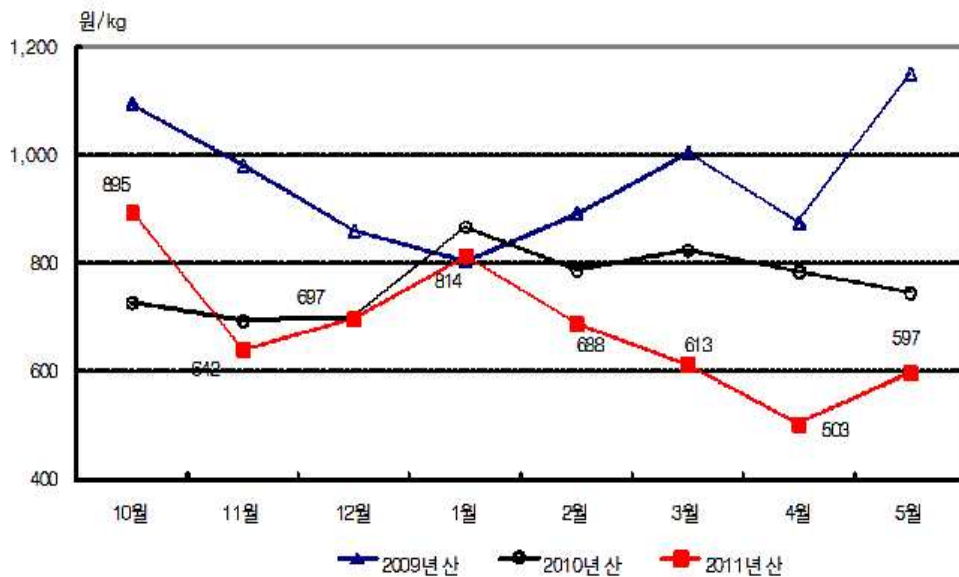
〈표 8-6〉 연산별 김 산지가격 동향

단위 : 원/kg, %

구분	평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2005년산	1,021	1,530	1,000	1,037	1,117	1,015	1,061	841	1,034
2006년산	874	1,654	1,007	1,013	1,098	842	717	806	911
2007년산	1,077	-	979	1,003	1,097	907	1,211	1,397	1,373
2008년산	961	1,779	957	948	1,139	953	882	829	1,107
2009년산	899	1,096	983	861	806	893	1,005	876	1,152
2010년산(A)	790	728	694	701	868	788	825	785	746
2011년산(B)	663	895	642	697	814	688	613	503	597
증감률(B/A)	-16.1	22.9	-7.5	-0.6	-6.2	-12.7	-25.7	-35.9	-20.0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조류 수산물측 각 월호

〈그림 8-4〉 연산별 김 산지가격 추이



(2) 도매가격

- 당 센터 조사결과 2011년 김밥용 마른김(중품)의 도매가격은 속당 3,349원으로 2010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 이처럼 전년산보다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한 것은 거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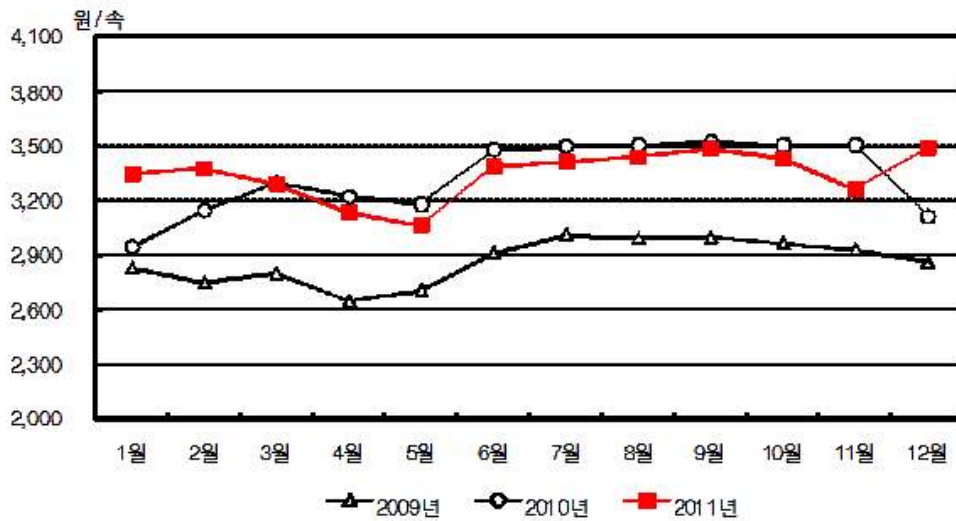
〈표 8-7〉 연도별 김밥용 마른김(중품)의 도매가격 동향

단위 : 원/속, %

구 분	연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8년	3,187	3,419	3,509	3,353	2,823	2,692	3,094	3,319	3,330	3,374	3,258	3,169	2,899
2009년	2,873	2,835	2,756	2,806	2,653	2,711	2,919	3,018	2,998	3,004	2,971	2,935	2,867
2010년(A)	3,332	2,948	3,152	3,301	3,226	3,188	3,485	3,505	3,510	3,529	3,511	3,511	3,121
2011년(B)	3,349	3,352	3,384	3,295	3,142	3,072	3,389	3,420	3,449	3,493	3,435	3,266	3,495
증감률(B/A)	0.5	13.7	7.4	-0.2	-2.6	-3.6	-2.8	-2.4	-1.7	-1.0	-2.2	-7.0	12.0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조류 수산물측 각 월호(당 센터 전국 재래시장 가격)

〈그림 8-5〉 연도별 김밥용 마른김(중품)의 도매가격 추이



3) 재고

- 2011년 12월 말 현재 재고는 3,000여만 속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어기초부터 발생한 갯병 여파와 높은 수온이 지속되면서 작황이 부족하여 재고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 2011년에는 기존 재고 추정방법과 달라 전년 동월과 대비하는 것에 다소 문제가 있어, 최근 3년 평균 재고량과 비교해 보았는데 11.7% 적은 수준이다.

〈표 8-8〉 연도별 김 추정재고량 동향(연도말 기준)

단위 : 만 속,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08~'10 평균	전년 동월 대비	3개년 평균대비
재고량	2,374	2,750	3,229	3,574	2,996	3,586	3,030	3,385	-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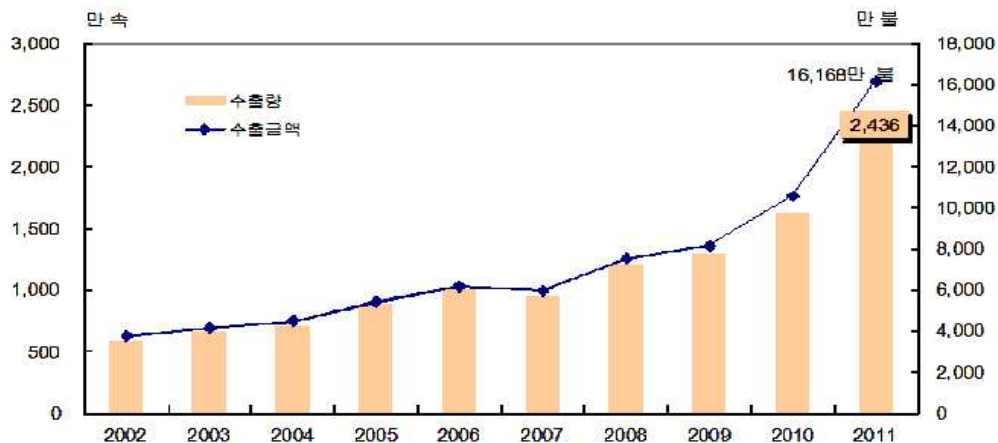
주 : 2010년까지는 당 센터 추정치 자료이며, 2011년에는 매월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조류 수산물관측 각 월호.

4)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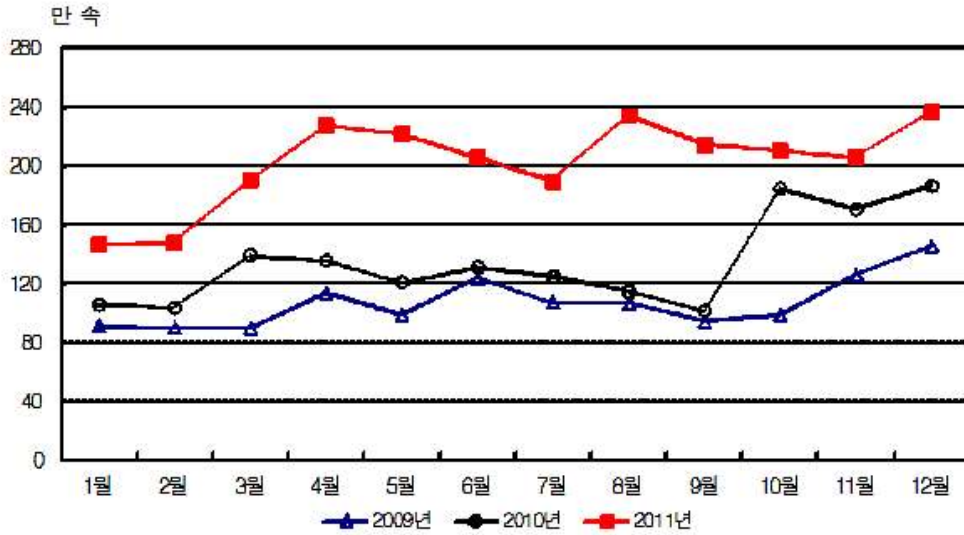
- 김 수출량은 2000년대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여, 현재 생산량의 약 17%(최근 3년 평균)를 수출하고 있다.
- 2011년에는 2010년보다 50.0% 증가한 2,436만 속을 수출했다. 이는 지속적인 수출대상국의 다변화로 현지인의 김 소비가 늘었고, 높은 원/달러 환율 또한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림 8-6〉 연도별 김 수출 추이



주 : 마른김으로 환산(속당 260g)했으며, 냉장김 및 냉동김은 제외, 2011년은 잠정치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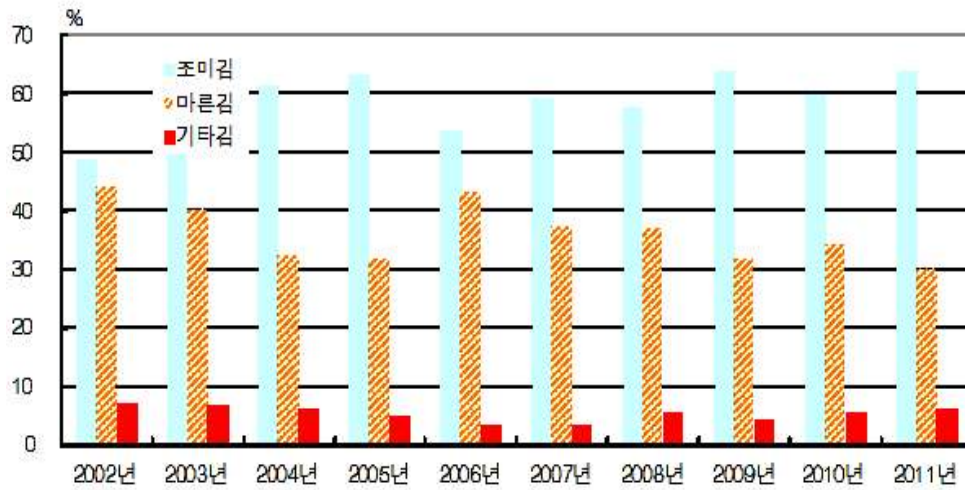
〈그림 8-7〉 연도별 월별 김 수출 추이



주 : 마른김으로 환산(속당 260g)했으며, 냉장김 및 냉동김은 제외, 2011년은 잠정치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 이를 제품별로 살펴보면 2002년 이후 마른김보다 조미김의 수출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조미김 수출은 주로 미국과 동남아시아, 유럽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마른김은 일본이 대부분을 차지해 수출국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 조미김은 2002년 48.8%에서 2011년에는 63.7%로 15%p 증가한 반면, 마른김은 44.0%에서 2011년 30.3%로 감소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제품별 수출량(2011년 기준)은 조미김 1,522만 속, 마른김 737만 속, 기타 김 147만 속이었다.

〈그림 8-8〉 연도별 제품별 김 수출량 비중 추이



주 : 마른김으로 환산(속당 260g)했으며, 냉장김 및 냉동김은 제외, 2011년은 잠정치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 김의 수출 대상국별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량이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2011년의 국별 수출량 점유율을 살펴보면 일본 29.1%, 미국 26.6%, 중국 8.5%, 대만 4.1% 순이었다.
- 기존 미국, 일본, 대만에 국한된 김의 수출 대상국이 최근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기타 국가(동남아시아)의 수출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 수출대상국은 62개국이었으며, 2011년에는 증가해 73개국이었다.
- 중국 및 기타국가 수출 점유율은 2008년 이후에는 40% 이상을 차지해 2001년보다 2배가량 크게 증가했다.

〈표 8-9〉 연도별 국가별 김 수출량 비중

단위 : %

구 분	합계	미국	일본	대만	중국	기타
2001년	100.0	21.8	34.5	25.8	3.5	14.4
2005년	100.0	35.2	30.2	10.5	5.5	18.6
2006년	100.0	32.2	26.3	13.7	8.2	19.6
2007년	100.0	31.1	23.0	10.8	7.5	27.6
2008년	100.0	28.4	20.3	8.2	7.9	35.2
2009년	100.0	25.0	27.1	5.0	6.8	36.1
2010년	100.0	24.1	28.4	4.9	7.2	35.4
2011년	100.0	26.6	29.1	4.1	8.5	31.7

주 : 마른김으로 환산(속당 260g)했으며, 냉장김 및 냉동김은 제외, 2011년은 잠정치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 국내의 김 수입량은 소량에 불과하며, 제품별로 수입국이 각각 다른데 마른김과 기타김의 경우에는 주로 중국에서, 조미김은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다.
- 2011년 김 수입은 28만 속으로 201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으나, 평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0년에는 환율 상승으로 수입량이 급감한 데다 최근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8-10〉 연도별 월별 김 수입 동향

단위 : 만 속

구 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38.7	4.5	0.7	4.5	8.4	3.9	3.2	4.3	1.3	2.3	4.1	0.1	1.3
2006년	23.8	4.3	0.0	0.2	0.1	10.9	3.4	0.0	0.1	2.8	0.1	1.3	0.8
2007년	70.1	7.9	0.0	0.7	1.1	3.4	31.6	11.1	0.8	0.0	2.0	4.1	7.4
2008년	45.0	1.8	5.3	9.8	3.6	2.9	18.8	0.9	0.0	1.4	0.3	0.0	0.1
2009년	41.5	2.3	0.0	0.0	0.7	0.0	0.4	7.4	7.1	21.2	0.0	2.4	0.1
2010년	6.5	0.0	0.3	0.1	0.8	0.0	0.2	2.9	0.1	1.1	0.8	0.3	0.0
2011년	28.8	21.2	0.1	0.2	0.4	1.7	0.2	0.7	0.7	2.9	0.0	0.1	0.7

주 : 마른김으로 환산(속당 260g)했으며, 냉장김 및 냉동김은 제외, 2011년은 잠정치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3. 2012년 김 수급전망

1) 생산

- 2012년산 김 생산량은 2011년산보다 10~15% 감소한 10,500~11,000만 속으로 추정된다.
- 2011년 10~12월까지의 2012년산 김 생산 추정량은 약 2,500만 속으로 2011년산보다 23% 감소한 수준이다.
- 2012년산 김 채묘시기에는(2011년 9월) 수온과 부착이 양호했으나, 채묘기 이후 높은 수온이 지속된 데다 갯병 발생으로 작황이 부진했다. 이에 따라 어기초 생산되는 전남지역 잇바디돌김의 생산량이 크게 줄었으며, 대부분 해역에서 작황이 좋지 못했다.
- 한편 2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동아채묘 김의 경우 채묘 상태는 양호했으나, 현재 성장이 더디고 상태도 좋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산 김 생산량은 전년산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가격

- 2012년산 물김 산지가격은 전년산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2년산은 10월 중순 이후 높은 수온과 어기초부터 발생한 갯병 여파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대부분 지역의 산지가격이 전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 1월 하순부터는 동아채묘 김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기초 작황부진으로 물량 확보가 어려웠던 가공업체들의 매수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도매가격 또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어기초 생산되는 잇바디돌김 도매가격은 올해 작황부진으로 생산이 크게 줄면서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 한편 김밥용김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높게 형성되었다.

- 이에 따라 도매가격은 전반적으로 공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고물량 확보를 위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높은 수준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수출

- 2012년 김 수출은 2011년보다 10~15% 증가한 2,600~2,800만 속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의 김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과 중국도 김 작황이 크게 부진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미김 위주로 수출 대상국 다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높은 환율로 수출여건이 좋기 때문이다.
- 특히 2011년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 여파로 국내산 김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내산 김 수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소비

- 2012년 김 소비량은 2011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국내 김 생산량이 전년산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입 또한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국내 김 소비량은 2011년보다 줄어든 7,700~8,500만 속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8-11〉 2012년 김 수급 전망

단위 : 만 속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망
<공 급 량>	10,461	9,535	8,440	12,820	10,500~11,000
- 생산량	10,416	9,494	8,433	12,791	10,500~11,000
- 수입량	45	42	7	29	30~35
<수 요 량>	10,461	9,535	8,440	12,820	10,500~11,000
- 소비량	9,256	8,244	6,816	10,384	7,700~8,500
- 수출량	1,205	1,291	1,624	2,436	2,600~2,800

주 : 1) 생산량은 연산 기준임

2) 2011년까지는 실제치, 2012년은 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II. 미역 수급동향과 전망

이남수*

목 차

- | | |
|------------------|-------------|
| 1. 서론 | 3. 2012년 전망 |
| 2. 2011년 미역 수급동향 | 1) 생산 |
| 1) 생산 | 2) 가격 |
| 2) 가격 | 3) 수출 |
| 3) 수출입 | 4) 소비 |

1. 서론

- 2011년산 미역 생산량은 전년산 대비 6.8% 증가했다. 이는 미역 종묘 채묘량이 2010년산에 비해 다소 늘었으며, 어기 동안 수온 등 해황 여건 및 작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했기 때문이다. 또한 2011년 설 연휴가 전년보다 10일 정도 빨라 미역 채취 시작 시기가 당겨진 요인도 작용했다.
- 2011년산 미역 산지가격은 그 용도별로 등락의 차이를 보였다. 우선 나물용 미역은 생산량 증가로 산지가격이 하락한 반면, 가공용 미역은 4월에 급등했다. 또한 2011년 마른실미역 평균 도매가격도 kg당 10,965원으로 67.3% 상승했다. 이는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4월부터 급등한 가격이 연말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 이러한 미역 수요 증가로 수출량도 전년 대비 115.8% 증가했으며, 수출금액은 최근 10년 내 최대치인 4천만 달러를 돌파했다.
- 2012년산 미역 시설량은 전년산 대비 4.0% 증가했으며, 미역 양성시설 설치시기에 수온이 낮아 전년산보다 설치시기가 5~7일 빨랐고, 종묘 생산량도 전년산 대비 2.4% 증가했다. 따라서 2012년산 미역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어기 초인 2011년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이상 고온 및 해

* 연구원

적생물에 의한 고사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시설 또는 보식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2012년산 미역 생산량은 전년산 수준이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 수준은 47~48만 톤으로 예상된다.¹⁾

-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2011년 4월부터 9월까지 수출호조세가 이어졌다. 그에 따라 2011년 12월 현재 일본 내 미역 재고량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2012년에는 전년과 달리 수출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출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 2011년 미역 수급동향²⁾

1) 생산

(1) 시설³⁾

- 연산별 미역 시설량을 조사한 결과, 2012년산 시설 줄 수는 44만 6,819줄로 전년산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로는 전남이 5.1% 증가한 반면, 부산, 울산 및 기타 지역의 시설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의 감소폭이 컸다.
 - 전남의 미역 시설량 증가는 식용뿐만 아니라 전복 생산량이 늘면서 그에 따른 먹이용 수요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연산별·용도별 미역 시설량을 보면, 식용의 시설 줄 수는 2010년산에 비해 감소했으나, 전복 먹이용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해조류 수산물관측」에 따르면, 2011년산 미역 생산량은 48만 9,800톤임

2) 기존 수산전망대회(2009~2011)의 미역 수급동향은 ‘어업생산통계’를 중심으로 생산부분을 작성했으나, 이번 수산전망대회부터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의 자료를 이용해 작성하였음. 또한 해조류의 수급동향에서 중요한 부분인 ‘시설’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작성하였음

3) 미역 시설량 조사는 매년 2회(9월,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미역 생산모니터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9월 조사는 해당 어기의 미역 시설 의향을 조사하는 것이며, 12월 조사는 해당 어기에 시설한 미역 줄 수를 조사하는 것임

- 2012년산 미역 시설량 중 식용은 22만 1,012줄로 2010년산에 비해 7.4% 감소했으나, 전복 먹이용은 11.1% 증가했다.
- 특히, 2012년산의 경우 식용과 먹이용 시설량이 역전된 것이 특징이다.

〈표 8-12〉 연산별·지역별 미역 시설량

단위 : 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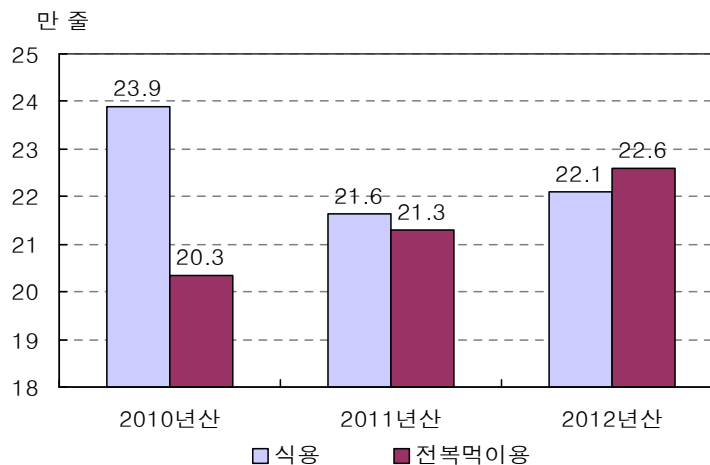
구 분		전국	전남	부산	울산	기타
2010년산	합 계	442,055	388,254	36,396	10,473	6,932
	식 용	238,766	184,965	36,396	10,473	6,932
	전복먹이용	203,289	203,289	-	-	-
2011년산	합 계	429,531	378,071	35,178	8,779	7,503
	식 용	216,383	164,923	35,178	8,779	7,503
	전복먹이용	213,148	213,148	-	-	-
2012년산	합 계	446,819	397,496	33,624	8,216	7,484
	식 용	221,012	171,688	33,624	8,216	7,484
	전복먹이용	225,808	225,808	-	-	-
전년산 대비 증감률(%)	합 계	4.0	5.1	-4.4	-6.4	-0.3
	식 용	2.1	4.1	-4.4	-6.4	-0.3
	전복먹이용	5.9	5.9	-	-	-

주 : 1) 연산별 시설량은 매년 12월에 실시하는 제2차 실제 시설량 조사 결과임

2) 기타 지역은 전남, 부산,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강원, 충남, 경남, 경북)을 말함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해조류 수산관측」, 각 호.

〈그림 8-9〉 연산별·용도별 미역 시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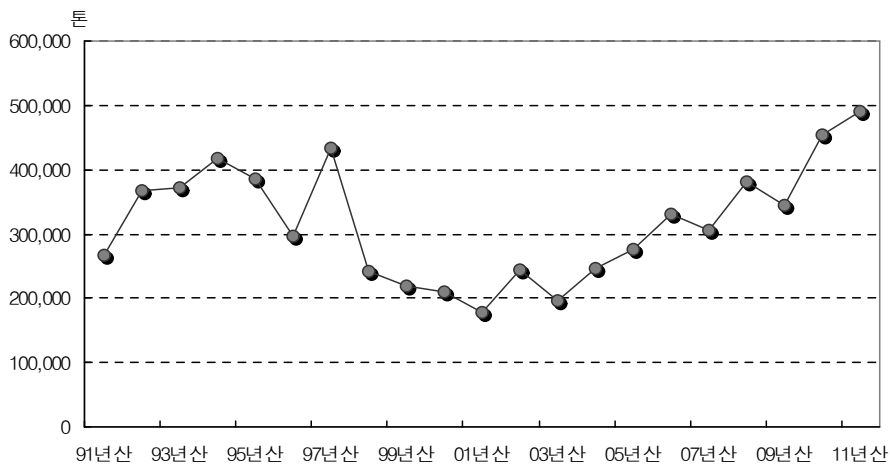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해조류 수산관측」, 각 호.

(2) 생산

- 지난 20년간의 연산별 미역 생산량 추이를 보면, 2001년산 미역 생산량이 연간 17만 7,125톤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이는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복 생산량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 특히, 2009년산의 경우 이상 고온 및 일부 지역 태풍의 영향으로 미역 작황이 부진해 생산량이 전년산보다 10% 가량 감소했으나, 그 이후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림 8-10〉 연산별 미역 생산량 추이



주 : 1) 연산은 10월~익년 9월까지의 생산량으로 정의함(11년산은 '10년 10월~'11년 9월)

2) 91~08년산은 어업생산통계, 09~11년산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자료를 이용했음

자료 : 어업생산통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 미역 생산 시기는 주로 11월에서 익년 4월까지이며, 가공용은 2~3월에 집중 생산된다. 최근 연산별·월별 미역 생산동향은 다음 표와 같다.
- 미역 생산량의 70%가 2~3월에 집중되며, 11월부터 1월 중순까지는 주로 나물용 미역과 전복먹이용이 출하되는데 그 양은 20% 수준이다⁴⁾.

〈표 8-13〉 연산별 · 월별 미역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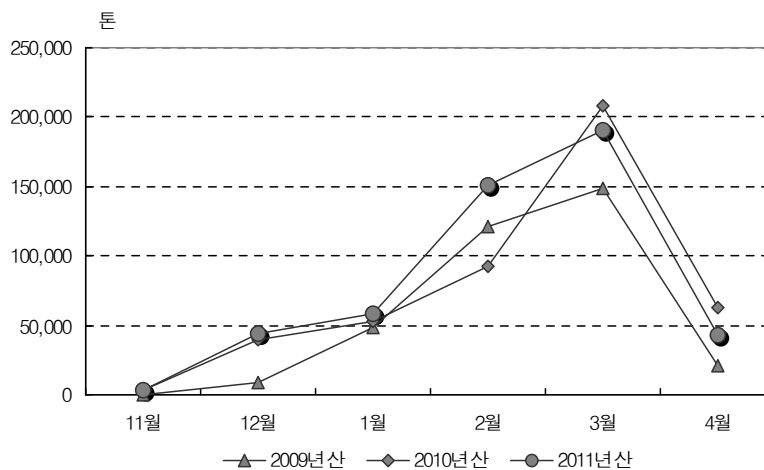
단위 : 톤, %

구 분	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2009년산	348,337	95	9,064	48,475	120,948	148,421	21,334
2010년산	458,689	3,180	39,728	52,518	92,152	208,053	63,058
2011년산	489,800	3,673	43,651	58,475	150,879	190,607	42,515
점유율	100.0	0.5	7.1	12.3	28.1	42.2	9.8
전년산 대비	6.8	15.5	9.9	11.3	63.7	-8.4	-32.6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해조류 수산관측」, 각 호.

- 2011년산 미역 생산량은 전년산 대비 7.8% 증가했다. 그러나 월별로 보면, 11월부터 2월까지의 전년산보다 증가했으나, 여기 말인 3~4월에는 끝녹음 현상이 발생하여 전년산보다 감소했다.

〈그림 8-11〉 연산별 · 월별 미역 생산량 추이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해조류 수산관측」, 각 호.

- 연산별 · 지역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전남이 89.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산 6.8%, 울산 1.9% 등의 순이다. 특히 전남은 전복먹이용 생산 증가로 지속적인

4) 예전에는 11월~익년 1월의 미역 생산량이 전체의 10% 이내였으나, 최근에는 20%에 육박하고 있음. 이는 최근 들어 나물용 미역 외에도 전복먹이용 미역 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 그 외 부산은 전년산 대비 증가했으나, 울산과 기타 지역은 감소했다.

〈표 8-14〉 연산별 · 지역별 미역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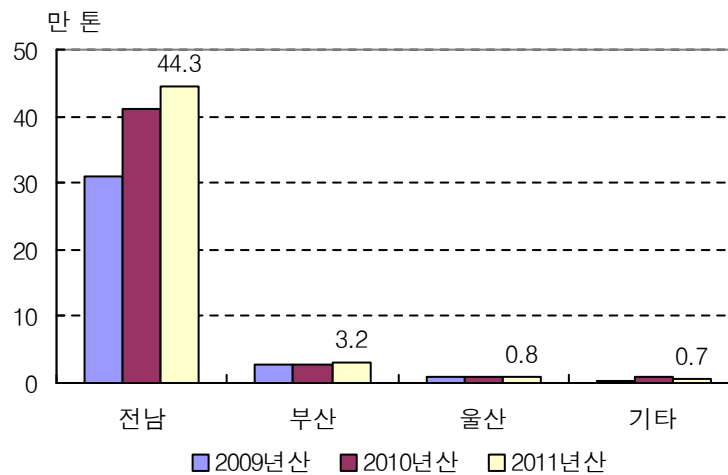
단위 : 톤, %

구 분	계	전남	부산	울산	기타
2009년산	348,337	308,443	27,635	7,912	4,347
2010년산	458,689	412,148	28,180	9,299	9,062
2011년산	489,800	443,272	31,905	7,874	6,749
점유율	100.0	89.7	6.8	1.9	1.6
전년산 대비	6.8	7.6	13.2	-15.3	-25.5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해조류 수산물관측」, 각 호.

- 한편 부산과 울산지역은 전국 생산량 대비 각각 6.8%, 1.9%에 불과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주로 마른가닥미역(재래식) 및 나물용 물미역이 생산된다.

〈그림 8-12〉 연산별 · 지역별 미역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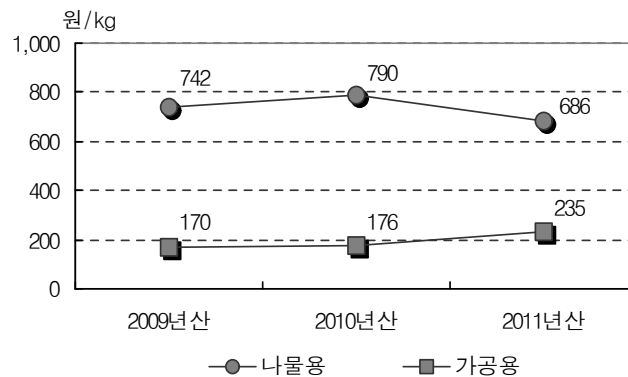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해조류 수산물관측」, 각 호.

2) 가격

(1) 산지가격

- 2011년산 미역 산지가격은 용도별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즉 나물용은 전년산 대비 하락했으나, 가공용은 상승했다.
- 미역은 생산시기에 따라 나물용과 가공용으로 구분된다. 11월부터 1월까지 생산되는 미역은 주로 나물용으로 이용되며, 2월 이후에 생산되는 미역은 주로 가공용으로 사용된다.⁵⁾
- 나물용은 2011년산 어기 초 및 중반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전년산 대비 13.2% 하락했다. 그에 반해 가공용 미역은 이 시기의 생산량 감소와 더불어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전년산 대비 33.4% 상승했다.

〈그림 8-13〉 연산별 · 용도별 미역 산지가격 추이



주 : 나물용은 11월~1월, 가공용은 2월~4월 산지가격을 말함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해조류 수산물관측」, 각 호

- 월별 미역 산지가격 동향을 보면, 2월까지의 전년산 대비 낮은 가격을 형성했으나, 4월에 급등했다. 이는 일본의 대지진 영향 때문이다.

5) 미역 용도를 크게 식용과 전복먹이용으로 그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함. 이는 미역 품종의 차이가 아니라 시설방법 및 시설구조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미역 생산자가 식용으로 판매하느냐, 먹이용으로 판매하느냐에 따라 구분됨. 식용은 또 다시 그 용도에 따라 나물용과 가공용으로 구분되는데, 나물용은 생미역 상태로 먹는 것을 말하며, 가공용은 마른미역으로 가공하여 주로 미역국용이나 식품첨가제 등으로 판매되는 것을 말함

〈표 8-15〉 연산별 · 월별 미역 산지가격 동향

단위 : 원/k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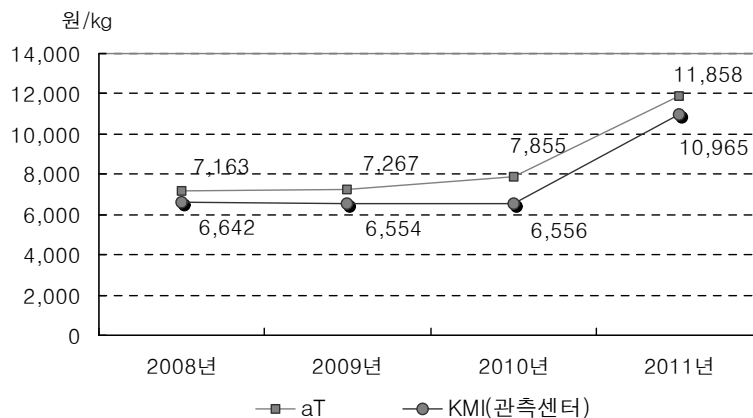
구 분	나물용			가공용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2009년산	-	1,084	401	170	170	170
2010년산	1,285	585	500	178	175	176
2011년산	1,150	550	358	175	175	355
전년산 대비	-10.5	-5.9	-28.5	-1.9	0.0	102.3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해조류 수산관측」, 각 호.

(2) 도매가격

- 2011년 마른실미역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대폭 상승했다.
- 2011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조사한 도매가격은 kg당 11,858원으로 전년 대비 51.0% 상승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의 조사 가격도 전년 대비 67.3% 상승한 10,965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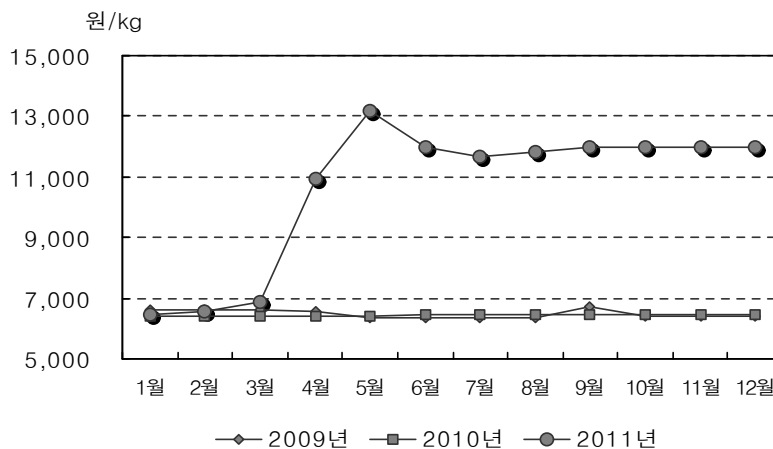
〈그림 8-14〉 연도별 마른실미역(上品) 도매가격 추이



주 : KMI 마른실미역 도매가격 조사는 2008년 7월부터 시작했음. 따라서 2008년 자료는 7월~12월까지 도매가격의 평균치를 이용했음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각 연도

- 이러한 마른실미역 도매가격은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미역 수요가 급증했고,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미역 품귀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2011년 4월 이후 급등한 도매가격이 연말까지 이어졌다.
- 월별 도매가격을 보면, 2011년 4월과 5월에 마른실미역 도매가격이 급상승했으며, 6월 이후에도 높은 가격이 연말까지 지속되고 있다.
 - 2011년 4월과 5월에 마른실미역 도매가격이 급등한 것은 일본 대지진 이후 미역 수요의 급증에 따른 것이다.
 - 또한 2011년 하반기까지도 미역 도매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졌는데, 이는 하절기 이후 마른실미역 거래가 주춤하는 시기이므로 미역 거래가 거의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한편 2012년산 물미역이 생산되는 2011년 11~12월에도 마른실미역 도매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이 시기에는 나물용이나 전복먹이용 위주의 생산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림 8-15〉 월별 마른실미역(上品)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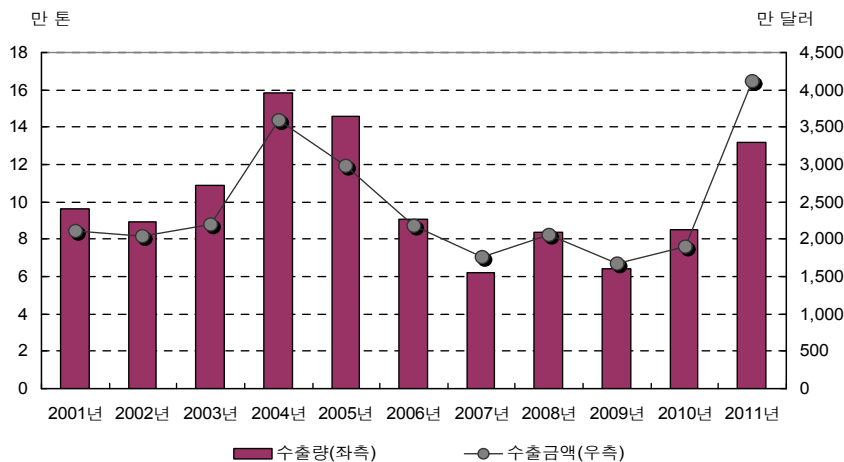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3) 수출입

(1) 수출

- 최근 미역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1년 미역 수출액은 4천만 달러를 돌파하여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 최근 10년간의 미역 수출 추이를 보면, 2004년 15만 8,407톤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다가 2007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2011년에는 13만 1,965톤이 수출되어 전년 대비 54.6% 증가했으며, 수출 금액은 4,108만 달러로 전년보다 115.8% 증가했다.
- 이러한 미역 수출 증가는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 영향이 가장 컸다.

〈그림 8-16〉 연도별 미역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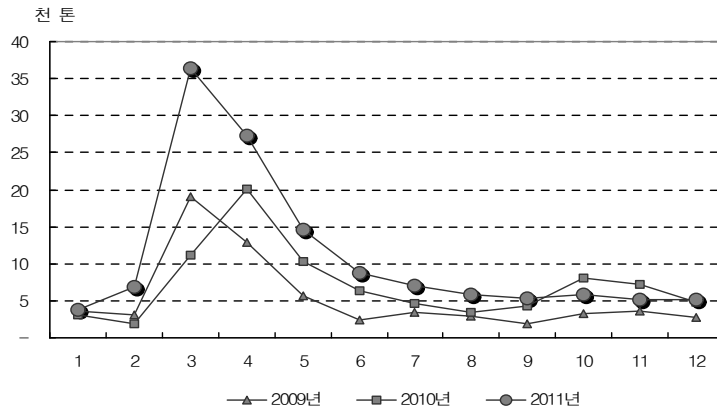


주 : 원초 기준으로 환산(마른미역은 25배, 염장(간)미역 및 기타 제품은 5배의 수율을 적용)한 수치이며, 2011년은 추정치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 연도.

- 월별 미역 수출 추이를 보면, 주 수출 시기가 3~5월인데, 이는 2~3월에 생산되는 가공용 미역의 수출이 많기 때문이다. 2011년의 경우 3월 이후 미역 수출이 급증한 것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일본의 대지진 영향이 가장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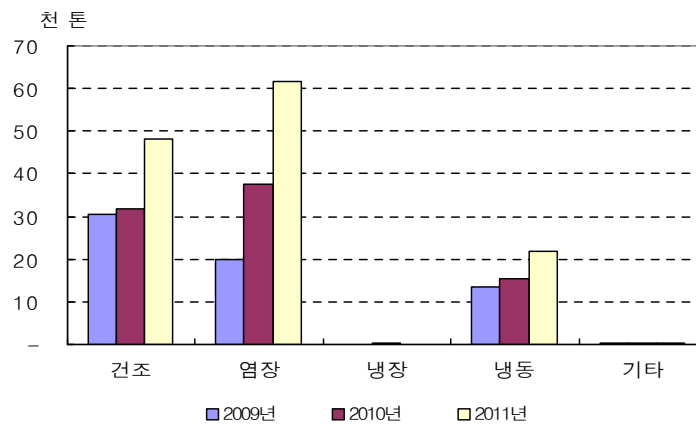
〈그림 8-17〉 월별 미역 수출량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 연도.

- 수출되는 미역 제품은 마른미역, 염장미역, 냉장미역, 냉동미역 및 기타 등이다. 최근 3년 평균 염장미역 수출 비중이 전체의 42.2%로 가장 많고, 다음은 마른미역이(39.2%), 냉동미역(18.1%) 순이다.
- 2011년 염장미역 수출량은 6만 1,588톤으로 전년 대비 64.4% 증가했으며, 마른미역은 50.8%, 냉동미역은 16.5%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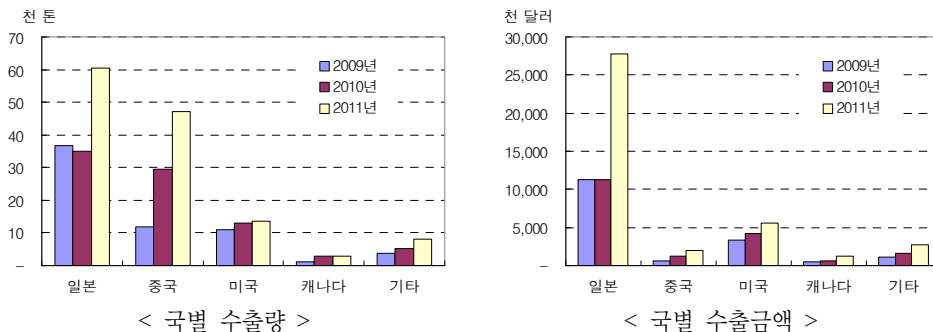
〈그림 8-18〉 미역 제품별 수출량 추이



주 : 원초 기준으로 환산(마른미역은 25배, 염장(간)미역 및 기타 제품은 5배의 수율을 적용)한 수치이며, 2011년은 11월까지의 누계치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 연도.

- 제품별 수출금액은 마른미역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냉동미역, 염장미역 순이다.
 - 2011년 기준 마른미역 수출금액은 2,043만 달러로 전체의 49.7%였으며, 냉동미역은 25.0%(1,026만 달러), 염장미역 24.1%(989만 달러)이었다.
 - 전년 대비 증가폭은 냉장미역이 150.3%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는 염장미역(118.5%), 마른미역(106.1%) 순이다.
- 한편 미역 수출대상국별로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전체의 46.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중국(31.4%), 미국(13.3%) 등의 순이다. 반면 수출금액으로는 일본이 67.2%로 가장 많고 다음은 미국(17.5%), 중국(5.1%) 등의 순이다.
 - 즉 수출물량은 중국이 일본에 이어 2위이나 수출금액으로는 미국에 이어 3위에 해당된다. 이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미역은 대부분 마른미역보다 가격이 저렴한 염장미역이기 때문이다.
 - 또한 중국으로 수출되는 미역은 가공을 위한 원료의 수출이 많기 때문에 수출단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림 8-19〉 미역 수출대상국별 수출량 및 수출금액



주 : 원초 기준으로 환산(마른미역은 25배, 염장(간)미역 및 기타 제품은 5배의 수율을 적용)한 수치이며, 2011년은 11월까지의 누계치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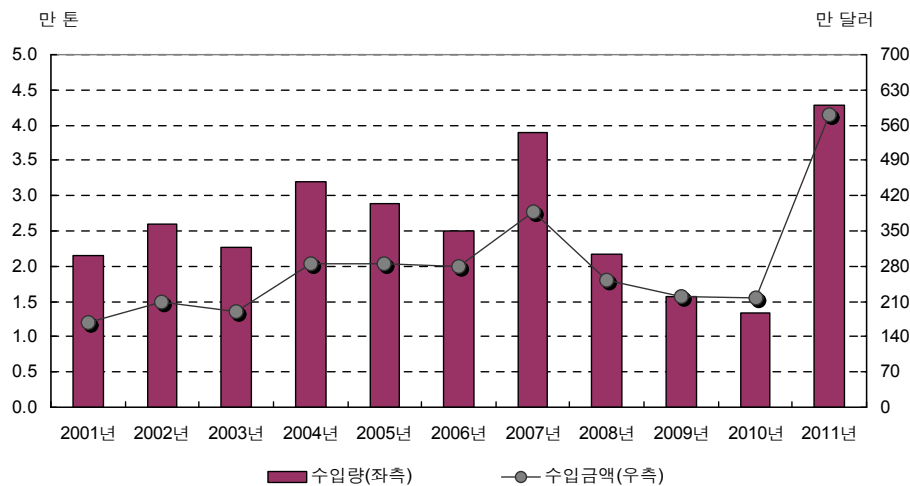
- 2011년 국별 수출 추이를 보면, 모든 국가의 수출량 및 수출금액이 증가했다. 그 중 수출량은 일본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수출금액 측면에서는 일본으로의 수출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

- 일본으로의 수출 증가는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일본측 수입바이어들의 주문이 많아 수출물량뿐만 아니라 수출 단가의 상승으로까지 이어졌다.

(2) 수입

- 2000년대 초·중반기의 미역 수입은 연도별로 등락을 반복했고, 2007년 이후에는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2011년에는 수입량이 급증했다.
- 2011년 미역 수입량은 4만 2,897톤으로 전년 대비 3.2배나 증가했으며, 수입금액도 582만 달러로 2.7배 증가했다. 그러나 수입량은 수출량의 1/3, 수입금액은 수출금액의 1/7 수준이다.
- 미역 수입 국가로는 중국과 일본에서 대부분을 수입한다. 그 중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량이 전체의 96.7%이며, 일본은 3.3%를 점유한다.⁶⁾
-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중국이 94.8%, 일본이 5.2%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8-20〉 연도별 미역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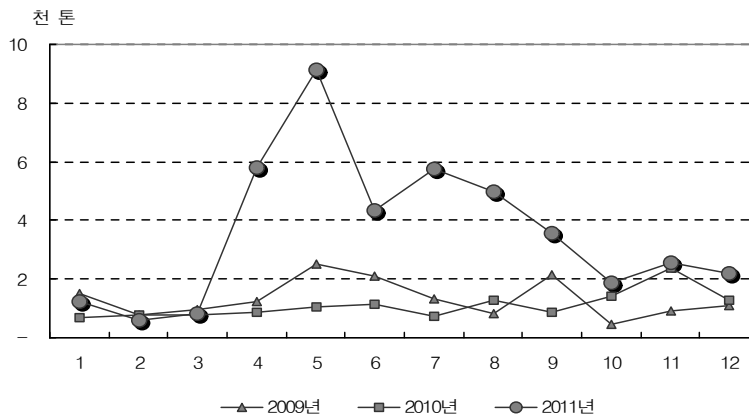
주 : 원초 기준으로 환산(마른미역은 25배, 염장(간)미역 및 기타 제품은 5배의 수율을 적용)한 수치이며, 2011년은 추정치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 연도.

6) 최근 10년간(2002~2011년)의 미역 수입량을 기준으로 한 것임

○ 월별 미역 수입량을 보면, 예년에는 연중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1년에는 4월에서 9월까지 수입량이 예년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 월별 미역 수출량 추이도 같은 시기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일본 대지진 이후 미역 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로 국내의 일부 도매시장 및 미역 가공공장에서는 미역 품귀현상이 발생했다.
- 이렇듯 2011년 미역 수입량이 급증한 것은 미역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뿐만 아니라 가공단가의 차이로 가공용 원료로 수출된 미역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림 8-21〉 월별 미역 수입량 추이



주 : 원초 기준으로 환산(마른미역은 25배, 염장(간)미역 및 기타 제품은 5배의 수율을 적용)한 수치이며, 2011년은 추정치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 연도.

3. 2012년 미역 수급전망

1) 생산

- 2012년산 미역 생산량은 2011년산보다 5~7% 감소한 47만~48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1년산 미역 작황은 예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2012년산 어기 초 미역 작황은 이상 고온 및 해적생물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한 상태이다. 특히 2011년 10월~11월 어린 엽체의 고사로 재시설 또는 보식을 실시한 어가가 많은 상황이다.
 - 따라서 2012년산 미역 생산량은 전년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년산 미역 시설이 전년산보다 늘었고, 전복먹이용 시설 및 생산 증가가 예상되므로 감소폭은 5~7%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가격

- 2012년산 미역 산지가격은 전년산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1년산 미역 산지가격은 나물용의 경우 전년산에 비해 낮았고, 4월에 생산된 가공용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즉 일본 대지진에 따른 미역 수요 증가의 영향이 2011년산 산지가격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 2012년산 나물용 물미역 가격은 어기 초 미역 작황부진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역 수출수요가 2011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겠으나,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용 미역 산지가격도 전년산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산지가격과 달리 마른실미역 도매가격은 대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예년 보다는 높은 수준의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1년 마른실미역 도매가격은 2011년 3월 이후 급등한 가격이 연말까지 유지되었다. 이는 수요가 꾸준히 있어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 도매시장 거래가 감소했기 때문이며, 가격의 하방경직성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

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가공용 미역이 생산되어 햇미역 마른실미역 거래가 본격화되는 2월 이후에는 마른실미역 도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수출

- 2012년 미역 수출량은 전년 대비 20~25% 감소한 9만 9,000톤 ~ 10만 6,000톤⁷⁾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1년에 미역 수출이 급증한 것은 국내 미역 생산량 증가보다 일본의 대지진 영향으로 미역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역 수출 수요가 2011년 중반기까지 이어져 연간 미역 수출량이 급증하게 되었다.
 - 2012년에는 이러한 미역 수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일본 내 미역 재고가 상당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수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1년에는 가공용 원료 수출이 많은 중국으로의 미역 수출도 증가했는데, 이 양도 2012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2년 미역 수입량은 전년보다 35~40% 감소한 2만 6,000톤 ~ 2만 8,0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1년에는 미역 수출 증가와 함께 수입도 급증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수출 감소가 예상되며, 그에 따라 가공 후 수입되는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역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그 양은 예년보다는 많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4) 소비

- 미역은 일반적인 소비행태로 볼 때, 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품목이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품귀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수급 동향을 보였다.

7) 수출되는 미역 종류는 마른미역, 냉동 및 냉장미역, 염장미역 등이 있는데, 본고에서 제시하는 미역 수출입량은 이를 물미역으로 환산한 수치임. 따라서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하는 미역 수출량과는 차이가 있음

- 그러나 2012년에는 미역 수급 상황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소비량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8-16〉 2012년 미역 수급 전망

단위 :톤, %

구 분	2009	2010	2011	2012(전망)
< 공급량 >	364,117	472,008	532,697	496,000~508,000
-생산량	348,337	458,689	489,800	470,000~480,000
-수입량	15,780	13,319	42,897	26,000~28,000
< 수요량 >	364,117	472,008	532,697	496,000~508,000
-소비량	299,666	386,664	400,732	397,000~402,000
-수출량	64,451	85,344	131,965	99,000~106,000

주 : 1) 생산량은 연산 기준임.

2) 2011년까지는 추정치이며, 2012년은 전망치임.

3) 수출입량은 물미역으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 연도.

제9장 어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1. 광어 수급동향과 전망

김수현*

목 차

- | | |
|------------------|-------------|
| 1. 서론 | 3. 2012년 전망 |
| 2. 2011년 넙치 수급동향 | 1) 생산 |
| 1) 생산 | 2) 가격 |
| 2) 가격 | 3) 수출입 |
| 3) 수출 | 4) 소비 |

1. 서론

- 광어양식산업에 있어 2011년은 길(吉)보다는 흉(凶)이 많았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 생산측면에서는 연초 저수온과 폭설 피해로 인해 성장이 부진했으며, 그 영향이 연말까지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경험한 생산자들이 이번 겨울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가을철 입식을 극도로 꺼려 입식량이 감소하였다.
- 수요측면에서는 3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로 수요가 감소했으며, 하반기에도 경기부진으로 감소된 수요가 쉽게 회복되지 못한 채 한해를 마감하였다.

* 연구원

- 또한 최근 몇 년간 기승을 부리던 폐사도 더욱 증가하고 있고, 활어 수출 차량 화재로 수출 물류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일본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활어 위생 문제, 수요 감소로 수출량 또한 20% 이상 감소하였다.
- 그 결과 연초 상승하던 어가는 4월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며, 대형어 양성물량이 점차 누적되고 있는 반면, 소형어는 예년보다 극히 적어 양성물량 불균형 현상이 커지고 있다.
- 2012년 또한 경기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지 못하고 어가 약세 추세가 상반기에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형어 양성량이 적어 하반기에 출하가능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 반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따라 2012년 출하는 2011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은 현재와 같은 부진한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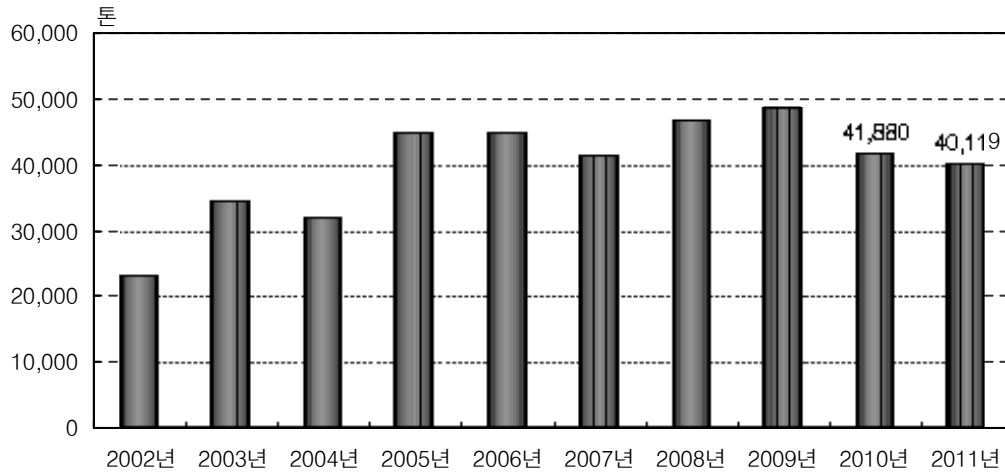
2. 2011년 수급동향

1) 생산

(1) 연도별 생산동향

-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양식광어 출하량은 2010년 그 성장세가 꺾여 4만 톤 대 초반에서 정체하고 있다.
- 이러한 현상은 2011년에 더욱 고착화 되었는데, 상반기에는 3월 일본 지진으로 발생한 원전 방사선 유출사건의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수요 회복 조짐을 보이던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요가 증가하지 못했다.
- 이에 따라 2011년 광어 출하량은 4만 119톤으로 전년에 비해 4.2% 줄었으며, 4만 8,600톤이 생산된 2009년 이후 두해 연속 출하가 감소하였다.

〈그림 9-1〉 광어의 연도별 생산량 추이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2002~200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2006~2011)

(2) 월별 생산동향

- 2010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출하량은 2011년 2월부터 다시 감소했으며, 일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3월에도 일본에서 발생한 원전사태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출하부진이 상반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림 9-2〉 광어의 월별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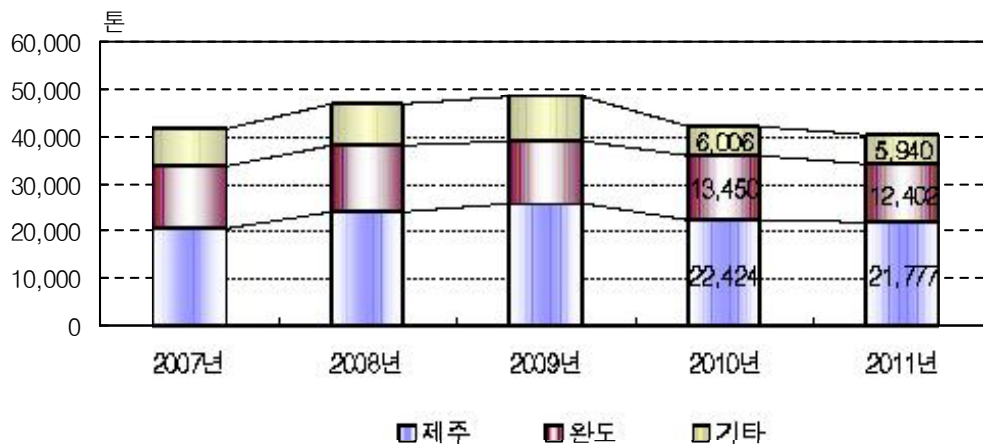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각 연도.

- 비수기인 8월에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수요는 예년 수준을 밑돌았다.
- 이에 따라 연말 성수기 출하를 제외한 통상적인 출하량 증가시기인 봄, 가을 행락철 출하는 예년과 같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12월 출하량도 예년 보다 900톤가량 적은 3,940톤에 그쳤다. 그러나 통상적인 출하 비수기인 7, 8 월에는 출하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3) 지역별 생산동향

- 최근 5년간 광어의 지역별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제주지역은 생산량과 점유율이 모두 증가하는 반면, 완도와 기타지역은 생산량이 정체하면서 생산량 점유율은 낮아지고 있다.

〈그림 9-3〉 광어의 지역별 생산량 추이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2007~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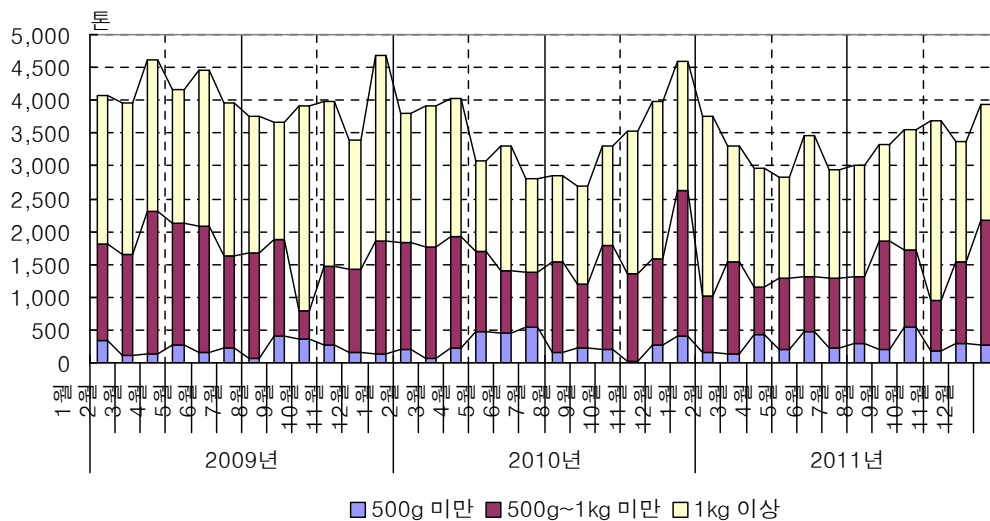
- 2011년에는 모든 지역의 출하량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제주는 전년 대비 2.9% 감소한 2만 1,777톤이 출하되었으며, 완도는 7.8% 감소한 1만 2,402톤 이, 기타지역은 1.1% 감소한 5,940톤이 출하되었다.

- 이러한 추세는 2012년에도 이어져 제주지역 생산량 점유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제주지역 양식면적이 2011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 크기별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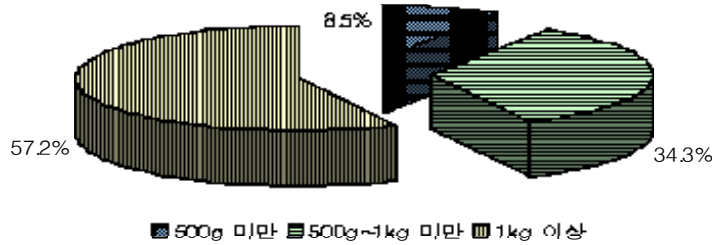
- 크기별 출하량은 1kg 이상 크기가 전체 출하량의 57.2%인 2만 2,952톤이었으며, 500g~1kg 크기는 34.3%인 1만 3,768톤이었다. 500g 미만 크기의 출하량은 전체의 7.1%인 3,097톤이 출하되었다.
- 크기별 출하량 추이를 보면 500g~1kg 크기는 전년에 비해 18.4% 감소한 반면, 나머지 크기는 5%가량 증가했다.
- 이는 입식된 치어의 폐사 증가로 중형어 양성량이 부족하여 이 크기 출하를 줄이고 대형어 출하를 늘렸기 때문이다.

〈그림 9-4〉 광어의 크기별 생산량 추이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각 연도.

〈그림 9-5〉 2011년 광어의 크기별 생산비중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5) 입식 및 양성동향

① 입식동향

- 2011년 광어 입식량은 예년보다 9%가량 적은 5,860여만 마리였다. 상반기에는 예년과 비슷한 5,200여만 마리가 입식되었으나, 하반기 입식이 부진하여 전체 입식량은 감소하였다.
- 특히 완도지역의 경우 작년 겨울 저수온 현상으로 가을에 입식한 치어의 성장 부진을 경험한 바 있다. 이들 어가들이 올해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2011년 가을 입식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 한편 치어의 폐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초기 종묘보다는 중간종묘를 입식하고자 하는 어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9-1〉 광어의 입식물량 동향

단위 : 만 마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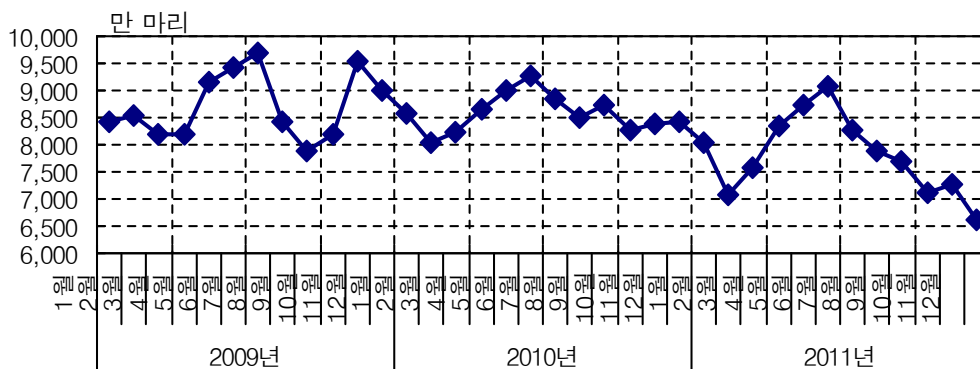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9	입식량	698	542	703	1,054	1,538	1,888	680	213	1,006	1,077	553	310	10,262
	비 중	6.8	5.3	6.8	10.3	15.0	18.4	6.6	2.1	9.8	10.5	5.4	3.0	100.0
2010	입식량	648	561	428	868	620	1,552	136	363	611	744	1,168	500	8,199
	비 중	7.9	6.8	5.2	10.6	7.6	18.9	1.7	4.4	7.5	9.1	14.2	6.1	100.0
2011	입식량	504	264	750	1,170	1,536	998	177	329	368	828	885	290	8,099
	비 중	6.2	3.3	9.3	14.4	19.0	12.3	2.2	4.1	4.5	10.2	10.9	3.6	100.0

자료 : 상계서.

② 양성 동향

- 월별 양성물량 추이를 보면 2011년에도 주입식기인 4~6월 양성물량이 다른 달에 비해 많았다.
- 현재의 양성량은 작년 동월 및 최근 3년 평균 양성물량에 비해 각각 21.7%, 22.6% 적은 수준이다.
 - 이는 2011년 입식량도 예년에 비해 적었고, 치어 폐사 또한 증가하여 500g 미만 크기 양성 물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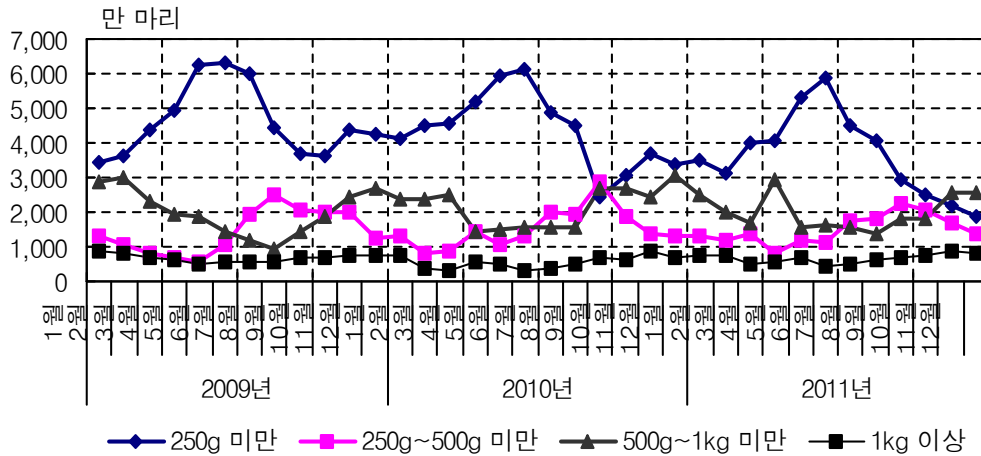
〈그림 9-6〉 광어의 총 양성물량 추이



자료 : 상계서.

- 크기별 양성물량을 살펴보면 소형어는 최근 3년 평균 물량에 비해 적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중형어와 대형어는 최근 3년 평균 물량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 500g~1kg 크기와 1kg 이상 크기의 경우는 최근 3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2012년에도 전년 말과 같이 수요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단기적 물량 압박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출용으로 양성되다 수출 부진에 따라 내수로 전환되는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반기에는 출하의향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9-7〉 광어의 크기별 양성물량 추이



자료 : 상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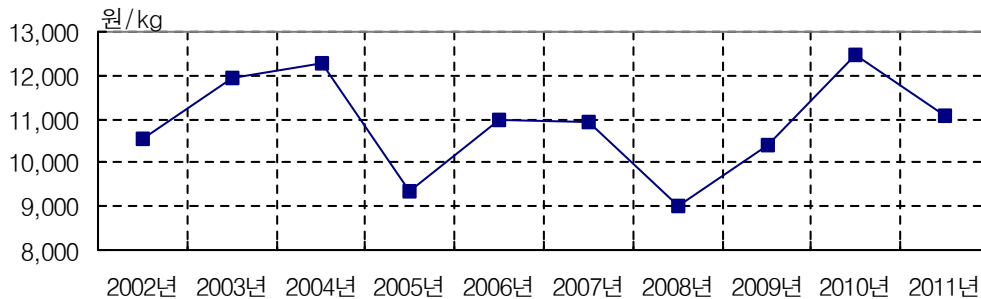
- 500g 이하 크기의 경우 2011년 입식량도 예년에 비해 9%가량 적었고, 치어 폐사도 증가하여 양성 물량이 최근 3년 평균 물량 대비 37.6% 적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이는 현재 양성되고 있는 중간종묘의 입식이 올 초반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2년 가을철 이후 출하물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2) 가격

(1) 연도별 가격동향

- 광어의 가격은 2~3년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0년 가격은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2011년에는 평년 수준을 보였다.
- 그러나 치어 폐사 증가, 사료비 인상, 각종 비용 증가로 인한 원가 상승 요인이 많고, 출하량도 감소하여 전반적인 경영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그림 9-8〉 연도별 광어 가격 추이



주 : 제주지역 1kg크기 기준 가격

자료 : 제주어류양식수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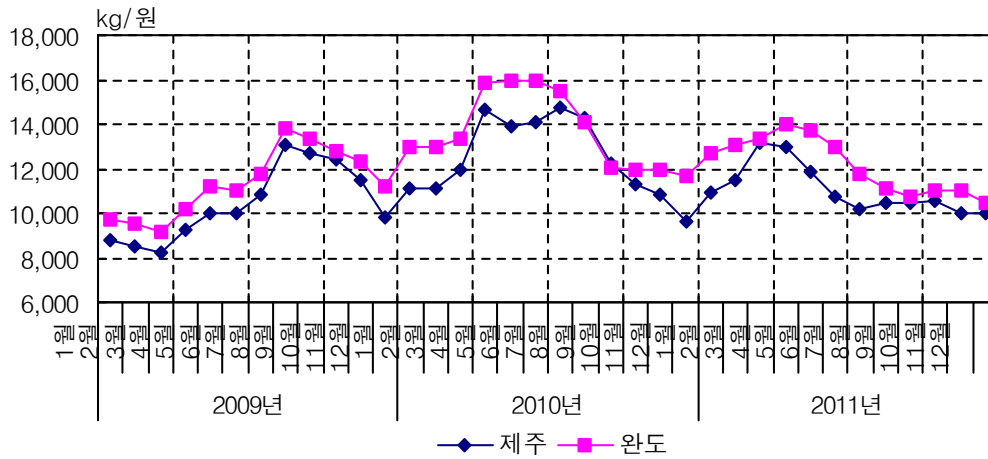
- 2011년에는 상반기 원전 방사선 유출, 하반기 경기침체 등으로 전반적인 수요가 부족하여 전년에 비해 11.4% 가격이 하락했다.

(2) 월별 · 지역별 · 크기별 가격동향

① 월별 · 지역별 가격동향

- 일반적으로 광어의 월별 가격 패턴은 봄철 상승, 여름철 하락, 가을철 반등, 겨울철 하락으로 정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패턴이 변화되고 있다.
 - 2009년과 2010년에는 예년에 보였던 월별 가격 변화 패턴과 달리 가격이 하락하는 여름철에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 2011년 광어 가격은 상고후저 현상을 보였다. 이는 연초 중형어 양성량이 예년보다 적어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출하물량 압박을 겪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따른 것이다.
 - 그러나 하반기에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가 예상되면서 가격은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제주지역 1kg 크기를 기준으로 3월 kg당 13,000원 대를 고점으로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11월에는 kg당 10,000대 이하로 가격이 형성되었다.

〈그림 9-9〉 광어의 월별·지역별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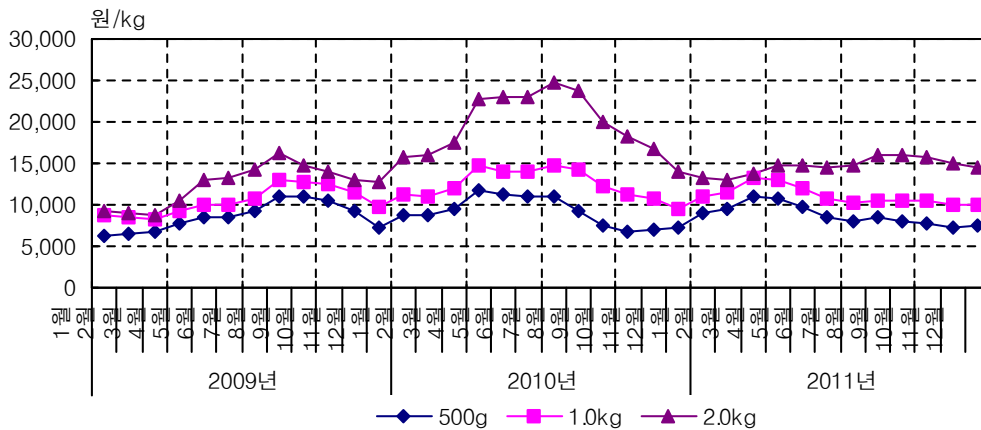
주 : 1kg크기 기준 가격임

자료 : 각 지역 어류양식수협

② 월별·크기별 가격동향

- 2011년 크기별 월별 가격은 2kg 크기를 제외하고는 연초의 강세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kg 크기의 경우는 여름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추석 이후 하락하였다.

〈그림 9-10〉 제주지역 광어의 월별·크기별 가격 동향



자료 : 제주어류양식수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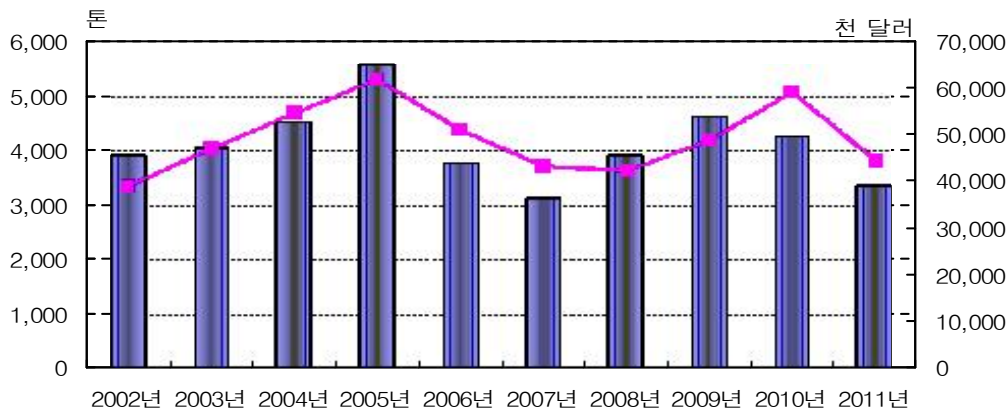
- 이는 2kg 크기 대형어 양성량이 여름까지 예년에 비해 적은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수 감소 및 수출 부진에 따른 물량 누적이 지속되면서 2kg 크기 물량이 늘어난 가을부터 가격은 점차 하락하였다.

3) 수출

(1) 연도별 수출동향

- 최근 증가했던 광어 수출량은 2010년에 산지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2011년에는 3,349톤 금액으로는 4,455만 달러가 수출되었다. 이는 물량으로는 21.5%, 수출금액으로는 24.7%가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 국내가격 하락에 따라 kg당 원화 환산 가격이 전년에 비해 8.0%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활광어 수출이 이처럼 감소한 것은 일본 원전 사고, 일본 내 활어 위생 문제 및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9-11〉 연도별 광어 수출동향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수출입통계」, 각 연도.

- 국가별로는 총 11개국에 수출되었는데, 그간 수출이 되지 않았던 인도네시아가 수출 대상국이 되었다. 전체 물량의 93.3%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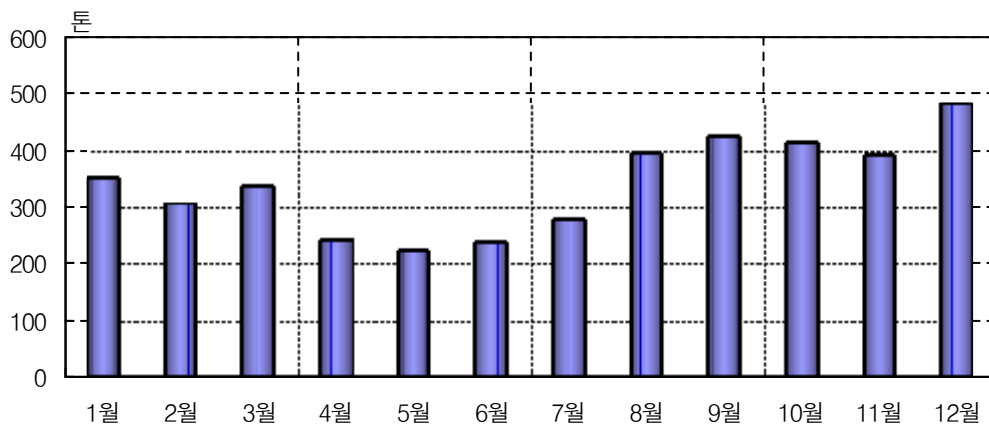
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5.9%였다.

- 이에 따라 일본으로의 수출 물량 쏠림 현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미국 수출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2) 월별 수출동향

- 예년과 마찬가지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수출물량이 많았는데, 전체 물량의 56.3%가 하반기에 수출되었다.
- 이는 일본산 광어의 생산시기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수요가 많은 일본의 추석 명절인 오봉(お盆)과 연말 활어 소비 성수기에 한국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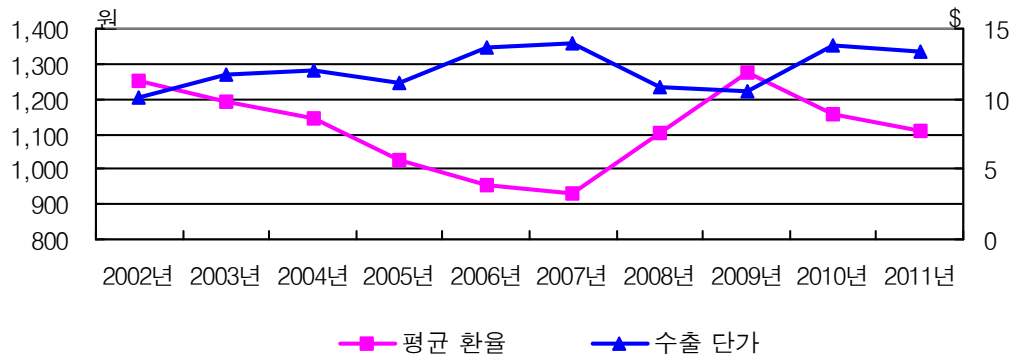
〈그림 9-12〉 최근 3년간 월별 평균 광어 수출량 추이



자료 : 상계서.

- 또한 2011년에도 전년에 비해 원화 환율 강세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수출 감소세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그림 9-13〉 연도별 환율 및 수출 단가 추이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3. 2011년 전망

1) 생산

- 2010년 12월 기준 양성물량은 예년에 비해 약 20% 적은 수준이다.
- 전체 양성량은 예년보다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중·대형어 양성량은 예년 수준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사이즈 이상 물량은 적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출하 의향 자체는 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9-2〉 광어 양성량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2011	3년 평균	전년 동월 대비	3년 평균 대비
	12월	12월	12월	12월			
합계	8,377	8,795	8,434	6,606	8,535	-21.7	-22.6
250g 미만	3,341	3,832	3,393	1,866	3,522	-45.0	-47.0
250g~500g 미만	1,883	1,764	1,292	1,361	1,646	5.3	-17.3
500g~1kg 미만	1,963	2,586	3,082	2,573	2,544	-16.5	1.2
1kg 이상	1,190	613	667	806	823	20.8	-2.1
500g 미만 양성물량	5,224	5,596	4,685	3,227	5,168	-31.1	-37.6
500g 이상 출하 가능량	3,153	3,199	3,749	3,379	3,367	-9.9	0.4
6개월 이내 출하 가능량	5,036	4,963	5,041	4,740	5,013	-6.0	-5.5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각 연도.

- 그러나 250~500g 크기 물량이 최근 3년 평균 대비 17.3% 적은 수준이며, 250g 크기 이하 물량도 40% 이상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2012년 가을 이후 양성물량 부족으로 출하가 감소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 한편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 금년 상반기 총선의 영향으로 수요는 최근 3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하반기에도 경기침체 추세가 다소 회복되기는 하겠으나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수요는 큰 폭으로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따라 2012년 출하는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양성물량이 적어 발생하는 출하량 부족 현상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2012년 생산량은 2011년보다 감소한 3만 6,000~3만 9,0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가격

- 2012년 광어가격은 상반기 약세, 하반기 상승 반전이 전망된다.
 - 연초에는 양성물량이 많은 대형어의 출하 의향이 가운데, 수요가 적어 가격의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대형어 양성물량이 적어지면서 출하물량이 점차 적어져 가격은 상승 반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2012년 평균 광어가격은 2011년 kg당 11,000원대보다 소폭 하락한 kg당 10,000~10,500원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3) 수출입

- 국내 광어 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2011년 광어 수입은 없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2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2012년 수출은 현재의 경쟁력 우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기 회복, 특히 일본과 미국의 경제상황은 수출에 여전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광어 가격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은 무척 강화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2012년 봄철 이후 수출량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수출량은 2011년보다는 소폭 감소한 3,200~3,300톤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4) 소비

- 광어의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 그리고 수출량을 고려해 볼 때, 2012년 광어의 국내 소비량은 대략 3만 2,800톤~3만 5,700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표 9-3〉 2012년 광어의 국내 소비량 추정

단위 : 톤, %

구분		2011	2012	전년 대비 증감
공급	국내 생산량	40,119	36,000~39,000	-10.3~-2.8
	수입량	0	0	-
수요	국내 소비량	36,770	32,800~35,700	-10.8~-2.9
	수출량	3,349	3,200~3,300	-1.4~-1.5

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치임

II. 우럭 수급동향과 전망

박태경*

목 차

- | | |
|------------------|-------------|
| 1. 서론 | 3. 2012년 전망 |
| 2. 2011년 우럭 수급동향 | 1) 생산 |
| 1) 생산 | 2) 가격 |
| 2) 가격 | 3) 수출입 |
| 3) 수입 | 4) 소비 |

1. 서론

- 1980년대 중반에 우럭의 인공종묘생산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양식산업 또한 급격히 발전하게 되었으며, 출하량 또한 해마다 크게 늘어 2007년을 전후로 3만 톤 이상의 출하량을 유지했다.
- 가장 많은 출하량을 기록했던 2007년을 기점으로 출하량은 점차 감소하여 2011년에는 연간 2만 7천 톤가량이 출하되었다.
- 2011년에는 경기부진과 일본 원전사고 등에 의해 수요가 크게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우럭의 가격 또한 크게 감소했다. 또한 연말에는 김정일 사망으로 각종 회식이 취소되는 등 활어회 소비 수요가 크게 감소한 한 해였다.
-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가격 또한 하락했으며, 출하가 부진하여 물량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2011년 수입량은 269톤으로 2010년에 비해 51%가량 적은 수준이며, 이는 2001년 이후로 가장 적은 물량이다.

* 위촉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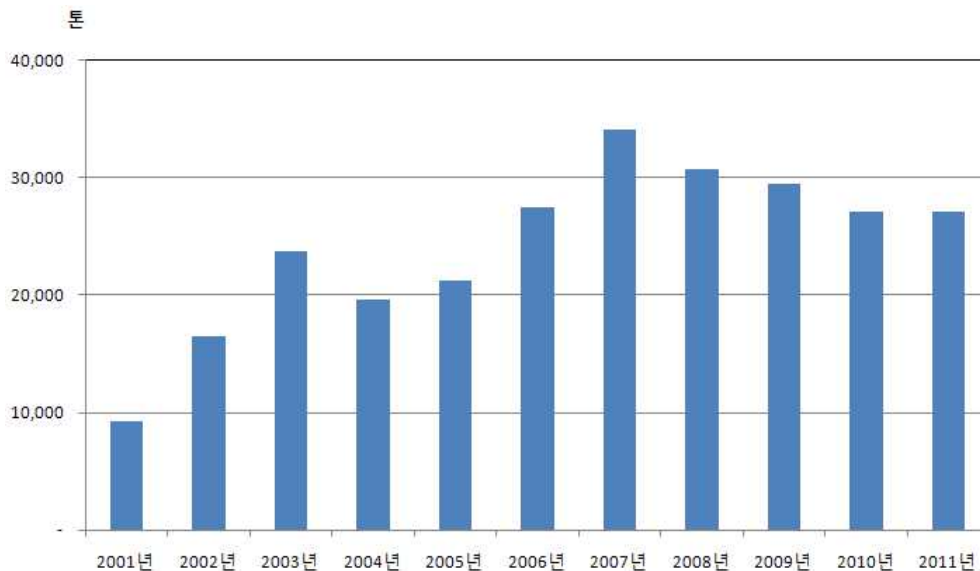
2. 우럭 수급동향

1) 생산

(1) 연도별 출하동향

- 우럭의 출하량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여 2007년에 3만 4천여 톤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1년에는 2만 7천 톤가량이 출하되었다.
- 2011년 출하량은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양식어가들 중 다른 품목으로 전환하는 어가들이 늘면서 전체 양식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경기부진과 일본 원전사고 등에 의해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출하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림 9-14〉 우럭의 연도별 출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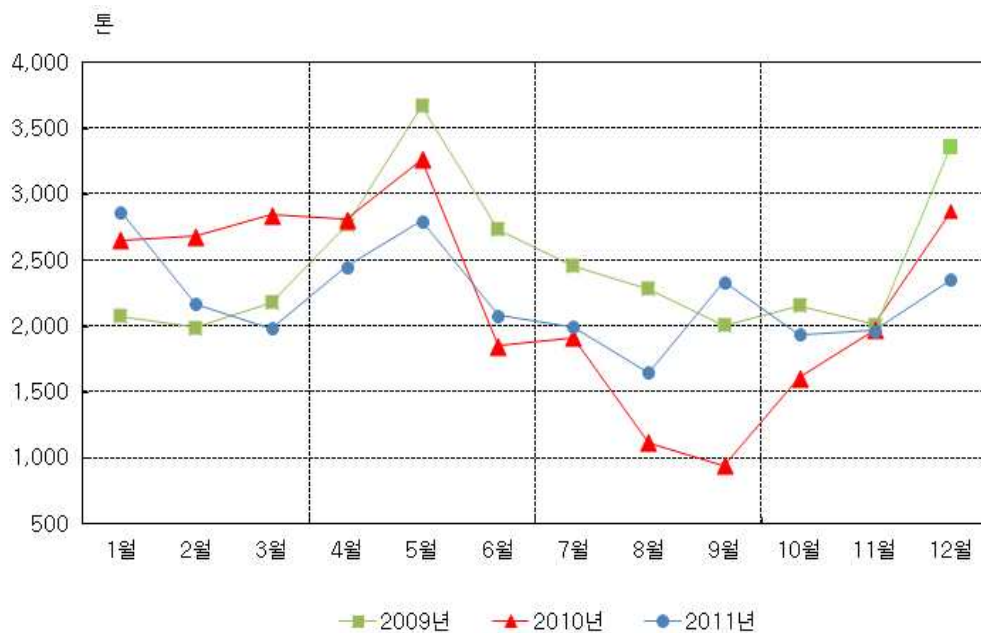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2007~2011년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2) 월별 출하동향

- 2011년 우럭의 월별 출하물량은 계절에 따라 증감하던 패턴을 벗어나 연중 고르게 분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예년에는 입식을 위한 가두리 확보와 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봄철에 가장 많은 물량을 출하하고, 여름에는 출하가능물량 부족 및 수요 감소로 인해 물량이 크게 줄었다가 가을을 지나면서 연말에 이르기까지 출하물량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 그러나 2011년의 월별 출하물량을 보면 예년의 출하패턴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봄과 여름의 출하물량 편차가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러한 월별 출하패턴의 변화는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심리위축, 세계적인 경기 부진과 더불어 일본 원전사고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 출하되는 봄철의 활어 수요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림 9-15〉 우럭의 월별 출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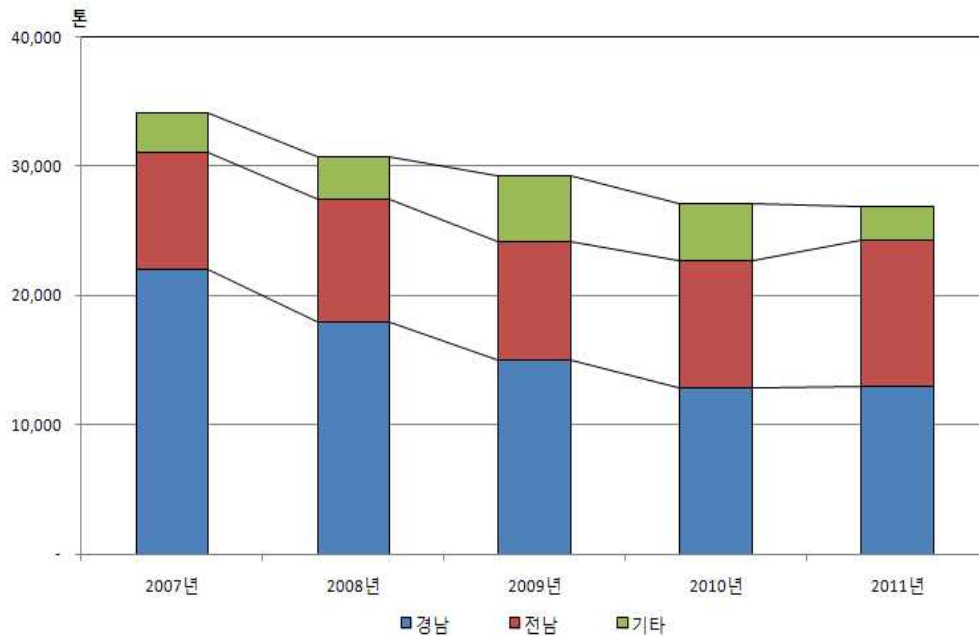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3) 지역별 출하동향

- 최근 5년간 우럭의 지역별 출하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경남지역은 출하량과 출하량 점유율 모두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다 2011년에는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전남지역은 출하량이 점차 늘고 있으며, 기타지역은 2009년을 기점으로 출하량이 감소해 2011년에는 가장 적은 물량이 출하되었다.
- 2011년의 지역별 우럭 출하비중은 경남 48.5%(1만 3,017톤), 전남 41.7%(1만 1,206톤)로 2007년(각각 64.7%, 26.5%)에 비해 격차가 크게 줄었으며, 기타지역은 9.8%(2,622톤)로 2007년(8.8%) 대비 소폭 증가했다.
- 한편 2010년 대비 출하물량은 경남이 1.2%, 전남은 13.9% 증가했으며, 기타지역은 39.7% 감소했다.

〈그림 9-16〉 우럭의 지역별 출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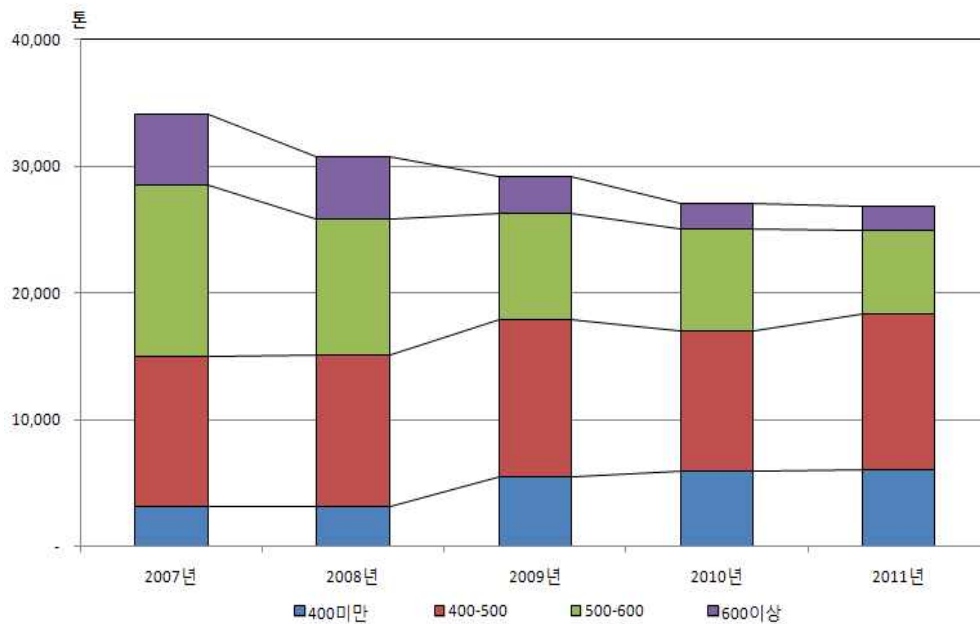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4) 크기별 출하동향

- 일반적으로 우럭의 출하가능 크기는 350g 이상부터로 보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형어의 출하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2000년대 초반 하더라도 우럭의 주 출하크기는 500g에서 1kg까지 대형어 위주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400~500g 크기가 주 출하크기로 자리 잡았다.
- 또한 최근 들어서는 400g 미만의 작은 크기 출하물량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사료가격 상승 등 경영압박으로 빠른 자금 순환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며, 우럭 가격 상승은 큰 크기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 이에 따라 주로 경남지역에서 작은 크기의 출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이는 큰 크기 물량부족의 원인이 되면서 경남지역의 출하물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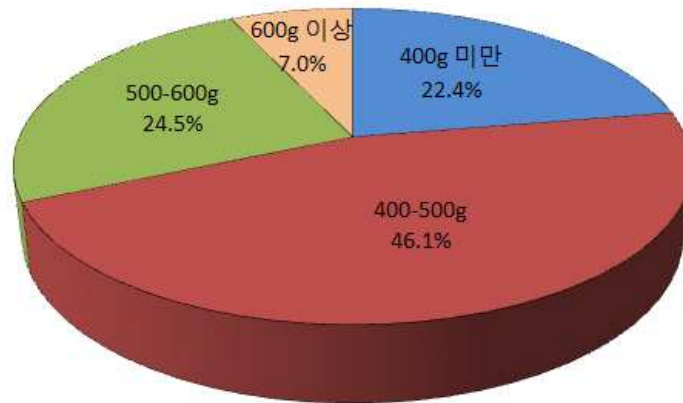
〈그림 9-17〉 우럭의 크기별 출하량 추이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 한편, 2011년의 크기별 출하량은 400~500g 크기가 4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0~600g(24.5%), 400g 미만(22.4%), 600g 이상(7.0%) 순이었다.

〈그림 9-18〉 2011년 우럭의 크기별 출하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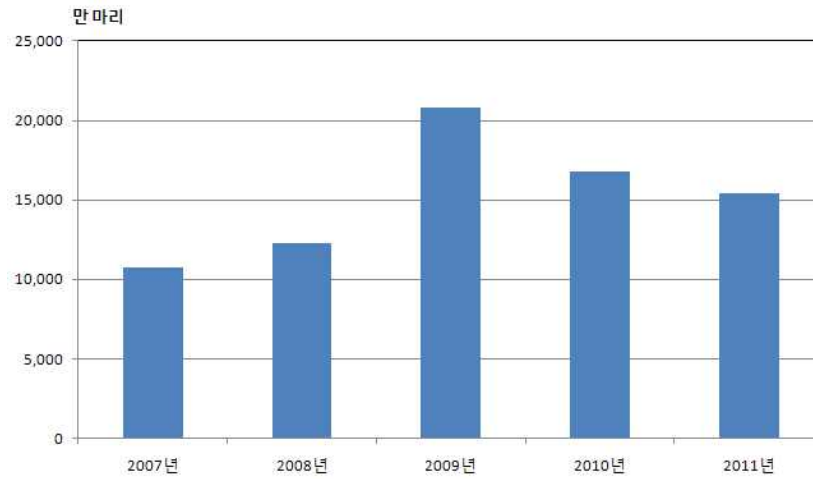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5) 입식 및 양성동향

① 입식동향

- 우럭은 봄철부터 시작해서 초여름까지가 치어 입식기간이며, 주로 5~6월경에 집중적으로 입식이 이루어진다. 2011년에는 1억 5,400만 마리가 입식되었다.
- 2010년에 비해서는 입식량이 8.3% 감소했는데, 이는 일본원전 사고 등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면서 출하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우럭의 대량폐사 등으로 인해 전복 등 다른 품목으로 전환한 어가가 많았는데, 특히 포항에서의 품목 전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19〉 우럭의 입식물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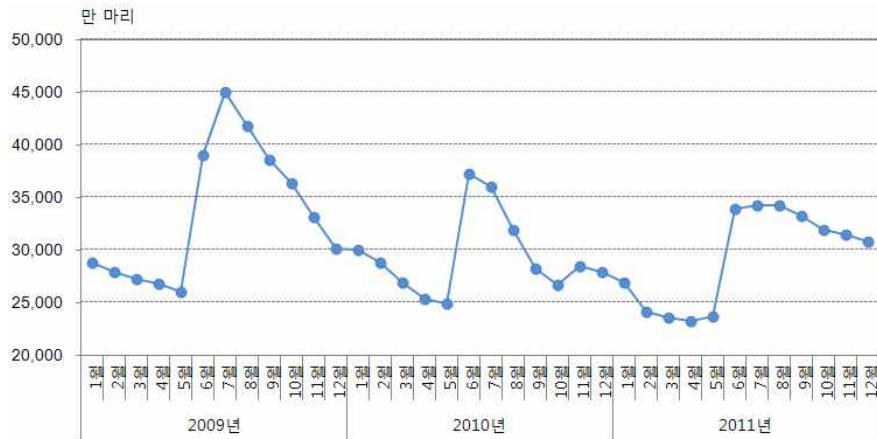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② 양성동향

- 2011년 12월 말 기준 양성물량은 약 3억 1천 만 마리로 2010년 대비 11.4% 많은 물량이다.
- 예년과 달리 입식이 여름까지 계속되었으며, 수요 감소로 인해 출하부진이 이어지면서 양성물량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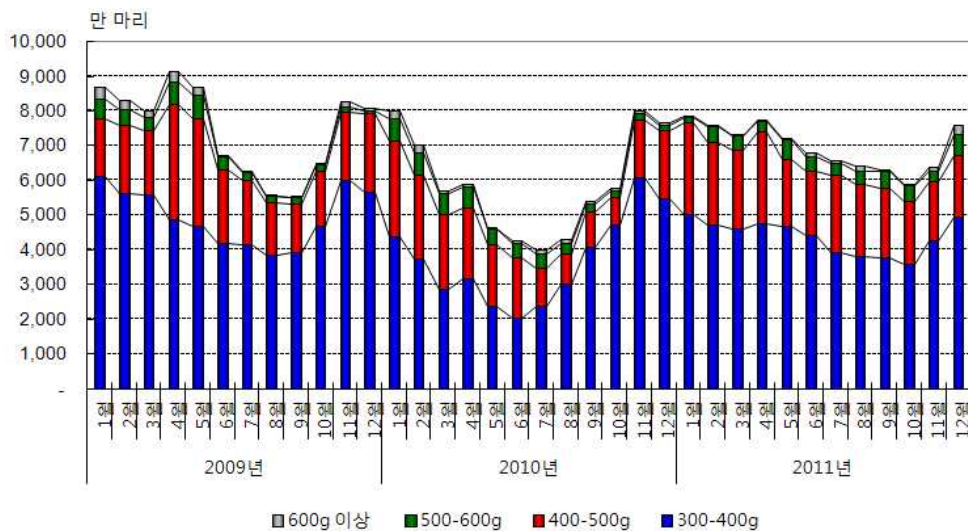
〈그림 9-20〉 우럭 총 양성물량 추이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 300g 이상의 출하가능물량을 살펴보면 7,600여만 마리로 추정되며, 이는 2010년 말에 비해 3%가량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물량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큰 크기 양성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로 인해 2012년 상반기에는 우럭 가격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21〉 우럭의 출하가능물량 추이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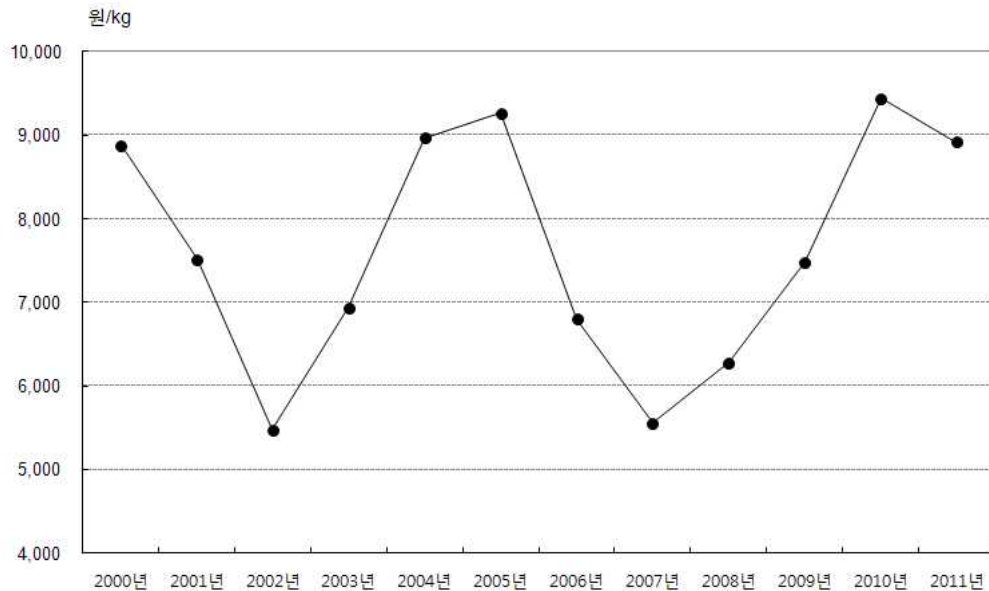
2) 가격

(1) 연도별 가격동향

- 우럭의 가격변동은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4~5년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수산물에서는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도별 우럭의 가격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가격이 하락했다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가격이 높아졌으며, 다시 2007년까

지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이후 2010년까지 가격이 상승한 후 2011년에는 다시 가격이 하락해, 3년 간 가격상승 후 2년간 가격이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림 9-22〉 우럭의 평균단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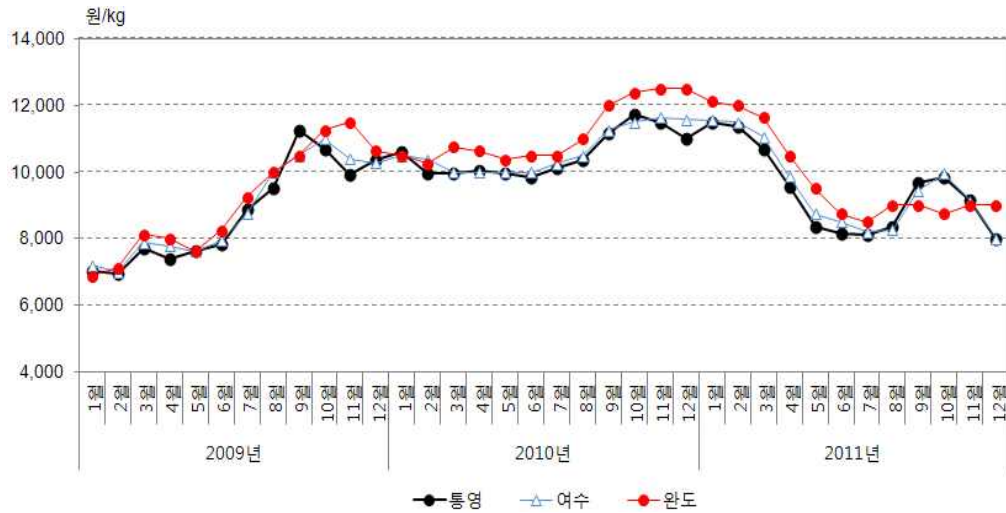
주 : 2011년은 11월까지의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2) 지역별 · 크기별 가격동향

- 우럭은 연중출하를 하는 경남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별로 주 출하시기가 다르지만, 가격변화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 통영, 여수, 완도의 산지가격을 보면, 주로 고정거래가 많은 완도지역에서 타 지역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통영과 여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11년에는 경기부진의 영향과 일본 원전사고 등 수요 감소로 인해 2010년에 비해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그림 9-23〉 우럭의 지역별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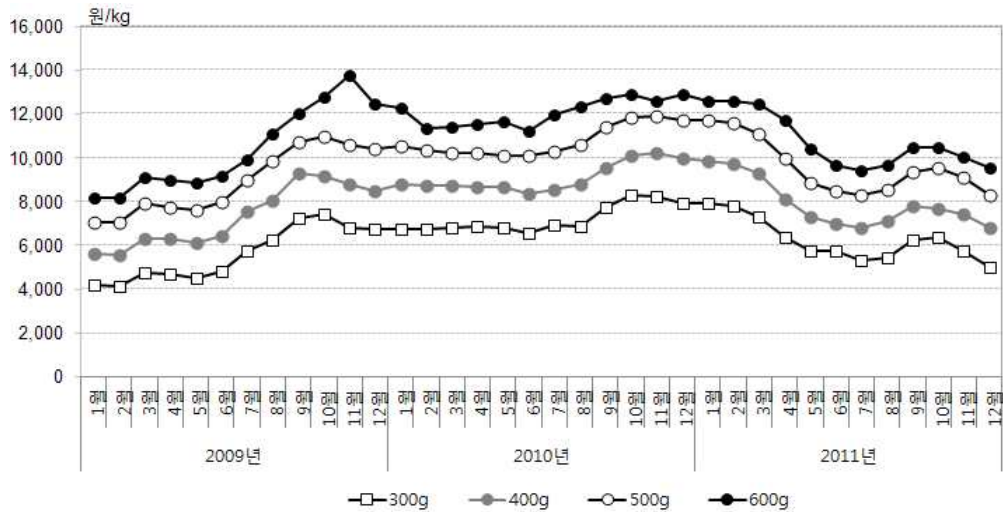


주 : 각 지역 500g 크기의 kg당 가격

자료 :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통영·여수),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완도)

- 또한 물량적체현상이 심화되면서 모든 지역, 모든 크기에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림 9-24〉 우럭의 크기별 가격 동향



주 : 통영, 여수, 완도지역 각 크기의 kg당 평균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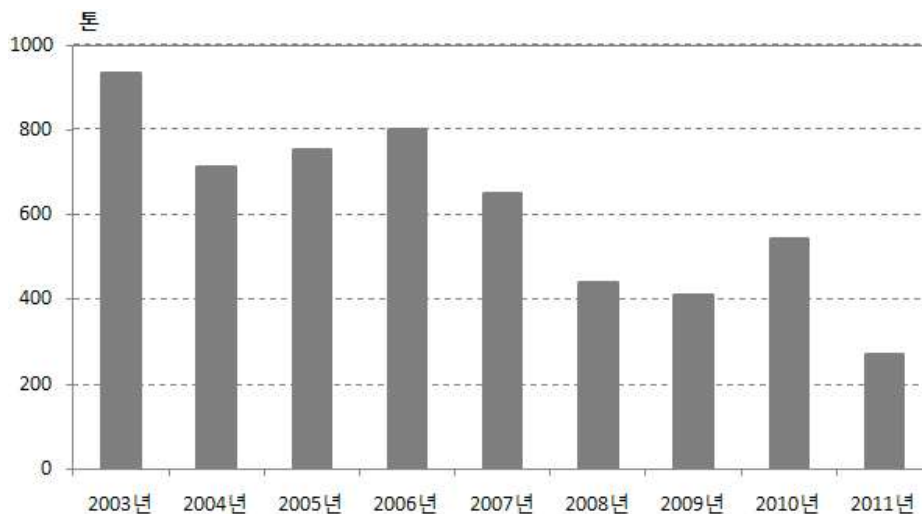
자료 :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통영·여수),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완도)

3) 수입

(1) 연도별 수입동향

- 2011년 우럭의 수입량은 269톤으로 전년에 비해서 50.5% 감소했다.
- 이는 경기부진으로 인한 수요 감소 및 높은 환율, 국내산 우럭의 물량적체로 인한 가격하락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중국 우럭 양식장이 해삼양식장으로 바뀌면서 중국산 우럭의 물량부족 및 가격이 상승한 것도 수입량 감소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그림 9-25〉 연도별 우럭 수입동향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수출입통계」

(2) 월별 수입동향

- 월별 우럭 수입량을 살펴보면 1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물량이 수입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대량수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당분간은 국내외 사정으로 인해 우럭의 대량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국내 우럭 양식 규모가 작아지고 있어, 국내산 우럭의 물량이 부족해 가격이 높아지는 시점에서는 다시 수입이 재개될 여지가 있다.

〈그림 9-26〉 최근 5년간 평균 월별 우럭 평균 수입량 추이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수출입통계」

3. 우럭 수급전망

1) 생산

- 2011년 12월 기준 양성물량은 2010년 대비 11.4% 많은 수준이다.
 - 우럭의 양성기간을 약 2년으로 보았을 때 2012년에 출하가 되는 2010년의 입식물량은 2009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2012년 출하량 감소의 요인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수요 감소로 인해 2011년 출하물량이 적체되어 있으므로, 2012년 출하물량은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따라서 2012년 총 출하량은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인 2만 7,000톤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가격

- 2012년의 우럭 산지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출하가능물량을 살펴보면, 300~400g 크기와 400~500g 크기의 물량은 전년에 비해 각각 6.5%, 5.8% 적은 수준이었으나, 500~600g 크기와 600g 이상 크기는 각각 303.3%, 425.5% 증가해 대형어의 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물량적체에 의한 것으로 2012년 상반기에는 양식어가들의 자금확보와 입식을 위한 가두리 확보 등의 이유로 출하의향이 매우 강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하반기에도 위축된 소비심리가 쉽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우럭의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수출입

- 2012년 우럭 수입량은 2011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2년에도 위축된 소비심리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럭의 수입량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또한 국내산 우럭의 물량이 적체되어 있고, 가격 또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수입량 감소의 원인이 될 것이다.
- 한편 수출량은 극히 소량에 불과하며, 향후 수출시장이 확대되지 않는 한 현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9-4〉 2011년 조피볼락의 국내 소비량 추정

단위 : 톤

구분		2011년 (A)	2012년 (B)	전년 대비 증감 (B/A)
공급	국내 생산량	26,845	26,000~27,000	96.9~100.6
	수입량	269	150~250	55.8~92.9
수요	국내 소비량	27,101	26,140~27,235	96.5~100.5
	수출량	13	10~15	76.9~115.4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치

Ⅲ. 송어 수급동향과 전망

손인배*

목 차

- | | |
|------------------|-------------|
| 1. 서론 | 3. 2012년 전망 |
| 2. 2011년 송어 수급동향 | 1) 생산 |
| 1) 생산 | 2) 가격 |
| 2) 가격 | 3) 수출입 |
| 3) 수입 | 4) 소비 |

1. 서론

- 2011년 송어 생산량은 송어 축제 활성화와 여러 외부적인 요인(구제역, 일본의 원전사태 등)으로 2010년보다 20.7% 많은 2,898톤이 생산되었다.
- 2011년 송어 가격은 연중 꾸준한 출하가 이어져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kg당 8,724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최근 들어 가격이 가장 높았던 2009년의 kg당 7,765원보다도 23.3% 상승한 가격이다.
- 송어 수입은 칠레와 노르웨이에서 주로 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2009년은 칠레의 수급사정 악화로 다소 감소하기도 했으나 수입 증가 추세는 여전히 이어져 2011년에는 최근 10년 중 최대수입량인 918톤을 기록했다.
- 한편, 송어의 최근 3년 평균 공급량은 3,488톤이었다. 이중 국내 생산량이 공급량의 75%를 차지하였으며, 수입은 25%인 881톤이다.
- 또한 송어의 최근 3년 평균 수요량 중, 국내 소비량은 3,106톤으로 전체 수요량의 89%였다. 최근 3년의 평균 수출량은 약 382톤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하였다.

* 위촉연구원

〈표 9-5〉 송어 연도별 수급추이

단위 : 톤

구 분	평균	비율	2009년	2010년	2011년
공 급 량	3,488	1.00	3,338	3,311	3,816
	국내생산량	0.75	2,522	2,401	2,898
	수입량	0.25	816	910	918
수 요 량	3,488	1.00	3,338	3,311	3,816
	국내소비량	0.89	3,214	2,679	3,424
	수출량	0.11	124	632	392

주 : 2010년 11월, 12월은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2008,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2009~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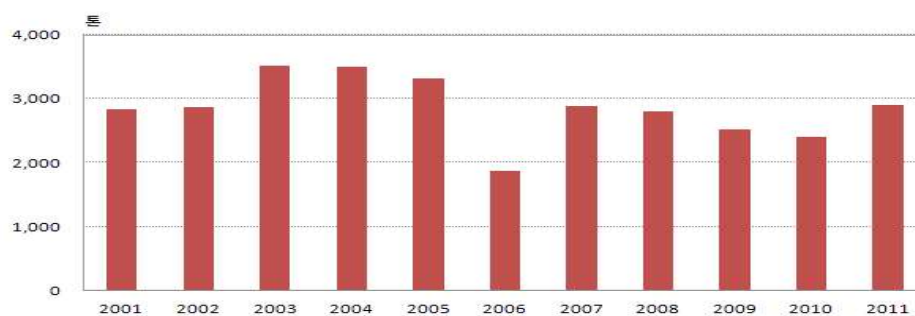
2. 2011년 송어 수급동향

1) 생산

(1) 연도별 생산동향

- 송어의 국내 생산량은 2003년 3,000톤 이상이었던. 그 후 2005년 MG사태 등을 겪으며 2010년까지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던 중 2011년에는 여러 외부 상황으로(송어 축제의 활성화, 구제역 및 일본 원전사태 등) 생산량이 2010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그림 9-27〉 송어 연도별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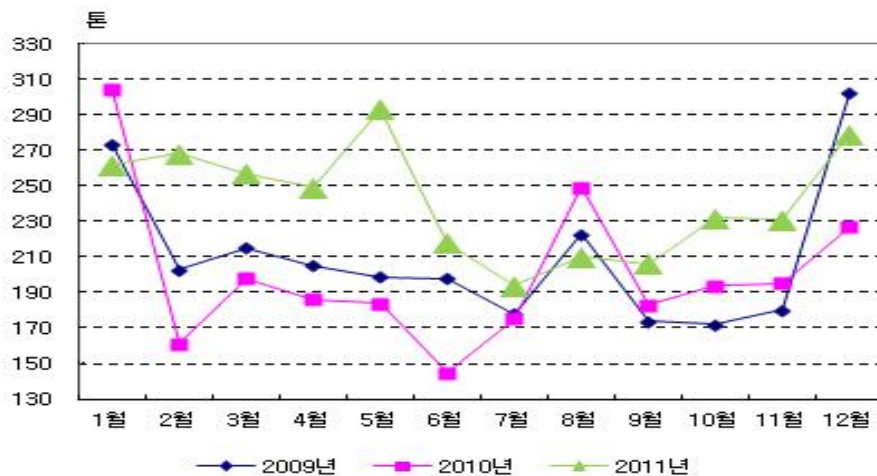
주 : 2011년 11월, 12월은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2000~2009, 이후 자료는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2) 월별 생산동향

- 일반적으로 송어의 주 출하시기는 헛고기가 출하되는 시기(10~11월)로 보았는데, 2008년 평창 송어 축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축제가 활성화 되면서 송어 출하 시기에 변화를 가져왔다.
- 먼저 축제가 시작되는 12월과 1월의 출하량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8월 휴가철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서는 큰 변동 없는 출하 경향을 보이고 있다.
- 2011년에는 구제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중 송어 출하의 월별 변동폭이 가장 적었다.
- 1월과 2월에 축제로 인한 출하가 많았고, 3월과 4월에는 일본 원전사태의 영향으로 해수어에 비해 내수면 어종인 송어의 수요가 많았다. 또한 각종 행사가 많았던 5월과 휴가철이 있었던 8월에는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헛고기 출하 및 축제 활성화로 10월 ~ 12월 송어 출하가 많았다.

〈그림 9-28〉 송어의 월별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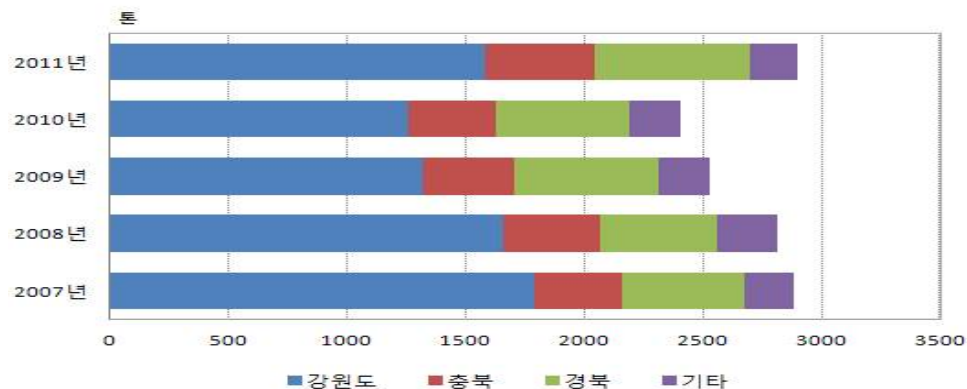
주 : 2011년 11월, 12월은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2008~2009, 이후 자료는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3) 지역별 생산동향

- 최근 5년간 송어의 지역별 생산량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강원도의 생산량과 생산 점유율은 감소했다가 송어 축제 활성화로 다시 생산량과 점유율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 또한 경북 지역의 경우 바다송어 양성을 위한 출하 증가로 생산량과 점유율이 늘고 있다.
- 2011년의 지역별 송어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약 1,600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2,898톤) 54.4%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북이 653톤으로 22.5%, 충북 465톤으로 16.0%, 기타지역이 204톤으로 7.0%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29〉 송어의 지역별 생산량 추이



주 : 2011년 11, 12월은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2007~2009, 이후 자료는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4) 입식 및 양성동향

① 입식

- 송어의 입식기간을 살펴보면 국내산 란(卵)은 11월~익년 6월에 입식이 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주로 수입란이 입식된다.
- 2010년 1월에서 6월까지의 입식량은 460여 만 마리였으나, 2011년 동기간

입식량은 660여 만 마리로 43% 가량 많았다.

- 이렇게 2011년 송어의 입식량이 전년에 비해 늘어난 이유는 겨울철 송어 축제가 활성화 되고 있어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하고, 겨울에 바다로 입식되는 바다송어 종묘를 확보하기 위해 입식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표 9-6〉 송어의 입식물량 동향

단위: 만 마리,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0	입식량	110	78	98	107	54	12	18	3	3	21	18	8	530
	비중	20.8	14.7	18.5	20.2	10.2	2.3	3.4	0.6	0.6	4.0	3.4	1.5	100
2011	입식량	166	165	105	114	77	30	22	7	17	8	14	42	767
	비중	21.6	21.5	13.7	14.9	10.0	3.9	2.9	0.9	2.2	1.0	1.8	5.5	100

주 : 2011년 11, 12월은 잠정치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② 양성

- 연도별·월별 양성물량 추이를 보면 2011년의 경우 전년보다 소형어 물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011년의 입식량이 전년보다 40% 이상 많았기 때문이다.

〈그림 9-30〉 송어의 크기별 양성물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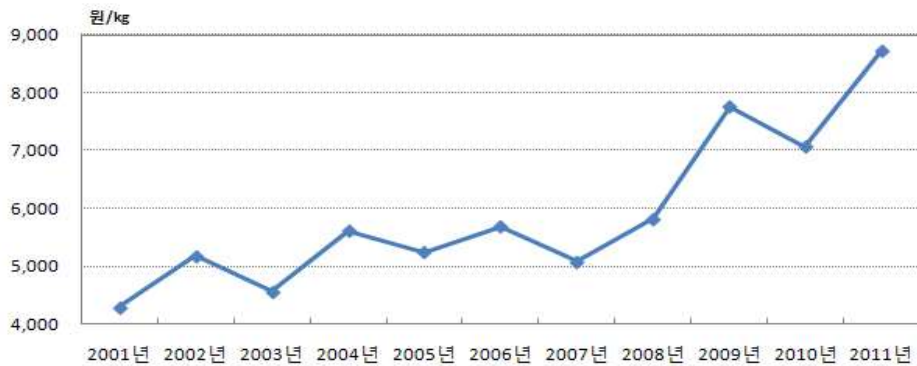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2) 가격

(1) 연도별 가격

- 송어의 가격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kg당 6,000원 이하였는데, 2009년부터는 kg당 7,500원 이상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후 2010년에는 다시 하락하였는데, 2011년에는 kg당 9,000원대에 거의 근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이는 송어 축제 활성화와 작년의 구제역 및 일본 원전 사태로 내수면 송어의 수요가 증가했고, 바다송어 활성화를 위한 물량도 30톤 이상 출하가 되면서 연중 출하가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림 9-31〉 연도별 송어 가격 추이



주 : 2011년 11, 12월은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2001~2009, 이후 자료는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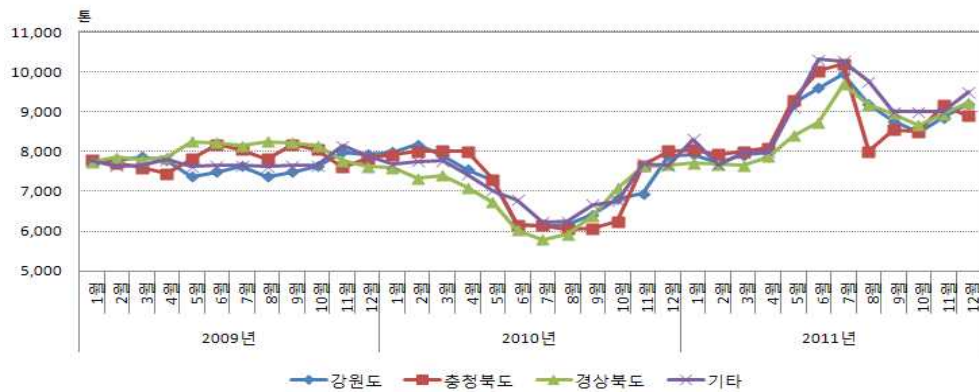
(2) 월별·지역별 가격

- 월별·지역별 가격 동향을 보면 2010년과 2011년에는 가격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적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인데, 2011년 8월의 충북 지역을 제외하면 그 외 지역의 가격 변동 추세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2010년에는 6월 선거와 월드컵 경기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 원인으로 가격

변동이 있었고, 2011년에는 여름철 들어 예년보다 많은 장맛비의 영향으로 출하가 감소했고, 그에 따라 가격도 하락하였다.

- 한편, 2011년 가격 변동을 보면 8월 충북의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하락했다. 이는 장맛비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관광지가 적은 충북의 송어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림 9-32〉 송어의 월별·지역별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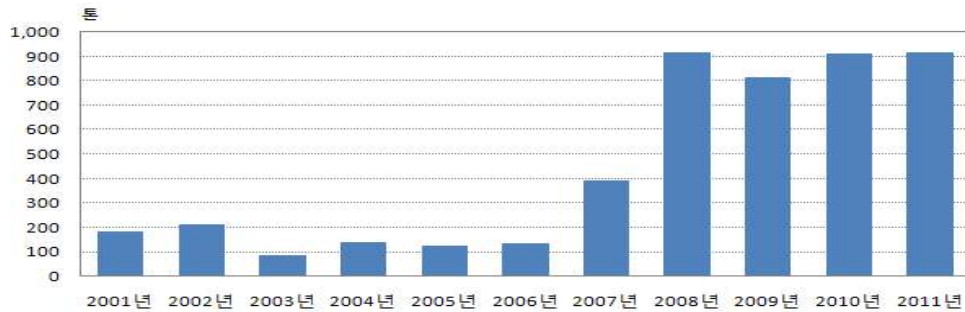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2009, 이후 자료는 수산업관측센터 내부자료

3) 수입

- 송어 수입은 2008년에 917톤을 수입했고, 그 후로도 수입량은 증가 추세는 꾸준히 이어져 2009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매년 900톤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 송어는 지난 10년간 대체로 칠레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고, 그 다음으로 노르웨이에서 수입되었다. 그런데 2009년에는 칠레의 지진 및 어병 등의 영향으로 노르웨이에서 수입을 가장 많이 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칠레에서 송어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다.
- 송어의 수입량은 2007년 이후 크게 증가했는데, 계속된 수요 증가로 2011년에는 918톤이 수입되었다.

〈그림 9-33〉 연도별 송어 수입 동향



3. 2012년 전망

1) 생산

- 2011년 12월 기준(잠정치) 양성물량은 1,915톤이며, 이는 전년 동월보다 19.4% 많은 수준이다.
- 향후 3개월 내에 출하 가능한 600g 이상 크기의 양성물량은 전년보다 42.9% 많은 1,212톤이다. 이는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입식량이 전년보다 44% 가량 많았기 때문이다.
- 또한 600g 미만 크기는 702톤으로 전년보다 7.1% 적은 수준이지만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생산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2012년의 축제 및 바다송어 입식을 위한 수요가 많아 2012년 생산량은 2011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가격

- 송어의 2012년 출하가격은 상반기에는 송어축제가 8곳에서 개최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고, 하반기에는 바다송어의 입식 의향 또한 많아 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1년 평균 가격이 kg 8,724원으로 송어 양식 역사상 가장 높기 때문에 2012년에는 작년의 가격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수출입

- 최근 3년간의 연간 평균 송어 수입량은 880톤 가량이고, 수입 증감률에 있어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따라 금년의 송어 수입량도 칠레의 수급 사정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송어 수출의 경우 국내 생산된 송어가 수출되기보다는 원양 어업 등의 어획을 통한 물량이 수출되기 때문에 수출량을 전망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단, 소비전망을 위해 수출량의 경우 최근 5년간의 평균치로 전망치를 대신 하고자 한다.

4) 소비

- 송어의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 그리고 수출량을 고려해 볼 때, 2012년 송어의 국내 소비량은 대략 3,310~3,410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표 9-7〉 2012년 송어의 국내 소비량 추정

단위 : 톤

구 분		2011년(A)	2012(B)	전년 대비 증감 (B/A)
공급	국내생산량	2,898	3,100~3,200	7.0~10.4
	수입량	918	910	-0.9
수요	국내소비량	3,424	3,310~3,410	-3.3~-0.4
	수출량	392	700	78.6

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제10장 패류의 수급동향과 전망

I. 전복 수급동향과 전망

성진우*

목 차

- | | |
|------------------|-------------|
| 1. 서론 | 3. 2012년 전망 |
| 2. 2011년 전복 수급동향 | 1) 출하 |
| 1) 출하 | 2) 가격 |
| 2) 가격 | 3) 수출 |
| 3) 수출 | 4) 소비 |

1. 서론

- 2011년 3월의 지진 피해로 인해 일본 내 한국산 전복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활전복 수출량이 1,230톤에 이르렀다. 국내 산지가격 상승으로 활전복 수출단가가 2010년에 비해 15.7%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효과가 더해서 수출금액은 5천만 달러를 넘어섰다. 또한 가공전복(밀폐용기) 수출 또한 약 30톤을 기록하면서 활전복 수출에 치중했던 과거에 비해 수출 형태의 다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 한편 2011년에는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전복 폐사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고, 이 문제의 해결이 급선무라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다. 전복 폐사로 인해 시설량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이 이를 따르지 못하게 되었고 시기별 공급 불안정성을 야기했으며 큰 크기 공급이 줄어들게 되어, 결국 8월 이후 전복 가격 급등이라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었다.

* 연구원

- 2012년에도 결국 폐사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큰 크기 전복의 공급이 얼마나 될 것인지, 추석 이후 전복 공급을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가 향후 출하, 수출 등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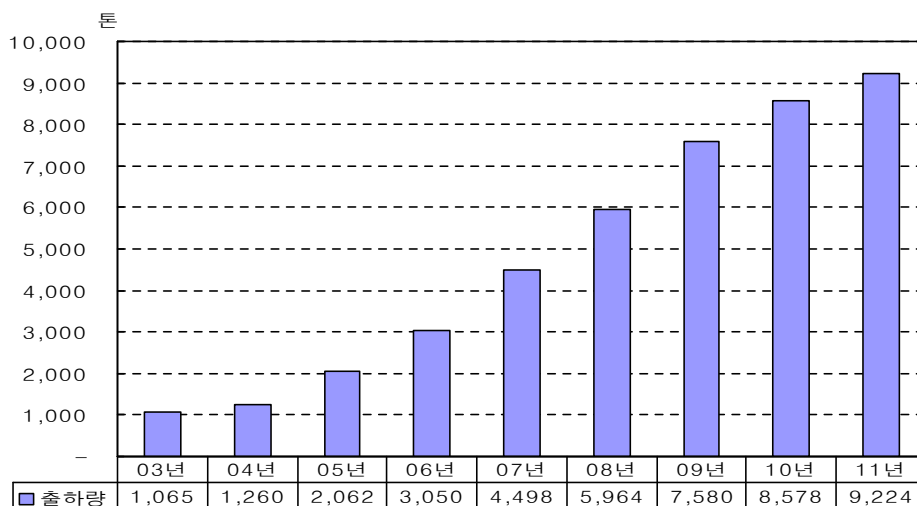
2. 전복 수급동향

1) 출하동향

(1) 연도별 출하현황

- 2011년도 전복 출하량은 2010년에 비해 7.5% 증가한 9,224톤으로 추정된다. 2003년 1,065톤을 기록한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던 전복 출하량이 최근 증가 속도가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
- 전년 대비 출하량의 증가율이 2008년 32.6%, 2009년 27.1%, 2010년 13.2%로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2011년의 증가율은 7.5%까지 떨어졌다.

〈그림 10-1〉 연도별 출하동향



자료 : '01~'06년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07~'10년 수산업관측센터

- 이는 시설 밀집 등으로 인해 어장 환경이 나빠져 전복 폐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폐사가 증가함에 따라 입식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출하될 물량의 비중이 감소했고, 또한 생산자들이 폐사가 많이 발생하기 이전에 출하하는 경향으로 인해 양성 기간이 짧아져 출하되는 전복의 평균적인 크기가 감소했다. 따라서 출하량 증가 속도가 최근 현저하게 둔화되게 되었다.

(2) 월별 출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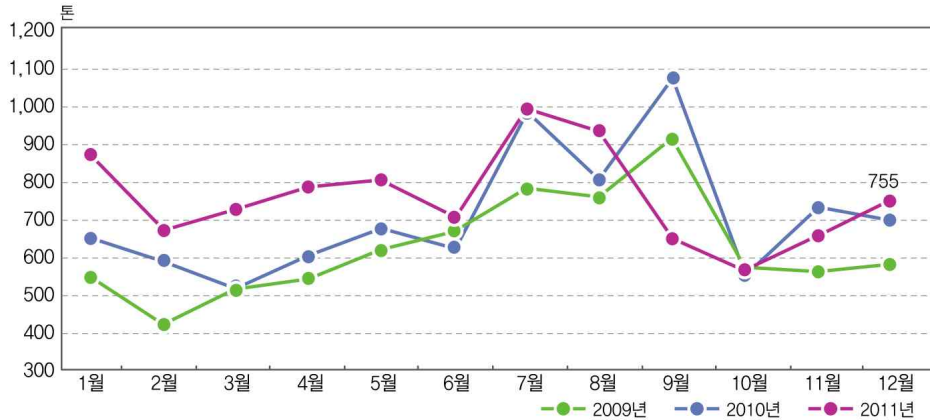
- 2011년에도 전반적인 월별 출하 패턴은 예년과 비슷했다. 즉 봄철에는 폐사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이전에 출하하려는 생산자들로 인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았으나, 추석 이후에는 상황이 반전되었다.
- 한편 예년과 달리 추석이 있는 9월의 출하량이 8월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월 12일이 추석이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출하가 8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되어 9월 초순에 끝났다. 따라서 9월 출하가 예년과 달리 많지 않았다.

〈표 10-1〉 최근 3년간 분기별 출하 비중

구 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2009년	20%	24%	33%	23%
2010년	21%	22%	34%	23%
2011년	25%	25%	28%	22%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그림 10-2〉 월별 전복 출하량 추이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 <표 10-1>를 보면 2011년의 3/4분기 출하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월 초 태풍으로 인해 해상가두리 손실이 일부 발생했고, 고수온기 전복 폐사가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중 출하 비중이 분기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시기별 수급 불균형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더욱 심해졌음을 나타낸다. 즉 통상적으로 국내 수요와 수출 수요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많은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하반기에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져 이 시기의 출하량 비중이 커야 시기별 수급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 2011년에는 그러지 못한 채 하반기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수출업자들이 물량을 쉽게 확보하지 못해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3) 치패 입식 동향

- 2011년 11~12월까지 입식된 치패 입식량은 2010년 같은 기간에 입식된 물량보다 3% 늘어난 3억 8,500만 마리로 추정된다.
- 12월 강풍과 한파 등으로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해 치패 입식을 봄철로 연기한 생산자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12월의 입식량은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다.

- 한편 치패입식량을 연산별로 보면 2010년산 치패 입식량은 약 4억 8,800만 마리로 추정되는데, 2011년산 치패 입식은 이보다 6% 많은 5억 2천만 마리로 추정된다.
- 전복 양식시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입식량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 전복 양성 동향

-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복 양성물량은 10억 9,800만 마리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10년 12월의 9억 9,300만 마리에 비해 11% 많은 수준이다.
- 또한 2년산과 3년산 물량은 작년 동월보다 7% 늘어난 3억 3,400만 마리로 추정된다.
- 전복 양성물량이 증가하는 만큼 전복 출하량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폐사가 증가하고 있고, 양성기간 단축으로 인해 평균적인 출하 크기가 작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10-2〉 전복 양성물량(2011년 12월말 기준)

단위: 만 마리

구 분	합계	1년 미만	1년산	2년산	3년산 이상
합 계	109,823	38,187	38,220	27,515	5,901
완 도	86,615	33,731	29,870	20,500	2,515
기 타	23,207	4,456	8,350	7,016	3,386

주 : 1년 미만(2011년산)은 2011년 5월경에 생산된 종묘가 치패로 입식된 것이고, 1년산(2010년산)은 2010년 5월, 2년산(2009년산)은 2009년 5월경에 생산된 전복 종묘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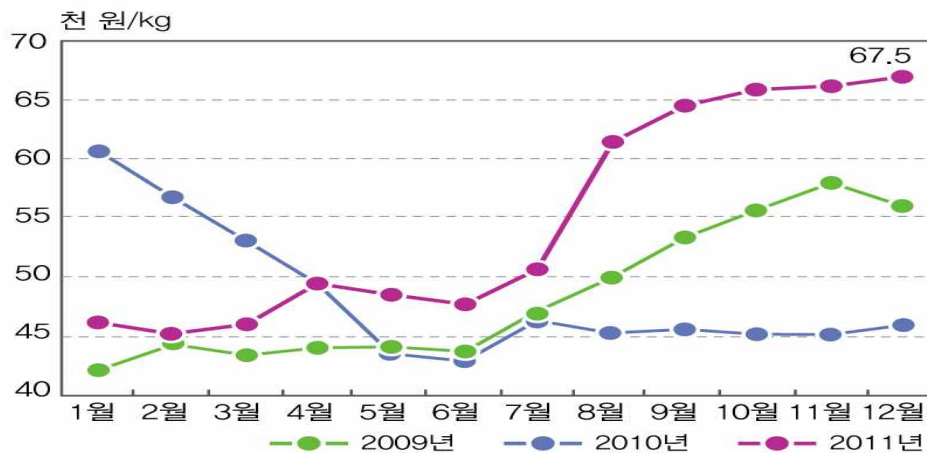
2) 가격동향

(1) 산지가격

- 2011년 상반기 동안 큰 변동이 없었던 전복 산지가격이 8월에 급등한 채 연말까지 하락하지 않고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 8월 초 태풍으로 인해 해상가두리 시설이 일부 파손되면서 출하해야 할 크기의 전복 폐사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추석 물량을 확보하려는 경향까지 겹치면서 산지의 활전복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또한 9월 이후 일본 수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 혹은 증가했으나, 산지의 폐사가 지속되었고 추석이전에 대부분 출하를 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추석이 지난 이후에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연말까지 강세를 나타냈다.
- 모든 크기의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2010년보다 상승했는데, 크기별 상승률에는 차이를 보였다. 즉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kg당 8마리, 10마리 등의 큰 크기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약 40% 상승했는데, kg당 20마리의 가격 상승률은 29%에 그쳤다.
- 이처럼 크기별로 가격이 차이가 난 원인은 폐사 문제 때문이었다. 생산자들이 폐사를 줄이기 위해 출하 기간을 단축시킴에 따라 큰 크기 전복의 출하 가능한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양성물량은 많았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큰 크기보다 작았다.

〈그림 10-3〉 활전복 산지가격(kg당 10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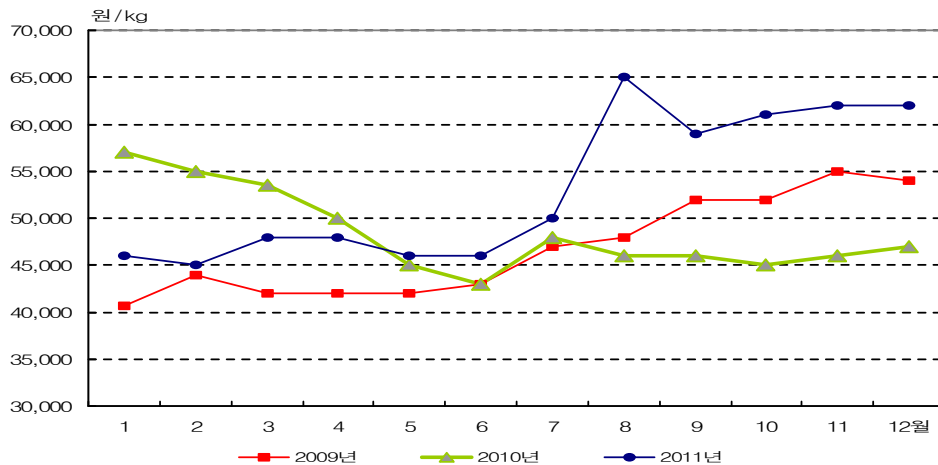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2) 도매가격

- 하남활어시장의 경우, 도매가격이 산지가격과 마찬가지로 상반기 동안 안정세를 보였으나, 8월에 급등세를 보였다. 9월에는 산지가격과 달리 도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으나, 10월부터 다시금 강세를 보임에 따라 전반적으로 산지가격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그림 10-4〉 월별 활전복 도매가격(kg당 10마리) 추이



자료: 수산업관측센터

주: 하남활어도매시장의 kg당 10마리 조사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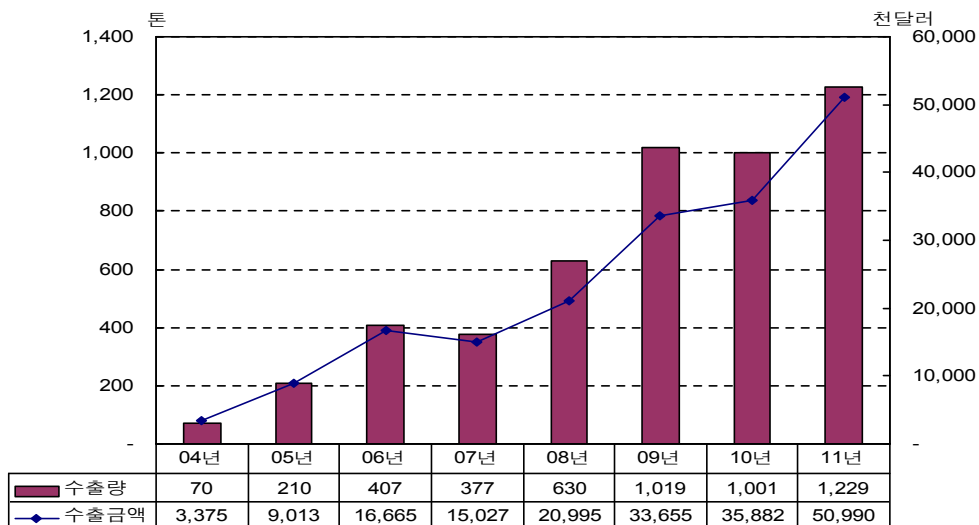
- 2011년 노량진 시장의 활전복 경매량은 500톤으로 전년의 426톤보다 17.4% 증가했는데, 금액으로는 전년보다 12% 증가한 약 173억 원이었다. 따라서 연평균 경락단가는 2010년 36,232원에서 2011년 34,539원으로 4.7% 하락했다.
- 산지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량진 시장의 경락단가가 하락을 한 이유는 2010년보다 경매 물량이 큰 크기보다 작은 크기가 더 많이 차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수출동향

(1) 수출동향

- 2011년 활전복 수출량은 1,229톤으로 전년보다 22.8% 증가했다. 또한 수출금액도 5,099만 달러로 전년보다 42.1%나 증가했고, 수출 단가는 전년보다 1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11년 3월 지진으로 인해 일본의 주요 전복 산지가 큰 피해를 입었다. 또한 원전사고에 따라 일본산의 식품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국산 전복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그림 10-5〉 연도별 활전복 수출량 및 수출단가



주 : 2010년 12월 수출량은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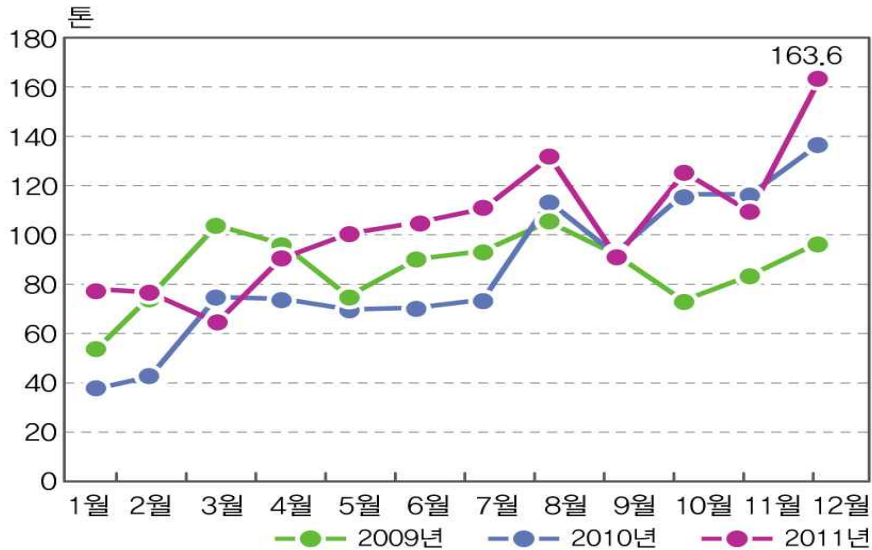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수출입통계」

- 가공전복은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4톤, 8.5톤이 수출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되지 못했다.
- 그러나 2010년 25톤이었던 가공전복의 수출이 2011년에는 29.7톤으로 18.2% 증가했고, 수출금액은 137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45.7%나 늘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약 30톤 규모로 수출함에 따라 가공전복의 수

출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 다만 국내 전복 공급 여건이 좋지 못하고, 높은 산지 가격으로 인해 가공할 수 있는 전복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그림 10-6〉 월별 활전복 수출량 추이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수출입통계」

3. 전복 수급전망

1) 출하전망

- 최근의 전복 양성물량을 기준으로 볼 때, 2012년의 연간 출하량은 전년보다 약 5% 증가한 9,700톤으로 추정된다.
- 시설량과 입식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2년에도 폐사 문제가 계속되어 작은 크기 출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출하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2) 가격전망

- 2011년 하반기 동안 지속적으로 강세였던 활전복 산지가격은 2012년 상반기 동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봄철에 출하가 대폭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세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은 매우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여름철 폐사가 작년보다 더욱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 추석을 전후로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2012년 전복 산지가격은 상반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2011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3) 수출전망

- 2012년 활전복 수출량은 1,400여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11년에 비해 15% 많은 물량이다.
- 이는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일본의 한국산 활전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기간별로는 한국의 수출물량 공급이 원활한 시기인 상반기에 2011년 대비 수출 증가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상반기 동안 산지 전복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출 여건은 오히려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4) 소비전망

- 전복의 국내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 둔화 및 산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 2012년에는 출하량 9,700톤 중 8,300여 톤(86%)이 국내에서 소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1년에 비해 약 4% 많은 양이다.

〈표 10-3〉 연도별 전복의 국내 소비량 추정

단위 : 톤, %

구분	공급		수요		수출비율 B/A(%)
	출하량(A)	수입량	수출량(B)	국내소비량(B)	
2006년	3,050	51	407	2,694	13.3
2007년	4,498	48	377	4,021	8.4
2008년	5,964	23	630	5,357	10.6
2009년	7,530	14	1,019	6,525	13.4
2010년	8,578	13	1,001	7,590	11.7
2011년	9,224	6	1,229	8,001	13.3
2012년	9,700	6	1,400	8,306	14.2

주 : 1) 2012년의 출하량은 실제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임

2) ‘국내소비량=공급(출하량+수입량)-수출량’으로 계산되었음

자료 : '01~'06년은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07~'11년은 수산업관측센터

II. 굴 수급동향과 전망

노승국*

목 차

- | | |
|-----------------|-------------|
| 1. 서론 | 3. 2012년 전망 |
| 2. 2011년 굴 수급동향 | 1) 생산 |
| 1) 생산 | 2) 가격 |
| 2) 가격 | 3) 수출입 |
| 3) 수출입 | 4) 소비 |

1. 서론

- 최근 3년간 국내 굴 가격은 예년 대비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 물가 상승 및 각종 생산비용의 인상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그 외 수요를 견인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발생하면서 굴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 2011년에도 우리나라 굴산업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이 대지진 피해를 입으면서, 굴 수출이 증가하는 등 일부 반사이익을 누렸다. 해외 수출 수요의 증가로 인해 2011년 국내 굴 가격은 전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
- 2012년산 굴 시설량은 전년산보다 소폭 증가한 2,295만 연이었으며, 2011년 12월 말 기준 잔여시설량은 초기시설량의 57.2% 수준인 1,338만 연으로 전년산 대비 50만 연이 많았다.
- 2011년 굴 수출량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17,157톤이었다. 이는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수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2년 굴 수출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2011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2년산 굴 생산량은 전년산보다 많은 34,500~36,0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

* 위촉연구원

상되며, 2012년 국내 소비량도 전년보다 많은 19,600~21,000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2011년 수급동향

1) 생산¹⁾

(1) 시설현황

- 굴양식 표본어가 조사 결과, 2012년산 굴 시설량은 2011년산 대비 4.6% 증가한 2,295만 연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의 시설량은 1,798만 연으로 전년산보다 4.4% 증가하였고, 전남과 기타지역도 전년산 대비 각각 4.1%,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산 시설량이 증가한 것은 최근 3년간 굴 가격이 예년보다 높게 형성되었고, 대부분의 생산자가 지난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수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2012년산 굴 시설의 지역별 비중은 경남이 전체의 78.3%를 차지하였으며, 전남이 18.6%, 기타지역이 3.0%였다.

〈표 10-4〉 굴 시설량(5m 기준 수하연 수) 현황

단위 : 만 연, %

구분	2011년산	2012년산	2011년산 대비		지역별 비중
			증감	증감률	
전 국	2,194	2,295	101	4.6	100.0
경 남	1,722	1,798	76	4.4	78.3
전 남	411	428	17	4.1	18.6
기 타	61	69	8	13.1	3.0

주 : 1)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수하연의 길이를 5m로 환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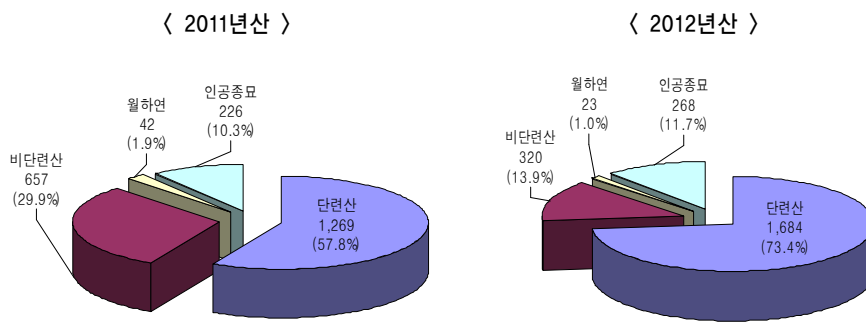
2) 기타지역은 충남, 강원, 경기, 인천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1) 굴은 생산주기가 뚜렷한 품종으로 보통 9월경부터 이듬해 5월까지를 한 어기(漁期, fishing season)로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굴의 생산어기에 따른 ‘연산’ 개념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2011년산 : 2010년 9월~2011년 5월, 2012년산 : 2011년 9월~12월)

- 2012년산 굴 시설 비중을 보면, 단련산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단련산이 전체시설의 73.4%인 1,684만 연으로 가장 많았고, 비단련산은 13.9%인 320만 연이었다. 한편 인공종묘는 268만 연, 월하연은 23만 연으로 각각 11.7%, 1.0%를 차지하였다.
 - 이번 여기에 단련산 종패의 수급이 양호하여 단련산의 비중이 2011년산에 비해 크게 높아졌고, 인공종묘도 종묘생산업체의 증가로 전년산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반면, 비단련산과 월하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월하연의 경우 2011년산 여기 말 수출이 크게 늘어 예년보다 훨씬 적어졌다.

〈그림 10-7〉 굴 시설 비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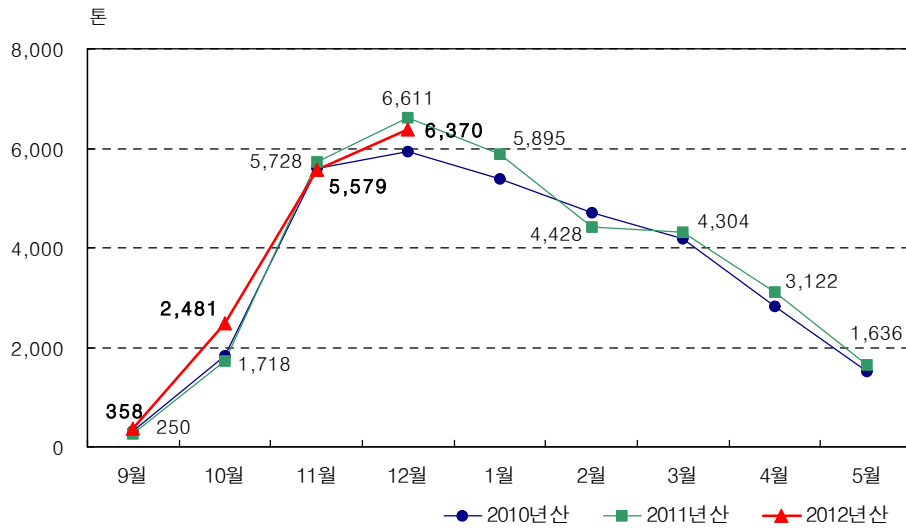


자료 : 상동

(2) 생산현황

- 2011년 9~12월까지의 2012년산 굴 생산량은 2011년산 동기간에 비해 3.4% 증가한 14,788톤으로 추정되었다.
 - 이는 2012년산의 초기시설량이 전년산보다 많았고, 여기 초 알굴 수출 호조로 채취가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 초에 주로 생산되는 월하 시설이 극히 적었고, 양성상태 부진으로 비만도가 낮아 생산량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그림 10-8〉 연산별 월별 굴 생산량 추이



자료 : 상동

- 한편 2011년 누적 생산량은 34,173톤으로 2010년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5〉 연도별 · 지역별 굴 생산량

단위 : 만 톤, %

구분	전국	경남	전남	기타
2009년	32,289	27,854	4,063	372
2010년	32,951	28,114	4,477	360
2011년	34,173	29,088	4,457	628
전년 대비 증감률	3.7	3.5	-0.4	74.4

주 : 1) 5m 수하연 기준이며, 기타지역은 충남, 강원, 경기, 인천임

2) 기타지역은 생산이 가능한 시설만 포함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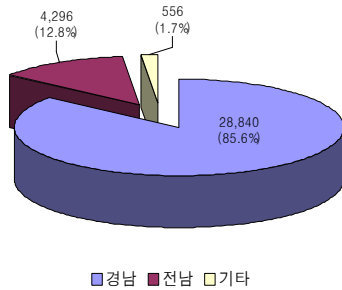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 2012년산 굴의 지역별 생산량을 보면, 경남이 12,838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86.8%를 차지했으며, 전남은 11.6%인 1,721톤, 기타지역은 1.5%인 229톤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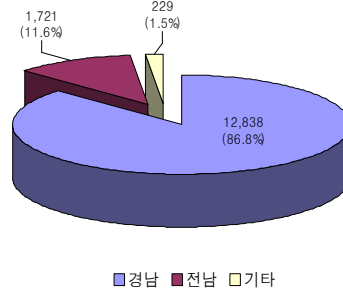
〈그림 10-9〉 연산별 지역별 굴 생산량 현황

단위 : 톤

〈 2011년산 〉



〈 2012년산 〉



자료 : 상동

(3) 잔여시설량 현황

- 2012년산의 12월 말 기준 잔여시설량은 초기시설의 57.2% 수준인 1,338만 연 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잔여시설량 비중은 2011년산보다 다소 낮으나, 잔여시설량은 전년산 대비 50만 연이 많았다.

〈표 10-6〉 12월 말 굴 잔여시설량 현황

단위 : 만 연, %

구분	초기 시설량	12월 채취량	잔여시설량(만 연)		잔여시설량 비중(%)	
			2011년산	2012년산	2011년산	2012년산
전국	2,295	441	1,288	1,338	58.7	57.2
경남	1,798	323	1,006	1,081	58.4	60.2
전남	428	95	242	230	59.0	53.6
기타	69	23	39	27	64.8	39.1

주 : 1) 5m 수하연 기준이며, 기타지역은 충남, 강원, 경기, 인천임

2) 기타지역은 생산이 가능한 시설만 포함된 것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4) 양성상태

- 2012년산 굴의 양성상태는 전년산보다 폐사는 적으나 비만이 대체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2012년산 굴 양성상태는 전년산보다 폐사는 훨씬 적었으나, 성장 및 비만이 부진한 지역이 많았다.
- 지역별로 보면, 경남은 대부분 지역에서 비만도가 좋지 않았고, 남해 등 일부 지역은 성장도 부진했다. 11월 초에는 무해성 이상 적조가 발생하여 굴 성장 및 출하제품의 품질에 다소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 전남은 지역별로 양성상태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전남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여수지역은 화양면 지선의 일부 폐사를 제외하고 양성상태가 예년보다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고흥과 진도지역은 태풍으로 인한 시설 피해가 있었고, 양성상태도 부진했다. 특히 고흥지역은 전년 대비 성장이 더디고, 비만 부진이 12월까지 지속되었다.
- 한편 충남은 전반적으로 양성상태가 양호하였으나, 서산지역에서 성장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7〉 2012년산 굴 양성상태

지 역		성장	비만도	폐사	병해	비 고
통영	한산만	○	△	○	○	비만 부진
	인평·도산만	△	△	○	○	성장 및 비만 부진
	지도·원문만	△	△	○	○	성장 및 비만 부진
고성	고성·자란만	△	△	○	○	성장 및 비만 부진
거제	거제만	△	△	○	○	성장 및 비만 부진
	진해만	△	△	○	○	성장 및 비만 부진
남해	강진만	○	△	○	○	비만 부진
여수	가막·여수만	○	○	▽	○	양성상태 대체로 양호, 일부 폐사
고흥	-	△	△	○	○	성장 및 비만 부진
완도	-	○	○	○	○	양성상태 양호
진도	-	○	○	▽	○	태풍으로 일부 폐사
서산·태안	가로림만 등	△	○	○	○	양성상태 대체로 양호, 서산 성장 부진

주 : ○는 좋음, △는 보통, ×는 나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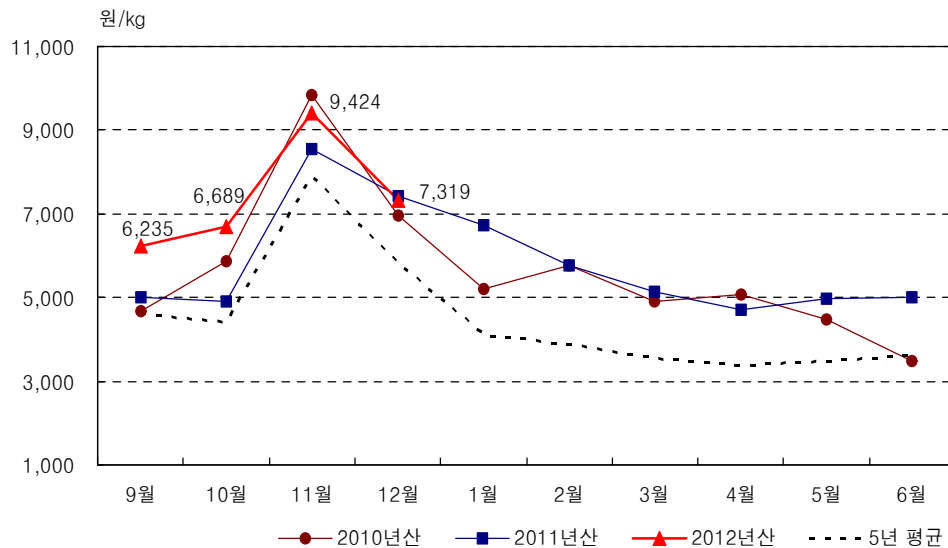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2) 가격

(1) 산지가격 동향

- 2012년산 산지가격은 2011년산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 특히 9~10월에는 대일(對日) 수출 수요로 인해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월하 시설 감소 및 비만 부진에 따른 큰 크기 굴의 공급이 적었던 점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이러한 추세는 김장철 김장용 굴 수요와 맞물려 11월에도 이어졌으나, 12월 들어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림 10-10〉 연산별 · 월별 산지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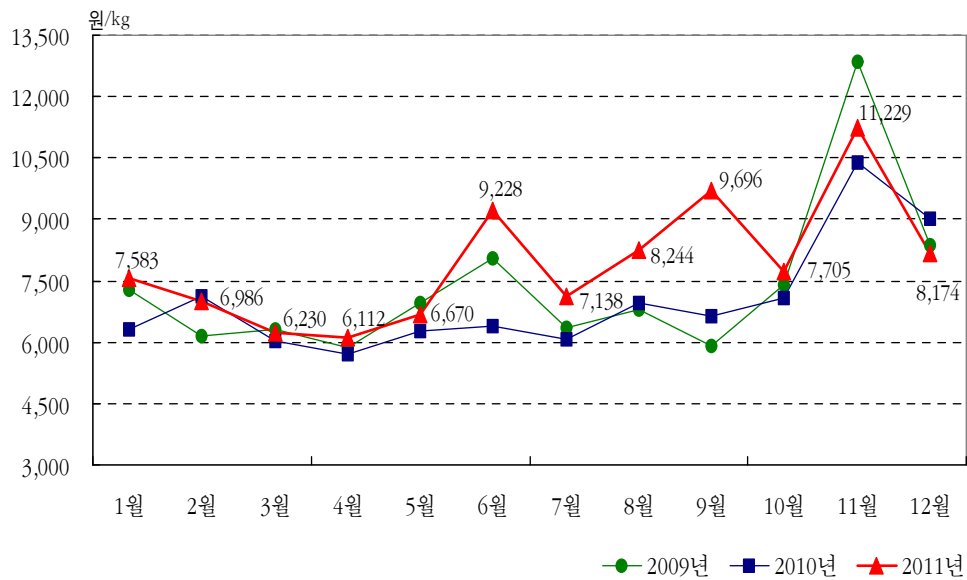


주 : 1) '5년 평균'은 2006년~2010년 기간의 최대,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임
 2) 9월은 고성군수협, 10월~6월은 굴수하식수협 평균 위판 가격임
 자료 : 굴수하식수협(통영), 고성군수협

(2) 도매가격 동향

-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거래된 2011년 굴 도매가격은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 소비를 촉진하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예년 대비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한 것은 수출 호조의 영향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 월별 가격 추이를 보면, 4월까지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5월 이후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히 2012년산 굴이 처음 출하되는 9월에 증가폭이 매우 컸는데, 이는 수출이 증가하면서 반입량이 전년 대비 적었기 때문이다. 한편 11월까지 전년 대비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던 도매가격은, 12월에는 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10-11〉 연도별 · 월별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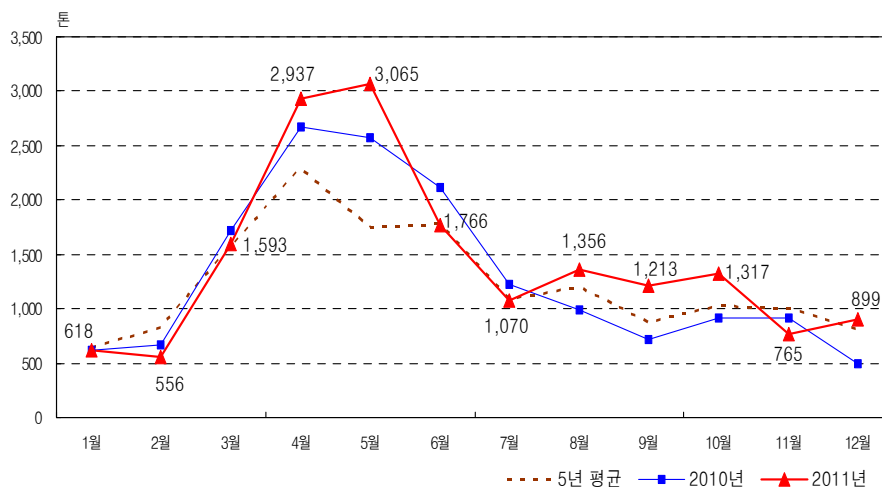
자료: 노량진수산시장

3) 수출입

(1) 수출동향

- 2011년 굴 수출량은 2010년 대비 9.8% 증가한 17,157톤이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수출량보다 많은 물량으로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 수출금액 기준으로 보면, 2011년 굴 수출금액은 8,212만 달러로 2010년 대비 24.5% 증가하였다. 수출금액의 증가폭이 수출량보다 큰 이유는 물가 상승과 더불어 수출되는 제품의 비중 변화 때문이다. 즉 가공제품 중 다른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수출단가가 높은 냉동굴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12〉 연도별 월별 수출량 추이



주 : 1) 건조굴 5배, 통조림 2.5배 수율을 적용하여 알굴로 환산함(치패는 제외)
 2) '5년 평균'은 2006~2010년 기간의 최대,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임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 제품별 수출동향을 보면, 건조굴을 제외한 모든 제품의 수출량이 2010년 대비 증가했다. 냉동굴은 전년 대비 19.3% 증가했고, 알굴과 통조림도 전년보다 각

각 12.4%, 13.1% 많았다. 이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태의 영향으로 한국산 굴에 대한 해외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 한편 건조굴 수출량은 전년 대비 11.4% 적었는데, 이는 일본 대지진에 따른 일본 내 굴 소비 부진으로 인해 일본산 굴이 건조굴로 대량 가공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산 제품 기피 현상 등으로 일본산 건조굴이 저가로 대량 유통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산 건조굴 제품의 수출이 부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제품별 수출량 비중은 냉동굴이 7,093톤(41.3%)으로 2010년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통조림 6,071톤(35.4%), 건조굴 3,160톤(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8〉 연도별 제품별 굴 수출 동향

단위 : 톤, 천 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비중	2010년 대비 증감률
알굴	중량	440	742	833	4.9	12.4
	금액	3,280	5,561	8,063	9.8	45.0
냉동굴	중량	4,457	5,944	7,093	41.3	19.3
	금액	21,754	33,346	44,866	54.6	34.5
건조굴	중량	1,782	3,565	3,160	18.4	-11.4
	금액	6,010	14,791	13,992	17.0	-5.4
염(수)장	중량	1	2	0	0.0	-100.0
	금액	7	15	0	0.0	-100.0
통조림	중량	5,436	5,367	6,071	35.4	13.1
	금액	11,135	12,258	15,201	18.5	24.0
합계	중량	12,116	15,619	17,156	100.0	9.8
	금액	42,187	65,971	82,122	100.0	24.5

주 : 상동

자료 : 상동

(2) 수입동향

- 2011년 굴 수입량은 2010년보다 67.8% 증가한 131톤이었다. 제품별로 보면, 냉동굴과 통조림은 각각 6톤, 20톤이 수입되어 전년보다 수입량이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2009~10년에 수입 실적이 없었던 염장·염수장 제품은 105톤이 수입되었다.

〈표 10-9〉 연도별 제품별 굴 수입 동향

단위 : 톤, 천 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0년 대비 증감률
알굴	중량	0	0	0	-100.0
	금액	0	1	0	-100.0
냉동굴	중량	69	19	6	-68.7
	금액	288	134	44	-67.0
건조굴	중량	0	0	0	-
	금액	0	0	0	-
염(수)장	중량	0	0	105	-
	금액	0	0	208	-
통조림	중량	120	59	20	-66.9
	금액	189	103	85	-18.2
합계	중량	189	78	131	67.8
	금액	477	239	337	41.4

주 : 상동

자료 : 상동

3. 2012년 수급전망

1) 생산

- 올해 해황 여건이 2011년과 비슷하다는 가정 하에, 2011년 12월 말 기준 잔여 시설량과 현재까지 수하연당 평균 알굴 생산량, 예상 월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012년산 알굴 생산량은 전년산보다 많은 34,500~36,000여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잔여시설량이 전년 동 시점보다 많고, 2012년 1월 들어 굴 비만도가 급격하게 호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2년산 알굴 생산량은 현재 전망치보다 더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10-10〉 2012년산 굴 생산 전망

단위 : 톤, %

구분	2010년산	2011년산	2012년산	2011년산 대비
생산량	32,323	33,692	34,500~36,000	2.4~6.9

주 : 월하 예상량을 제외한 잔여시설량에 현재까지의 수하연 당 평균 알굴 생산량을 곱한 결과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2) 가격

- 2012년 굴 가격은 작년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 및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산 굴에 대한 해외 수요도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여, 국내 공급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 그러나 예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3) 수출입

- 2011년 굴 수출은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2012년 굴 수출은 2011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대부분의 가공수출업체들이 경기 불황을 고려하여 감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본의 굴양식시설 피해 복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굴 수입은 주로 냉동굴과 통조림 제품을 중심으로 소량 거래되고 있는데, 2012년에는 작년보다 적은 100여 톤 정도가 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소비

- 2012년산 굴의 국내 소비량은 생산량 증가와 수출량 감소로 인해 2011년산보다 많은 19,617~20,886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총생산량의 56.9~58.0%에 해당되는 양이다.

〈표 10-11〉 2011년산 굴의 국내 소비량 추정

단위: 톤, %

구분	공급		수요		B/A
	생산량(A)	수입량	수출량	국내소비량(B)	
2010년	32,323	78	15,619	16,782	51.9
2011년	33,692	131	17,156	16,667	49.5
2012년	34,500~36,000	105~109	14,988~15,223	19,617~20,886	56.9~58.0

주 : 1) ‘생산량’은 연산별 수치이며, 수입량과 수출량은 연도별 수치임

2) ‘국내 소비량=공급(생산량+수입량)-수출량’으로 계산되었음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2012 수산전망대회
차세대 수산생명산업의 원년

2012년 2월 2일 인쇄

2012년 2월 3일 발행

편집겸
발행인 김 학 소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전화 2105-2700 FAX : 2105-2800

등록 1984년 8월 6일 제16-80호

비매품